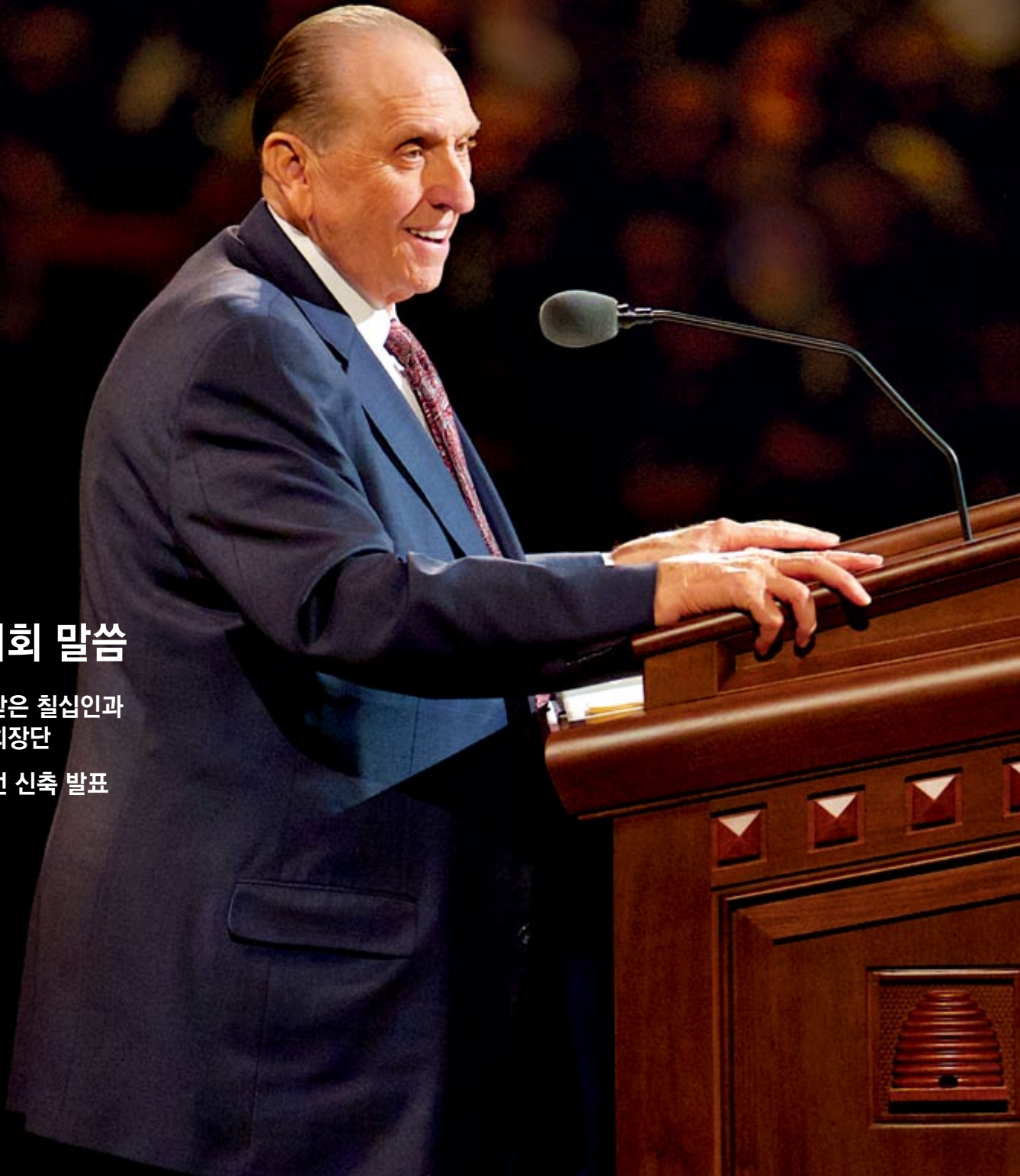


# 리아호나

## 연차 대회 말씀

새로 부름 받은 칠십인과  
본부 청년 회장단

두 개의 성전 신축 발표





© Joseph Briskey, 복서(근지)

### 실로아를 찾아서, 조셉 브리키

예루살렘에 있는 실로아 못(실로암)은 성벽 외곽의 샘에서 흘러 들어온 물로 채워진다. 그 지역에서 유일하게 맑은 실로아 물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시는 권능의 상징이 되어왔다. 이사야 8장 6~8절에 기록된 것처럼 이사야는 이스라엘 왕국이 두 왕을 편들어 주님을 배척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것은 현실이 되었다. 하지만 이사야 시대의 사람들과는 달리 이 여인은 실로아의 맑은 물을 찾고 있었다. 즉 상징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과 보호를 찾고 있었던 것이다.

# 연차 대회 2013년 목차

제50권 · 제5호

## 토요일 오전 모임

- 4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6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 9 견고한 기초  
딘 엠 데이비스 감독
- 12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일레인 에스 돌튼
- 15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크레이그 에이 카든 장로
- 18 "이것이 곧 나의 일이요, 나의 영광이나라"  
엠 러셀 벨라드 장로
- 22 "내게로 오라"  
헬리 비 아이어링 회장

## 토요일 오후 모임

- 26 교회 역원 지지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28 2012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로버트 더블유 캔트웰
- 28 2012년 통계 보고서  
브룩 피 헤일즈
- 29 가정의 평화를 위해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 32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쿠엔틴 엘 쿡 장로
- 36 주님의 방법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 39 온 세상에 복음을  
존 비 덕슨 장로
- 41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 45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러셀 엠 벨슨 장로

## 신권 모임

- 48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 52 소년의 신권 권능  
래드 알 콜리스터 장로
- 55 성역을 베푸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  
데이비드 엘 벡
- 58 네 가지 명칭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62 우리는 하나입니다  
헬리 비 아이어링 회장
- 66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라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일요일 오전 모임

- 70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7 그것은 기적입니다  
닐 엘 앤더슨 장로
- 81 우리가 하는 말  
로즈메리 엠 워스
- 83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 86 율법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엘 톰 페리 장로
- 89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일요일 오후 모임

- 93 "내가 믿나이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 96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앨런 에이치 욱스 장로
- 99 아버지와 아들  
크리스토펬 골든 이세 장로
- 102 가정, 인생의 학교  
앤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 104 주님께 받아들여짐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 107 아름다운 아침  
브루스 디 포터 장로
- 109 구속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 113 다시 만날 때까지  
토마스 에스 문슨 회장

## 본부 청년 총회

- 115 여러분의 거룩한 곳  
앤 엠 딘
- 118 한 소녀를 구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구하는 일입니다  
메리 앤 쿡
- 121 흔들리지 마십시오!  
일레인 에스 돌튼
- 125 본향으로 가는 멋진 여행  
다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 72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역원
- 130 연사들이 전한 말씀: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 132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 133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 133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 134 교회 소식



# 제183차 연차 대회 요약

##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랜달 케이 베넷 장로. 폐회 기도: 진 에이 스티븐스.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리차드 엘리엇과 앤드류 언즈워스. “이스라엘 구속주”, 찬송가, 27장; “In Hymns of Praise,” 영어 찬송가, 75장; “들으라 만방 하늘 음성” 찬송가, 167장, 윌버그 편곡; “하나님의 일 부지런히 하세”, 찬송가, 149장; “신앙”, 어린이 노래책, 50쪽, 엘리엇 편곡, 미출판; “승리한 나의 구속주”, 찬송가, 7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러셀 티 오스구도프. 폐회 기도: 제이 데븐 코니쉬. 음악: 브리검 영 대학교 학생 연합 합창단. 지휘: 로널드 스타헬리와 로잘린드 홀. 오르간 반주: 보니 굿리프. “예수님 생각하오니”, 찬송가, 104장, 스테일리 편곡, 잭맨 출판; “오늘 네 집 떠나올 때”, 찬송가, 76장, 존슨 편곡, 존슨 출판; “기록하라 너희 주는 왕이시라”, 찬송가, 36장;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스테일리 편곡, 잭맨, 빌스 출판.

## 2013년 4월 6일 토요일 저녁 신권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로널드 에이 래스번드 장로. 폐회 기도: 래리 엠 깁슨. 음악: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지역 청년 독신 성인 신권 합창단. 지휘: 저스틴 빌스. 오르간 반주: 클레이 크리스텐슨. “Arise, O God, and Shine,” 영어 찬송가, 265장, 윌버그 편곡, 옥스포드 출판;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찬송가, 96장, 빌스 편곡, 미출판; “이스라엘 시온 군대”, 찬송가, 156장; “너 이스라엘 장로는”, 찬송가, 200장, 빌스 편곡, 미출판.

## 2013년 4월 7일 일요일 오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개회 기도: 스티븐 이 스노우 장로. 폐회 기도: 오 빈센트 할레크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 오르간 반주: 앤드류 언즈워스, 클레이 크리스텐슨. “신앙으로 나아가서”, 찬송가, 157장;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 찬송가, 41장, 카센 편곡, 잭맨 출판;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위대하신 여호와여”, 찬송가, 43장; “사랑이 깃드는 곳에”, 어린이 노래책, 76쪽, 카든 편곡, 미출판; “성도들이 두려울 것 없다”, 찬송가, 1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3년 4월 7일 일요일 오후 모임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디이더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개회 기도: 캐롤 엠 스티븐스. 폐회 기도: 래리 와이 윌슨 장로. 음악: 태버내클 합창단. 지휘: 맥 윌버그와 라이언 머피.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와 보니 굿리프. “오라 주의 자녀들”, 찬송가, 13장, 머피 편곡, 미출판; “들려주세요 예수님 이야기들”, 어린이 노래책, 36쪽, 머피 편곡, 미출판; “우리 구원의 날을 함께 다 즐기세”, 찬송가, 32장; “주여 복을 비옵나니”, 찬송가, 66장, 윌버그 편곡, 미출판.

## 2013년 3월 30일 토요일 저녁 청년 총회

감리: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사회: 일레인 에스 돌튼. 개회 기도: 엘라 에즐리. 폐회 기도: 에밀리 맥스웰. 음악: 유타 하이랜드 스테이크 청년 합창단. 지휘: 메릴리 웹. 오르간 반주: 린다 마게츠. “높은 산 언덕 위”, 찬송가, 2장, “Arise”, “저 거룩한 곳에서”, 디포드, 디포드 출판; “거룩함도 더욱”, 찬송가, 60장, 고츠 편곡, 미출판; “예수님은 구원 반석”, 찬송가, 181장, 카센 편곡, 잭맨 출판; “Let Zion in Her Beauty Rise,” 영어 찬송가, 41장, 웹 편곡, 미출판.

## 대회 말씀 자료

연차 대회 말씀을 여러 언어로 듣고 싶으면 conference.lds.org에 접속해서 해당 언어를 선택하십시오. 연차 대회 후 보통 2개월 내에 배부 센터에서 연차 대회 음성 녹음을 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

가정 복음 및 방문 교육 메시지는 여러분이 방문하는 사람들의 필요 사항에 가장 잘 맞는 대회 말씀으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표지

앞 사진 촬영: 레슬리 닐슨  
뒤 사진 촬영: 레슬리 닐슨

## 대회 사진

솔트레이크시티 연차 대회 장면: 코디 벨, 랜디 폴리어, 웨스턴 콜튼, 스캇 데이비스, 크레이그 다이먼드, 로이드 엘드리지, 사라 쟈슨, 폴린 킹, 애슐리 라슨, 레슬리 닐슨; 미국 애리조나: 민디 수 에반스; 호주: 콜린 리저트우드; 브라질 브라질리아: 토메 시퀘이라, 브라질, 소브랄; 프란시스코 플라비오 디아스 카네이로; 미국 캘리포니아: 론다 해리스; 칠레: 오스카 슈미트너; 덴마크: 앤-마리 린드버그; 에콰도르: 지미 파딜라 핀; 엘살바도르: 호세 페나; 미국 뉴욕: 마크 웨인버그; 스코틀랜드: 실비아 메리 브라운; 남아프리카: 제레미 라코타마몬즈비



2013년 5월호, 제50권, 제5호  
리아호나 10785 320

리아호나는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한국어판 잡지

제일화장단: 토마스 에스 몬슨, 헨리 비 아이어링,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십이사도 정원화: 보이드 케이 패커, 엘 톰 페리, 러셀 엠 넬슨, 앨런 에이치 옥스, 엘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

편집인: 크레이크 에이 카든  
고문: 세인 엠 바운, 브래들리 디 포스터,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앤서니 디 피킨스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티 워너  
가족 및 회원 지원 책임자: 반센트 에이 본  
교회 잡지 책임자: 앨런 알 로이브로그  
비즈니스 관리자: 가르 캐넌

관리 편집인: 알 발 존슨  
관리 부편집인: 라이언 카, 라린 포터 건트

출판 보조: 밀리사 천덴노  
기사 작성 및 편집 팀: 수잔 베헤트, 데이비드 덕슨, 데이비드 에이 에드워즈, 매튜 디 플리튼, 민디 라에 프리드만, 로리 플러, 게리 에이치 가르, 제니퍼 그레이크스 존슨, 마이클 알 모리스, 리차드 엠 롬니, 폴 벤덴버그

관리 미술 책임자: 제이 스킵트 크누센  
미술 책임자: 태드 알 피타스  
디자인 팀: 저넷 앤드류, 페이 피 앤드러스, 시 킴볼 보트, 토마스 차일드, 네이트 기네스, 캐리 린 시 해린, 콜린 핑클러, 수전 로프그레, 에릭 피 존슨, 스콧 엠 무이, 브래드 테어

지적 재산 코디네이터: 콜레트 네베커 오운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타스  
제작 팀: 콘니 바솔프 브릿지, 줄리 버넷, 브라이언 더블유 지기, 드니스 커버, 지니 제이 닐슨, 가일 타테 러피타  
사전 인쇄: 제프 엘 마틴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예반 알슨

통 관: 제55호, 제50권, 제5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13년 5월 1일(월간지)  
발행인: 정동환  
편집인: 박승호  
번역 책임자: 조현석  
발행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식회사 보진재 김정선

리아호나 신청 및 문의

홈페이지: www.lidschurch.or.kr에 접속하여 좌측 리아호나 메뉴를 클릭합니다.  
이메일: koreadc@hanmail.net으로 신청서를 전송합니다.  
(신청서는 www.lidschurch.or.kr "교회 출판물 및 잡지 신청"에서 다운로드합니다.)  
전화: 리아호나 담당자에게 연락해 주십시오. (전화 080-232-1441)

구독료

1년 구독료는 7,000원, 권당 가격은 700원입니다.(해외 구독은 개별 문의 바랍니다.)  
아래 계좌로 입금해 주십시오.  
예금주: (재)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신한은행 100-001-339810, 우체국 010041-01-000240

원고와 문의 사항은 liahona.lids.org로 보내 주시기나 또는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0024, USA; 또는 이메일: liahona@lidschurch.org

리아호나(나침반 혹은 지시기를 뜻하는 물문경 용어는 한국어 외에 다른 언어로 출판됨, 그리스어, 네덜란드어, 노르웨이어, 덴마크어, 독일어, 라트비아어, 러시아어, 루마니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셜어, 몽골어, 베트남어, 불가리아어, 비슬라라어, 사모아어, 세부어, 스웨덴어, 스페인어, 슬로베니아어, 아르메니아어, 아이슬란드어, 말바니아어, 에스토니아어, 영어, 우르두어, 우크라이나어, 이탈리아어, 인도네시아어, 일본어, 중국어, 체코어, 캄보디아어, 크로아티아어, 키리바시어, 타갈로그어, 타이어, 타히티어, 통가어, 포르투갈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피지어, 핀란드어, 헝가리어(발행 횟수는 언어에 따라 다름)

© 201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판권 소유. Printed in Korea.

리아호나에 실린 기사 및 사진은 교회 및 가정에서 비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복사할 수 있습니다. 사진은 복사 제한 문구가 있는 경우 복사를 금합니다. 판권에 관한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 USA  
이메일: cor-intellectualproperty@lidschurch.org.

리아호나는 인터넷 웹사이트 www.lids.org에서 여러 언어로 찾을 수 있습니다.  
영어는 "Gospel Library"를 클릭하십시오. 다른 언어는 "world map"을 클릭하십시오.

May 2013 Vol. 37 No. 5,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521-497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2.0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Canada Poste Information: Publication Agreement #40017431)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연사 색인

닐 엘 앤더슨, 77  
앨런 에이치 옥스, 96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41  
데이비드 엘 맥, 55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109  
디아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22, 58, 70, 125  
딘 엘 데이비스, 9  
러셀 엠 넬슨, 45  
로버트 디 헤일즈, 48  
로즈메리 엠 워스, 81  
리차드 지 스킵트, 29  
메리 엘 쿡, 118  
보이드 케이 패커, 6  
브루스 디 포터, 107  
스탠리 지 엘리스, 37  
앤 엠 님, 115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104  
엔리케 알 팔라벨라, 102  
엘 톰 페리, 86  
엘 휘트니 클레이튼, 83  
엠 러셀 벨라드, 18  
일레인 에스 돌튼, 12, 121  
제프리 알 홀런드, 93  
존 비 덕슨, 39  
쿠엔틴 엘 쿡, 32  
크레이크 에이 카든, 15  
크리스토퍼 콜든 이세, 99  
태드 알 콜리스터, 52  
토마스 에스 몬슨, 4, 66, 89, 113  
헨리 비 아이어링, 22, 62

주제 색인

가정, 29, 102  
가족 역사, 118  
가족, 6, 18, 29, 55, 83, 102, 118  
간중, 18, 66, 93  
감사, 113  
결혼, 83, 102  
겸손, 83, 104  
경전 공부, 9  
경전, 66, 102  
경청, 81  
계명, 86, 89  
게시, 52  
교회 성장, 39  
구원의 계획, 41, 125  
기도, 9, 113  
단합, 62  
대화, 81  
도덕성, 6, 41, 121  
물문경, 45  
봉사, 22, 55, 58, 109  
사랑, 66, 83, 125  
사망, 118  
선교 사업, 4, 39, 45, 62, 66, 77  
선지자, 37  
선택의지, 86  
성신, 6, 115  
성약, 104  
성전, 4, 32, 121  
성찬, 9

소망, 70, 107  
속죄, 12, 109, 121  
순종, 48, 86, 89  
신권, 18, 52, 55, 62  
신뢰, 52  
신성한 본질, 12, 18, 58  
신성함, 115  
신앙, 83, 93  
어린이, 81, 102  
역경, 12, 70, 107, 118  
예수 그리스도, 22, 29, 48, 70, 89, 96, 99, 107, 109  
용서, 15  
전세, 125  
제자됨, 58  
존경, 83  
준비, 66  
지도력, 52  
진리, 89  
청녀, 12  
충성심, 83  
치유, 58, 70  
평화, 29, 32  
표준, 48  
필멸, 125  
하나님 아버지, 37, 99  
활동 촉진, 55  
회개, 15, 41, 83, 109  
회복, 45  
희생, 104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하기를 기도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교회의 제183차 연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기쁘게 환영합니다.

지난 대회 이후로 6개월 동안 저는 몇몇 곳을 다니며 여러분 중 일부를 만나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가 끝난 후에는 독일로 가서 그곳과 오스트리아의 몇몇 지역에 계신 회원들을 만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10월 말에는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 내외와 크레이그 시 크리스튼슨 장로님 내외,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내외의 도움을 받아 캐나다에 있는 앨버타 캘거리 성전을 헌납했습니다. 11월에는 아이다호 보이시 성전을 재헌납했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 내외, 크레이그 시 크리스튼슨 장로님 내외, 윌리엄 알 워커 장로님 내외도 저와 함께 그 헌납식에 참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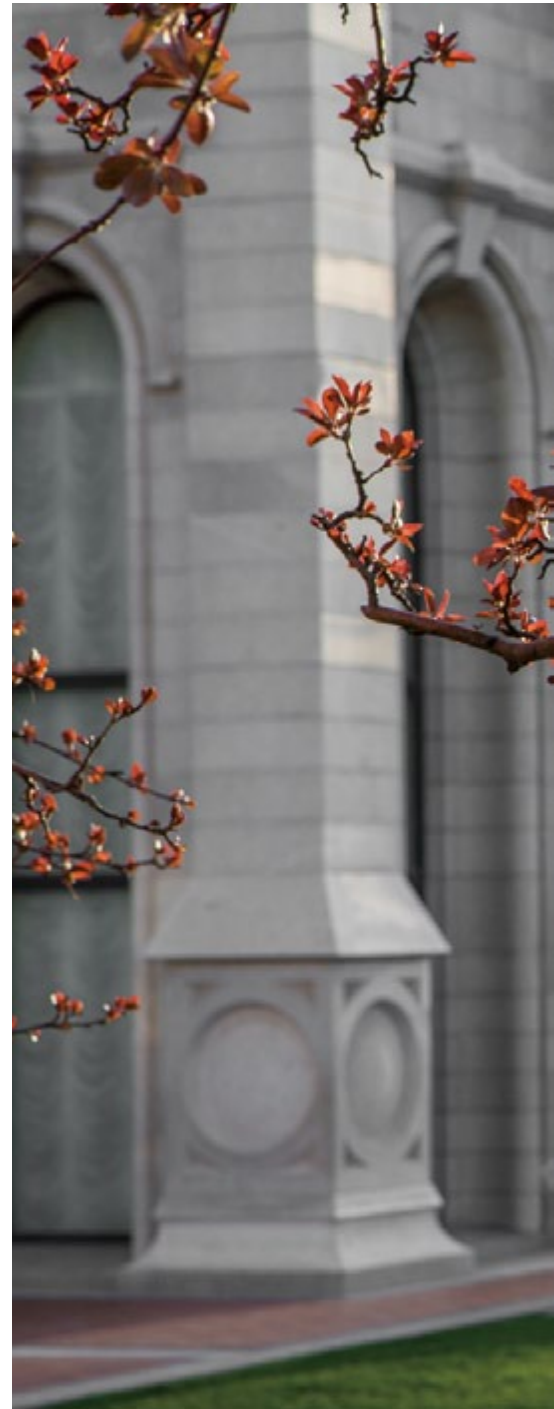
그 두 헌납식과 함께 열린 문화행사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캘거리에서 열린 문화행사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 몬슨 자매의 85세 생일이라 곁에 있어 줘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와 함께 거실에서 폐쇄 회로 텔레비전으로 문화행사를 시청했으며, 그런 후 다음 날 아침에 헌납식을 위해 캘거리로 날아갔습니다. 보이시에서는 성전 구역에 거주하는 9천 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문화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한 젊은이가 무척 많아서 공연이 열린 경기장에는 가족 회원들이 들어갈 만한 공간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지난달에는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님이 우흐트도르프 자매님과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 내외, 그레고리 에이 슈바이처 장로님 내외와 함께 온두라스 테구시갈파로 가서 그곳에 새로 완공된 성전을 헌납하셨습니다. 헌납식 전날 밤에는 성대한 청소년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외에도, 이미 발표되어 여러 단계의 준비 과정에 있거나 건축 중인 성전들도 많습니다.

그에 더하여 오늘 아침에 성전 두 곳을 발표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몇 년에 걸쳐 성전이 지어질 장소는 유타 시더시티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성전 건축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형제와 자매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는 나이를 변경한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형제는 18세에, 자매는 19세에 봉사할 수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반응은 매우 놀랍고 감동적입니다. 바로 이를 전인 4월 4일을 기준으로,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는



65,634명에 달했고, 부름을 받았으나 아직 선교사 훈련원에 입소하지 못한 사람도 2만 명이 넘을 뿐 아니라 6천 명 이상이 감독 및 스테이크 회장과 접견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늘어나는 선교사들을 수용하기 위해 58개의 선교부를 신설해야 했습니다.

이 선교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다수의 선교사가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후하게 헌금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과 내일 영감 어린 말씀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분들은 이 시기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시는 것을 알기 위해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 말씀들을 주의 깊게 경청하고

받아들이시기를 촉구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기도하며,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보이드 케이 패커 회장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

# 저는 이런 것들을 압니다

제가 읽고, 가르치고, 배운 모든 것 중에서도 전해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하고 성스러운 진리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입니다.

**십**이사도 보좌로 9년, 그리고 십이사도 정원회 일원으로서 22년을 봉사하고 난 1992년에 저는 예순여덟 살이 되었습니다. 그 해에 저는 “미완성 작품”이라고 부르게 된 글을 쓰기 시작해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글의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내게  
심오하고도 깊은 생각이 찾아왔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지칠 때로 지쳤을 때 찾아온 생각.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내고,  
내 운명을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나는 생각했다.  
젊은 시절, 나는 예순여덟이 아니었다!

절뚝거리며 걷지 않았고,  
어깨 통증도 없었다.  
두 번 읽은 문장은  
나중에 다시 인용할 수도 있었다.

끊임없이 일해도 끄떡없고  
여간해서 쉬지도 않았다.  
그때 쉽사리 마쳤던 일을  
이제는 하지 못한다.

시간을 되돌릴 수 있대도,  
그런 선택이 내게 달려 있대도,  
내 나이를 젊음과 바꾸지 않으리.  
잃는 게 너무 많으니.

젊음이 아무리 멋지다 한들  
이대로 늙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과거로 돌아가면  
무엇을 잃는지 나는 안다.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후, 저는 이 시에  
다음 몇 줄을 덧붙였습니다.

십 년이란 세월도 촛살같이 사라졌고  
그 동안 내 고통도 많이 사라졌다.  
인공관절로 절뚝거림이 사라지고  
다시 똑바로 걷게 되었다.

보호대는 목뼈를 곧추세우니  
얼마나 멋진 창조력인가!  
어릴 적의 소아마비까지 사라지는 듯하다.  
그러나 그 덕분에 나는 이 세대의 목이 뻗뻗한  
사람 중 하나가 되었다.

늙었다는 것을 몸 여기저기서 말해 준다.  
더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점점 강해지는 게 있다면  
잇는 능력이다.

당신은 묻는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나는 대답한다. 물론이죠. 그때  
그대로이신걸요.  
하지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화 내지 말아 주세요.

내가 알게 된 것 중에는  
알고 싶지 않은 것들도 있었지만  
나이를 먹다 보니 영을 성장하게 하는  
소중한 진리를 만나게 된다.

그 모든 축복 가운데  
내 인생 최고의 축복은  
사랑하는 아내로부터 얻은  
우정과 위안이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결혼했고,  
각자 가정을 꾸렸다.  
자녀와 손자 손녀들은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젊음을 되찾는 문제에 관한 한  
달라진 점은 조금도 없다.  
누구나 나이가 들기 마련이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은 나이에서 오기  
때문이다.

당신은 묻는다.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 운명은 어찌 될까요?”  
별 탈이나 불평할 일은 없을 거예요.  
제가 여든여덟이 되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저는 작년에 다음 구절을  
덧붙였습니다.

이제 여든여덟이다.  
십 년은 촛살같이 지나갔다.  
잘 걷다가 절뚝거리고, 지팡이를 들었었는데,  
이제는 휠체어를 타게 되었다.

이따금 낮잠도 잔다.



하지만 신권 권능은 그대로 남아 있다.  
신체적으로는 잃은 것이 많지만  
영적으로는 많은 것을 얻었다.

나는 수백만 킬로미터가 넘도록  
세상 방방곡곡을 많이도 여행했다.  
위성 방송 덕분에  
내 목소리는 여전히 세상 방방곡곡을 다닌다.

이제 나는 추호의 의심도 없이 말할 수 있다.  
나는 주님을 알고 그분을 사랑한다.  
나는 그분의 거룩한 말씀을 가르치면서  
고대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간증한다.

그분이 겿세마네에서 하신 일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선다는 것을 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 그 모든 일을 행하셨다.  
우리에게 더 좋은 친구는 없다.

나는 그분이 권능과 영광으로  
다시 오실 것을 안다.  
다시금 그분을 뵈 수 있다는 것을 안다.  
내 삶의 이야기가 결말에 다다르면

나는 주님의 상처 입은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빛나는 그분의 영을 느낄 것이다.  
나는 떨리는 음성으로 속삭이듯 말할 것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지어, 저는 당신을  
안니다.”<sup>1</sup>

저는 분명히 압니다!  
우리 집 뒤 창문으로는 아담한 꽃밭과  
작은 개울 너머로 숲이 보입니다. 꽃밭  
옆에는 온통 담쟁이로 뒤덮인 집 울타리가  
있습니다. 이 담쟁이덩굴은 여러 해 동안  
집피리새라 부르는 작은 새의 둥지가  
되었습니다. 녀쿨 가운데 자리 잡은 이  
둥지는 여우와 너구리, 고양이를 피해서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담쟁이덩굴 안에서는 야단법석이



났습니다. 궁지에 몰린 새들의 처절한  
울음소리를 듣고, 주변 숲 속에 있는  
여덟 내지 열 마리의 피리새들이 날아와  
함께 울었습니다. 저는 곧 소란의 원인을  
알아냈습니다. 뱀 한 마리가 담쟁이덩굴에서  
미끄러지듯 내려와 창문 앞 제가 끄집어  
팽개칠 수 있을 만한 거리에 매달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뱀의 몸통 가운데 두 곳이  
불룩한 것으로 미루어, 둥지에서 새끼 새  
두 마리를 삼켜 버린 것이 분명했습니다.  
50년을 이 집에서 사는 동안 그와 같은  
광경은 처음 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소란이 일어났는데  
이번에는 개집을 덮고 있는 녀쿨  
안에서였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울음소리를  
들었으며, 주변의 피리새들이 전처럼 모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약탈자가  
누군지 알았습니다. 또 다른 뱀이었습니다.  
제 손자가 개집 위로 기어 올라가 그 뱀을  
끄집어냈습니다. 뱀은 둥지에서 잡아 죽인  
어미 새를 그때까지도 꼭 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별일이네. 에텐동산이 다시 침범을 받고  
있나?”

그때 선지자들이 말씀한 경고가  
마음속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는 사탄의  
영향력으로부터 늘 안전한 것은 아니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것들이 위협받는 위험한  
세상에 삽니다. 현세와 영원을 두고 기본이  
되는 조직인 가족이, 보이기도 하고 보이지  
않기도 하는 세력의 공격 아래 놓여  
있습니다. 사탄은 잠자코 있지 않습니다.  
그의 목적은 상처를 내는 데 있습니다.  
가정을 약화시키고 파괴할 수 있다면 그는  
성공을 거두는 것입니다.

후기 성도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알며 사탄의 영향력이 가정에 스며들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하려고 힘씁니다. 우리는  
우리가 맺은 성약을 존중하고 그리스도의  
계자로서 필요한 일상적인 행동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자신과 자녀의 안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sup>2</sup>

또 주님께서 계시를 통해 다음과 같은  
화평을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준비 되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게 되리라.”<sup>3</sup>

가정과 그 식구를 보호하기 위해  
궁극적인 신권 권능이 부여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자녀를 가르치고 축복하며, 복음  
의식을 베풀고, 필요한 다른 신권 보호  
조치를 취할 권세와 책임이 있습니다. 또  
남편은 아내에게 사랑과 신의, 존경을  
보임으로써 자녀가 그런 사랑을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저는 신앙이란 단지 믿음의 표현만이



아닌, 진정한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로운 어머니의 신실한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족에게 성신의 은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가르치십시오. 가정이란 울타리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보다 더 위대하고 영원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의 영의 자녀이며 필멸의 육신을 얻고 시험받기 위해 이 지상에 왔다는 것을 압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는 육신 없는 존재를 다스릴 권능이 있습니다.<sup>4</sup> 우리에게서는 무엇을 선택하고 또 어떤 행동을 골라야 할지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결과는 자유롭게 선택하지 못합니다. 결과는 자연스럽게 따릅니다.

선택의지는 경전에 “도덕적 의지”라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는 우리가 선과 악 사이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도덕적 선택의지를 그릇되게 사용하도록 유혹하려고 합니다.

경전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는 각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그에게 준 도덕적 선택의지에 따라 미래에 관련된 교리와 원칙 안에서 행동하게 하여, 각 사람으로 하여금 심판의 날에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지게 하려는 것이니라.”<sup>5</sup>

엘마는 “주께서 죄를 조금도 허용하여 보실 수 없[다].”<sup>6</sup>고 가르쳤습니다. 이 말을

이해하려면 죄와 죄지은 자를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구주께서는 간음하여 분명히 죄가 있는 여인을 사람들이 데려오자, 이 한마디 말로 사건을 종결하셨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이 바로 그분의 성역에 담긴 정신입니다.

관용이 미덕이기는 하나, 지나치면 다른 모든 미덕처럼 악으로 탈바꿈됩니다. 우리는 “관용의 덧”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덧에 빠지지 않습니다. 부도덕한 행위를 합법화하기 위해 국법을 약화시켜 생겨난 사회적 관용은 하나님께서 주신 순결의 법을 어기는 데 따르는 심각한 영적 결과를 감소시키지 못합니다.

모든 사람은 각기 옳고 그름을 분간하게 해 주며 길잡이가 되는 그리스도의 빛을 지니고 태어납니다. 이 빛으로 무엇을 하며, 또 의롭게 살기 위해 그 속삭임에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하는 문제는 지상 생활 중 겪는 시험의 한 부분입니다.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영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선악을 분별하게 하였은즉,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판단하는 길을 보여 주노니, 무릇 선을 행하도록 권유하며, 권하여 그리스도를 믿도록 설득하는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권능과 은사로 말미암아

보냄을 받은 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그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 줄을 완전한 지식으로 알지니라.”<sup>8</sup>

우리는 각기 영감과 성신의 속삭임에 응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주님께는 우리를 촉구하고, 인도하며, 가르치고, 경고하시기 위해 우리 마음속에 순수한 예지를 불어넣을 방법이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딸이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들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영감과 계시를 받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제가 읽고, 가르치고, 배운 모든 것 중에서도 전해 드려야 할 가장 소중한 성스러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저의 특별한 간증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저는 구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저는 그분의 증인입니다. 저는 그분에 대해 간증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확실히 압니다.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

#### 주

1. Boyd K. Packer, “Unfinished Composition,” 2012.
2. 이사야 32:17.
3. 교리와 성약 38:30.
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11쪽.
5. 교리와 성약 101:78.
6. 엘마서 45:16.
7. 요한복음 8:11.
8. 모로나이서 7:16



딘 엠 데이비스 감독  
감리 감독단 제2보좌

## 견고한 기초

나에게 오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입시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웁시다.

1989년 10월 17일, 차로 퇴근하던 길에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마켓 가와 빌 거의 교차로 신호등에 근접했을 때 일입니다. 순간 제 차가 흔들리는 것이 느껴져 '차 바퀴가 터졌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흔들림은 계속되었고, 제 차 바로 가까이 버스 한 대가 있는 것을 보고서 '버스가 내 차를 박았구나!'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도 차가 더욱더 심하게 흔들리기에 이번에는 '바퀴 네 개가 전부 터졌나 보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차 바퀴가 터진 것도, 버스가 내 차를 박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강력한 지진 때문이었습니다! 빨간 신호에 차를 멈추었을 때, 마켓 거의 아스팔트가 파도처럼 출렁이고 있었습니다. 지진이 계속되면서 바로 앞에 있던 고층 사무실 빌딩들이 흔들리고, 왼쪽에 있던 오래된 건물에서는 벽돌이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5시 4분에 로마 프리에타 지진이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을 강타하여, 만 이천 명에 달하는 이재민을 냈습니다.

이 지진으로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에서 약한 지반 위에 건설된 곳으로 유명한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이 심각한 피해를 당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마리나 구역은 "모래와 흙, 돌무더기, ..... 그리고 지하수 함유량이 많은 다른

재료를 혼합하여 조성한 매립지에 건설된 곳이었습니다. 1906년 샌프란시스코 지진 때에 생겨난 돌무더기도 샌프란시스코 베이 매립지를 매우기 위해 쏟아 부어졌습니다."

1915년경, 이 매립 지대에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섰습니다. 1989년 지진 당시, 수분율이 높아 견고하지 못했던 진흙과 모래, 돌무더기가 마치 액체 더미처럼 변하면서 그 아파트들은 붕괴되고 말았습니다. 그 건물들은 견고한 기초 위에 건축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로마 프리에타 지진은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날의 일들을 회상하여 곰곰이 생각할 때마다 한 가지 분명한 확신을 얻는데, 그것은 바로 인생의 폭풍우나 지진, 재난을 제대로 이겨내려면 반드시 견고한 기초 위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니파이인 선지자 힐라맨은 우리 삶을 견고한 기초,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 세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하게 알려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 그리하면 악마가 그의 강한 바람을, 참으로 회리바람 가운데 그의 화살들을 내보낼 때, 참으로 그의 우박과 그의 강한 폭풍이 너희에게 부딪칠 때, 그것이 너희를 이겨 비참과 끝없는 재난의 심연으로 너희를 끌어내리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세워진 반석으로 인함이라, 이는 확실한 기초이니 만일 사람들이 그 위에 세우면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기초니라."(힐라맨서 5:12)

현대에 짓는 성전은 설계와 설비, 건축 자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입니다. 성전 건축 예정 부지의 토양과 지질을 철저히 조사합니다. 해당 지역의 풍우 조건과 날씨 변화를 연구하여, 완공된 성전이 폭풍우나 일반적인 기후 조건뿐 아니라 예상치 못한 지진, 태풍, 홍수, 기타 발생 가능한 어떤 자연재해에도 끄떡없도록 설계하고 위치를 정합니다. 많은 성전이 기초를 제대로 다지기 위해 콘크리트나 철골을 매우 깊게 매설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건축 설계자나 시공자들이 그러하듯이, 사랑이 많으시고 친절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는 우리가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삶을 정립하는 데 사용할 도면과 장비, 기타 자재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대한 행복의 계획, 즉 구원의 계획으로 부릅니다. 이



계획은 처음과 끝,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이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사는 데 필요한 의식을 포함한 필수 단계들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입니다.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 끝까지 견딤, 이 다섯 가지는 인생의 청사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의 속죄에 단단하게 고정할 구조물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다섯 가지 원리는 한 사람의 삶을 지탱할 기본 골조를 형성하고 짜 맞춥니다. 그런 다음에는 성전 설계 때 필수 요소들을 어떻게 구성하고 조합할 것인지를 자세하게 알려 주는 설명서가 들어가는 것처럼, 기도와 경전 읽기, 성찬 의식 참여, 중요한 신권 의식 참여는 우리 삶의 구조물을 조합하고 짜 맞추는 “설명서”가 됩니다.

이러한 설명서를 적용할 때에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준비 과정에서 모래, 자갈, 시멘트, 물을 정확한 양으로 배합해야 최대 강도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요소 중 한 부분이라도 차이가 나거나 빠지면, 콘크리트가 약해져서 중요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날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읽는 일과 매주 성찬을 취하는 일, 성전 의식과 같은 신권 의식에 자주

참석하는 일 등에서 제대로 균형을 이루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구조물은 약화될 위험에 처합니다.

에베소인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바울은 우리의 성품과 영혼을 균형 있고 통합적으로 발전시키도록 적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느니라]”(에베소서 2:21)

기도는 신앙과 성품을 이루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기본 골조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 헌신하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통해 우리의 뜻을 말씀드리면, 그분의 가르침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기도의 길을 따라 걸을 때,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구하고, 계시까지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엘마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너의 행하는 모든 일을 주와 의논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유익하도록 지도하시리라. 참으로 네가 밤에 누울 때 주께로 누워, 그로 네가 자는 동안 너를 지키시게 하고, 네가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로 네 마음이 가득 차게 하라. 이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네가 들리움을 받으리라.”(엘마서 37:37)

진지하고 진심 어린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느낌, 소망을 털어놓는 것이야말로 숨을 쉬고 음식을 섭취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고 자연스러운 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 경전을 탐독하는 것 역시 우리의 신앙과 성품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되는 일입니다. 육신에 음식이 필요한 것처럼, 선지자의 글에 담긴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해야 우리의 영과 영혼이 튼튼해집니다. 니파이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흡족히 취하라 하였노니, 이는 보라, 그리스도의 말씀은 너희가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일러 주심이니라.”(니파이후서 32:3)

경전을 읽는 것도 좋지만, 구주의 가르침을 온전히 이해하려면 그저 읽기만 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경전에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탐독하고 상고하고 적용하다 보면 필멸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지혜와 지식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헌신하겠다는 결심과 영성이 커져서 매사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됩니다.

삶을 강화하고, 구주라는 기초에 확고하게 뿌리내리게 하는 한 단계는 바로 매주 성찬을 합당하게 취하는 것입니다. 모든 교회 회원은 성찬 의식에서 먼저 자신의 삶에 대해 숙고하고, 자신의 행동이나 자신이 한 일들에서 회개해야 할 것이 있는지 생각해 본 후,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상징하는 거룩한 빵과 물, 즉 주님의 속죄에 대한 증거물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진심과 겸손한 태도로 성찬을 취한다면, 우리는 영원한 성약을 새롭게 하고 청결하고 성결하게 되며 항상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영은 회반죽처럼 서로 결합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모든 것을 성결하게 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거듭 기억하게 해 주고 증거해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더욱 굳건히 설 수 있습니다.

성역을 베푸실 때 구주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우리의 성품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교리 및 원리와 필요한 행동들을 사랑으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내가 그를,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에 비유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되, 그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그 기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이니라.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자에 비유되리니-

또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치매, 그 집이 무너졌으니 그 무너짐이 심하였느니라.”(제3니파이 14:24~27; 또한 마태복음 7:24~27 참조)

형제 자매 여러분, 자신의 집이나 일터, 성스러운 예배의 집을 일부러 모래나 잡석 위에 짓거나 적절한 도면이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짓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에게 오라는 구주의 권유를 받아들입니다. 우리의 삶을 안전하고 견고한 기초 위에 세웁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속죄에 우리 삶을 정착시키고, 매일 기도와 경전 공부를

하고 매주 성찬을 취하는 것과 같은 일들을 함으로써 우리의 행복을 위해 마련하신 그분의 계획을 주의 깊게 따르다면, 우리는 강건해지고, 개인적으로 실질적인 성장과 지속적인 개종을 경험하며, 삶의 폭풍우와 재난을 제대로 이겨낼 힘을 더 잘 갖추고, 약속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우리의 삶이 견고한 기초, 즉 결코 무너지지 않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임을 겸손하게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1989 Loma Prieta Earthquake," [wikipedia.org/wiki/1989\\_Loma\\_Prieta\\_earthquake](http://wikipedia.org/wiki/1989_Loma_Prieta_earthquake) 참조.





일레인 에스 돌튼  
최근에 해임된 본부 청녀 회장

#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각자 고유하며,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 주 전 세계에 있는 청녀들은 청녀 주제를 암송합니다. 어떤 언어로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영은 늘 그것이 사실임을 제 영혼에 확신해 줍니다. 이러한 청녀 주제는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분명히 밝힐 뿐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했는지 확실히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록하신 분의 딸입니다!

저는 모든 나라와 대륙에서 자신감 있고, 자기 생각을 명확히 표현하며, 빛으로 차 있고, 고난을 이기며 성숙해진, 순수한 신앙을 지닌 청녀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정결하며 “어느 때에나 무슨 일에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sup>2</sup> 성약을 지킵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왕국을 건설하는 일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맡았는지 압니다.

대학 시절에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 국제 민속 무용단 일원이었습니다. 어느 여름에는 유럽에 있는 여러 선교부로 순회공연을 갈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해 여름은 갑자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시고 몇 달 안 되었을 때라서 제게 힘든 시기였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머무는 동안에는 특히 더 외롭고 우울했습니다. 그날 저녁 어느 집회소에서 공연이 있었고, 공연 후에는 옆문을 통해 선교부 사택으로 갔습니다. 저는 길을 따라 걷다가 문 옆으로 펼쳐진 잘 가꾼 정원에서 돌 하나를 보았습니다. 돌에는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는 말이 새겨 있었습니다.

순간, 그 글귀는 제 마음에 깊이 각인되었고, 하늘의 권능이 다가와 제게 가르침을 주는 것이라고 느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정원에 젖은 눈으로 서 있었습니다. “그대가 어떤 사람이든 자신의 소임을 다하라.” 이 간단한 경구가 저의 시야를 새롭게 열어 주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아시고 제 삶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셨다는 확신을 주었습니다. 영은 제 소임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나중에 저는 그것이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이 스코틀랜드에서 선교사로 봉사하실 때 그분을 격려했던 문구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회장님은 삶과 선교 사업에서 용기가 꺾였을 때 한 건물에서 이 돌을 발견하셨는데, 거기 적힌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수년 후, 그 건물이 철거될 때 맥케이 회장님은 그 돌을 구해와서 선교부 사택 정원에 두셨습니다.<sup>3</sup>

하나님의 딸로서 우리는 각자 고유하며, 각기 다른 상황에서 다른 경험을 합니다.



후주 시드니



우리는 중요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우리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매일 다른 누군가를 양육하고, 가르치고, 돌보는 우리의 공헌은 때로는 재미없고, 위축되고, 어렵고, 품위가 떨어지는 일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청년 주제의 첫 부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한다.”을 기억한다면, 우리의 태도와 타인과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최근 제 존경하는 어머니께서 9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그분이 살아온 방식처럼 조용히 필멸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어머니의 삶은 그분의 계획과는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머니의 남편인 저의 아버지는 마흔 다섯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어머니에게 저와 두 형제를 남기고서 말입니다. 어머니는 47년간 남편 없이 사셨습니다. 낮에는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피아노 교습을 하며 저희를 부양하셨습니다. 또 옆집에 사시는 연로한 아버지, 즉 제 외조부도 돌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세 자녀가 대학을 졸업하도록 애쓰셨습니다. 어머니는 우리가 세상에 “이바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면서 대학을 나와야 한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불평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성약을 지켰고, 그렇게 하늘의 힘을 끌어내려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때로는 기적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어머니는 기도와 신권, 성약이란 약속의 힘에 의지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주님에 대한 봉사에 충실하셨습니다. 그분의 일관된 헌신은 자녀인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었습니다. 어머니는 다음과 같은 성구를 종종 들려주셨습니다. “나 주는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할 때에는 내 말을 지킬 수밖에 없으나, 내가 말하는 것을 너희가 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너희는 아무 약속도 받지 못하느니라.”<sup>4</sup> 그것이 어머니의 좌우명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말씀이 사실임을 아셨습니다. 성약을 지키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세상의 주목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이 하나님의 딸임을 이해하셨습니다. 참으로 저의 어머니는 맡은 책임을 잘 수행하셨습니다.

여성들과 어머니들에게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결코 여성의 힘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 어린이의 삶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 아이들을 양육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키우는 사람도 어머니입니다. 그들의 영향력은 참으로 엄청납니다. ……

…… 어머니는 생명의 창조자입니다. 어린이의 양육자입니다. 청년들의 교사입니다.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동반자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동역자입니다.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위대하며, 여성들의 공헌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빛을 더해 주니까!”<sup>5</sup>

그렇다면 어머니와 아버지는 어떻게 사랑하는 딸에게 하나님의 딸이라는 고귀하고 영원한 진리를 심어 줄 수 있을까요? 딸이 세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왕국에 더 온전히 들어오도록 우리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도덕 불감증을 유발하는 이 세상에 사는 청년들에게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여성과 남성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지금보다 더 중요했던 적은 없습니다. 청년들에게는 정결한 여성성을 모범으로 보여 주는 어머니와 스승이 필요합니다. 어머니 여러분, 여러분과 딸의 관계는 참으로 중요하며, 여러분의 모범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딸의 아버지와 그가 지닌 신권과 거룩한 역할을 어떻게 사랑하고 존중하느냐가 딸의 태도와 행동에 반영되고, 증폭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잘 수행해야” 할 우리의 책임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가족 선언문”에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하여 아버지는 자신의 가족을 사랑과 의로움으로 다스려야 하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마련하고



가족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어머니의 주된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다. 이러한 신성한 책임을 수행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등한 동반자로서 서로를 도울 의무가 있다. ……

우리는 순결에 관한 성약을 어기거나, 배우자나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족의 책임을 이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책임지게 되리라는 것을 경고한다.<sup>6</sup>

부도덕한 시대에 살았던 몰몬은 무엇보다도 여성들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정결과 정조를 유린당하는 것을 슬퍼했습니다.<sup>7</sup>

다시 한 번, 저는 정결함으로 돌아오도록 호소합니다. 정결은 하나님의 딸이 지닌 힘과 권능입니다. 순결을 포함한 높은 도덕 표준을 근간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생활 태도인 정결<sup>8</sup>이 우리 사회에서 가장 고귀하게 평가되는 가치로 되돌아온다면, 세상은 어떤 모습이 될까요? 부도덕과 외설물이 줄어들고, 또 학대가 줄어들다면, 결혼 파탄과 삶의 해체와 가슴 아파하는 일이 덜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대중매체가 하나님의 소중한 딸들을 물건 취급하고 비하하는 대신 고귀하게 대하고 그들의 역량을 높여 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류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이 선언의 중요성을 진정으로 이해한다면, 여성들을 어떻게 여기고 대하겠습니까?

수년 전, 이 컨퍼런스 센터가 거의 완공될 무렵에 저는 안전모와 보안경을 쓰고 이 성스러운 건물의 발코니에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카펫을 깔면 저는 진공청소기로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연단이 있는 자리에서는 소형 불도저가 흙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안에 자욱한 먼지가 새 카펫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제 소임은 진공청소였습니다. 진공청소기로 밀고, 밀고, 또 밀었습니다. 사흘이 지나자 제 소형 청소기는 그만 고장이 나 버렸습니다!

이 아름다운 건물에서 첫 연차 대회가 열리기 전날 오후,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이 역사적인 단상 아래 마지막 카펫 조각을 막 깔려고 하는 찰나였습니다.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 카펫 뒷면에 경전 구절을 적고 싶은데, 뭐라고 적을까?”

저는 대답했습니다. “모사이야서 18장 9절이 좋겠어요.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라고요.”

저는 이 극심한 시련의 세상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 교회의 청년과 여성들을 봅니다. 그들은 선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정결하고 모범적이며, 지적이고 부지런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자신의 소임을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 작은 소임을 다해 이 카펫을 청소할 때만 해도 제가 언젠가 연단 아래에 있는 이 카펫을 밟고 서게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하나님의 딸로서 저는 그분이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구속주이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속죄 희생을 통해 저는 언젠가 시험을 통과하고, 순결하고, 영원한 가족으로 인봉되어 그분과 함께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성이며 아내이자 어머니라는 특권에 대해 늘 주님께 찬양드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인도를 받고 있음을 간증드리며, 신권 권능으로 제 삶을 축복하는 의로운 형제님들에 대해 감사를 전합니다. 그리고 제가 맡은 소임을 다하려 할 때 받는 힘에 대해 늘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 힘은 구주의 무한한 속죄에서 비롯되는 가능케 하는 권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3쪽.
2. 모사이야서 18:9.
3. Matthew O. Richardson, “What E'er Thou Art, Act Well Thy Part”: John Allan's Albany Crescent Stone,” *Journal of Mormon History*, vol. 33(Fall 2007), 31-61; Francis M. Gibbons, *David O. McKay: Apostle to the World, Prophet of God*(1986), 45 참조.
4. 교리와 성약 82:10.
5. 고든 비헨클리,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1쪽.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7. 모로나이 9:9 참조.
8. 청년 개인 발전 기록부, 70쪽 참조.





크레이그 에이 카튼 장로  
칠십인 정원회

#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 구주의 필멸의 성역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을 따랐으며, 그중에는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도 있었습니다. 병고침을 받고 싶었던 한 중풍환자는 침상에 누운 채로 운반되어 왔으나 균중 때문에 주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은 그의 침상을 구주께서 계신 집 지붕으로 가져가서 아래로 달아 내렸습니다. 구주께서는 이 신앙에 찬 행동을 보시고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았던 위대한 목적을 선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sup>2</sup>

그분의 말씀에 이 중풍병자는 놀랐을 것입니다. 물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는 경전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도 자신이 왜 그곳에 왔는지를 구주께서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이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구주께서는 많은 사람이 자신을 따르는 이유가 그분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 때문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고<sup>3</sup>,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시고<sup>4</sup> 왕의 신하의 아들<sup>5</sup>, 나병환자<sup>6</sup>, 베드로의 장모<sup>7</sup>,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을 고치는 기적을 이미 보이신 때였습니다.<sup>8</sup>

주님께서는 이 중풍환자를 들어 그분의 제자들과 그분을 비방하는 자들 모두에게 자신이 세상의 구주이심을 증거하기로 하셨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구주의 말을 듣고서 자기들끼리 따져 보더니 오직 하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고 하며 무지하게도 그분이 신성을 모독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을 아신 구주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sup>9</sup>

주님은 그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않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sup>10</sup> 그리고 그 중풍병자는 일어나서 그렇게 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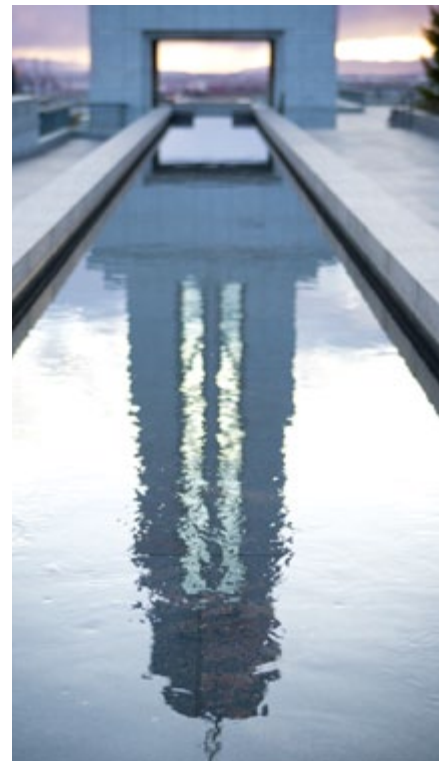
구주께서는 이 기적적인 육체적 치료로, 더 무한하고 강력한 영적 진리, 곧 인자는 죄를 사하신다는 진리를 우리 모두에게 확증해 주셨습니다!

믿는 자 모두 이 진리는 잘 받아들이지만, 이와 동반하는 핵심 진리, 즉 구주께서는

최후의 심판에서뿐만 아니라 “땅에서”도 죄를 사하신다는 진리는 선뜻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분이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봐주시는 것은 아닙니다.<sup>11</sup> 그분은 우리가 과거의 죄로 되돌아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sup>12</sup> 하지만 회개하고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면, 그분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sup>13</sup>

우리는 이런 용서에서 속죄의 가능케 하는 힘과 구속 권능이 조화롭고 은혜롭게 적용되는 것을 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행사하면,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속죄의 가능케 하는 힘으로 강화되며<sup>14</sup>,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릴]”<sup>15</sup> 때는 구속 권능으로 성결해집니다. 이 사실은 우리 모두, 특히 되풀이되는 인간적인 약점 때문에 더는 구주로부터 도움과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안겨 줍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이해력을 밝혀 주신





일화가 있습니다.<sup>16</sup> 베드로는 형제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하는지 알고자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하고 여쭙었습니다. 그 정도면 분명 많이 용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구주의 대답은 그분의 자비로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줍니다.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sup>17</sup>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기를 바라십니다. 교리와 성약을 보면, 주님께서 “네 죄는 사함을 받았[느니라]”라는 말씀, 또는 그런 뜻으로 하신 다른 말씀들이 스무 번도 넘게 나옵니다.<sup>18</sup> 이런 말씀의 절반 정도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나 그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sup>19</sup> 이 말씀이 첫 번째로 기록된 것은 1830년이며, 마지막으로 기록된 것은 1843년입니다. 따라서 주님께서는 오랜 기간에 걸쳐 조셉에게 반복해서 “네 죄는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조셉이 “어떠한 큰 죄나 사악한 죄”<sup>20</sup>를 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 하시는 용서가 극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우리 죄의 심각성에 따라 제한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에 모인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는 너희를 측은히 여기리라.”<sup>2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약점과 불완전한 남자와 여자에게 임하는 “세상”의 영원한 결과를 아십니다.<sup>22</sup> 이 성구에 나오는 그런즉이란 단어는 우리가 그분의

측은히 여기심을 통해서만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주님의 확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측은히 여기심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주님께서는 커틀랜드에 모인 이 장로들에게 “나는 너희의 죄를 사하여 주었느니라”<sup>23</sup>라고 하셨습니다.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누구도 회개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 주는 내 앞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는 자[들의] …… 죄를 용서해 주느니라.” 하지만 그 조건은 그들이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아니한 자들”<sup>24</sup>이어야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죄를 털끝만큼도 묵과할 수 없[으시지만]”<sup>25</sup> 몇몇 죄는 무거운 정도에 따라 구분을 지으십니다. “성신을 거스리는 모독”<sup>26</sup>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셨습니다. 살인<sup>27</sup>과 간음 같은 성적인 죄는 중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sup>28</sup> 심각한 성적인 죄를 반복해서 범한다면, 점점 더 그분의 용서를 받기 어려워진다는 점을 밝히셨습니다.<sup>29</sup> 또한 “더 큰 빛을 거스려 죄를 범하는 자는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sup>30</sup>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가 단번에 완벽해지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발전하는 것을 허용해 주십니다. 필멸의 몸이 지닌 연약함으로 수많은 죄를 짓지만,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하는 만큼 그분은 우리를 거듭 용서해 주십니다.<sup>31</sup>

따라서 약물 남용이나 외설물 같은 중독 행위를 극복하려고 애쓰는 사람들과

그러한 중독에 근접해 있는 이들을 포함한 우리 모두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의로운 노력을 인정해 주시며 우리가 회개를 완수할 때 사랑으로 우리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의도적으로 죄를 지어도 아무런 벌을 받지 않고 무사할 것임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sup>32</sup>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 마음에 관심을 두시므로<sup>33</sup>, 합리화한 거짓 신앙으로 죄를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sup>34</sup>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께서는 그분의 종들 중 한 사람을 통해 그런 정당화를 다음과 같이 경고하셨습니다. “니콜라 당과 그들의 모든 은밀한 가증함[을] …… 부끄러워할지이다.”<sup>35</sup> 니콜라 당은 고대 종교집단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어 성적인 죄를 범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sup>36</sup> 주님은 그런 것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sup>37</sup> 그분의 은혜와 연민은 “[우리] 마음[이] 만족을 얻지 못하[여] …… 진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불의를 기뻐하는”<sup>38</sup> 것에 대해 변명하는 구실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sup>39</sup> “때가 지남에”<sup>40</sup> 따라 그분의 은혜와 연민은 우리에게 속죄의 가능케 하는 힘을 통해 세상을 극복하는 방편이 됩니다. 겸손히 이 소중한 은사를 구할 때, “[우리의] 연약한 것들[이] 강하게 [될]”<sup>41</sup> 것이며 우리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이 그분의 힘을 통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빛<sup>42</sup>, 우리 마음의 열망<sup>43</sup>, 우리의 행위<sup>44</sup>를 보시며,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의 용서를 구할 때, 그분은 용서하십니다. 자신의 삶과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의 삶을 생각할 때, 우리는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동일하게 기꺼이 용서하려 해야 합니다.<sup>45</sup>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에는 중독 행위를 극복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언급되어 있으며,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에게 만약 구도자나 신회원이 그런 문제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더라도 “놀라거나 실망해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우리는 “그 사람에게 신뢰를 보여 주어야 하며 …… 비판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일시적인 장애로 이해해야 [합니다.]”<sup>46</sup> 자녀나 가족 중 한 사람이 비슷한 문제로 힘들어하거나 의의 길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진정 우리의 한결같은 모습, 인내, 사랑,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용서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난 10월 연차 대회에서 몬슨 회장님은 다음과 같이 권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나쁜 습관을 던져 버릴 수 있습니다. 죄를 회개[할] …… 수 있습니다. ……

…… 우리는 그들이 약점을 극복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볼 때 현재의 모습대로만 보지 말고, 그들이 …… 될 수 있는 존재로서 바라보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sup>47</sup>

이 연차 대회와 비슷한 교회 초기의 연차 대회에서 주님께서서는 회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깨끗하나 모두는 아니니라. ……

이는 모든 육체가 내 앞에서 부패하였고 ……

…… 이는 진실로 너희 가운데 밋밋은 내 앞에서 죄가 있으나, 내가 너희 연약함을 긍휼히 여길 것임이라.”<sup>48</sup>

그분의 메시지는 오늘날에도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아시며, 우리 모두가 죄를 짓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sup>49</sup>는 것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연약함과 유혹에 빠진 자를 어떻게 도울지를 아시느니라”<sup>50</sup>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분의 아들께서는 “너희가

유혹에 들지 않도록 항상 기도하라.”라고 가르칩니다.<sup>51</sup>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자비를 구하라. 이는 그가 구원하시기에 능하심이라”<sup>52</sup>라는 가르침을 받습니다. 구주께서는 우리에게 회개하고<sup>53</sup> 용서하라고<sup>54</sup> 명하십니다. 회개가 쉽지는 않지만,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의 복음에 순종하려고 노력할 때, 그분은 이런 약속을 주십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죄에도 불구하고 나의 심정은 [너희를] 향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너희를] 온전히 던져버리지 아니할 것이요, 진노의 날에 자비를 기억하리라.”<sup>55</sup> 구주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매주 물론 태버네를 합창단은 윌리엄 더블유 펠프스가 지은, 우리에게 친숙한 찬송가 “불러라 고요히 성가”에 담긴, 영을 고양시키는 가사로 영감 어린 방송을 시작합니다. 4절은 덜 익숙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주는 가사가 담겨 있습니다.

거룩 거룩하신 주  
주의 말씀 귀하니  
회개하고 생활하라  
비록 너희 죄가 붉을지라도

용서하시리 주님 용서하시리<sup>56</sup>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으며 그분을 믿는 신앙을 행사하여 회개에 이르십시오.<sup>57</sup>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용서하고자 하십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누가복음 5:17; 또한 마가복음 2:2 참조.
2. 누가복음 5:20; 또한 마태복음 9:2; 마가복음 2:5 참조.
3. 요한복음 2:1~11 참조.
4. 마가복음 1:21~28; 누가복음 4:33~37 참조.
5. 요한복음 4:46~54 참조.
6. 마태복음 8:1~4; 마가복음 1:40~45; 누가복음 5:12~15 참조.
7. 마태복음 8:14~15; 마가복음 1:29~31; 누가복음 4:38~39 참조.
8. 마태복음 8:16~17; 마가복음 1:32~34; 누가복음 4:40~41 참조.
9. 누가복음 5:22~23; 또한 마태복음 9:3~5; 마가복음 2:6~9 참조.
10. 누가복음 5:24; 강조 추가; 또한 마태복음 9:6~7; 마가복음 2:10~12 참조.
11. 고린도전서 6:9~10; 엘마서 11:34, 37; 힐라맨서 5:10~11 참조.
12. 베드로후서 2:20; 야고보서 2:10; 교리와 성약 82:7 참조.
13. 이사야 1:18; 예레미야 31:34; 누가복음 7:36~50; 이노스서 1:5; 엘마서 24:10; 모로나이서 6:8; 교리와 성약 1:32; 58:42~43 참조.
14. 야콥서 4:7; 엘마서 14:26; 모로나이서 10:7 참조.
15. 모사이아서 3:19; 또한 니파이후서 10:24~25 참조.
16. 엘마서 32:28, 34 참조.



17. 마태복음 18:21~22; 강조 추가; 또한 누가복음 17:1~4 참조.
18. 교리와 성약 20:5~7; 25:3; 29:3; 31:5; 36:1; 50:36; 60:6~7; 61:2; 62:3; 64:1~4; 5~7, 15~17; 75:6~8; 82:1; 84:60~61; 90:1, 6; 108:1; 110:5; 112:3; 124:74~76, 78; 132:50 참조.
19. 교리와 성약 20:5~7; 29:3; 60:6~7; 61:2; 62:3; 64:5~7; 84:60~61; 90:1; 110:5; 132:50 참조.
20. 조셉 스미스-역사 1:28.
21. 교리와 성약 64:2 강조 추가.
22. 니파이전서 20:9~11; 교리와 성약 24:2; 50:41; 63:47; 108:1~8 참조.
23. 교리와 성약 64:3.
24. 교리와 성약 64:7.
25. 교리와 성약 1:31; 또한 32~33절 참조; 엘마서 45:16.
26. 교리와 성약 132:27; 또한 마태복음 12:31; 누가복음 12:10 참조.
27. 출애굽기 20:13; 모사이야서 13:21; 교리와 성약 132:19; 모세서 5:31~36 참조.
28. 엘마서 39:5; 교리와 성약 42:24~26 참조.
29. 교리와 성약 42:22~26, 75~78, 80~82; 63:13~17; 76:103; 132:41~45 참조.
30. 교리와 성약 82:3; 또한 요한복음 15:22 참조.
31. 모로나이서 6:8 참조.
32. 모사이야서 15:26 참조.
33. 사무엘상 16:7; 시편 24:3~4; 잠언 23:7; 마태복음 15:18~20; 마가복음 7:20~23; 히브리서 3:12; 제3니파이 12:19; 교리와 성약 59:8; 64:34 참조.
34. 교리와 성약 20:29~30; 121:37 참조.
35. 교리와 성약 117:11 참조.
36. Bible Dictionary, "Nicolaitans" 참조.
37. 요한계시록 2:6, 15 참조.
38. 교리와 성약 56:15.
39. 니파이후서 25:23; 교리와 성약 138:4 참조.
40. 모세서 7:21.
41. 이더서 12:27.
42. 요한복음 15:22; 교리와 성약 1:33; 82:3 참조.
43. 엘마서 41:5~6; 제3니파이 9:20;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44. 니파이전서 15:33; 엘마서 41:3~4; 교리와 성약 137:9 참조.
45. 마태복음 6:14~15; 교리와 성약 64:8~10; 98:39~48 참조.
46.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 선교사업 지도서(2004), 189쪽.
47. 토마스 에스 몬슨, "그들이 앞으로 될 존재로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68, 69쪽; 강조 추가.
48. 교리와 성약 38:10~11, 14; 강조 추가.
49. 로마서 3:23.
50. 교리와 성약 62:1; 또한 엘마서 7:12 참조.
51. 교리와 성약 61:39; 강조 추가.
52. 엘마서 34:18; 강조 추가; 또한 니파이후서 31:19; 엘마서 7:14 참조.
53. 힐라맨서 13:11; 교리와 성약 19:4, 13~21 참조.
54. 교리와 성약 64:8~10 참조.
55. 교리와 성약 101:9; 강조 추가; 또한 교리와 성약 82:1~7 참조.
56. "불러라 고요히 성가", 찬송가, 94장.
57. 엘마서 34:15~17 참조.



**엠 러셀 벨라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이것이 곧 나의 일ियो, 나의 영광이니라”

하나님은 그분의 신권을 받아들여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권능을 값없이 주십니다.

**패** 키 회장님, 우리는 모두 그 훌륭한 시의 98세판을 한 마음으로 고대합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훌륭한 가르침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몇 주 전, 춥고 캄캄한 그 겨울밤에 저는 아내 바바라와 함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수백만 개의 별들이 유난히 밝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값진 진주를 퍼서 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이 말씀을 경이로운 마음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그리고 무수한 세상을 내가 창조하였고 또한 나는 내 자신의 목적이 있어 그것들을 창조하였으며, 아들로 말미암아 내가 그것들을 창조하였나니, 이는 나의 독생자니라.”(모세서 1:33)

우리 시대에는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 모세가 본 것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허블 과학자에 따르면, 태양과 지구는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서 아주 작은 일부에 불과하며, 이 은하계조차도 2,000억 개가 넘는 비슷한 규모의 성운들 중 하나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토록 크고 광활한 하나님의 창조물을 가늠하기가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해하기조차 어렵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하늘과 땅은 신권 권능으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회원들은 이 신권 권능의 근원이 전능하신 하나님과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압니다. 신권은 하늘과 땅을 창조한 권능일 뿐 아니라 구주께서 지상 성역을 베푸실 때 기적을 행하고, 병자를 축복하고 고치시며,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실 때 사용하셨던 권능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 권능으로 주님께서서는 아버지의 독생자로서 겐세마네와 갈보리에서 견디기 힘든 고통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하여 공의와 자비의 율법을 완성하시고 무한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부활을 통해 육신의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구주께서 다른 이들을 축복하고 땅에서 매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도록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그 밖의 사도들에게 주신 것도 이 신권 권세의 열쇠와 이에서 비롯되는 권능이었습니다.

신권 권능은 성스럽고도 필수적인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이 권능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도록 부여되는 권한인 신권 권세와는 다릅니다. 권세나 성임은 안수로



주어집니다. 그러나 신권 권능은 오직 신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합당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주님은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권세를 주셨지만 스스로 의롭지 않으면 하늘의 권능을 얻을 수 없습니다.”(“소년에게는 보다 가까이 지내는 영웅도 필요합니다”, 성도의 벗, 1976년 8월호, 43쪽)

오늘날의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회복하고 다시 세우던 영화로운 시기에 침례 요한, 베드로, 야고보, 요한,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는 후기에 하나님의 사업이 진척되는 데 필요한 모든 신권 열쇠와 권세를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했습니다.

이러한 열쇠와 이 권세, 그리고 이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오늘날에 조직되었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어 살아 있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인도하시며, 합당하게 부름받고 성임되어 사도들을 보좌를 받으십니다.

신권이 부여되는 이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남성은 신권을 베풀고 유한 책임이 있지만, 남성이 곧 신권 그 자체는 아닙니다. 남성과 여성이 서로 다르기는 하지만 각자 하는 역할은 동등한 가치를 지닙니다. 여성이 남성 없이 임신할 수 없듯이 남성도 여성 없이는 영원한 가족을 이루기 위한 신권 권능을 온전히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달리 말씀드리면, 영원한 관점에서 출산 능력과 신권 권능은 모두 남편과 아내가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남편과 아내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따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들은 생활 속에서 가족을 위해 신권 축복을 구할 때 사랑과 겸손, 인내라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아들딸이 신권 축복을 받고 신권 권능으로 강화되도록 길을 마련하셨다는 점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영의 자녀를 위한 그분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음과 같은 선언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 주는 것 - 이것이 곧 나의 일이고, 나의 영광이니라.”(모세서 1:39)

교리와 성약 81편에서 주님이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신 계시를 보면, 신권 권능은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5절) 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을 행함으로써 너는 네 이웃에게 가장 큰 선을 베풀게 될 것이요, 네 주되는 이의 영광을 증진시키게 되리라.”(교리와 성약 81:4)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하는 것을 떠올릴 때, 저는 할아버지에게 자그마한 토마토 모종을 보여 준 사랑스러운 일곱 살 난 소녀가 생각합니다. 그 토마토 모종은 2학년생의 학교 숙제로, 소녀가 직접 씨앗을 심어 싹을 틔운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작은 씨앗이 식물이 되는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식물을 잘 보살피면, 쑥쑥 자라서 많은 토마토가 열리고, 토마토마다 씨앗도 많이 들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그 씨앗들을 심어서 키우면 더 많은 토마토가 열려요. 그 토마토에 든 씨앗을 또 키우면, 몇 년 안 가서 수백만 개나 되는 토마토가 생기는 거예요.”

소녀는 놀라워하면서 말했습니다. “그 모든 게 작은 씨앗 하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도 해주었습니다. “하마터면 이 토마토 화분을 죽일 뻔했어요. 어두운 방에 놔 두고는 물 주는 걸 깜빡했거든요. 생각이 났을 때는 다 시들어서 죽어 버린 줄만 알았죠. 수백만 개 토마토를 잃어버렸단 생각에 영영 울었어요.”

그런 뒤 소녀는 할아버지에게 그 후에 일어난 “기적”을 신 나게 들려주었습니다.

“엄마는 토마토가 죽지 않았을 거라고 하셨어요. 다시 살리려면 물하고 빛만 조금 있으면 된다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엄마 말씀이 맞았어요. 물을 주고 창가에 두어 빛을 쬐게 했더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토마토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수백만 개 토마토로 자라게 될 거예요!”

그 작은 토마토 모종은 그토록 엄청난 잠재력이 있었지만, 뜻하지 않은 방치로 약해지고 시들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작은 소녀의 사랑과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물과 빛을 공급받자, 토마토는 힘을 얻어 소생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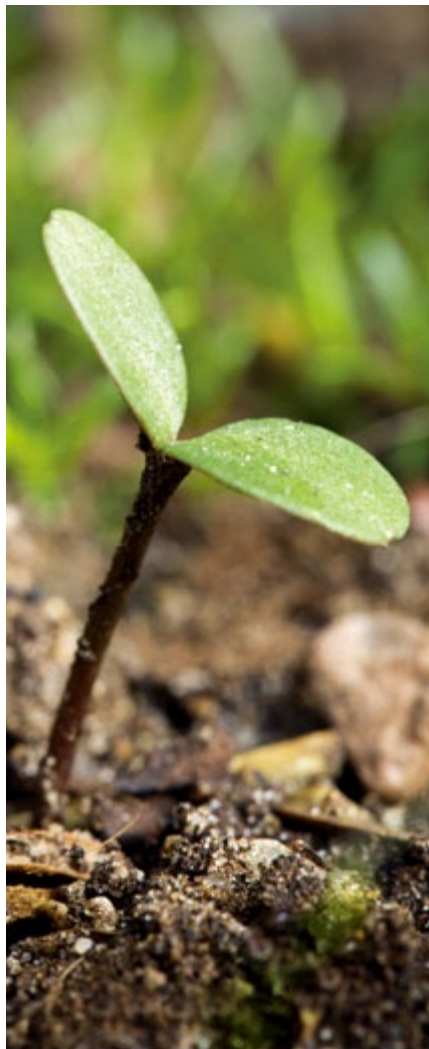
형제 자매 여러분, 문자 그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시는 사랑 많으신 아버지의 영의 자녀로서 무한하고 신성한 잠재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시들어 버린 토마토 모종처럼 될 수 있습니다. 구주의 영원한 사랑과 신권 권능의 신성한 빛과 생명수로부터 차단된 채 그리스도의 참된 교리와 복음에서 멀어지고 영적으로 영양 결핍이 되어 시들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신권을 갖고 있지만 가족과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봉사함으로써 신권을 영화롭게 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이들은 신권 권능에 내재된 축복을 받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이런 분들은 풍성한 잠재력을 갖고 있는 토마토 모종을 방치해서 시들게 했듯이, 자신의 삶에 필수적인 영적 자양분과 빛,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을 스스로 차단했으므로 분명 영적으로 말라 버릴 것입니다.

여러 세상과 성운, 우주를 창조한 바로 그 신권 권능은 가족과 친구, 이웃을 돕고 강화하며 축복하는, 우리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구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서 성역을 베푸신다면 응당 하셨을 일을 해야 합니다.

신권 권능의 주된 목적은 우리를



축복하고, 성결하게 하고, 정화함으로써 우리가 가족과 함께 신권으로 인봉되어 우리 자신의 부모와 하늘에서 살게 하려는 것이며, 또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영광을 영원히 확장하는 놀라운 사업에 참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저는 몇 달 전, 신권을 통해 가정과 교회를 강화함이라는 비디오회로 기초로 2013년도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발표 자료를 만드는 데 참여하였습니다.

이 혁신적이고 교육적인 DVD는 66개 언어로 번역됩니다. 이 DVD는 신권 권능이 어떻게 우리와 가족의 삶, 그리고 모든 교회 회원의 삶을 축복하고 활력을 주며 소생시키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 DVD는 남녀노소, 기혼자나 미혼자, 또는 배우자와 사별한 분 모두에게 각기 처한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가 어떻게 신권 축복을 누릴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 여기에는 신권의 열쇠와 그 권세 및 권능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신권이 어떻게 개인과 가족, 교회를 강화하는지를 보여 주는 8분에서 12분짜리 짧은 영상물이 여러 편 들어 있습니다.

제 외가 쪽 증조모인 메리 필딩 스미스가 초기에 생활하셨던 아주 작은 집에서 촬영한 특별한 장면도 있습니다. 메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형인 하이럼 스미스와 사별하여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홀어머니로서 그녀는 신권에 대한 강한 신앙으로 자녀를 사랑과 복음의 빛 안에서 양육하고 축복하고자 신권 권능을 요청하고 이에 의지했습니다. 오늘날 수천 명으로 늘어난 그분의 후손은 교회의 충실한 지도자와 회원으로서 증조할머니의 신앙과 용기와 모범에 감사해합니다.

이 새로운 지도자 훈련 자료는 인터넷 LDS.org에서 모든 분이 보고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료를 LDS.org에서 직접 보거나 컴퓨터,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기기로 다운로드할 수도 있습니다.



제일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당부하셨습니다. “우리는 스테이크 회장단과 감독단 여러분께 스테이크 평의회나 워드 평의회를 한 번 이상 할애하여 이 DVD를 시청하시도록 부탁드립니다. 스테이크 및 워드 평의회에서는 이 자료에 담긴 가르침을 실천할 방법을 토론해야 합니다.”(2013년 2월 1일자 제일회장단 서한)

이 자료는 신권 정원회, 상호부조회, 주일학교, 청년, 청남에 속한 회원들, 특히 선교 사업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또 초등학교 모임이나 다섯 번째 일요일 합동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평의회 일원들은 개인과 부모들에게 이 자료를 가족과 함께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지도력 훈련은 교회의 모든 회원을 위한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배우고 느낀 것을 자녀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며, 토의하십시오. 자녀에게 여러분을 지켜보고 그와 똑같이 실천하라고 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가정이 신권을 통해 강화될 수 있게 하십시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요한복음 7:37)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요한복음 4:14)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요한복음 8:12)

여러분 중에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대한 신앙이나 간증이 마땅히 그래야 한다고 아는 것만큼 강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시다면, 구주께 더욱 온전히 향하십시오. 약간의 물과 빛이 약해진 토마토 모종을 되살렸듯이 주님의 빛과 생명을 받아들이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십시오.

저는 신권 권능을 통해 지어진 하나님의 창조물에 대한 놀라움과 경외심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저는 우리에게 가르침과 축복을 주는 하나님의 권능을 완전하게 이해할 수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그 권능은 참으로 위대하고 장엄하며 강력합니다.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권은 영원불변한 원리이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존재했고 영원까지 존재할 것이니, 시작한 날도 없고 끝나는 날도 없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 [2007], 104쪽)

하나님은 그분의 신권을 받아들여 영화롭게 하는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이라고 하는, 약속된 축복으로 인도하는 그분의 권능을 값없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업은 신권을 통해 성취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유익을 위해 위대한 행복의 계획을 시작하신 것은 바로 그 권능을 통해서였습니다. 부디 우리가 지혜로워서 하나님의 신권 권능을 통해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강화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겸손하게 간구합니다. 아멘. ■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내게로 오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말씀과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연차 대회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왕국으로 들어올 때 그분의 이름을 짊어집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자 창조주이시며, 완전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와 죽음을 겪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우리와 우리 가족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분 가까이 있으라고 부르십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가까이 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가까이 가리라. 나를 부지런히 찾으라. 그리하면 나를 찾으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게 될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리리라.”<sup>1</sup>

이 부활절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를, 그리고 그분의 사랑하는 친구가 되려는 충실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구주께서는 그 약속을 하셨고, 우리가 그분을 섬길 때 어떻게 우리에게 오시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물론경 번역 과정에서 올리버 카우드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함께 주님께 봉사할 때 주신 다음 계시는 좋은 예입니다. “보라, 너는 올리버라. 네가 원하므로 내가 네게 말하였노니, 그러므로 이 말씀들을 네 마음에 소중히 간직해 두라. 하나님의 계명 지키기에 충실하고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나는 나의 사랑의

팔로 너를 안아 주리라.”<sup>2</sup>  
구주께 더 가까이 가고, 또 그분께서 제게 가까이 오시는 기쁨을 가장 자주 경험했던 것은 계명에 순종하는 간단한 행위를 통해서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성찬식에 참석하기로 했을 때도 그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어느 안식일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당시 우리는 저녁 시간에 성찬식을 했습니다. 65년도 더 지났지만, 가족과 성도들과 함께 모이라는 계명을 지켰던 그날의 추억은 지금도 저를 구주 가까이로 이끌어 줍니다.

밝은 어둠고 추웠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부모님과 함께 예배실에서 느꼈던 밝고 따뜻한 느낌을 기억합니다. 우리는 아론 신권 소유자들이 집행하는 성찬을 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늘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성약했습니다.

성찬식이 끝날 때 우리는 찬송가로 “낮도 다간 이 저녁에”를 불렀는데, 그 노래에는 “주여 이 밤 나와 함께 머물러 주소서”<sup>3</sup>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구주의 사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심을 느꼈습니다. 또 성신의 위안을 느꼈습니다.

청소년 시절, 저는 그 성찬식에서 느꼈던 구주의 사랑과 그분이 가까이 계시다는

느낌을 다시 한 번 강렬하게 느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계명을 지켰습니다. 저는 경전을 탐구했습니다. 경전을 읽으면서 저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 집에 와서 머물다 가시라는 청에 응하셨을 때 두 제자가 느꼈을 기분을 성신을 통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가 묻힌 지 3일째 되던 날의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충실한 여인들과 다른 사람들은 무덤 입구에 있던 돌이 치워져 있고 그분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분 시신에 기름을 바르기 위해 왔던 것이었습니다.

곁에서 있던 두 천사는 그들에게 왜 근심하느냐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삼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sup>4</sup>

마가복음에 한 천사가 전한 지시가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뵈오리라 하라”<sup>5</sup>

사도들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랬겠지만, 그들은 두렵고 놀라운 마음으로 주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소식이 자신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두 제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엠마오로 향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길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걸으셨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누가복음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걸었던 길을 동행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 한 사람인 글로바라 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sup>6</sup>

그들은 슬퍼하며 이스라엘의 구속주라고 철썩같이 믿었던 예수께서 돌아가셨다고 그분께 이야기했습니다.

슬픔에 잠겨 애도하는 이 두 제자에게 말씀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에는 분명히 애정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sup>7</sup>

그다음에 제 어린 소년 시절 이후로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 주었던 그 부분이 이어집니다.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매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하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이다 때가 저물어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sup>8</sup>

그날 밤 구주께서는 엠마오 마을 가까이에 있는 집에 머물다 가시라는 제자들의 권유를 받아들이셨습니다.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떡을 가져다가 축복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때서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 주님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들 시야에서 사라지셨습니다. 누가는 그 축복받은 제자들의 느낌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sup>9</sup>

그 길로 두 제자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자신들에게 일어난 일을 열한 사도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구주께서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의 죄를 속죄하고 죽음의 사슬을 끊는 자신의 사명에 대한 예언을 날날이 확인해 주셨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십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sup>10</sup>

구주의 이 말씀은 당시의 제자들과 더불어 우리에게도 해당됩니다. 우리는

이런 일들에 대한 증인입니다. 침례를 받아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로 들어올 때 받아들인 그 영광스러운 책임을, 오래전에 선지자 엘마도 물몬의 물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되었나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몬의 물이 있으니(이는 그 물이 그렇게 일컬어졌음이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무리 안으로 들어와, 그의 백성이라 일컬음을 받기 원하며 기꺼이 서로의 짐을 져 가볍게 하고자 하며,

참으로 또한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기꺼이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하며, 참으로 죽을 때까지 어느 때에나 무슨 일이나, 너희가 있게 될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너희가 하나님께 구속을 받고 첫째 부활에 속한 자들과 함께 헤아림을 받아 영생을 얻고자 한즉 -

이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너희 마음의 원하는 바일진대 주께서 너희에게 그의 영을 더욱 풍성하게 부어 주시도록, 너희가 그를 섬기며 그의 계명을 지키기로 그와 성약을 맺었다는 그의



앞에서의 증거로서, 주의 이름으로 침례 받음에 너희가 끼릴 것이 무엇이 있느냐?

이에 이제 무리가 이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이 기쁨으로 손뼉을 치며 외치기를,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의 원하는 바라 하더라.”<sup>11</sup>

우리는 살아 있는 한,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주의 증인이 되겠다고 성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주를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느낄 때에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맺은 약속을 충실히 지킬 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커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을 섬길 때 그분의 권능과 그분께서 우리에게로 가까이 다가오심을 느낄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랑이 늘어 날 것입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주님께서 충실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을 종종 일깨워 주십니다. “누구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거기에 나도 있으리니, 이는 내가 너희 앞서 나아 갈 것임이라. 나는 너희 오른편에도 왼편에도 있을 것이요, 나의 영은 너희 마음속에 있을 것이요, 나의 천사들은 너희를 둘러 있어 너희를 받쳐 주리라.”<sup>12</sup>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느낄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주님께 헌신적으로 봉사할 때, 그분은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더 가까이 오십니다. 부름을 받아 주님께

봉사하기 위해 이사하거나 가족을 떠날 때마다 저는 주님께서 제 아내와 자녀들을 축복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그분의 상냥한 종들과 기회를 준비하셔서 제 가족이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인생에서 그런 축복을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사랑하는 이들이 영생에 이르는 길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아야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해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으로 그분을 섬길 때,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것임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돈이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기 위해 가족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을 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여러분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진실로 이같이 주가 너희, 나의 친구 시드니와 조셉에게 이르노니, 너희 가족은 평안하도다. 그들은 내 손 안에 있고 나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리니, 이는 내 안에 모든 권능이 있음이니라.”<sup>13</sup>

오랫동안 충실하고 훌륭하게 주님께 봉사했으나 그런 희생에도 불구하고 엘마와 모사이야 왕처럼 방황하는 자녀를 둔 부모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최선을 다했으며 충실하고 애정 어린 친구들의 도움까지 받았지만, 길으로 보기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엘마와 성도들은 엘마의 아들과 모사이야 왕의 아들들을 위해 기도했으며, 그렇게 해서 천사가 왔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신앙을 행사한 사람들의 기도로 주님의 종들이 여러분의 가족을 돕기 위해 움직일 것입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이생과 다음 생에까지 여러분의 가족을 파괴하고자 공격을 퍼붓더라도 여러분의 가족이 하나님께서 계신 곳으로 가는 길을 선택하도록 그들이 도울 것입니다.

거역하는 엘마 이세와 모사이야 왕의 아들들에게 천사가 했던 다음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또 천사가 다시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백성의 기도와, 또한 네 아비인 그 종 엘마의 기도를 들으셨으니, 이는 그가 네게 관하여 곧 네가 진리의 지식으로 인도되기를 많은 신앙으로 기도하였음이니라. 이리므로 내게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를 깨닫게 하여, 그 종들의 기도가 그들의 신앙에 따라 응답되게 하려는 이 목적으로 내가 왔노라.”<sup>14</sup>

주님께 기도하고 봉사하는 여러분에게 자신과 가족을 위해 바라는 축복이 모두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은 해 드리지 못합니다만, 구주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다가오셔서 가장 적합하고 알맞은 것으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축복하시리라는 것은 약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팔을 내밀어 다른 사람들에게 봉사할 때 주님의 사랑에 찬 위로를 받고 그분이 더 가까이 다가오시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 주고 죄에 빠져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분의 속죄를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떠받쳐 줄 것입니다. 주님께서 팔을 활짝 펴시고 여러분의 가족을 포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을 돕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영광스러운 귀향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우리가 사랑했던 주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고 그분의 아들과 함께하는 영생으로 우리를 맞이해 주실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시온을 일으켜 굳게 세우기를 구하라. 모든 일에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만일 네가 나의 계명을 지키고 끝까지 견디면, 너는 영생을 얻으리니, 이 은사는 하나님의 모든 은사 가운데서 가장 큰 것이니라”<sup>15</sup>

“이는 사는 자들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죽는 자들은 그들의 모든 수고를 떠나 쉴 것이며 그들의 업적이 그들을 따를 것임이라. 또 그들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예비한 나의 아버지의 거처에서 면류관을 받으리라.”<sup>16</sup>

우리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sup>17</sup>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고를 영으로 따를 수 있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더 가까이 가는 방법을 말씀과 모범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침례의 문을 통해 그분 교회에

들어온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이 세상에서 그분의 복음을 배우고 그분의 종들에게서 “내게로 오라”<sup>18</sup>는 권유를 받을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지상에 있는 주님의 왕국 내에, 그리고 영의 세계에 있는 그분의 모든 종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봉사할 때 영을 통해 주님의 인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

저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마치 제가 그날 저녁에 그 집에 있었던 것처럼, 분명하게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저는 조셉 스미스가 어느 날 아침에 팔마이라의 숲에서 찬란한 빛 속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을 보았듯이 분명하게 그분이 살아 계심을 압니다.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도록 가족으로 인봉하는 권능은 오직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이 지니신 신권 열쇠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에 얼굴을 맞대고 구주 앞에 설 것입니다. 이생에서 주님께 봉사하면서 주님께 가까이 갔던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sup>19</sup>라는 말을 기쁘게 들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구주, 우리 구속주의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88:63.
2. 교리와 성약 6:20.
3. “낮도 다간 이 저녁에”, 찬송가, 72장.
4. 누가복음 24:5~7.
5. 마가복음 16:7.
6. 누가복음 24:15~18.
7. 누가복음 24:25~27.
8. 누가복음 24:28~29.
9. 누가복음 24:32.
10. 누가복음 24:46~48.
11. 모사이야서 18:8~11.
12. 교리와 성약 84:88.
13. 교리와 성약 100:1.
14. 모사이야서 27:14.
15. 교리와 성약 14:6~7.
16. 교리와 성약 59:2.
17. 조셉 스미스—역사 1:17.
18. 마태복음 11:28.
19. 마태복음 25:21.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교회 역원 지지

**토**마스 스펜서 몬슨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장으로, 헨리 베니언 아이어링을 제일회장단 제1보좌로, 디이터 프레드릭 우흐트도르프를 제2보좌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를 십이사도 정원회 회장으로, 십이사도 정원회 회원으로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톱 페리, 러셀 엠 넬슨, 델린 에이치 옥스, 엠 러셀 벨라드, 리차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엘 쿡,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닐 엘 앤더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회장단 보좌들과 십이사도들을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에서 해임되었습니다.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를 칠십인 정원회 회장단 일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모두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2013년 5월 1일부로 다음 지역 칠십인들을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벤 브이 알리우드, 세르지오 엠 아나야, 놀란 디 아키볼드, 카를로스 엘 아스토가, 헥터 어빌라, 엠 앤소니 번즈, 데이비드 카브레라, 밀튼 카마르고, 로버트 이 챔버스, 빅터 카 캥 천, 쿠오 시양 청, 넬슨 디 코도바, 게리 엘 크리텐던, 에드워드 듀브, 매튜 제이 아이어링, 시온 엠 피네양가노프, 알프레도 엘 게사티, 제임스 비 김슨, 조벤시오 에이 구안존, 마리오 데 구에라, 루이스 에스 헤르난데즈, 허난 아이 헤레라, 자비에 이바네즈, 파울로 에이치 이티노제, 더글러스 더블유 제섭, 스테판 시 커, 요니 엘 코크, 파우스티노 로페즈, 리차드 케이 멜친, 프리바디 에이 멘사, 벤슨 이 미잘루카, 아벨라도 모랄레스, 더블유 티 데이비드 머레이, 케이 브렛 내트레스, 에스 기포드 닐슨, 사토시 니시하라, 마이클 디 피커드, 윌리엄 에프 레이놀즈, 마이클 에이 로버츠, 페르난도 에이 알 다 로카, 만프레드 췌제, 테렌스 시 스미스, 르우벤 엘 스피테일, 조슈아 수반드리요, 프랭크 브이 트라이들, 미구엘 알 발데즈, 아르놀포 발렌주엘라, 카를로스 에이 시 빌라노바, 터렌스 엠 빈슨, 루이스 바이트만, 리차드 시 잠브라노.

이분들의 훌륭한 봉사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진실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일레인 에스 돌튼, 메리 앤 쿡, 앤 엠 딥 자매를 본부 청년 회장단에서 해임할 것을 제의합니다.

이와 함께 본부 청년 위원회의 모든





회원을 해입합니다.

이 자매님들의 훌륭한 봉사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 분들을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에드워드 듀브, 에스 기포드 닐슨, 아놀포 발렌주엘라. 또한 다음 분들을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티모시 제이 다익스, 랜디 디 핑크, 케빈 에스 해밀턴, 에이드리언 오초아, 테렌스 엠 빈슨.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들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에이드리언 오초아 형제님이 받으신 칠십인 제이 정원회의 부름을 고려하여 우리는 그분을 본부 청남회장단 제2보좌에서 해입합니다.

감사의 뜻을 표하고자 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다음에 호명하는 분들을 새로운 지역 칠십인으로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루벤 어코스타, 프레드릭 오 아키노부, 오마

에이 알바레즈, 세르지오 엔툰스, 앨런 시 벳, 그랜트 시 베넷, 페르난도 이 칼데론, 윌슨 비 칼데론, 에이치 마르첼로 카두스, 요크 상(프레디) 찬, 크리스토퍼 찰스, 발레리 브이 코르돈, 폴 알 카워드, 엠 티 벤 데이비스, 마시오 데 페오, 매리온 비 데 안투아노, 프란시스코 제이 루이즈 데 멘도자, 로버트 에이 드라이든, 로버트 제이 두드필드, 대니얼 에프 둔니건, 제프리 디 에렉슨, 이 제이버어 에스피노자, 멜리올라 엠 파타, 샘 엠 갈베즈, 클라우데 알 가미테, 머빈 시 시디, 요아 알 갈, 데이비드 피 호머, 대니얼 더블유 존스, 존 에이 코란텡, 스티븐 오 라잉, 액슬 에이치 라이머, 구스타포 로페즈, 호세 이 마라빌라, 알프레도 미론, 휴고 몬토야, 요아킴 제이 모레이라, 카즈유키 오타하라, 호세 시 피네다, 게리 에스 프라이스, 미구엘 에이 라이에스, 게리 비 셰이빈, 알프레도 엘 샬러스, 넷자후알코요를 살리나스, 시로 슈마일, 디 재커리 스미스, 마이클 엘 사우스워드, 지 로렌스 스펙맨, 빈 피 스텐필, 윌리엄 에이치 스토다드, 스테판 이 톱슨, 조지 제이 토비아스, 아이삭 케이 투쿠아푸, 재쿠에스 에이 반 린넨, 라울 이 빈센쵸, 라울 에스

빌라누에바, 앨런 알 워커, 키이스 피 워커, 호이 생 레오나드 우.

찬성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보니 리 그린 오스카슨을 본부 청녀 회장으로, 제1보좌에 캐럴 루이즈 폴리 맥쿱키, 제2보좌에 에블린 닐 푸트 매리엇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가 있으시면 그 뜻을 표시해 주십시오.

그 외 현재 구성되어 있는 모든 총관리 역원, 지역 칠십인,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을 지지할 것을 제의합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표시해 주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표시해 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저희를 위한 여러분의 지지와 끊임없는 신앙과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새로 부름 받으신 총관리 역원들과 본부 청녀 회장단은 앞으로 나오셔서 단상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 2012년 교회 감사부 보고서

**보고자: 로버트 더블유 켄트웰**  
교회 감사부 관리 책임자

수신: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제일회장단

**형** 제 여러분, 교리와 성약 120편에 나오는 계시에 규정된 대로 십일조 지출 평의회가 교회의 자금 지출을 승인합니다. 이 평의회는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 감리 감독단으로 구성됩니다.

이 평의회는 교회 부서와 그 운영 예산 및 교회 단위 조직과 관련하여 배정되는 예산을 승인합니다. 교회 부서는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그리고 승인된 예산 한도에 따라 기금을 지출합니다.

교회 감사부는 자금의 수입과 지출 및 교회 자산 보호와 관련해 올바르게 관리하고 있는지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기록과 시스템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교회의 모든 다른 부서와

운영 기구들로부터 독립되어 있으며, 공인 회계사와 공인 내부 감사자, 공인 정보 시스템 감사자, 그 외 자격을 갖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교회 감사부는 감사 자료에 근거해 2012년 한 해 동안 있었던 현금 영수와 지출, 그리고 교회 자산이 모든 면에서 적합한 회계 관행과 승인된 예산 범위, 교회 정책과 절차에 따라 집행되고 기록되었음을 밝힙니다.

삼가 제출합니다.  
교회 감사부  
로버트 더블유 켄트웰  
관리 책임자 ■



# 2012년 통계 보고서

**보고자: 브룩 피 헤일즈**  
제일회장단 비서

**제** 일회장단은 교회 회원들에게 알리기 위해 201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교회의 성장과 상태에 대한 통계 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습니다.

## 교회 단위 조직

스테이크.....	3,005개
선교부.....	347개
지방부.....	591개
와드 및 지부.....	29,014개

## 교회 회원

전체 회원 수.....	14,782,473명
2012년 기록상의 새로운 자녀.....	122,273명
2012년 침례 받은 개종자.....	272,330명

## 선교사

전임 선교사.....	58,990명
교회 봉사 선교사.....	22,961명

## 성전

2012년 동안 헌납된 성전(미주리 캔자스시티, 브라질 마나우스, 유타 브리검시티, 앨버타 캘거리) .....	4개
2012년에 재헌납된 성전(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아이다호 보이시) .....	2개
운영 중인 성전.....	140개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가정의 평화를 위해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하나를 든다면, 그것은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성약을 지키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의 힘이 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해야 할 일, 이뤄야 할 일이 항상 늘어만 갑니다. 그런데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는 화평과 평온함이 가득한 피난처를 원합니다. 내일의 압박에 대비하여 재조정하고 재정비하고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곳 말입니다.

그런 평안을 찾을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는 바로 우리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어떤 가정은 합당한 신권을 소유한 아버지와 충실하고 헌신적인 어머니가 함께 의롭게 이끌어갑니다. 가정마다 처한 상황은 각기 다릅니다.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여러분은 가정과 삶의 중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위에 둘 수 있습니다. 이 삶에서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평화의 근원은 바로 그분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 때는 반드시 구주께서 원하실 만한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 화평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 자신감이 넘치고, 그곳에 거하는 모두가 그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 권고는 부모만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가정을 이끄는 책임은 부모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 합니다. 자녀에게 그들의 행동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인식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롭든지 의롭지 않든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도록 가르침 받은 자녀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신뢰할 만한 시민으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구주를 가정의 중심이 되게 하는 기본 원리를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기도하고,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경전 공부를 하며, 매주 가정의 밤을 하라는 선지자들의 권고야말로 그리스도 중심의 가정을 굳게 세우는 대들보입니다. 이 같은 규칙적인 행위가 없다면, 간절히 원하고 필요로 하는 평안과 피난처를 찾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이 그분을 따르기를 바라신다고 선지자들은 가르칩니다. 그 가르침에 순종하십시오. 확실하고 안전한 복음 원리를 적용하는 것보다 더 손쉬운 방법을 취해도 미래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고 그럴듯하게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작은 일에서 큰일이 생겨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별것 아닌



호주 시드니

듯 보이는 부주의나 태만이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점은, 단순하면서도 꾸준하고 훌륭한 습관은 축복 가득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초등학교 어린이 여러분, 청남 청년 여러분, 충실한 선교사 여러분은 여러분 나이 때의 저보다 더 효과적으로 많은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전세에서 충실하고 순종적이고 순결한 존재임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여러분은 바로 그곳에서 용감하고 품위 있고 영예롭게, 또 성공적으로 필멸의 생을 맞기 위한 재능과 역량을 열심히 키웠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엄청난 능력과 무한한 가능성을 모두 갖추고 이 필멸의 세상에 온 것은 그리 오래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을 둘러싼 환경은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사탄이 오염시켜 놓은 것들에 빠진다면 여러분의 그 큰 잠재력과 능력은 무더지거나 소멸해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은 구주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졌다는 것을 알면서도 최대한 많은 사람을 파멸하려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약점을 이용하는 방식으로 여러분의 선한 마음과 능력을 파괴하려 할 것입니다. 주님 편에 굳건히 서십시오. 그러면 언제나 여러분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놀라운 속도로 기술이 발전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이러한 발전이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장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대로 이해하고 의로운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면 그 기술은 위협이 되기보다는 영적인 대화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대부분은 주머니에 쏙 들어가는 전자 기기 하나씩은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 기기와 떨어져 지낸다는 것은 거의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루에도 얼마나 자주 들여다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바로 그 기기 때문에

마음이 더럽혀지고 시간을 허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제대로만 사용하면, 이 기술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는 도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수년 전까지만 해도, 4대 경전과 수십 년분의 연차 대회 말씀이 여러분 주머니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주머니에 넣어두는 것만으로는 보호받지 못할 것입니다. 매일 조용한 시간을 찾아서 그 내용을 공부하고 상고하고 귀 기울여 듣는다면, 영을 통해 나누는 대화가 향상될 것입니다.

기술을 현명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전자 기기에 중요한 성구들을 표시해 두고 자주 들여다보십시오. 성구 하나를 정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횟수만큼 자주 읽는다면 곧 성구 수백 개를 암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암기한 성구들은 힘든 시기에 여러분에게 강력한 영감을 주고 성신의 인도를 받게 해 줄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조용히 이끌어 주는

성신의 영향력을 받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야말로 구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정을 이루는 데에서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성신의 속삭임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훨씬 더 강해질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주위 사람을 위해 봉사한다면, 더 큰 평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미약하나마 자신의 재능을 주변 사람을 위해 겸손한 마음으로 관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기심은 큰 악의 뿌리입니다. 그러한 악에 대한 해독제는 구주의 삶 속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비이기적인 봉사를 하심으로써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수 있는지를 보여 주셨습니다.

저는 제 삶에서 매우 자주 반복되는 한 가지 진리를 배웠는데, 그것이 불변의 법칙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순종과 봉사가 하나님의 권능과 어떻게 연결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분의 자녀들을 위해 기꺼이 봉사하면 하나님의 권능, 즉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주님으로부터 힘과 권능을 받아서 우리의 통찰력과 재능, 능력이 확장됩니다. 주님의 권능은 평화가 가득한 가정을 세우는 기본 요소입니다.

가정의 중심을 구주께 두게 되면, 여러분의 가정은 가족뿐 아니라 더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가는 친구들에게도 자연스럽게 피난처가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곳에서 느끼는 평온함에 이끌릴 것입니다. 그런 친구들을 기쁘게 여러분의 가정으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여러분의 환경 안에서 그들은 발전할 것입니다. 자녀의 친구들과도 친하게 지내십시오. 그들에게 훌륭한 모범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축복으로 줄 수 있는 가장 큰 것 하나를 든다면, 바로 복음을 가르치고







미국 뉴욕 뉴욕시티

성약을 지키며 사랑이 넘치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두는 가정의 힘이 될 것입니다.

오래전, 선교부 방문을 마친 뒤에 제 아내 지닌은 한 장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내는 그 장로에게 가족에 대해 물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하게 가족이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장로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가 자신을 정부 운영 기관에 맡겨 버렸다고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집 저 집에 위탁되어 유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십 대 시절에 복음을 알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또 같은 와드에 있는 사랑 많은 가족이 그에게 선교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후에 제 아내는 선교부 회장님 부인에게 이 훌륭한 장로에 관해 물었습니다. 그리고 이 장로가 몇 달 전에 몸이 아파서 며칠간 선교부 사택에 묵은 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는 그때 가정의 밤에 참석했습니다. 임지로 복귀하기 전, 이 장로는 선교부 회장님께 선교 사업을 마칠 때 이삼일 정도 더 선교부 사택에 와서 묵어도 되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가족의 모습이 어떤지를 직접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선교부 회장 가족을 닮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가정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반대의 환경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어 주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 같은 진정한 우정은 삶의 웅덩이를 메워서 더 순탄하고 쾌적한 길로 만들어 주는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그런 우정은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 이용하는 도구가 아니라 감사한 마음이 들게 하며 함께 나누고 싶은 보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통해 강화될 필요가 있는 이들을 여러분의 가정에 맞아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가족 중에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족을 둔 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되면 인내력을 시험받게 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주님을 신뢰하시고, 우리의 기도와 구조하려는 노력에 긍정적인 응답이 올, 주님의 때가 있다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봉사하고 축복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적으로 인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우리 모두 신앙을 행사하여, 어떤 것은 주님께 맡겨야 한다는 점을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짐을 그분의 발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십니다. 신앙이 있으면 이 방황하는 가족이 버림받지 않고 사랑하는 구주의 보살핌을 받을 것임을 알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약점이 아니라 장점을

봅시다. 다른 이의 약점이 고쳐질 수 있도록 적절한 관심을 보여야 할 때도 있지만, 장점만은 늘 인정해 줍시다.

실낱 같은 희망만 있다고 해도, 실제 그 희망은 실낱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강건하게 하고 일으켜 세우는 생명의 동아줄만큼 튼튼하기 마련입니다. 그 희망에서 위안을 얻어 두려움을 떨칠 수 있습니다. 합당하게 살기 위해 노력하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일을 모두 한꺼번에 못한다고 해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매사에 그 때와 시기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간절한 기도로 인도를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삶의 매 단계에서 중요한 방향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배우고 성장할 수 있으며, 한 번에 한 걸음씩 그분과 같이 되어 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우리 가정이 평안의 장소이자 피난처가 된다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여전히 고난과 마음속 고통이 많겠지만, 우리는 혼란 중에서도 내면의 평안과 큰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바로 그 가득한 평안의 근원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쿠엔틴 엘 쿡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개인적인 평화: 의로움의 보상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안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최** 근에 한 경험에서 저는 평화의 교리에 대해, 그리고 특히 우리 각자가 영원히 지속되는 개인적인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에 관해 깊이 생각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던 두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중 하나는 사랑스러운 여섯 살 소녀 에밀리 파커의 장례식에서 연사로 말씀을 전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아이는 19명의 어린이들을 포함하여 25명의 목숨을 앗아간, 코네티컷 뉴타운에서 일어난 끔찍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사망했습니다. 저는 그 아이의 가족과 함께 애도하면서 많은 사람이 평안을 잃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의 부모인 로버트와 엘리사 파커는 강하고 충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코트디부아르 아버지장에서 수천 명의 충실한 교회 회원들을 만났습니다.<sup>1</sup>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이 서아프리카 국가는 경제적 어려움, 군사 쿠데타, 그리고 2011년에서야 종결된 두 차례의 내전을 겪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들과 함께하면서 저는 특별한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우리에게서 평화를 찾아가고 우리가 연약하다고 느끼게 하는 사건들은 자주 일어납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 곳곳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공격을 누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한 사건을 겪을 때면 평화롭고 안전하다는 느낌을 곧바로 상실하고 맙니다.

첫 번째 비행기가 뉴욕의 세계 무역 센터 북쪽 타워로 돌진했을 때, 첫 자녀의 출산을 앞둔 제 장남과 며느리는 그곳에서 세 구역 떨어진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 내외는 아파트 옥상으로 올라가 그 사태를 지켜보며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그들은 참으로 끔찍한 사고가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뒤 그들은 두 번째 비행기가 남쪽 타워에 충돌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이것이 사고가 아님을 깨달았고 맨해튼 남쪽 지역이 공격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쪽 타워가 붕괴하자 맨해튼 남쪽 지역을 뒤덮었던 먼지는 아들 내외가 사는 그 아파트까지 덮쳐 버렸습니다.

그들은 벌어진 사태에 당황했지만,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안전한 장소로 피신했습니다. 가는 도중 잠시 멈춰서 저희에게 전화를 해 자신들이 안전하다는 것을 알린 다음, 링컨센터에 있는 맨해튼

스레이크 집회소로 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아들 내외는 맨해튼 남쪽 지역에 사는 수십 명의 다른 회원들도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스테이크센터로 모이기로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서 자신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 주었습니다. 그들이 안전하다는 말에 안도한 저는 그들이 있는 장소를 듣고 놀라지 않았습니다. 현대의 계시는 시온의 스테이크가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이 피난민들은 일주일이 넘도록 집에 돌아갈 수 없었고, 수많은 무고한 목숨이 희생됐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지만,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피해로 고통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저는 이 사건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보편적 평화, 또는 세계의 평화와 개인적인 평화 사이의 교리적인 차이점에 대해 느낀 바가 컸습니다.<sup>3</sup>

구주께서 탄생하실 때 수많은 천군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sup>4</sup>

하지만 하나님 아들의 탄생에 뒤이은 이 영원토록 중요한 시기에도, 헤롯 왕이 베들레헴의 무죄한 사내아이들을 살육하라고 지시한 가슴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sup>5</sup>

선택의지는 행복의 계획에서 필수적이며, 이를 통해 우리는 사랑하고, 희생하며, 개인적인 성장과 경험을 하는데, 이는 우리의 영원한 진보에 필요한 것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필멸의 생애에서 이해하지 못할 일들과 다른 사람들의 치명적이고 사악한 선택으로 일어나는 온갖 고통과 고난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 전쟁은 우리의 도덕적 선택의지를 수호하기 위해

일어났으며, 그것은 구주의 지상 성역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구주께서는 십이사도를 가르치시며 그분의 사명이 이 필멸의 세상에 보편적인 평화를 이룩하려는 것이 아님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사도들은 그들이 방문한 집이 합당하다면, 그 집에 평안을 빌어 주라는 가르침을 받기도 했지만, 그들이 “이리 가운데 …… [있게 될 것이며] ……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sup>6</sup>는 경고도 받았습니다. 34절에서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선언을 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sup>7</sup> 그리스도께서 지상에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지상에는 보편적 평화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은 명백합니다.

교리와 성약 서문에서 주님께서는 몇 가지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분의 영(그리스도의 영)<sup>8</sup>이 “항상 사람과 함께 애쓰시지는”<sup>9</sup>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가 땅에서 거두어[질]”<sup>10</sup> 것입니다. 선지자들은 평화가 실제로 지상에서 거두어졌다고 선포해 왔습니다.<sup>11</sup> 루시퍼는 아직 결박당하지 않았으며 지상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sup>12</sup>

선한 사람들의 의로운 소망은 어디에서나 지상에 평화를 가져왔고, 또 가져올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목표를 성취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께서 “인류가 주님의 진리와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성스러운 그의 권능과 권위를 인정할 때까지는 이 지상에 …… 평화와 사랑의 정신이 임하지 않[을]”<sup>13</sup> 것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는 보편적 평화를 얻기 위해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하지만, 의로운 이에게 약속된 보상이나 평안을 얻는 것은 개인과 가족의



몫입니다. 이 평안은 구주의 사명과 속죄 희생으로 주어지는 약속된 은사입니다.

이 원리는 교리와 성약에 간결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배우라, 의의 일을 행하는 자는 자기 상을 받으리니, 곧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sup>14</sup>

존 테일러 회장은 평화는 바람직한 것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sup>15</sup>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평화란 단지 일시적인 평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내면의 행복과 영적인 만족을 말하는 것입니다.<sup>16</sup>

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께서 구주의 평화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분의 평안은 우리를 고통으로부터 편안하게 해 주며 상한 마음을 감싸 주고 중요성을 몰아내고, 우리의 영혼을 고요함과 행복으로 채워 주는 이웃에 대한 사랑을 우리 마음에 생겨나게 합니다.”<sup>17</sup> 에밀리 파커의 부모와 만났을 때 저는 구주의 평안이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상한 마음을 감싸 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충격이 일어난 직후에 파커 형제님이 가해자를 용서하겠다고 하신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랜트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주의 평안은 “중요를 몰아[낼]” 수 있습니다. 심판은 주님의 것입니다.

코트디부아르 성도들은 자국에서 내전을 겪는 동안 그들의 조상을 위한 가족 역사 및 성전 사업에 역점을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생활하는 데 주력함으로써 평안을 얻었습니다.<sup>18</sup>

우리는 모두 평화를 갈망합니다. 평화는 단지 안전하다거나 전쟁, 폭력, 갈등과 논쟁이 없는 상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구주께서 우리가 누구인지 아실 때 옵니다. 특히 우리가 살면서 커다란 시련과 비극을 겪는 중에서도 우리가 그분을 믿고 사랑하며, 계명을 지킨다는 것을 그분께서 아실 때 평화가 찾아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리버티 감옥에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은 마음에 위안을 가져다줍니다.

“내 아들이, 네 영혼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네 역경과 네 고난은 잠시 뿐이리니,

그러고 나서 만일 네가 이를 잘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 너를 높이 들어 올리실 것이요”<sup>19</sup>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sup>20</sup>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는 자에게 화평은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도덕적 선택의지를 위해 천국 회의에 참여했으며, 필멸의 고통이 있을 것과, 선택의지를 남용하면 말로 다할 수 없는 비극을 경험하리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이로써 분노에 휩싸이고, 혼란스러워지며, 무방비 상태에 빠지고,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주의 속죄가 필멸의 삶에서 생기는 모든 불공정함을 극복하고 보상하고 평화를 가져오리라는 것 또한 알았습니다. 매리온 디 행스 장로님은 우고베티(이탈리아 극작가)가 했던 이 말을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규칙이 공정할 것이며 인생에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것임을 아는 것이다.”<sup>21</sup>

평화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평화를 찾지만 그런 방법으로는 절대 얻을 수 없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평화는 엄청난 부, 권력 또는 명성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sup>22</sup> 쾌락, 오락, 또는 여가 생활로 얻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것을 넘칠 만큼 얻는다고 해도 영원히 지속되는 행복이나 평화는 누릴 수 없습니다.

에머 루 새인이 지은 아름다운 찬송가에 이런 적절한 질문이 나옵니다.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세상의 모든 것 온전함 막고 …… 어디서 내 영혼 찾을까?”<sup>23</sup> 답은 바로 화평의 하나님이자 근원이신 구주이십니다. 그분은 “평강의 왕”<sup>24</sup>이십니다.

어떻게 하면 구주께 가까이 머물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히

낮추고, 항상 기도하며, 죄를 회개하고,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침례의 물가로 나아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가 되는 것은 지속적인 평화를 보상으로 얻을 수 있는 의로움의 훌륭한 예입니다.<sup>25</sup> 베냐민 왕이 그리스도의 속죄에 관해 고무적인 말씀을 전했다 때 수많은 사람이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의 영이 그들에게 임하신지라, 그들이 기쁨으로 찬탄하게 되고, 자신의 죄 사함을 받으며 양심의 평안을 얻으니, 이는 ……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들의 놀라운 신앙으로 인함이었더라.”<sup>26</sup> 행복을 가져오는 양심의 평안을 얻으려면, 회개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sup>27</sup> 중대한 범법을 저질렀을 때는 고백을 해야 평화를 얻게 됩니다.<sup>28</sup> 죄로 고통받던 사람이 자신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속죄의 축복을 구하며 느끼는 평화는 그 무엇도 비할 수 없습니다. 애창되는 교회 찬송가 가사처럼 말합니다. “그 앞에 내 짐 부리고 기쁜 노래를 부르리”<sup>29</sup>

오늘날 수만 명의 젊은이와 장년 선교사들이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부름을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들은 회복된 평화의 복음을 한 번에 한 사람에게, 한 가족에게 전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 이 평화를 가져다주는 의로운 사업을 수행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입니다. 세상에 있는 일부 젊은이들은 자신이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는 않다고 말합니다. 영적이라고 느끼는 것은 바람직한 첫 단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정을 증진하고, 가르침 받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으로 양육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교회의 신권 권세를 통해 가족을 결속하고 우리 각자가 해의 왕국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갈 자격을 얻게 하는 성스러운 의식과 성약을

베폰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성약을 맺기 때문에 이러한 의식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줍니다.

성전은 그러한 성스러운 많은 의식이 집행되는 곳이자 세상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피난처의 근원입니다. 성전 경내에 가 보거나 성전 일반 공개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그런 평안을 느낍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된 피지 수바 성전 일반 공개와 헌납식이 생각납니다. 정치적 격변에 따른 반란으로, 수바 중심지에서는 방화와 약탈이 자행되고 국가가 점령당하여 국회의원들이 억류되었으며 국가에는 계엄령이 선포되었습니다. 피지 군부에서는 성전 일반 공개에 제한된 사람들만 모이도록 허용했고 헌납식에도 아주 적은 인원만 허락했습니다. 일반 교회 회원들은 안전상의 이유로 초대받지 못했습니다. 초기 나부 성전 이래로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행된 성전 헌납식은 처음이었습니다.

인도 태생인 한 아름다운 힌두교 여성이 성전 일반 공개에 초대받았는데, 그녀는

처음에 억류되었다가 여성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녀는 해의 왕국실에서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나 자신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평화로운 느낌을 토로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성전의 성스러운 본질을 증거하고 위안을 주는 성신을 느꼈던 것입니다.

구주는 참된 평화의 근원이십니다. 삶의 고난 속에서도 의롭게 생활하면 구주의 속죄와 그분의 은혜를 통해 개인적인 평안을 보상받게 될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 마련된 방에서 사도들에게 “보혜사 곧 …… 성[신]”께서 그들과 함께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시면서 다음과 같은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sup>30</sup> 그런 후 그분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곤는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sup>31</sup>

엘리자 엘 스노우는 이 개념을 다음과 같이 아름답게 묘사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언제든지 기뻐하라

네게 고난 몰아쳐도

그리스도 말씀하시네 “내 안에서 평안하라.”<sup>32</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 2013년 2월 10일 일요일에 두 차례의 대회가 아비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참석자 9,693명 중 교회 회원이 아닌 사람은 619명이었다. 코트디부아르의 전체 회원 수는 약 19,000명이다.
- 교리와 성약 115:6.
- 평안이라는 단어에는 서로 다른 의미가 있다. 고전 그리스어에서 이 단어는 중지, 중단, 또는 라이벌 세력 간에 적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히브리어에서 이 단어는 더 포괄적인 의미가 있으며 때로는 단순한 인사 형태로도 사용된다. 평안이란 인간에게 주어지는 존재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한다. (Howard W. Hunter, “Where Is Peace?”, Conference Report, Oct. 1966, 14-17)
- 누가복음 2:14; 강조체 추가.
- 마태복음 2:16 참조; see also Ross Douthat, “The Loss of the Innocents,” *New York Times*, Dec. 16, 2012, 12.
- 마태복음 10:16, 22.
- 마태복음 10:34.
- 교리와 성약 84:46 참조.
- 교리와 성약 1:33.
- 교리와 성약 1:35.
- 우드립 회장은 1894년에 이 말씀을 했고 1896년에 다시 언급했다. *The Discourses of Wilford Woodruff*, ed. G. Homer Durham (1946), 251~252 참조, 또한 Marion G. Romn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79-82 참조.
- See Joseph Fielding Smith, *The Predicted Judgments*, Brigham Young University Speeches of the Year (Mar. 21, 1967), 5-6 참조. 하지만 날 에이 맥스웰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는 비록 평화가 지상에서 거두어져 …… ‘만물이 동요[해도]’ 내적인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Behold, the Enemy Is Combined,” *Ensign*, May 1993, 79)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에프 스미스* (1998), 400~401쪽.
- 교리와 성약 59:23.
-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존 테일러* (2001), 151쪽.
-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행복과 만족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분석되고, 조사되며, 연구되었을 뿐 아니라 우리 삶의 지표가 되어 왔다. David Malouf, *The Happy Life: The Search for*



덴마크 코펜하겐

Contentment in the Modern World(2011) 참조. 또한 a review of Mr. Malouf's book, R. Jay Magill, Jr., "How to Live Well," *Wall Street Journal*, Jan. 26-27, 2013, C6 참조.

17.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허버 제이 그랜트*(2002), 226쪽.
18. 코트디부아르의 다섯 개 스테이크 중에 세 개의 스테이크는 성전 의식을 위해 가족 이름을 제출하는 성인 비율이 교회 전체 스테이크 중에 상위 25위 안에 들며, 그중 코트디부아르 코코디 스테이크가 가장 높다.(R. Scott Lloyd, "Elder Cook 'Impressed with Exceptional Spirit' in Ivory Coast," *Church News*, Mar. 5, 2013) 얼마 전까지 내전 중이었다는 것과, 가장 가까운 가나 아크라 성전이 버스로 12시간 거리에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이 결과는 놀라운 신앙의 증거이며, 이러한 참여는 결과적으로 개인과 가족에게 평안을 안겨 주었다.
19. 교리와 성약 121:7-8. 해롤드 비리 회장은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결케 되어야 하며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증명하기 위해 시험받아야 합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리* [2000], 208쪽)
20. 고린도전서 14:33.
21. In Marion D. Hanks, "A Loving, Communicating God," *Ensign*, Nov. 1992, 63.
22. Jeffrey R. Holland, *For Times of Trouble*(2012), 79 참조.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가르쳤다. "진정한 공평은 죄 자체를 제외하고는 다른 어떤 상황보다 더 인간의 영혼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평화를 증진할 수 있다.
23. "내 평안 어디서 찾을 수 있나?", 찬송가, 62장.
24. 이사야 9:6.
25. 존 그린리프 휘티어는 다음과 같이 단순하게 말했다. "여러분의 생활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밭에 평안을 얻지 못할 행위는 낮 동안에 하지 마십시오."*(Conduct [From the Mahabharata], in The Complete Poetical Works of John Greenleaf Whittier [1802], 484)*
26. 모사이어서 4:3; 강조체 추가; 또한 Marion G. Romney, in Conference Report, Apr. 1967, 79~82 참조.
27. 양심은 우리를 평화로 인도하는 도덕적 나침반이다. 그것은 최소한 두 가지 공급원으로 작동한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빛으로,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고귀한 생득권(교리와 성약 88:6-13; 93:2 참조)이며, 다른 하나는 성신의 은사(교리와 성약 39:6 참조)이다.
28. "범법자가 평안을 받기 위해서는 두 종류의 용서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해당 역원으로부터 받는 용서이며, 다른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받는 용서입니다.[모사이어서 26:29 참조]"*(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스펠서 더블을 김볼* [2006], 41쪽)
29. "관대한 그 계명", 찬송가, 81장.
30. 요한복음 14:26-27.
31. 요한복음 16:33.
32. "성도들이 큰 시험이 닥쳐와도", 찬송가, 88장.



스탠리 지 엘리스 장로  
칠십인 정원회

## 주님의 방법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여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 칠십인

저는 칠십인 정원회에서 봉사합니다. 칠십인은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영으로부터 받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며 교회를 세우고 제반사를 조정하는 일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특별한 증인이 되는 부름입니다.(교리와 성약 107:25, 34 참조)

### 농장 소년

저는 아이다호 벌리 근처에 있는 농장에서 성장했기에, 진짜 "아이다호 농장 소년"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이러한 것을 배웠습니다.

1. 일하는 법-심지 않는다면, 수확도 없습니다.
2. 현명하게 일하는 법-물을 대고 비료까지 준다면 더 많은 수확을 얻게 됩니다.
3. 올바른 시기의 중요성-제때에 심지 않으면 이른 서리로 수확물을 망치게 됩니다.
4. 즐거운 일, 더 나은 일, 편한 일이 아니라 필요한 일, 또는 해야 하는 일을 하는 법-우유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젖소의 젖이 불었을 때 짜야 합니다.
5. 분명하게 말하는 법-가축이나 기계를 다룰 때에는 "자세히 설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걱정할 시간이 없습니다.(교회에서 봉사하는 동안 저는 자주 이렇게 물었습니다. "분명하게 말하길 바라십니까, 아니면 돌려서 말하길 바라십니까?" 일반적으로 성도들은 분명한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6. 마지막으로, 아이다호 농장 소년으로서 저는 기본에 충실해야 한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교리와 관련하여 우리 모두에게 신앙개조 제1조만큼 기본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신을 믿는다."*(신앙개조 제1조)*

이에 더하여,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로서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이자 구속주이시며, 속죄를 치르시어 우리가 죽음을 극복하고 다시 살아 승영과 영생에 이를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성신은 우리의 보혜사, 계시자, 교사, 증거하는 자, 안내자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고아가 아닌 우리가 부모님이



호주 시드니

계심으로써 얻는 이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모님에게서 배우고, 부모님의  
 경험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며, 부모님이  
 말씀해 주시는 경고로 위험을 피하고,  
 부모님의 식견에 힘입어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잃거나  
 혼란스럽거나 속거나 덜 효과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 아버지는 더더욱  
 그렇다 할 수 있는데, 그분은 이러저러한  
 길이 아닌 유일한 길을 가르치고 보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살아가고<sup>1</sup>, 사랑하며<sup>2</sup>,  
 돕고<sup>3</sup>, 기도하고<sup>4</sup>, 이야기하고<sup>5</sup>, 서로  
 교류하며<sup>6</sup>, 인도하고<sup>7</sup>, 결혼하며<sup>8</sup>, 자녀를  
 양육하고<sup>9</sup>, 배우며<sup>10</sup>, 진리를 알고<sup>11</sup>, 복음을  
 나누고<sup>12</sup>, 먹는 음식을 현명하게 선택하는  
 것<sup>13</sup> 등에 관한 방법이 있습니다.

경전과 더불어 신앙에 충실함,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그리고 기타 살아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의 가르침은 주님의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위대한 원천입니다.

1. 예를 들면, 주님은 경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와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이사야 55:8~9).
2. 이 마지막 시대에 만연한 악 중 하나는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길로 ……  
 견[는다.]”(교리와 성약 1:16)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잠언  
 3:5~7)는 경고가 나옵니다.
3. 주님의 방법으로 행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축복해 주실 수밖에 없으며  
 그분의 약속을 받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하지

-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런 약속도 받지  
 못합니다.(교리와 성약 82:10 참조)
4. 주님은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시어 새로운  
 왕을 찾게 하셨을 때 그를 훈련하시는  
 과정에서 그분의 방법과 우리의 방법에  
 차이가 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사무엘상 16:7).
5.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돕는  
 것은 누구나 하고자 하는 일이며, 주님도  
 그러한 목표를 옳다고 보십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고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반드시 내 자신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나니”(교리와 성약 104:16)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돕는  
 과정에서 실제로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자립심을 키우는 것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 하더라도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또는 해야 하는 일을 대신 해  
 주거나 제공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느 곳에서나 실업 수당이라는  
 악이 돌아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은 가장 훌륭한 길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다른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는 선교 사업에 대한 방법이  
 있으십니다. 그 방법은 경전과 나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설명되어 있으며, 영의 인도에  
 따라 실행됩니다.

주님은 사랑과 관련하여 그분만의  
 방법이 있으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두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다고  
 가르치십니다. 즉, 그러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승인된 방법과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 자신을 다스리는 것

조셉 스미스는 어린 시절부터 주님의  
 방법을 배웠습니다. 그는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느냐는 질문에,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서 회원들이 자신을 다스리게 하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sup>14</sup>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살아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은  
 계속해서 올바른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런 원리를 적용하여  
 자신을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꽃을  
 피우라는 가르침을 자주 받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자녀가 더 많은 친구를  
 사귀고, 따라서 더 좋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누릴 수 있다 생각하여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자녀의 구원



문제에서 결정적인 요소가 정말로 우리의 주변 환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도와 선지자들은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 자녀가 밖에서 겪는 일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자주 가르쳐 왔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양육하느냐가 어디서 양육하느냐보다 더 중요합니다.

분명 어디서 살지와 관련하여 고려할 다른 요소들도 있는데, 감사하게도 우리가 주님께 확인을 구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생각해 볼 다른 질문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입니다. 저는 16년 동안 텍사스 휴스턴 북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했습니다. 그 시기 동안 많은 사람이 이사를 왔습니다. 이사를 알리는 전화를 자주 받았는데, 그들은 어느 와드가 가장 좋은 곳인지 물었습니다. 16년 동안 이 질문을 받은 적은 딱 한 번이었습니다. “어느 와드에 훌륭한 가족이 필요한가요? 어디에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교회 초기 시절에 브리검 영 회장님과 다른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다른 지역으로 가서 교회를 세우도록 부름을 주셨습니다. 흥미 있는 점은, 지금도 우리에게선 선지자가 요청한다면 어느

곳으로든 가려 하는 충실한 교회 회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말로 어디에서 우리 가족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지에 대해 몬슨 회장님이 천사백만 명에 이르는 우리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의 방법은 우리가 지도자의 가르침을 경청하고 올바른 원리를 이해하여 우리 자신을 다스리게 하는 것입니다.

### 매우 중요한 원리

오늘날 교회에서 여러 일이 일어나고 있고, 주님이 모든 면에서 그분의 사업을 서둘러 진행하시는 지금, 모든 일에 그분의 방법으로 임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특히 구원 사업에서 우리는 “그의 아들의 은사로써 하나님은 더욱 좋은 길을 예비하셨다.”(이더서 12:11)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리는 “길이니,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나 이름이 하늘 아래 달리 주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니파이후서 31:21)

### 결론

오늘날 세상에서 많은 사람이 혼동 속에서 살아가고 심지어는 금단의 길에서

방향하며 잘못된 선택의 결과를 불필요하게 겪는 것을 보면서 저는 엘마가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오 내가 천사라면, 그리하여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팔로, 땅을 흔들 음성으로 말하여, 모든 백성에게 회개를 외칠 수 있다면,

참으로 내가 …… 각 영혼에게 …… 구속의 계획을 선포하여, 그들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하여, 온 지면 위에 슬픔이 더 이상 있지 않게 하였으면 좋겠노라.”(엘마서 29:1~2)

다시 한 번 주님의 방법이 있다는 간증을 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알고 사랑하시며 돕고 싶어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돕는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십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길ियो 진리요 생명이[십니다.]”(요한복음 14:6; 또한 엘마서 38:9 참조) 그분의 방법은 영원한 진리에 기초를 두며, 우리를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교리와 성약 59:23)을 얻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니파이후서 5:27; 모사이야서 4:27; 엘마서 7:23~25 참조.
2. 출애굽기 20:14; 신명기 6:5; 요한복음 13:34~35; 로마서 1:24~32; 데살로니가전서 4:3; 엘마서 39:3~5 참조.
3. 모사이야서 4:21~27; 교리와 성약 104:15~18 참조.
4. 마태복음 6:5~13; 니파이후서 32:8~9; 제3니파이 18:21; 교리와 성약 10:5 참조.
5. 잠언 15:1; 골로새서 4:6; 야고보서 5:12; 제3니파이 11:29~30 참조.
6. 교리와 성약 64:10~11; 121:41~46 참조.
7. 마태복음 25:14~30; 요한복음 10:1~14; 교리와 성약 50:26; 107:99~100; 121:34~40 참조.
8. 창세기 2:24; 야곱서 2:27; 교리와 성약 42:22; 132:19 참조.
9. 모사이야서 4:14~15; 교리와 성약 68:25~28 참조.
10. 교리와 성약 43:8~9; 88:77~79, 118 참조.
11. 모로나이서 7:15~19; 10:3~5; 교리와 성약 9:7~9 참조.
12. 교리와 성약 33:8~10; 100:3~8 참조.
13. 교리와 성약 89편 참조.
14.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284쪽.





존 비 딕슨 장로  
칠십인

# 온 세상에 복음을

교회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라에서 나라로, 문화에서 문화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 세계에 걸쳐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

**구** 주의 필멸에서의 성역이 완성되었습니다. 겿세마네와 십자가 위에서 겪은 그분의 고통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우리는 그분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성역을 베푸시며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사도행전 1:3)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사도행전 1:8)

말씀을 마치신 후에는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사도행전 1:9~11)

실제로, 구주께서는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에서 우리는 사도들이 온 나라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특별한 임무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마태복음 28:18~19)

교회의 초창기인 절정의 시기 동안 복음은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만 전해졌으나 이후에 선임 사도 베드로는 복음이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전해질 때가 되었다는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서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더 많은 자녀에게로 확장되어야 할 필요성이 그러한 계시의 과정과 방식에 따라 감리 역원과 일반 회원들에게 알려졌음을 봅니다.

주님께서는 의로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를 통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질 것임을 베드로에게 각인시켜 주셨는데, 이것은 당시 성도들에게는 새롭고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교회의 일에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계시는 선임 사도인 베드로에게 왔습니다. 그 이후에 복음이 빠르게 이방 나라에 전해졌음을 우리는 압니다.

당시 교회 확장의 한 가지 예는 바로 이방인들에게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바울의 개종이었습니다.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시현을 받아 빛을 보았고 한 음성을 들었으며,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사도행전 22:6~18 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엄청난 역량을 발휘했습니다.

이제 복음이 회복되는 시기, 재림 전에 만물이 회복되는 1,800년대로 가 봅시다. 교회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되었으며 그 이후 제일회장단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인도로 계속 전진해왔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들은 초기 사도들과 똑같이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는 임무를 받습니다.

1830년에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가 조직된 이래로 이 교회는 주님의 시간표에 따라 나라에서 나라로, 문화에서 문화로,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 세계에 걸쳐 꾸준히 전진해 왔습니다.

1978년, 선임 사도를 통해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정해진 모형에 따라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은 신권 축복을 전 세계 모든 합당한 남성에게 확장시키라는 계시를 받으셨습니다. 이는 우리 시대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회복된 복음의 모든 축복을 취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앞두고서 지상에 세워진 이 하나님의 왕국에 참으로 적절한 계시가 아납니까.

개인적으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받아 딕슨 자매와 함께 가족을 데리고 멕시코로 가려 할 때, 당시 칠십인 정원회 일원이셨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 특별한 계시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제게 알려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서 눈물을 흘렸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그것이 옳다는 것을 알았으며, 온 인류가 복음의 모든 의식과 성약,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약 35년 전에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칠십인으로 여러 해 동안 임무를 수행하며 1978년 신권에 대한 계시로 인해 삶에 영향을 받은 신앙이 충실한 사람들과 함께 하게 될 줄은 거의 알지 못했습니다. 그곳에서 4년간 훌륭한 경험들을 하면서 덕슨 자매와 제 삶은 변화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서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의 믿음을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는 일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놀라운 지도력을 보여 줍니다. 아프리카 서부 지역에서는 수백 명이 교회로 들어오고, 거의 매주 와드 혹은 지부가 두 개씩 조직되는 곳까지 있으며, 신권 지도자 및 보조 조직 지도자 대부분을 아프리카 사람들이 맡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나이지리아 아바, 또는 가나 아크라에 있는 성전에서 성도들과 함께하며 그들의 헌신을 느껴 보고 모든 아프리카 성전 회장단을 알게 된다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곳 컨퍼런스 센터에 함께하고 있는 변호사, 교수, 직장 관리자로 일하는 아프리카 지역 칠십인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수 있었으면 하고 얼마나 바라는지 모릅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프리카의 스테이크 및 와드 지도자들, 또 그들의 가족들과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프리카 전 지역을 다니며 교회 교과 과정에 따라 진행되는 주일학교, 보조 조직, 신권회 공과에 참여하는 것은 성스러운 경험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은 영을 통해 복음을 깊이 이해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복음은 서구 사회에서 많은 사람의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온갖 굴레에 사로잡히지 않아 때 묻지 않은 행복한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끝없이 물질적인 부를 탐닉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사람은 “아주 하찮은 것은 거의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저택과 멋진 자동차를 소유하는 일에는 거의 관심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과 영원한 가족을 이루는 일에는 큰 관심을 둡니다. 그 신앙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로, 주님은 그들을 들어올려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이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확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은 놀랄 일이 아닙니다. 구약의 선지자 다니엘은 시현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왕국이 “땅 끝까지 …… 굴러[서], 마치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드디어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교리와 성약 65:2)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훌륭한 아프리카 형제 자매님들이 그 예언을 성취하는 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주님께서 확립하신 방식에 따라 그 계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모든 자녀를 사랑하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 산 자와 죽은 자 모두에게 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우리는 …… 순결을 믿는다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필멸의 기간 동안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영원토록 진보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릴 말씀은 아주 기본적인면서도 영적으로는 크나큰 결과를 가져오는 한 가지 질문에 관한 것입니다. 그 질문은 바로 “순결의 법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입니다. 성신이 함께하셔서 제가 강조하는 원리들의 참됨을 확증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 아버지의 행복의 계획

순결의 영원한 중요성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맥락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간, 즉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사람은 모두 하늘 부모의 사랑하는 영의 아들과 딸이며 …… 신성한 품성과 운명을 지니고 있다.”(“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모든 남성과 여성은 필멸의 몸으로 이 지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의 영의 자녀로서 그분과 함께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계획으로 그분의 영의 아들딸들은 육신을 얻게 되었으며, 필멸의 경험을 하고, 승영을 향해 진보하게 되었습니다.

### 육신의 중요성

우리의 육신은 전세에서는 결코 할 수 없었던 폭넓고도 깊이 있으며, 강도 있는 경험들을 하게 해 줍니다. 다른 사람과 우리의 관계, 진리를 인식하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역량,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의식에 순종하는 능력은 우리의 육신을 통해 더욱 증대됩니다. 필멸이라고 하는 이 경험의 장에서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는 다정함, 사랑, 친절, 행복, 슬픔, 낙담, 고통, 그리고 심지어 육체적인 질병과 장애라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한 마디로 말해서 경전에 “육체를 따라”(니파이전서 19:6; 엘마서 7:12~13)라고 묘사되어 있듯이, 우리가 육신으로 배워야 할 교훈과 겪어야 할 경험들이 있습니다.

### 출산 능력

이 지구가 창조된 후 아담은 에덴 동산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모세서 3:18; 또한 창세기 2:18 참조)라는 중요한 말씀을 하였고, 그렇게 해서 이브가 아담의 아내이자 반려자가 되었습니다. 행복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려면 남성과 여성 모두의 영적,





속에서 우리가 지닌 신성한 본질과 잠재력을 표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고,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서적, 영적 유대를 강화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도덕적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받은 행위의 주체이며, 단순히 성적인 행위 또는 동시대의 관점이나 세속적인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받은 신성한 유산에 따라 규정되는 존재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능력의 독특한 조합이 필요했습니다.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습니다.]”(고린도전서 11:11)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 강화하고 축복하며,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해 지어졌습니다.

필멸의 생명이 창조되는 방법은 신성하게 제정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주셨던 최초의 계명은 그들이 남편과 아내로서 부모가 될 수 있는 잠재력에 관한 것이었[습니다.]”(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계명은 오늘날에도 유효합니다. 그러므로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은 전세에 있던 영이 필멸의 세상으로 들어오는 승인된 통로가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완전한 성적 절제와 결혼 관계 안에서 기울이는 전적인 충실함으로, 이 성스러운 통로의 신성함이 보호됩니다.

출산 능력은 영적으로 중대합니다. 이 능력을 남용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우리 필멸의 삶에 있는 목적을 무너뜨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께서는 창조주이시며 그분들에게 있는 창조 능력의 일부분을 우리 각자에게 맡기셨습니다.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을 적절히 사용하도록 주어진 구체적인 지침들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매우 중대한 요소입니다. 이 고귀한 능력을 어떻게 여기고 사용하느냐는 이 필멸의 기간 동안

우리는 행복과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크게 좌우할 것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출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주신 가장 훌륭한 권능입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라는 것이 첫째 계명으로 주어졌지만 그것의 오용을 금하는 또 다른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순결의 법을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출산의 능력에 관한 목적을 이해하는 데 근거를 둡니다. ……

결혼 관계를 벗어나 이 출산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모두 다 남성과 여성에게 주어진 가장 신성한 자질을 어떤 정도로든 죄스럽게 타락시키며 오용하는 것입니다.”(“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벗, 1994년 1월호, 74쪽)

### 성적 도덕성의 기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성적인 도덕성에 대한 분명한 한 가지 표준이 있습니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에 규정된 대로 결혼 관계에 있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서만 가능합니다. 그와 같은 관계는 탐구해 보고 싶은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아니며, 욕구를 충족하는 수단도, 이기적인 마음으로 추구하는 오락이나 유희도 아닙니다. 이루어야 할 정복 대상도 아니며, 그저 행하는 단순한 행동도 아닙니다. 그것보다는 궁극적으로 이 필멸의 세상

### 육에 속한 사람

베냐민 왕이 이야기한 육에 속한 사람은 우리 각자에게 어느 정도는 내재되어 있습니다.(모사이야서 3:19 참조) 육에 속한 남성 또는 여성은 회개하지 않고, 쾌락을 쫓고 육욕적이며(모사이야서 16:5; 엘마서 42:10; 모세서 5:13 참조) 자제력이 부족하고 무절제하며, 교만하며 이기적입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볼 회장님이 가르치셨듯이 “육에 속한 사람”은 거칠고 야만적인 동물적 욕정이 자신의 영적인 성향을 뒤덮도록 허락한 ‘세속적인 인간’입니다.”(“Ocean Currents and Family Influences,” *Ensign*, Nov. 1974, 112)

그와는 반대로 “그리스도의 사람”(힐라맨서 3:29)은 영적이고 모든 욕정을 다스리며(엘마서 38:12 참조) 절제하고 자제할 줄 알고, 자애로우며 자신보다 남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성 또는 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분의 십자가를 지며(마태복음 16:24; 마가복음 8:34; 누가복음 9:23; 교리와 성약 56:2 참조), 구주와 그분의 복음에 대한 충실함, 순종, 헌신이라는 협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앞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는 그분으로부터 신성한 능력을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현재 타락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을 지은 바로 그 물질과 원소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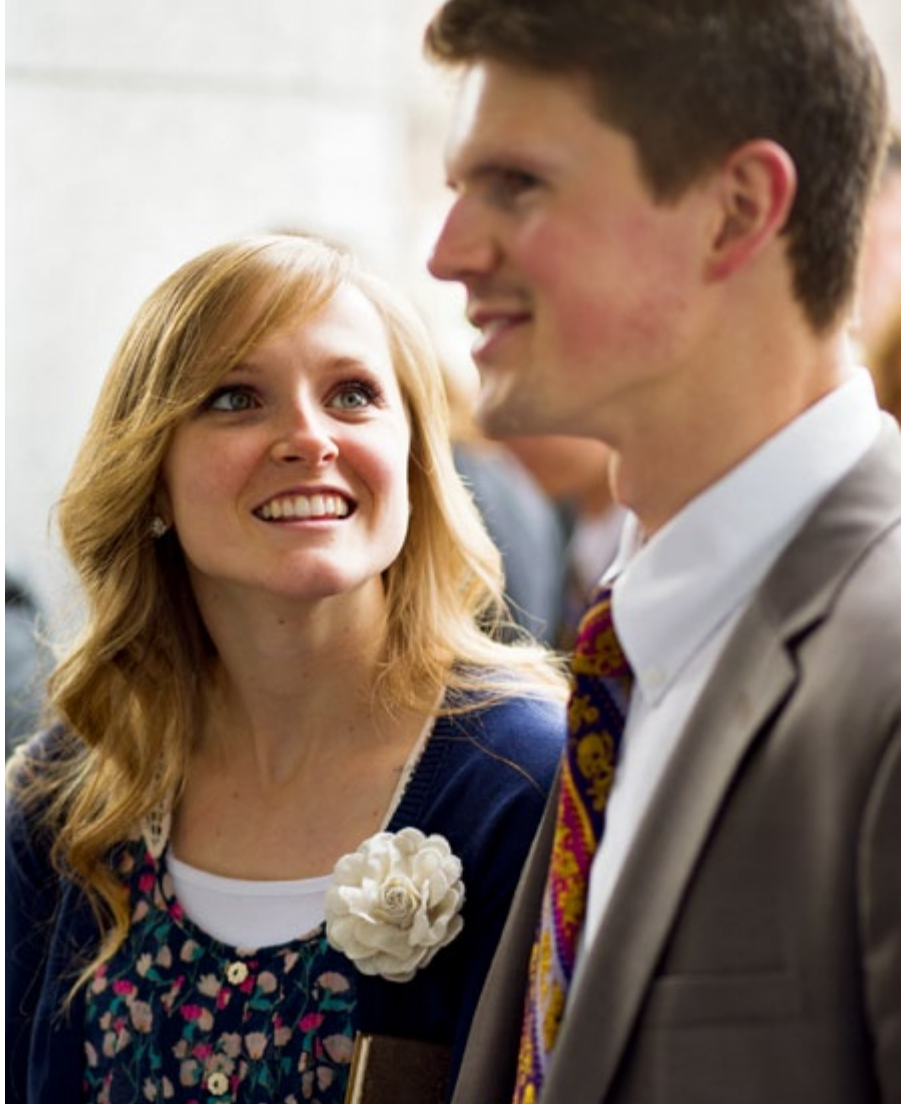
본질적으로 타락했으며, 죄와 부패와 사망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아담의 타락과 그에 따른 영적 및 현세적 결과는 우리의 육신을 통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원적인 존재입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지배를 받는 육신 안에 우리 존재의 영원한 부분인 영이 거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에게 이렇게 역설하셨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마태복음 26:41)

그렇다면 이 필멸의 시험에 있는 명확한 본질은 이런 질문으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육에 속한 인간의 성향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며 육에 속한 사람을 벗어 버리고 주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성도가 될 것인가?(모사이야서 3:19 참조) 이것이 바로 시험입니다. 육으로 난 인간의 모든 욕정, 욕망, 성향, 충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그리고 속죄를 통해 극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속성을 발전시키고 육신의 모든 욕정을 억제하고 통제하기 위해 이 지상에 왔습니다.

### 사탄의 목적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은 그분의 자녀들에게 지침을 제공하고, 행복해지도록 도우며, 부활하여 완전해진 몸으로 무사히 그분 면전에 돌아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빛 가운데 함께하고 소망으로 가득 차기를 바라십니다. 반대로, 루시퍼는 하나님의 아들딸들을 혼란스럽고 불행하게 하며 영원한 진보를 가로막고자 노력합니다. 거짓의 아비인 루시퍼의 주된 목적은 우리 모두를 “자기처럼 비참하게”(니파이후서 2:27) 만드는 것입니다. 루시퍼는 우리가 결국 희망도 없이 어둠 속에서 혼자가 되어 버리기를 바랍니다.

사탄은 아버지의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를 뒤틀고 왜곡하고자 쉬지 않고 일합니다. 그는 육신이 없으며, 영원한 진보는 중단되었습니다. 마치 강을 따라 흐르는 물이 댐에 가로막히듯, 육신을 얻지 못한 사탄의 영원한 진보는 좌절되었습니다. 루시퍼는 모반을 함으로써 살과 뼈로 된 육신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모든 필멸의 축복과 경험들을 스스로 거부했습니다. 그는 육체를 입은 영만이 배울 수 있는 가르침과 교훈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문자 그대로 일어날 온 인류의 보편적인 부활의 현실성에 분개합니다. 경전에 나오는 “정죄받은” 또는 “저주받은”이란 말의 설득력 있는 의미 중 하나는 계속하여 진보하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될 수 없는 사탄의 상태에서 잘 나타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행복의 계획과 우리의 영적인 진보에서 우리 육신이 차지하는 위치가 그토록 중요하기에, 루시퍼는 우리가 육신을 함부로 사용하도록 유혹함으로써 우리의 진보를 좌절시키려

합니다. 영원에 걸쳐 이어지는 가장 큰 아이러니 중 하나는 육신이 없기에 비참함에 처한 적대자가 우리도 우리의 육신을 부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하게 함으로써 자신의 비참함에 동참하도록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갖지 못한 바로 그 도구가 우리를 영적 파멸로 이끌기 위한 공격의 주된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순결의 법을 어기는 것은 비통하고 쓰라린 죄이며 우리의 육신을 오용하는 일입니다. 구원의 계획을 알고 이해하는 이들에게 육신을 더럽히고 모독하는 것은 모반 행위이며(모사이야서 2:36~37; 교리와 성약 64:34~35 참조) 하나님의 아들딸로서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을 부인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필멸의 생을 넘어 영생을 바라볼 때, 사탄의 거짓된 우정이 일시적이고 공허한 것임을 쉽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 순결하게 생활하는 축복

엘마는 아들 시블론에게 “네 모든 걱정을



굴레 씌워, 네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라”(엘마서 38:12)고 권고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권고와 같이 우리 각자에게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을 통제할 때,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을 더 크고, 더 깊고, 더 영속적으로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의로운 절제를 통해 더욱 커지고, 충동적인 탐닉과 방종으로 줄어듭니다.

매리온 지 롬니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청결하고 정결하게 생활하는 이에게 약속된 축복만큼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축복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여러 덕목에 대해 각각 특정한 보상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가장 큰 상을 예비하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마태복음 5:8)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은 단지 주님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의 면전에서 편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쉬지 말고 덕으로 네 생각을 장식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면전에서 네 확신이 점점 강하여지리니’(교리와 성약 121:45)”(“Trust in the Lord,” *Ensign*, May 1979, 42)

정결한 생활을 추구할 때, 우리는 또한 “성신은 변하지 않는 [우리의] 동반자가 될 것”(교리와 성약 121:46)이라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순결의 법에 따라 생활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가 필멸의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 중 일부를 불러옵니다. 즉 가족, 친구, 교회의 동료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구주 앞에서 영적인 자신감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과 함께하려는 우리의 타고난 갈망은 우리가 소망으로 빛 가운데 걸을 때 그 의로운 안에서 성취됩니다.

### 회개의 원리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는 성적인 죄나 다른 죄로 회개할 필요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종종 명의, 즉 위대한 치유자로 불리시는데, 이런 명칭은 상징적으로나 문자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상처나 부상으로 고통스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고통을 느낄 때, 보통은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며 그 통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되는 약이나 치료에 감사하게 됩니다. 죄를 영적인 상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책감, 또는 엘마가 아들 코리엔톤에게 이야기한 “양심의 가책”(엘마서 42:18)을 유발하는 영적인 상처 말입니다. 우리 몸이 더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내는 위험 신호이자 보호책이 통증이라면, 우리 영에 대해 그런 역할을 하는 기제는 죄책감입니다. 영적인 상처를 치유하고 죄책감이 사라지게 할 부드러운 위안이 구주의 속죄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이 위안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지속적인 순종이란 원리를 통해서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진실한 회개의 결과는 양심에 깃드는 평안과 위안이며, 영적인 치유와 새로운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감독님 또는 지부 회장님은 여러분이 회개하고 치유받도록 도울 자격을 갖춘 영적인 명의의 보조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해야 하는 회개의 범위와 정도는 여러분이 지은 죄의 특성과 심각성에 필적해야 하며, 특히 성스러운 성약을 맺은 후기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심각한 영적인 상처일수록 완전히 회복되기 위한 지속적인 치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 약속과 간증

제가 설명한 교리는 점점 더 출산의 신성함을 조롱하고 인간 생명의 가치를 가벼이 여기는 세상에서 많은 사람에게 구식이며 시대에 뒤떨어진 것으로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진리는 유행, 대중성, 또는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되지 않습니다. 순결의 법에 순종하면 필멸의 기간 동안 더욱 행복해질 것이며 영원토록 진보하게 될 것임을 약속합니다. 순결과 정결함은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도 언제나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할]”(모로나서 9:9) 것입니다. 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러셀 엠 벨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회복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에 진리와 의로움의 위대한 물결이 전파되게 하는 회복의  
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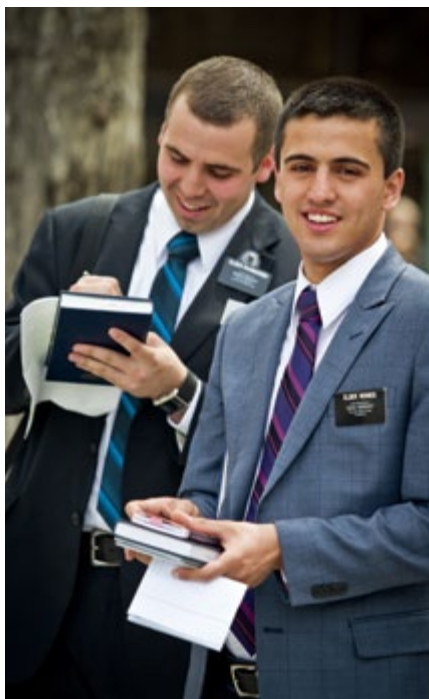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더 많은 합당한 선교사를 요청하신 선지자의 말씀에 응한 분들에 대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다른 분들이 칭찬하신 것처럼 저도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지금 선교 사업을 향한 열정의 물결은 전례 없이 전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몬슨 회장님의 역사적인 발표가 있는 후, 수천 명의 장로와 자매, 부부 선교사가 부름을 받았으며, 더 많은 분이 현재 준비하고 계십니다.<sup>1</sup>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이제 이 모든 선교사들은 무얼 하게 되죠?” 대답은 간단합니다. 선교사들이 늘 해 온 일을 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선교 사업 부름에 합당하고자 애쓰는 동안 더 많은 청남 청년이 이 물결에 동참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것이 진리와 의의 물결임을 압니다. 여러분도 이 물결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목도하고 계십니다.

십대 여러분은 새로운 교과 과정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리를 서로 가르치십시오. 이제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 가르치도록 준비할

때가 되었습니다.

청남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받는 교육은 우리와 여러분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중요합니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 대학을 다니고 싶다면, 가능한 곳에서는 선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이 선택한 학교에 지원하도록 권합니다. 1년 반에서 2년 반 사이의 휴학을 예비 선교사에게 허용해 줄 고등 교육 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장로와 자매 선교사 여러분은 진학



문제에 대한 걱정 없이 봉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계획이 가능하도록 해 주시는 교육 기관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부모와 교사, 그 외 다른 분들 역시, 자라나는 세대가 선교사로 봉사하기에 합당하도록 준비시키는 동안 새 물결에 동참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범적인 생활은 친구들과 이웃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왜 그와 같이 생활하는지를 묻는 이들에게 답할 준비를 하십시오. 여러분에게서 보이는 희망과 기쁨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설명할 준비를 하십시오.<sup>2</sup> 그런 질문을 받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선교사들에게 물어봅시다! 우리를 도와줄 거예요! 또 원하시면 선교사들이 답하고 가르치는 동안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성인 여러분, 미래의 선교사들을 영적, 신체적, 재정적으로 준비시키는 일을 도움으로써 이 물결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한 푼이라도 절약하는 것이 여러분의 일상사가 되었습니다. 장년이 되신 부부들은 선교사로 나갈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에 가장 크게 감사드릴 것입니다. 그때까지 몇몇 분들은 어쩌면 몬슨 회장님이 오늘 오전 모임에서 다시금 권유하신 대로 일반 선교사 기금에 현금함으로써 선교 지역에 돈을 보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sup>3</sup>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교회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아 이 물결에 동참하는 분들의 숫자도 늘어갑니다. 그분들은 이 봉사를 통해 현세대와 앞으로 태어날 세대의 운명에 영향을 끼칩니다. 선교부 회장은 선교사의 복지와 안전, 성공에 관한 중요한 책임을 집니다. 각 선교부 회장은 선교 지역 내 스테이크 및 지방부 회장들과 상의하여 각 스테이크와 와드 및 지부에서 봉사할 선교사들을 지명합니다.

스테이크 회장과 감독들은 예비



물결은 193년 전에 하늘에서 공표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불과 일곱 마디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sup>8</sup>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공표하신 이 말씀으로 어린 조셉 스미스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받았습니다. 일곱 마디로 된 이 말씀으로 복음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왜일까요? 살아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가 자신과 당신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바라십니다.<sup>9</sup> 또한 자녀들이 불멸과 영생을 얻기를 바라십니다.<sup>10</sup>

이 영광스러운 목적을 위해 우리 선교사들은 회복에 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약 2,000년 전에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사도들이 죽자, 사람들은 교회와 그 교리를 변경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러 세대 동안 영적 암흑기가 있고 난 다음에,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바와 같이<sup>11</sup>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와 그 교리 및 신권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회복 덕분에 모든 사람이 구원과 승영을 위한 지식과 필수 의식을 다시금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sup>12</sup> 궁극적으로 승영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가족과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게 해 줍니다.

회복에 관해 이야기할 때마다 마음이 설렙니다. 이 역사적 사실은 정말 놀랍습니다! 믿기지 않아서 숨이 막힐 정도입니다! 이 일을 할 권세와 권능을 주기 위해 하늘에서 사자들이 내려왔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여러 차례 나타나셨습니다.<sup>13</sup> 그분들의 지시 아래, 하늘의 다른 사자들이 각기 특별한 목적으로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선교사들을 접견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들임으로써 이 물결에 동참합니다. 이 신권 지도자들은 그들의 단위 조직에서 선교 사업의 책임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으며, 회원들이 선교 사업에 참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각 와드 평의회는 형제 자매님들도 이 물결에 동참하기 시작합니다. 이 평의회에는 와드 선교 책임자가 있습니다.<sup>4</sup> 와드 선교 책임자 여러분에게 특별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와드의 선교 사업을 이끌도록 감독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일부는 여러분을 도울 보조를 부름 만큼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와드 평의회는 다른 분들과 더불어 여러분은 저활동 회원, 일부만 회원인 가정, 관심 있는 이웃들을 파악합니다. 파견된 전임 선교사와 정기적으로 만나 권고와 지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부디 선교사들이 날마다 의미 있게, 또 집중하여 가르칠 기회가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는 데에는 여러분의 역할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신앙과 열정으로 이 물결에 동참하시면 다른 분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와드 선교 책임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를 구조하는 이 성스러운 사업에서 회원과 선교사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sup>5</sup>

아직 회원은 아니지만 복음을 알고 싶어 하는 친구와 이웃 역시 이 물결에 동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자신의 삶에 있는 선하고 참된 것을 간직하도록 격려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받아들이되, 특히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을 통해 가족이 영원히 함께할 수 있다는 영광스러운 진리를 받아들이도록 권합니다.<sup>6</sup>

이 진리와 의의 물결은 경이롭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때가 되면 나의 일을 서둘러라”<sup>7</sup>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온 것입니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 모로나이 천사는 몰몬경을 알려 주었고<sup>14</sup>
- 침례 요한은 아론 신권을 회복했으며<sup>15</sup>
-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멜기세덱 신권을 회복했습니다.<sup>16</sup>
- 모세는 이스라엘의 집합을 위한 열쇠를 맡겼으며<sup>17</sup>
- 일라이어스는 아브라함에 관한 지식의 열쇠를 주었고<sup>18</sup>
- 엘리야는 인봉 권세의 열쇠를 회복했습니다.<sup>19</sup>

또한, 회복으로 우리는 고대 성도들에게 있었던 지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새로운 경전을 마련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성약인 몰몬경을 성경에 더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고대 미 대륙 백성에게 하신 예언과 성역에 관한 기록입니다. 몰몬경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sup>20</sup> 곧 구원의 계획이 설명되어 있습니다.<sup>21</sup> 몰몬경은 성경과 완전한 조화를 이룹니다. 성스러운 이 두 기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며, 그분의 속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확인해 줍니다.<sup>22</sup>

회복으로 성경상의 여러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예컨대, 이사야는 주님의 집이 산꼭대기에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sup>23</sup> 물론 개척자들이 미 서부의 산으로 이동한 일은 희생과 신앙에 관한 예언을 성취한 모험담입니다. 이사야는 또한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sup>24</sup>을 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그 일은 이제 늘어나는 선교사들이 하는 성스러운 사업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십일조에 관한 구약전서의 가르침도 회복되었습니다.<sup>25</sup> 그 결과, 십일조를 바치는 더 많은 사람이 이에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한 언급이 회복의 경전을 통해 분명하게 밝혀졌습니다.<sup>26</sup>

요셉의 막대기(몰몬경)와 유다의 막대기(성경)가 하나님 손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이라는 예언이 이제 성취되었습니다.<sup>27</sup>

회복은 또한 신약전서 성구의 뜻을 분명히 밝혀 줍니다. 신약에 담긴 죽은 자의 침례에 관한 언급은 이제 더 잘 이해됩니다.<sup>28</sup> 돌아가신 조상에 대한 의식이 이제 전 세계 141곳에 있는 성전에서 대리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지식 없이 돌아가신 우리 조상에게 구원을 가져다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sup>29</sup> 계시자 요한이 본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에게] ……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sup>30</sup>라는 시현은 모로나이 천사의 사명과 몰몬경을 예언한 것입니다.

몰몬경은 회복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책은 주님의 지시로 쓰이고, 보존되고, 전해졌습니다. 몰몬경은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으로”<sup>31</sup> 번역되었습니다. 교리와 성약에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추가적인 계시가 많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조셉 스미스를 통해 다른 어떤 선지자에게 주어진 것보다 더 많은 분량의 경전을 받았습니다. 조셉은 수심에 잠겨 있던 순간에도 일리노이 주 나부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결코 제가 완전하다고 말한 적이 없지만, 제가 가르친 계시에는 아무런 오류도 없습니다.”<sup>32</sup>

회원과 선교사들은 함께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에 관해, 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관해 알아보라고 권유합니다. 알고 싶어하는 사람은 각자 이런 것들이 참되다는 확신을 얻도록 진심으로 구하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신의 권능으로 진리가 밝혀질 것입니다.<sup>33</sup>

회복에 대해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온 세상에 진리와 의로움의 위대한 물결이 전파되게 하는 회복의 힘에 대해서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물결에 동참하여 복음을 “모든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sup>34</sup>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이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합니다. 아멘. ■

주

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4~5쪽 참조.
2. 베드로전서 3:15 참조.
3.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대회를 맞이하여",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쪽 참조.
4.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5.1. 참조.
5. 우리는 진실된 마음으로 헌신하려 노력하는 성도들에게 감사한다. 그들은 좀 더 기록해지려고 힘쓴다. 그들은 "먼저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그의 의를 세우기를"(조셉 스미스 역 마태복음 6:38) 구한다.
6. "가족은 영원해", 찬송가, 189장 참조. 추가 설명은 교리와 성약 132편 7, 19절에서 볼 수 있다.
7. 교리와 성약 88:73.
8. 조셉 스미스-역사 1:17.
9. 요한복음 17:3 참조.
10. 모세서 1:39 참조.
11. 마태복음 17:11; 사도행전 3:20~21; 에베소서 1:10; 니파이후서 30:8; 교리와 성약 132:40, 45 참조.
12. 제3니파이 27:13~14, 21; 교리와 성약 39:6; 신앙개조 제4조 참조.
13. Karl R. Anderson, *The Savior in Kirtland*(2012), 228-43 참조.
14. 교리와 성약 27:5 참조; 또한 조셉 스미스-역사 1:33 참조.
15.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16. 교리와 성약 20:2~3; 27:12; 128:20 참조; 또한 Larry C. Porter, "Dating the Restoration of the Melchizedek Priesthood," *Ensign*, June 1979, 4-10 참조.
17. 교리와 성약 110:11 참조.
18. 교리와 성약 110:12 참조.
19. 교리와 성약 110:13~16 참조.
20. 엘마서 42장 참조, 특히 8절 참조.
21. 예: 엘마서 12:28~30 참조.
22. 예: 고린도전서 15:22; 엘마서 34:9 참조.
23. 이사야 2:2 참조.
24. 이사야 29:14.
25. 창세기 14:18~20; 말라기 3:8~10; 교리와 성약 119:20 참조.
26. 창세기 14:18; 시편 110:4 참조; 또한 엘마서 13:14~18; 교리와 성약 84:14~22 참조.
27. 에스겔 37:16, 19; 교리와 성약 27:5 참조.
28. 고린도전서 15:29; 교리와 성약 128편 참조.
29. 교리와 성약 137:7; 138:31~34 참조.
30. 요한계시록 14:6; 또한 교리와 성약 133:36~39 참조.
31. 모로나이가 쓴 물문경 표제지, 교리와 성약 135:3.
32.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33. 모로나이서 10:4~5 참조.
34. 요한계시록 14:6; 또한 니파이전서 19:17; 교리와 성약 133:37 참조.

# 거룩한 곳에 굳게 서십시오

하나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굳게 서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리는 성스럽고 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형** 제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신권을 소유한 분들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시대, 즉 "고통하는 때"에 살고 있습니다. 신권을 지닌 우리는 악마의 불화살에 대항하여 신앙의 방패를 들고 굳게 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모범을 보임으로써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하나님에 우리에게 주신 권리와 자유를 보호합니다. 우리는 가정과 가족을 지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학교 농구부원이었던 저는 처음으로 원정 경기에 다녀왔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집으로 돌아오는 장거리 버스 여행에서 복음 표준에 맞지 않는 언행을 접한 것을 알게 되셨습니다. 화가이셨던 아버지는 자리에 앉으시더니 성과 왕국을 능히 지킬 용사인, 기사를 그려 주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림을 그리시며 성구를 읽어 주셨는데, 그때 저는 어떻게 충실한 신권 소유자가 될 수 있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보호하고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다음 말씀은 저에게 지침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 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sup>2</sup>

형제 여러분, 우리가 신권에 충실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갑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갑주가 필요합니다!

청남 여러분, 여러분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유혹들은 여러분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세대는 결코 접해 본 적이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에는 곤경에 빠져들고 싶으면 일부러 그런 것을 찾아다녀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유혹이 여러분을 찾아다닙니다! 그 점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은 여러분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며 "죄가 문에 없드려"<sup>3</sup> 있습니다. 사탄의 저돌적인 공격을 어떻게

막아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진신 감주를 입으십시오.

삶에서 경험으로 배운 또 한 가지 교훈을 나누고 싶습니다.

1982년 1월, 저는 유타 프로보에 있는 브리검 영 대학교 교정에서 영적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바로 여기 있는 연단 한쪽에 교회가 있고, 한두 발걸음 떨어진 연단 다른 쪽에 세상이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라고 했습니다. 제 대학 시절에는 “세상의 표준과 교회 표준 사이의 간격이 별로 차이가 나지 않았다”는 것을 설명하려 한 것입니다. 그로부터 30년 후인 그때, 저는 학생들 앞에 서서 같은 손짓을 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세상이 아주 멀리가 버렸습니다. [여기저기를 기웃거리다 전혀 보이지 않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세상은 이 [건물에서 나가 자기 길을 떠나 마구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 우리와 우리 자녀, 손자 손녀가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변함없이 그대로 있고, [지금도 여전히 이곳에 있지만 그럼에도] 세상은 계속 움직여서 그 간격이 더욱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 그러므로 정말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의 행동과 교회의 표준을 세상이 현재 있는 곳과 앞으로 갈 곳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여러분이 마땅히 있어야 할 곳에서 여러분을 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sup>4</sup>

당시 저는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 그토록 멀리, 또한 그토록 빨리 달아날 줄은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리와 원리, 계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와 그분 교회의 표준은 조금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참된 것은 영원무궁토록 존재”<sup>5</sup>합니다. 이런 점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세상, 그리고 스스로 친구라 칭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사회적 압력과 비웃음, 차별에까지도 맞설 수 있습니다.



대개 우리 주변에는 “우리랑 친구가 되고 싶다면 우리의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된 친구는 복음과 우정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어 권고합니다. “이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sup>6</sup> 참된 친구는 우리가 험착하고 좁은 길에 머물도록 힘을 보태 줍니다.

성약과 계명, 의식으로 다져진 복음의 길에 머물 때 우리는 보호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됩니다. 지혜의 말씀에 순종하면 술, 약물, 담배와 같은 중독물질로부터 우리의 선택의지가 안전하게 보호됩니다. 십일조를 내고, 경전을 공부하고, 침례와 확인 의식을 받고, 성신이 항상 함께할 수 있는 생활을 하고,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고, 순결의 법을 따르고, 떨기세택 신권을 준비해서 받고,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을 때, 우리는 봉사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성전에서 우리는 헌납의 법에 따라 생활할 준비를 하고 또, 그에 따라 살겠다고 약속합니다. 역량 있는 청남은 선교사가 되고자 노력함으로써 이 율법에 따라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선교사 봉사는 주님을 위해 전심으로 봉사함으로써 삶에서 처음 내는 인생의 십일조가 됩니다. 그들은 이런 희생을 통해 인생에서 가장 높은 성약으로, 또는 여러 성약으로 전진해 나갈 힘을 얻습니다. 그중 하나는 성전에서 결혼하고 인봉받아 영원한 가족을 이루겠다는 성약입니다.

험착하고 좁은 길을 따라 힘써 앞으로 나아갈 때,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스스로 행하는 힘, 즉 영적인 힘을 계속 쌓아 가게 됩니다. 청남과 청녀들이 교리를 배우고

새로운 온라인 교과 과정인 *와서 나를 따르라*에 참여하여 간증을 나눌 때 그러한 성장이 촉진됩니다.

그에 더하여, 선택의지를 사용하여 개인적인 발전을 이루십시오. 자신의 은사와 재능을 발견해 나가는 과정에서 부모님과 선생님들도 도움을 줄 수도 있을 테지만, 여러분은 반드시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스스로 선택하고 행동하십시오. 여러분 안에서 동기를 찾으십시오. 교육이나 직업 훈련을 비롯하여 인생 계획을 세우십시오. 관심사와 기술을 찾아보십시오. 일하고 자립하십시오. 목표를

세우고, 실수를 이겨내고, 경험을 쌓고, 시작한 것을 끝내십시오.

이렇게 해 나가면서 가족과 정원회, 공과반, 합동 상호 향상 모임에 빠짐없이 참여하십시오. 건전한 놀이를 함께 즐기십시오. 이런 경험을 통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영적 은사,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딸이 지닌 영원하고도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존중하고 그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구주를 믿는 신앙을 지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복음에 따라 부지런히 생활하면 주님 안에서

강해집니다. 주님의 힘이 함께한다면 다음과 같은 말로 우리를 꺾는 적그리스도를 물리칠 수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리할지라도 …… 그는 작은 죄 범하는 것은 의롭다 하시리라 …… 이는 아무 해가 없나니 …… 이는 내일 우리가 죽음이라.”<sup>7</sup> 주님의 힘 안에서 우리는, 구주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위한 위대하고 영원한 행복의 계획에 어긋나는 어떤 철학이나 주의에 맞설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계획의 조건을 타협할 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루살렘을 보호할 성벽을 쌓는 임무를 맡았던 느헤미야를 기억하십시오. 그를 아래로 내려오게 해서 직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꺾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거부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에 대해 너그러우면서도 단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증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sup>8</sup>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표준을 굳게 지키며 그분의 일을 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 조롱과 비난을 받기도 합니다. 저는 그분의 교리에 굳건히 선다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오해나 비판, 그릇된 비난까지도 받을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혼자 아닙니다. 우리 구주께서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 받으셨습니다.”<sup>9</sup> 그분과 함께 서는 것은 성스러운 특권입니다!

모순처럼 들리겠지만, 굳게 선다는 것이 때로는 세상을 피하고, 더 나아가 세상에서 달아나야 하는 것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가라”<sup>10</sup>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 자리에서 달아났으며<sup>11</sup>, 리하이는 예루살렘을 뒤로한 채 가족을 이끌고 광야로 갔습니다.<sup>12</sup>

우리 앞에 있었던 모든 선지자들도



자신이 처한 시대에 굳게 섰습니다.

니파이는 사탄의 매질과 형들인 레이맨과 레뮤엘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기묘한 일들을 수행했습니다.<sup>13</sup>

아빈아다이는 의심과 조롱, 닥쳐온 죽음 앞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했습니다.<sup>14</sup>

2천 명의 청년 용사들은 복음의 가치를 경멸하는 사람들에 맞서 가족을 지켰습니다.<sup>15</sup>

모로나이는 백성들의 가족과 종교적 자유를 지키기 위해 자유의 가치를 들었습니다.<sup>16</sup>

사무엘은 돌과 화살이 날아오는데도 성벽에 서서 그리스도께서 오실 일에 대해 예언했습니다.<sup>17</sup>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구주의 복음을 회복하고 자신의 간증을 피로 인봉했습니다.<sup>18</sup>

물론 개척자들은 피 말리는 박해와 역경 앞에서도 굳게 서서 선지자를 따라 서부로 험난한 여행을 하고 그곳에 정착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런 위대한 종들과 성도는 구주와 함께했기에 굳게 설 수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어떻게 굳게 설 수 있으셨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어릴 적에 예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충실하게 행하면서 성전에서 학습 있는 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sup>19</sup> 그분께서는 성역 기간 내내 사람들을 가르치고, 치유하며, 봉사하고, 축복하는 신권 사업을 수행하셨습니다. 적절한 때에는 담대하게 약에 맞서서 성전을 깨끗이 하셨습니다.<sup>20</sup> 또한 말로든, 위엄 있는 침묵으로든 언제나 진리의 편에 서셨습니다. 대제사장들이 가야바 앞에서 예수님을 고소할 때도 현명하고 대담하게도 거짓에 대응하기를 거부하시고 침묵을 지키셨습니다.<sup>21</sup>

겻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주인 구속주께서는 속죄의 쓴 잔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sup>22</sup> 또 십자가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마침내 “다



이루었다”<sup>23</sup>고 말씀하신 그때까지 계속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구주께서 완전한 순종으로 굳게 서신 것에 대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sup>24</sup>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신권 형제 여러분, 나이에 관계 없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굳게 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합시다. 주님이 살아 계시고, 우리가 “거룩한 부름으로 부름 받[아]”<sup>25</sup> 그분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특별한 간증을 전합니다. “그런즉 ……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sup>26</sup> 마십시오. 하나님의 교리에 순종하고 굳게 서는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리는 성스럽고 우리 시대에 부는 사회적 및 정치적 풍랑 속에서도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행동하고] 강건[하도록]”<sup>27</sup> 당부합니다. 이렇게 간절히 간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디모데후서 3:1.
2. 에베소서 6:13~17; 강조 추가.
3. 모세서 5:23.
4. Robert D. Hales, “This Is the Way; There Is None Other Way”, in *Brigham Young University 1981-82 Speeches*(1982), 3-4; [speeches.byu.edu](http://speeches.byu.edu)에서도 볼 수 있음.
5. 교리와 성약 1:39; 강조 추가.
6. 디모데후서 3:5.
7. 니파이후서 28:8.
8. 느헤미야 6:3.
9. 이사야 53:3; 모사이아서 14:3.
10. 누가복음 4:8.
11. 창세기 39:7~12 참조.
12. 니파이전서 2장 참조.
13. 예를 들어, 니파이전서 18장 참조.
14. 모사이아서 11~17장 참조.
15. 엘마서 53, 55~56장 참조.
16. 엘마서 46:11~13 참조.
17. 힐라멘서 13~16장 참조.
18. 교리와 성약 135면 참조.
19. 누가복음 2:46~49 참조.
20. 마태복음 21:12~13 참조.
21. 마태복음 26:57, 59~63 참조.
22. 교리와 성약 19:16~19 참조.
23. 요한복음 19:30.
24. 제3니파이 11:7.
25. 엘마서 13:3; 또한 디모데후서 1:9 참조.
26. 교리와 성약 87:8.
27. 고린도전서 16:13.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칠십인 회장단

# 소년의 신권 권능

의롭게 신권을 행사한다면, 소년의 신권도 어른들의 신권처럼 강력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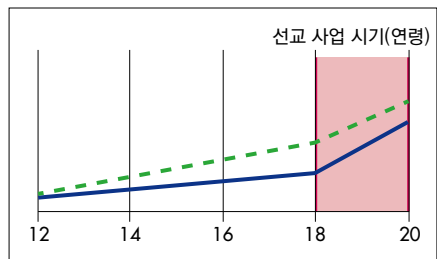
**18** 78년에 제 외증조부이신 조지 에프 리차드는 열일곱 살이셨습니다. 그분은 그때 이미 장로 신권에 성임돼 있었는데, 당시에는 종종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그분의 어머니는 극심한 고통으로 끙끙 앓으셨습니다. 그 시각에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서 감독님을 비롯한 몇몇 회원들이 방문하여 그분의 어머니께 축복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고통은 여전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들 조지를 돌아보며 손을 얹고 축복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소년 조지는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또 한 번도 해 본 적이 없는 신권 축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났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향으로 들어가 울면서 기도했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나서, 그분은 어머니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아주 간략하게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분은 나중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손이 채 머리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어머니의 신음이 잠잠해지고 통증이 사라졌다.” 그런 다음 자신이 얻은 놀라운 깨달음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분은 감독님이 축복을 주셨을 때 어머니의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이유가 주님께서 감독님의 축복을 인정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한 소년을

위해 그 축복을 남겨 두시어, 의롭게 신권을 행사하기만 한다면 소년이 지닌 신권도 어른들처럼 강력하다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오늘 밤, 저는 바로 그 권능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을 예로 들겠지만, 그 원리는 교사 정원회 회장과 제사 정원회 회장 보조를 포함하여 아론 신권을 소유한 모든 청년과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에 저는 청년들의 영성과 지도력이 선교 사업 동안 극적으로 증대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수량화하여 아론 신권 시절과 선교 사업 동안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프로 나타낸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선교 사업 동안 일어나는 이런 극적인 성장에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1)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청년들을 신뢰합니다. (2) 우리는



성과와 지도력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높은 기대를 겁니다. (3) 우리는 그들을 훈련하고, 또 훈련하여 자신에게 기대되는 책임을 훌륭하게 수행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원리들을 지금 집사 정원회 회장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성장은 훨씬 일찍 시작될 것이며 이런 모양의 그래프가 생겨날 것입니다. 이제 저는 이런 원리들을 어떻게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입니다. 우리는 집사 정원회 회장들에게 더 큰 책임을 맡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정원회에서 행하는 일을 감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신권 열쇠를 기꺼이 주셨다는 사실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증거는 우리가 집사 정원회 회장을 부르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름은 계시에 따른 것이지, 단순히 나이, 또는 그와 유사한 다른 어떤 요소에 따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을 포함하여 교회 내 모든 지도자는 자신이 계시에 따라 부름 받았음을 알 권리가 있고, 또 알아야만 합니다. 이러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신뢰하시고, 또 지지해 주신다는 것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요소, 즉 높은 기대와 그 기대에 부응하도록 훈련하는 것은 서로 연관되어 있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배운 놀라운 교훈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선교사들은 대개 선교부 회장의 기대 수준에 따라 성장할 수도, 퇴보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단지 정원회 모임에서 사회를 보거나 감독단 청소년 위원회 모임에 참석하는 일뿐이라면, 그들이 실제로 하게 되는 일도 그것뿐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도자 여러분은



그들에게 더 큰 시야, 바로 주님께서 보시는 비전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비전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비전이 커질 때 동기도 커지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에서 받는 모든 부름에는 계시를 받을 권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집사 정원회 회장들은 자신의 보좌를 추천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영적으로 잃어버린 이들을 구조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 정원회 회원들에게 의무를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지도자라면,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 이 원리들을 가르쳐 계시를 얻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주신 분명한 약속을 가르칠 것입니다. “만일 네가 구하면, 계시 위에 계시를 …… 받을 것이요”(교리와 성약 42:61) 계시를 주시는 일에서 주님께서 한없이 관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를 이렇게 일깨워 주지 않으셨습니까? “네가 물을 때마다 너는 나의 영에게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교리와 성약 6:14) 집사 정원회 회장 여러분, 이러한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분의 생각과 뜻을 계시해 주고 싶어하십니다. 주님도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요? 결코 없습니다. 여러분은 계시를 받을 권리가 있으므로, 단지 그분의 도움을 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이 정원회 회장으로서 겪는 모든 고민을 해결하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지도자 여러분,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 계시가 개인적인 노력과 힘든 노고를 대체하는 것은 아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님은 해롤드 비리 회장님에게 이렇게 질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제가 계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리 회장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계시를 받고 싶다면,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현명한 지도자라면, 집사 정원회 회장이 자신의 보좌를 추천하기 위한 준비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적인 숙제’에 대해 함께 논의할 것입니다. 다음 질문들을 묻고 답해 본다면, 그런 논의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원회의 다른 청남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모범이 될 만한 사람이 누구일까? 특별히 힘든 문제를 겪고 있는 청남의 어려움을 잘 파악하여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

마지막으로, 현명한 지도자는 이 집사 정원회 회장에게 계시가 올 때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고 행동에 옮길 수 있는지를 가르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의 흥미를 끄는 것들로 가득하며, 빠른 속도로 흘러가고, 어디를 가든 현란한 불빛과 시끄러운 소음이 있는 것이 일상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방식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이 청남은 알아야 합니다. 구주께서는 알아줄 사람들이 거의 없는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그분께서 하신 가장 위대하고 특별한 일은 고요한 동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조셉은 어느 외딴 숲에서 첫번째 시현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은 고요하고 작은 음성을 통해 옵니다. 이 음성은 바로 평안이나 위안을 주는 느낌, 어떤 선한 일을 해야겠다는 느낌이며, 번뜩이는 깨달음입니다. 이것은 종종 작은 생각의 씨앗처럼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이 생각을 소중히 여기고 키운다면 영적으로 거대한 숲을 이룰 수 있습니다. 때때로 집사 정원회 회장은 이러한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 현재는 저활동인 청남을 보좌로 추천하거나 어떤 임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봉사할 때였습니다. 우리 회장단은 어떤 형제를 스테이크 서기로 불러야겠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당시 그 형제는 매주 교회에 참석하는 것에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부름을 받아들인다면 그 일을 훌륭하게 해낼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름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니요, 못할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어떤 느낌이 와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 그렇다면 우리 글렌데일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서기가 없겠군요.”

제 대답에 놀란 그가 대답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스테이크 서기가 없으면 안 되죠.”

제가 대답했습니다. “주님께서



형제님에게 부름을 주라고 영감을 주셨는데, 우리 마음대로 다른 사람을 스테이크 서기로 부르길 원하시는 건가요?”

“그러자 그는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정말로 부름을 잘 수행했습니다. 자신에게 부름을 주는 이가 바로 주님이시며, 또한 그분이 자신을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알 때, 많은 성인들뿐만 아니라 또한 많은 소년들도 그 부름에 응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는지를 알도록 집사 정원회 회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기대 중 하나는 바로 영적으로 잃어버린 자, 즉 저활동 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구조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이렇게 선포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마태복음 18:11, 개역개정판 한글 성경에는 이 성구가 각주에 나옴-옮김) 잃은 자를 구조하는 것이 주님께 우선이라면, 그리고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의 생애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일이 몬슨 회장님에게도 우선이라면, 이 일은 교회의 모든 지도자, 모든 집사 정원회 회장이 우선시하는 일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도자들이 부름을 수행하면서 핵심적으로 집중해야 할 부분은, 바로 열렬하고 강력하며 포기하지 않는 굳은 결심으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을 다시 데려오는 일입니다.

정원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은 한 청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30명이나 되는 청남들이 저희 집에 찾아와서 정말 놀랐어요. …… 그래서 이제 다시 교회에 가고 싶어요.” 어떤 청소년이 그런 사랑과 관심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집사 정원회 회장들이 비전을 품고서 이따금 정원회 모임 공과를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가르친다는 여러 이야기를 들을 때 저는 큰 기쁨을 느낍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어느 집사 정원회 반에 참석했는데, 반에서 열두 살 된 청남이 속죄를 주제로 25분짜리 공과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같은 반 집사들에게 속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던지면서 공과를 시작했습니다. 그런 후 몇 가지 의미 있는 성구들을 나누었고, 깊이 있는 질문을 했으며, 반원들은 이에 대답했습니다. 준비한 공과보다 시간이 더 많이 남았다는 것을 깨달은 이 청남은 지혜를 발휘했는데, 아마 아버지가 미리 귀땀 주었음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공과에 참석한 지도자들에게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속죄에 대해 어떤 질문을 받았고, 또 어떻게 답변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간증으로 공과를 마쳤습니다. 공과를 듣는 동안 저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내가 아론 신권을 소유한 청남이었을 때는 공과에서 한 번도 중요한 역할을 맡아 본 적이 없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청남들에 대한 기대와 비전을 높일 수 있으며, 청남들은 분명 그에 부응할 것입니다.

지도자 여러분이 이런 집사 정원회

회장을 가장 잘 돕는 방법은 그들에게 앞에서 정원회를 이끌게 하고 여러분은 스포트라이트 밖으로 한 발짝 물러서는 것입니다.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길은 여러분 자신이 훌륭한 공과를 전하고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청남들이 그런 훌륭한 공과를 하고 구조에 나서도록 도울 때입니다.

‘잠재력을 가슴에 묻어 둔 채로 생을 마치지 말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성인 지도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도력 기술을 가슴에 묻어 둔 채로 해임되지 마십시오. 모든 기회를 활용하여 우리 청소년들을 가르치십시오. 모임 순서를 준비하는 방법, 품위 있고 상냥하게 사회를 보는 법,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하는 법, 영감에 찬 공과를 준비하고 가르치는 법, 계시를 받는 법 등을 가르치십시오. 여러분이 청남들의 가슴과 정신에 깊이 스며들도록 남겨 주는, 영성과 지도력이라는 유산이 바로 여러분의 성공을 가능하게 하는 척도가 될 것입니다.

집사 정원회 회장 여러분, 여러분이 자신의 부름을 영화롭게 한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든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의롭게 신권을 행사한다면, 소년의 신권도 어른들의 신권처럼 강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면 성전 성약을 맺고, 선교사가 되고, 미래의 교회 지도자가 되었을 때, 여러분은 계시를 받는 방법, 다른 사람을 구조하는 방법, 권능과 권세로 왕국의 교리를 가르치는 방법을 이미 알고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유산을 지닌 청년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 간증을 세상의 구주와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주

1. Henry B. Eyring, “Waiting upon the Lord,” *Brigham Young University 1990–91 Devotional and Fireside Speeches*(1991), 17.





데이비드 엘 벅  
본부 청남 회장

# 성역을 베푸는 여러분의 성스러운 의무

여러분은 신권에 성임되는 그 순간에 성역을 베푸는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를 받았습니다.

## 성역을 베푸는 기쁨

아론 신권 소유자인 청남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여러분에게 주실 위대한 일을  
갖고 계십니다.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보살피라는 자신의  
성스러운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sup>1</sup>

다른 사람을 보살핀다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샤이 존슨이란 소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동안 그것에 대해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고등학교에 진학한 샤이는  
매정하고 몰지각한 집단 따돌림의 희생양이  
되었습니다.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은  
샤이를 괴롭히고, 밀쳐내고, 조롱했습니다.  
심지어 쓰레기를 던지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학교에서 그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아이를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청소년기는 외롭고  
두려운 시간입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샤이의  
학교에는 다른 사람을 보살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아는 청남들이 있었습니다.

샤이의 어머니가 집단 따돌림을 막아  
달라며 학교 선생님들께 부탁했지만,

따돌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샤이 어머니는 아론 신권 소유자이며,  
학교 미식축구팀 주장이자 쿼터백인 카슨  
존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누가 그렇게  
주도해서 샤이를 괴롭히는지 알아봐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도와드리겠다고 대답한 카슨은  
마음속으로 가해 학생을 찾아내는 것 이상을  
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샤이가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영의 속삭임을 들은 것입니다.

카슨은 몇몇 팀원에게 샤이를 보살피는  
일에 동참하겠는지 물었습니다. 그들은  
샤이에게 점심시간 동안 함께 있자고  
했습니다. 샤이가 안전하도록 교실까지  
함께 데려다 주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지만,  
미식축구 선수들이 샤이와 친한 친구가 되자  
아무도 샤이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그 미식축구팀은 신 나는 시즌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패를 거듭하는  
홍분 속에서도 이 청남들은 샤이를 잊지  
않았습니다. 경기가 끝나면 샤이에게  
경기장으로 내려와 팀과 함께하자고  
권했습니다. 샤이는 사랑받고 존중받는다고  
느꼈습니다. 안심이 되고 행복했습니다.

미식축구팀은 주 선수권 대회까지  
진출했습니다. 하지만 미식축구 선수권  
대회보다 더 중요한 일이 학교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청남들의 모범은 다른  
학생들이 더욱 포용력 있고 친절할 사람이  
되게 하는 동기로 작용했습니다. 학생들은  
이제 더 친절하고 정중하게 서로를 대합니다.

전국적인 보도 매체가 이 청남들이 한  
일을 알게 되었고, 이 이야기는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한 사람을 보살피고자 시작한  
일은 수천 명에게 같은 일을 하게 하는  
영감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사이의 어머니는 이 청남들을 “변장한 천사”라고 부릅니다. 카슨과 그 친구들은 자기들이 사이의 삶을 축복했다기보다는 오히려 사이가 그들의 삶을 더 많이 축복해 주었다고 주저 없이 말합니다. 자신을 잊고 남을 위해 봉사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즉, 자기 자신을 찾게 됩니다.<sup>2</sup> 다른 식으로는 불가능한 방법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이 청남들은 사람들을 보살피는 데서 오는 기쁨을 경험했으며, 다른 사람을 축복할 기회를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몇 달 후에 전임 선교사로서 성역을 베풀 때를 고대하고 있습니다.<sup>3</sup>

### 필요한 도움, 그리고 의무

전 세계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낄 필요가 있는 수천 명의 사이 손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학교, 여러분의 정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 안에도 있습니다. 곧바로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지만 그다지 눈에 잘 띄지 않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여러분이 아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보살핌을 통해 어떤 식으로든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손을 내밀기 위해 여러분에게 의지하고 계십니다.

다른 사람을 보살피기 위해 유명 선수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은 신권에 성임되는 그 순간에 성역을 베푸는

권능과 권세, 그리고 성스러운 의무를 받았습시다. 제임스 이 파우스트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신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도록 인간에게 위임된 권세입니다.”<sup>4</sup> 아론 신권은 천사의 성역을 베푸는 열쇠를 지닙니다.<sup>5</sup>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할 때, 그분께서 여러분을 인도하실 것이며 천사들이 여러분을 도와줄 것입니다.<sup>6</sup> 여러분은 사람들의 삶을 축복하고, 영혼을 구할 힘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모범이십니다. 그분이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였습니다.”<sup>7</sup> 성역을 베푸는 것은 타인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에게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 구주께서 이곳에 계셨다면 하셨을 일을 하는 것입니다.

### 여러분의 가족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가정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곳입니다.<sup>8</sup>

재미있는 실험을 해 보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가 집안일을 도와 달라고 하실 때 이렇게 대답해 보십시오. “도와 달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어 기뻐요.” 그리고는 어머니의 반응을

살피십시오. 몇몇은 이 실험을 하기 전에 구급요법을 복습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실지도 모를 일입니다. 구급요법으로 어머니를 일으킨 다음에는 여러분과 어머니의 관계가 눈에 띄게 발전한 것을, 또 가정에 영이 더 강하게 머무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는 가족에게 성역을 베푸는 한 가지 방법에 불과합니다. 방법은 많습니다. 가족에게 친절한 말을 함으로써 여러분은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절친한 친구처럼 대함으로써 성역을 베풀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성역을 베푸는 일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아마도 아버지가 가정에서 영적 지도자로서 의무를 다하도록 도와드리는 일일 것입니다. 가정의 밤, 가족 기도, 가족 경전 읽기 시간에 최선을 다해 돕고 의욕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가정에 영이 거할 수 있도록 맑은 바를 다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가 역할을 다하시도록 힘을 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또한 장차 아버지가 될 사람으로서 준비될 것입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안 계신다면, 가족에게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여러분의 책임은 더욱 더 큼니다.

### 여러분의 정원회

여러분은 또한 정원회를 보살필 의무가 있습니다.

신권은 전 세계로 뻗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 많은 분이 구조하라는, 몬슨 회장의 외침에 귀를 기울입니다. 교회 역사상 지금까지처럼 활동적인 아론 신권 소유자가 많았던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활동적이지 않고, 여러분을 필요로 하는 형제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지난 6월, 인도 방갈로르에 새 지부가 조직되었을 때, 막 집사로 성임된 글래드윈은 신권회에서 유일한 청남이었습니다.

글래드윈은 청남 회장님, 지부 회장님과 함께 저활동 청남들에게 전화를 걸고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두 번째 청남인 새뮤얼이 교회에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글래드윈과 새뮤얼은 정원회 모임에 오지 않은 청남들에게 전화하고, 정원회 모임에서 배운 것을 들려주었습니다. 생일 때 전화를 하거나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저활동 청남들은 하나씩 글래드윈과 새뮤얼의 친구가 되었으며, 정원회 활동에 오고, 정원회 모임에 참석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는 성역을 베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그 지부의 모든 청남이 교회에서 활동적으로 지냅니다.

경전은 아론 신권 정원회가 평의회로서 앉아 서로를 교화하거나 발전하게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sup>9</sup> 직접 복음 진리를 가르치고, 영적 경험을 나누고, 간증을 전할 때 여러분은 고양됩니다. 교회 청소년 교과 과정은 정원회 모임에서 이러한 상호 작용이 이루어지도록 격려합니다. 하지만 이는 정원회 회원들이 모두 사랑받고 존중받는다 느낄 때만 가능합니다. 정원회 모임에서는 비웃음이나 괴롭힘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느낀 점을 자유롭게 나눌 때 그렇습니다. 정원회 회장단은 정원회 모임이 모든 사람이 참여하기에 편안한 장소가 되도록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sup>10</sup>

신권 소유자는 절대로 저속하거나 더러운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비하하거나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신권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 발전하도록 돕고 강화합니다. 이는 단순하지만 성역을 베푸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 언제나

성역을 베푸는 일은 의식 집행이나 가정 복음 교육, 또는 종종 하는 봉사활동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요일에만, 또 하얀 셔츠와 넥타이를 매고 있을 때만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신권 소유자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성역을 베풀어야 하는 의무를 집니다. 성역을 베푸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동만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를 규정합니다.

매일 성역을 베푸십시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기회를 찾으십시오. 주님께 그 기회들을 알아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십시오. 대부분의 기회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돕는, 작고 진실한 행동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sup>11</sup>

영과 함께하기에 합당해지려고 노력한다면, 성역을 베풀도록 속삭이는 생각과 느낌을 인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속삭임에 따라 행동한다면, 더 많은 속삭임을 인식하게 되고, 그리하여 성역을 행할 기회와 능력이 증대되고 확장될 것입니다.

젊은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역을 베풀 수 있는 위대한 아론 신권의 권세와 권능을 부여받았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렇게 성역을 베풀으로써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쓰이는, 주님 손 안에 든 도구가 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의미 있어질 것입니다. 악에 대항하는 더 강한 힘이 생길 것입니다. 진정한 행복을 얻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역을 베푸는 성스러운 의무를 다할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하기를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4:111 참조.
2. 마가복음 8:35 참조.
3. Trent Toone, “Kindness of Arizona High School QB Carson Jones and Teammates Has Gone Viral,” *Deseret News*, Nov. 9, 2012, [deseretnews.com/article/865566351/Kindness-of-Arizona-high-school-QB-Carson-Jones-and-teammates-has-gone-viral.html](http://deseretnews.com/article/865566351/Kindness-of-Arizona-high-school-QB-Carson-Jones-and-teammates-has-gone-viral.html) 참조.
4. 제임스 이 파우스트, “손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07년 5월호, 54쪽; 강조 추가.
5. 교리와 성약 13편 참조.
6. 교리와 성약 84:88 참조.
7. 마태복음 20:27~28 참조.
8.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 (2010), 2.4.5 참조.
9. 교리와 성약 107:85 참조.
10. 에베소서 4:29.
11. 지침서 제2권, 3.2.3 참조.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네 가지 명칭

저는 ..... 네 가지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칭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과 ..... 신권 소유자로서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친**애하는 형제이자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니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차오릅니다. 아들과 손자를 데리고 오신 아버지와 할아버지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오늘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선택한 청년 여러분도 잘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이곳입니다. 우리를 하나로 이어 주는 형제애를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길 바라며, 오늘 형제들과 함께한 이곳에서 소속감과 지지, 우애를 찾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남성들은 때때로 자신을 어떠한 명칭으로 규정하기도 합니다. 많은 분이 여러 명칭을 가지고 있는데, 각 명칭은 우리 각자에 대한 중요한 부분을 말해 줍니다. 예를 들어, 어떤 명칭은 가정에서 우리가 하는 역할을 나타내는데 아들, 형제, 남편, 아버지 등이 그렇습니다. 의사, 군인, 기술자 등과 같이 세상에서 우리의 직업을 나타내는 명칭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우리의 부름을 말해 주는 명칭이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전 세계 모든 신권 소유자에게 해당된다고 믿는 네 가지 명칭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명칭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우리 각자가 맡은 역할과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신권 소유자로서 지닌 잠재력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명칭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이고 어떤 일을 하는지에 관계없이, 우리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의 영의 자녀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오기 전에 그분의 자녀였으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분의 자녀일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진리는 자신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우리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삶 자체를 바라보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애석하게도, 우리 중에 이 명칭의 의미에 완전히 걸맞은 생활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기 때문입니다.<sup>1</sup>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의 의미를 알면서도 그에 걸맞지 않은 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는 낙담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낙담하는 감정을 이용하려 합니다. 사탄은 여러분의 신성한 잠재력 대신 여러분이 지은 죄와 잘못으로 여러분을 규정하기를 바랍니다. 형제 여러분,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모두 아기가 걸음마를 시작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기는 한 걸음을 떼고는 휘청거립니다. 그러다 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기를 다그칩니까? 물론 아닙니다. 아기가 휘청거리고 넘어지는 것을 혼낼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대신 격려해 주고, 손뼉을 쳐 주고, 칭찬해 줍니다. 작은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아기는 조금씩 부모님처럼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교할 때, 우리 필멸의 인간은 미숙하고 휘청거리는 아기보다 조금도 나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그분을 닮아가기를 바라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바로 그것이 우리의 영원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목표에 한 번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내디딤으로써 그곳에 도달한다는 것을 알고 이해하십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하고 실수하면 벌을 주시려고 율법과 계명을 정해 놓고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저는 그분처럼 되기 위해 내딛는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에 기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가 비록 넘어지더라도 낙담하지 말라고, 절대로 포기하거나 주어진 책임에서 멀어지려 하지 말라고 격려하시며, 대신 용기를 내고 신앙을 행사하고 계속 노력하라고 촉구하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가르치시며, 종종 하늘에서 오는 보이지 않는 도움을 통해 구주를 따르려는 이들을 도우십니다.

###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러한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다음 명칭에 대해 생각하게 합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려 노력하는 사람은 모두 그분의 제자로 불립니다. 비록 아무도 완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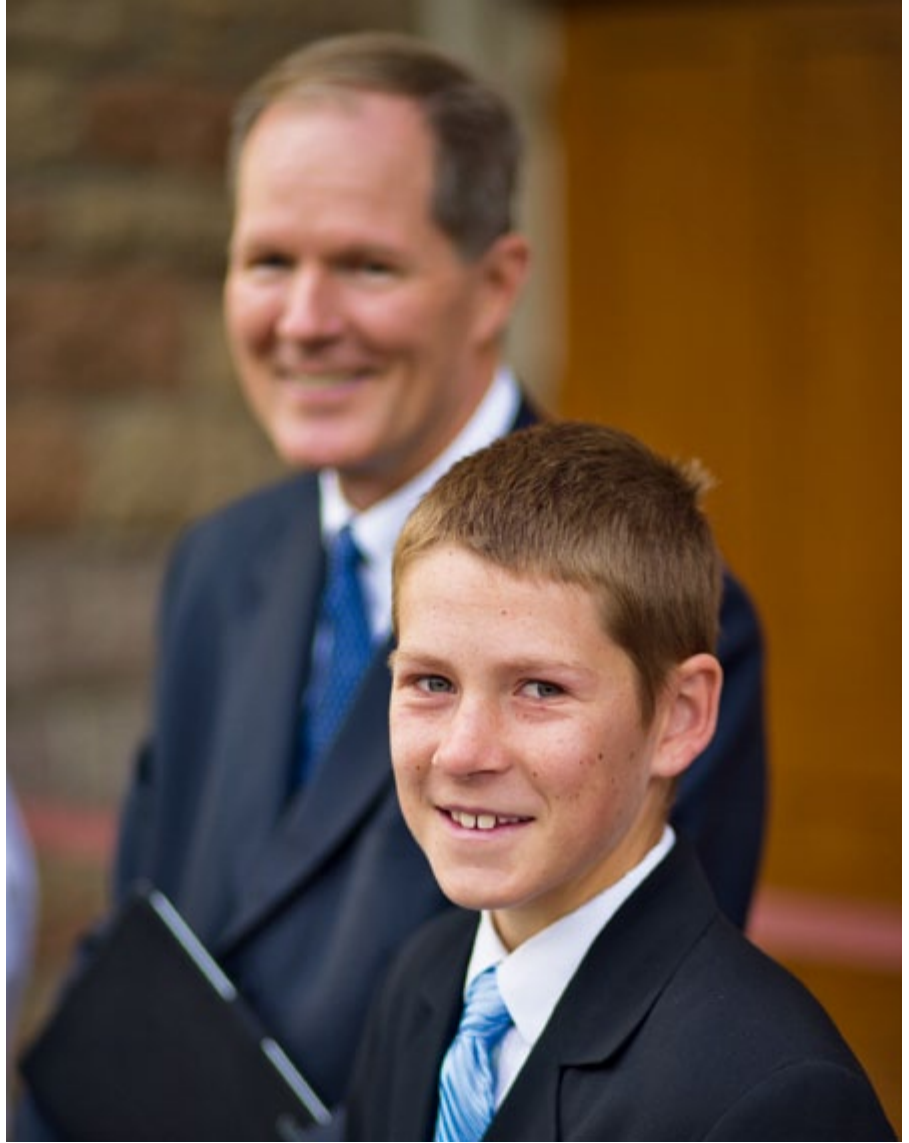
그 사실을 우리의 기대치를 낮추고 우리의 특권에 못 미치는 생활을 하며 회개의 날을 미루는 핑계로 이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고, 더 온전해지며, 더 고결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한 노력을 거부하는 데 이용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 또는 필멸의 세상에서 겪는 유혹에 영향을 받지 않는 남성과 여성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교회는 우리 구속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sup>2</sup> 위에 세워졌으며, 그분의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깨끗하게 되고 “하나님의 권속[에 속한 시민]”<sup>3</sup>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가 없다면 삶은 막다른 골목처럼 소망도 미래도 없는 무의미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속죄가 있기에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누리는 영생을 향해 나아가는 성장과 발전의 가슴뛰는 여행이 됩니다.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되도록 돕기 위해 속죄가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 모두가 똑같아져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성격의 차이를 죄와 혼동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누군가가 우리와 다르다는 이유로 그 사람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오류를 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하다 보면, 교회가 모든 회원이 똑같아지도록, 즉 모든 회원이 똑같은 것을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원한다고 믿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상충합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을 다른 형제들과 다르게, 또 모든 아들을 그 아버지와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쌍둥이조차도 개성과 영적인 정체성은 다릅니다.

그런 사고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의도 및 목적과도 배치됩니다. 그분의 교회는 하나님의 각 자녀가 지닌 선택의지와



그에 따라 일어나는 광범위한 모든 결과를 인정하고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회복된 복음에 대한 간증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결심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외에는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성향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다양성의 이점을 취할 때, 그리고 주변의 동료 제자들을 강화하고 북돋아 주기 위해 각자의 다양한 재능을 키우고 사용하도록 서로 격려할 때, 교회는 번창합니다.

형제 여러분, 그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일생에 걸쳐 우리 구주를 따르며 그분과 함께 걷는 여정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골고다까지 이어지는 그 여정에서, 우리는 이 여정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 길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힘들고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신권

형제로서 우리는 구속주를 계속 따르겠다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가 진 십자가가 너무 무겁게 여겨질 때에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따르며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우리는 아직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디 한결같고 굳건한 제자가 됩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가 맺은 성약에 충실합시다. 그분을 향해 불안정한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가면서도 우리의 변호자이신 구속주에게서 결코 눈을 떼지 맙시다.

### 영혼의 치유자

형제 여러분, 참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면, 우리는 세 번째 명칭인 영혼의 치유자라는 칭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신권에 성임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치유하는 자로서 부름을 받습니다.<sup>4</sup>

우리가 할 일은 일으켜 세우고, 고쳐

주고, 강화하고, 고양하고, 완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임무는 구주의 모범을 따라 고통받는 이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 슬퍼하고, 또한 위로를 필요로 하는 자들을 위로[합니다.]”<sup>5</sup>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고통받는 이들의 상처를 싸매 줍니다. “약한 자를 [돕고,] 처진 손을 일으켜 세우며, 연약한 무릎을 강건하게 [합니다.]”<sup>6</sup>

가정 복음 교사로서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신권 지도자로서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아버지, 아들, 형제, 남편으로서 우리는 헌신적인 치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한 손에는 병자를 축복하기 위한 성별된 기름통을, 다른 한 손에는 궁핍한 사람들을 먹일 빵 한 조각을, 그리고 마음에는 “상한 영혼을 치료하시느”<sup>7</sup> 하나님의 평화로운 말씀을 담아야 합니다.

치유하는 자가 되는 것은 신권 소유자에게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한 책임이며, 이 책임은 아론 신권과 멜기세덱 신권 소유자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그것을 단순히 믿을 때보다 그에 따라 생활할 때 더 큰 축복을 가져옵니다. 그 원리를 적용할 때, 개개인이 고양되고 가족이 강화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실행하는 일은 우리의 특권이자 책임입니다.

구주께서는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위대한 치유자십니다. 우리의 본이시며, 가장 어둡고 힘든 순간에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보여 주십니다.

그분을 따릅시다.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을 수행합시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하며 치유하는 자가 됩시다.

### 영생의 상속자

모두에게 해당되는 네 번째 명칭은 조금 전에 언급했던 첫 번째 명칭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우리는 그분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의 상속자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광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sup>8</sup>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이 말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입니다!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중 많은 사람이 세상적인 것과 명예를 추구하느라, 또는 멋진 최신 전자기기를 만지작거리며 즐기느라 소중한 시간과 생각, 돈과 정력을 그렇게나 많이 소비하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신성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충실하여 …… 이 두 신권을 얻고 자기의 부름을 영화롭게 하는 자는 ……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주가 이르노라. …… 나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의 아버지를 받아들이는

것이요. …… 그러므로 내 아버지께서 가지신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지리라.”<sup>9</sup>

이 약속이 의미하는 바를 모두 이해하는 것은 제 사고력을 넘어서는 일이지만, 그 약속이 위대하고 신성하며 영원하다는 것은 압니다. 또한 삶에서 노력해 볼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이 모든 것을 알면서 어떻게 주님과 이웃을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신권에서 오는 우리의 책임을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고귀하며, 우리의 온 마음과 능력을 다하도록 요구하는 사업입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싶습니까? 가야 할 길을 보여 주는 성령의 속삭임을 듣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다시 힘을 내어 이 위대한 사업에, 우리 자신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이 대업에 매진합시다!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섬기는 행위는 비록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지라도 우리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한 것 이상의 더 큰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어쩌면 여러분은 자신을 쓸모없고,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하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권 소유자 중에 이와 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진심으로 유감입니다. 분명, 하늘에 계신 여러분의 아버지께 여러분은 무시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교회는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sup>10</sup> 하신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우리는 미약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지혜롭고 강건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때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sup>11</sup>

여러분이 필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으로 이바지할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손길을 통해 그 기여를 크게 확대하실 수 있습니다. 기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교회에서 받는 부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봉사할 기회는 무한합니다. 만일 경기장 바깥에서 서서 구경만 하고 계시다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서 함께 참여하시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일에 온전히 동참하기 위해 특정 부름이 오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신권 소유자로서 여러분은 이미 이 사업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연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매일 기도하며, 회복된 복음의 원리대로 생활하여 이를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그런 다음 여러분이 배운 대로 생활하십시오. 먼저는 가정에서, 또한 삶의 모든 상황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위대한 지휘자가 이끄는 오케스트라에서 여러분은 각자 자신만의 역할이 있으며 여러분이 연주할 특정한 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를 한다 해도 연주회는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 악단에 동참하며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게 한다면, “하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이며 그분께서는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sup>12</sup> 부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러분이 지닌 잠재력에 걸맞게 생활하십시오. 가족 안에서, 가정에서, 지역 사회에서, 국가에서, 그리고 참으로 세상에서 여러분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자신을 잊는다면,<sup>13</sup> 여러분은 성장하고 발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sup>14</sup>까지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모든 것을 상속받도록 준비될 것입니다.

#### 여러분은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사업은 참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신권은 참으로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합당한 신권 소유자의 여러 명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을 돕는 신성한 도움과 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도움과 힘을 느낄 때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 예비해 놓으신 위대한 유산을 향해 나아갈 것입니다. 제 축복과 간증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로마서 3:23.
2. 힐라맨서 5:12 참조.
3. 에베소서 2:19.
4.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5. 모사이야서 18:9.
6. 교리와 성약 81:5.
7. 야곱서 2:8.
8. 로마서 8:16-17.
9. 교리와 성약 84:33, 35, 37~38.
10. 고린도전서 1:27.
11. 로마서 8:31 참조.
12. 말라기 3:10.
13. 마태복음 16:25.
14. 에베소서 4:13.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제일회장단 제1보좌

# 우리는 하나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우리는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대의를 한 마음으로 이룰 것입니다.

**이** 마지막 경륜의 시대가 시작될 때, 주님은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1831년 당시 그 말씀을 들은 신권 소유자들은 소수였지만, 지금은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는 나이나 능력, 교회 부름이나 지역에 관계없이 하나가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일을 돕도록 부름을 받았습시다. 주님은 포도원에서 첫 일꾼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거니와,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계명을 주노니, 모든 남자 곧 장로, 제사, 교사 그리고 또한 회원은 자기 능력을 다하여 가서 자기 손으로 일하여 내가 명한 일을 준비하며 완수하라.

“그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하는 바 너희의 전도함은 부드럽고 온유한 경교의 음성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악인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주의 기구를 메는 너희여 깨끗할지어다. 참으로 그러하도다. 아멘.”<sup>1</sup>

이제 아론 신권 형제 여러분은 주님의 그 명령에 여러분도 포함된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주님께서는 그분의 계명을 지킬 방편을 미리 마련하시기에,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해

주시리라고 기대해도 좋습니다.

얼마 전에 아론 신권 제사 직분을 받은 한 소년을 주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소년은 지금 만 열여섯 살입니다. 그 소년은 1년 전에 선교사들이 처음 파송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선교사들은 그 나라의 두 개 도시에 지명되었는데, 그 소년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은 아니었습니다.

소년이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은 안전을 위해 소년을 데리고 유타로 이주하셨습니다. 가족이 선교사들에게서 복음을 배우고 침례를 받았지만, 그때 소년은 아직 여덟 살이 되지 않았었기에 침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모님이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소년을 처음 태어나 살았던 바다 건너 집으로 돌려보내셨습니다.

작년 3월, 소년은 길을 걷다가 전혀 모르는 한 여성에게 말을 건네야 한다는 느낌을 받았습시다. 그래서 자신이 기억하는 짧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 여성은 곧 그 지역으로 파송될 선교사들의 주거 및 의료 문제를 살피도록 선교부 회장이 보낸 간호사였습니다. 두 사람은 대화를 나누면서 친해졌습니다. 선교 본부로 돌아온 그 간호사는 선교사들에게 이 소년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2012년 9월, 두 명의 선교사가 처음으로 그 지역에 파송되었습니다. 이 선교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으로 처음 침례를 준 사람은 바로 그 소년이었습니다. 올해 3월로, 소년이 회원이 된 지 4개월째가 되었습니다. 그는 아론 신권의 제사로 성임되었기에 두 번째 개종자에게 직접 침례를 줄 수 있었습니다. 소년은 인구 13만 명이 사는 그 도시의 첫 번째 신권 형제 개척자로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자녀들을 함께 모으고 있습니다.

부활 주일이었던 2013년 3월 31일, 그 도시의 교회 회원 수는 크게 늘어 여섯 명에 달했습니다. 그러나 부활 주일 모임에 참석한 현지 회원은 소년뿐이었습니다. 전날 무릎을 다쳤지만, 소년은 교회에 꼭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소년은 교회로 걸어갈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에 갔습시다. 그날 소년은 청년 장로들 네 명, 부부 선교사 한 쌍과 함께 성찬을 취했으며, 참석자는 그들이 전부였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왕국을 세우시는지를 잘 모르면 이 이야기는 대수롭지 않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일을 자주 목격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뉴멕시코에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지자들께서는 마음이 정직한 사람을 찾고 가르치는 선교사들을 돕고 왕국으로 들어오는 이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가르침을 수 세대에 걸쳐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충실한 신권 지도자들과 회원들이 어떤 일을 이뤄낼 수 있는지를 직접 경험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1955년에 미국 공군 장교로 임관했습니다. 첫 임지인 뉴멕시코 엘버커키로 떠나기 직전에 저는 감독님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감독님은 그 축복에서 공군 복무 시기가 선교사로 봉사하는 시기가 될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바로 그다음 주 일요일에 저는 앨버커키 1지부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그때 한 형제님이 오시더니 자신을 지방부 회장이라고 소개하시고는 저를 지방부 선교사로 부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그 지역에 훈련을 받으러 온 것이라 몇 주밖에 머물지 않을 예정이며, 이후에 다른 곳으로 배치받아 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방부 회장님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는 형제님께 부름을 드리려고 합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사 훈련을 받던 중에, 몇백 명이나

되는 장교들 중에서 우연히도 제가 갑자기 사망한 사령부 장교의 보직을 맡을 후임 장교로 선발되었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이후 2년간 교회 부름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저녁 시간과 주말 시간 대부분을 회원들이 초대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저와 제 동반자는 가르칠 사람을 찾아서 집마다 찾아다니지 않고도 월평균 40시간 이상씩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 회원들이 워낙 많은 사람을 소개했기에 하루 저녁에 두 가족을 가르칠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라는, 선지자들께서 반복해서 강조하신 말씀에 권능과 축복이 담겨 있었음을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앨버커키를 떠나기 전 마지막 일요일에 그 지역에는 첫 번째 스테이크가 조직되었습니다. 친구를 데리고 온 성도들과 만나서 복음을 가르치고 영의 증거를 느끼던 그 한 채의 집회소가 있던 도시에, 지금은 거룩한 성전, 즉 주님의 집이 세워져 있습니다. 당시 그 친구들은 주님의 참된 교회에서 따뜻한 환영을 받았습다.

학업으로 뉴잉글랜드에 살 때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저는 훌륭한 지방부 회장님의 보좌로 부름 받았는데, 지방부 회장님은 한때 교회에 관심이 없었다가 아주 큰 영적인 역량을 지닌 지도자로 성장하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에게는 그분을 무척 사랑해서 그분이 담배를 피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눈으로만 바라봐 준 가장 복음 교사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부 회장님과 함께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고 축복하기 위해 차로 산을 넘고 해안가를 지나 매사추세츠와 로드아일랜드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작은 지부들을 방문했습니다.

이 훌륭한 지도자와 봉사한 몇 년 동안, 우리는 사람들이 모범과 선교사 토론 권유를 통해 친구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눈에는 지부들의 성장이 더디게만 보였습니다. 하지만 5년 후,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참석한 일요일 모임에 두 분의 사도들이 오셨으며, 그분들은 케임브리지 롱펠로 파크 예배당에서 우리 지방부를 스테이크로 조직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러,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 스테이크 대회 사회를 맡은 적이 있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저를 벨몬트에 있는 바위언덕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스테이크 회장님은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기에 완벽한 곳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닌



미국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게 아니라 지금 그곳에 성전이 있습니다. 그 성전을 바라볼 때면, 작은 지부들에서 만난 겸손한 회원들과 그들이 초대한 이웃들, 그들을 가르치던 선교사들이 떠오릅니다.

오늘 저녁 이 자리에는 새로 집사가 된 한 소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그 제사, 그 청남이 걸어서 홀로 교회에 참석했던 그 부활절 일요일에, 저는 이 새로운 집사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집사는 오늘 밤 이 신권 모임에 데려가 주겠다는 아버지의 말에 떨 듯이 기뻐했습니다. 이 집사의 아버지는 자신의 아버지가 선교부 회장으로 있던 선교부에서 선교사로서 훌륭하게 봉사했습니다. 저는 그 집사의 증조부가 쓰셨던 1937년판 *선교사 지침서*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교회에 데려오는 그분의 유산은 깊이를 더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자녀들을 모으는 신권 책임을 완수하는 일에 이 집사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 이 청남의 감독님과 함께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감독님은 와드 선교 책임자가 구도자들의 발전을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를 열정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분은 선교사들과 정기적으로 연락하면서 현황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그 감독님과 와드 평의회는 현재의 구도자들 전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거기서 구도자와 그의 가족 모두가 침례를 받기 전부터 성도들과 친구가 되게 할 방법들을 결정하는데, 그것들에는 활동에 참여시키고, 침례받은 사람들을 양육하는 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면서 감독님은 가끔 선교사들이 약속이 많아서 아론 신권 소유자들을 동반자로 데리고 갈 때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와드의 선교 사업 계획에는 정원회 회원들이 자신들이 아는 사람을 선교사들에게 소개하겠다는, 정원회 목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원회 회원들이 아는 사람을 하나님의 왕국에 데리고 오기 위한 목표와 계획을 수립하는 자리에, 집사 정원회 회장단까지도 초대를 받습니다.

이 강한 와드의 집사와, 회원 수가 몇 명뿐인 곳에서 개종하여 새로 제사가 된 그 소년은 서로, 또 여러분과도 공통점이 별로 없다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또한 제가 뉴멕시코와 뉴잉글랜드에서 기적을 본 일에 대해,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여러분이 하는 경험과는 비슷한 점이 별로 없다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권 책임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저마다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계명을 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어떻게 지상에 왕국을 세우시는지 서로 비슷한 경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는 도구와 조직이 모두 훌륭하게 갖춰져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선교 사업에 대한 신권 의무를 달성하는 방법과 관련하여 선지자들로부터 기본적인 진리를 계속 가르침 받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이 1959년 4월 연차 대회에서 처음 가르치신 이후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을 포함한 여러 선지자들께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돈을 들여 교회를 적대시하는 사람들의 악감정에 맞서 싸우는 광고를 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다. 맥케이 회장은 1923년에 영국 선교부에서 마지막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 회원 전체에게 한 가지 지침을 주셨습니다. 맥케이 회장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1923년부터는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는 책임을 교회 모든 회원에게 부여합니다. 모든 회원은 선교사입니다! 어머니를 교회에 모시고 오시거나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직장 동료도 좋습니다.

누군가는 여러분에게서 진리의 선한 말씀을 들으려 할 것입니다.”

맥케이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었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모든 회원, 즉 150만 회원 모두가 —선교사입니다!”<sup>2</sup>

2002년에 선교 사업이 감독의 책임에 속하게 된다는 발표는 제게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저도 감독으로 봉사해 왔고, 이미 감독님들은 회원들을 보살피고 워드 조직을 이끄는 데 한계에 다다를 만큼 무거운 짐을 지고 있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감독님은 그것을 임무가 추가된 것으로 여기지 않고, 오히려 모든 회원이 선교사가 되어야 하는 대업 아래 워드를 하나로 모으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분은 워드 선교 책임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매주 토요일에 선교사들을 직접 만나서 선교 사업을 확인하고 격려했습니다. 워드 평의회는 각 조직과 정원회가 해야 할 봉사의 경험을 선교사 준비 과정으로 활용하게 하는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감독님은 이스라엘의 판사로서 젊은이들이 속죄의 축복을

느껴 자신을 순결하게 지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최근에 저는 그 감독님에게, 워드에서 어떻게 개종자 침례가 급증하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열성적으로 준비하는 젊은이들의 숫자가 늘어나게 되었는지를 물었습니다. 감독님은 그것이 그저 누구 한 사람이 수행한 임무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임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하나가 되어 열성적으로 사람들을 성도들 가운데로 데려왔으며, 그러면서 큰 행복을 느끼게 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 이상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모사이야의 아들들처럼 자신의 삶에 미치는 죄의 결과와 하나님의 교회 내에 존재하는 속죄의 기적적인 치유 능력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구주께서 주신 은사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마음에 품었기에, 모든 사람이 죄의 슬픔을 피하고 용서의 기쁨을 느끼며 안전한 하나님 왕국으로 모이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회원들이 단합하여 사람들을 섬긴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친구, 이웃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포도원 내 다른 곳에서 가르치고 증거하고 봉사할 부름을 받기에 합당하도록 자녀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 새로운 집사가 복음을 전파하고 왕국을 세우는 임무를 수행하는 큰 워드이든, 그 새로운 제사가 봉사하는 먼 나라의 작은 그룹에서든, 우리의 목표는 같습니다. 그 집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감을 받아 아직 회원이 아닌 친구에게 손을 내밀 것입니다. 봉사나 교회의 다른 활동에 친구를 데려와서 친구와 친구의 가족이 선교사들에게서 배우도록 권유할 것입니다. 또한 침례 받은 사람들에게는 친구가 되어 줄 것입니다.

그 제사 역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속죄에서 오는 평안을 느끼는 소규모 성도 무리에 참여하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권유할 것입니다.

그 제사가 계속 신권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면, 그 소년은 작은 그룹이 지부가 되고, 나아가 그 지역에 시온의 스테이크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을 잘 보살피는 감독님이 이끄는 워드가 세워질 것입니다. 그 청년의 아들이나 손자 중 한 명이 언젠가 하나님의 종을 근처 산으로 데리고 가서 “이곳은 성전을 세우기에 안성맞춤입니다.”라고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권 안에서 어떤 임무를 수행하든, 우리는 하나가 되어서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죄에서 깨끗해지고, 하나님의 왕국에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38:40~42.
2. David O. McKay, Conference Report, Apr. 1959, 122.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모두 각자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며,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해** 마다 두 차례씩 이 웅장한 컨퍼런스 센터는 설득력 있는 목소리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듯합니다. “[오라]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교회의 신권 총회에는 특별한 영이 충만합니다.

오늘 밤에도 전 세계에는 선교사로서 주님께 봉사하는 수많은 신권 소유자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현재 65,000명의 선교사가 임지에서 봉사하고 있으며, 선교사 훈련원에 들어오기를 기다리거나 추천서가 처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수천 명의 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또 간절히 봉사하고자 하시는 모든 분에게 사랑과 찬사를 전합니다.

거룩한 경전에 있는 내용 중에 이 계명보다 더 의미 있고 구속력 있고 직접적인 지시는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열한 제자에게 나타나시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sup>2</sup>

영광스러운 약속과 함께 주어진 이 신성한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역을 베푸시던 절정의 시기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좌우명이 됩니다. 선교 사업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구분 짓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언제나 그래 왔으며, 앞으로도 늘 그럴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결국, 앞서 말했듯이 가장 중요하고 큰 임무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입니다.”<sup>3</sup>

2년이란 짧은 시간이 지나면, 현재 하나님의 이 친위대에서 봉사하는 모든 전임 선교사는 수고를 마치고 집과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돌아갈 것입니다. 귀환하는 장로들을 대체할 신병들은 오늘 밤, 교회의 아론 신권에 소속된 소년들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청남 여러분, 부름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꺼이 일하고자 합니까? 봉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선교 사업을 하려면 적어도 생활 방식을 과감하게 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선교 사업에는 많은 시간과 열렬한 헌신, 비이기적인 희생, 간절한 기도가 요구됩니다. 헌신적으로 선교 사업을 하고 나면, 그 결과로 영원한 기쁨이란

상금을 돌려받는데, 이 기쁨은 현세는 물론 영원토록 지속되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좀 더 유익한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할 준비를 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적용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성공을 보장할 공식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둘째,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십시오.**(뒤틀리지 않으면 나이에 상관없이 삶을 계획하십시오.) 셋째,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넷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이 공식의 네 요소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경전은 하나님을 증거하며 영생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은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의 토대입니다.

상호 협력을 통해 구성하고 편성한 교회 교과 과정은 거룩한 경전에 주안점을 둡니다. 우리는 또한 경전을 매일 개인적으로, 또 가족과 함께 공부하도록 권고받습니다.

우리 삶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참조 성구를 하나 제시하겠습니다. 몰몬경 엘마서 17장에는 엘마가 모사이야의 아들들을 다시 만나 그들이 진리의 대업 안에서 굳건한 것을 보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기록은 이렇습니다. “그들은 진리의 지식에 있어 강해져 있었나니, 이는 그들이 온전한 이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자, 부지런히 경전을 상고하였음이라.”

그러나 이것이 모두가 아니니, 그들은 많은 기도와 금식에 힘썼었고 그리하여 예언의 영과 계시의 영을 지니게 되어, 가르칠 때는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로 가르쳤더라.”<sup>4</sup>

형제 여러분,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십시오.

두 번째 공식: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십시오.**

이 시대 청소년처럼 광범위한 결정을 내려야 했던 청소년 세대는 없었습니다. 그들은 학업, 선교 사업, 결혼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부는 군 복무도 해야 합니다.

선교 사업 준비는 일찍 시작됩니다. 현명한 부모라면 영적인 준비와 더불어 어린 아들이 개인 선교사 기금을 모을 방법을 마련해 줄 것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언어적인 재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아들에게 몇 년에 걸쳐 외국어를 공부하라고 격려해 주는 것도 좋습니다. 마침내 감독과 스테이크 회장이 그 젊은이에게 만나자고 할 그 영광스러운 날이 오게 됩니다. 합당성이 확인되면, 선교사 추천서가 작성됩니다.

우체부에게서 발신인 주소가 47 East South Temple, Salt Lake City, Utah인 편지가 배달되기만을, 온 가족이 이토록 애타게 기다리는 때는 없습니다. 편지가 도착하면 숨을 죽이고 부름장을 읽습니다. 지명된 선교 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일 때가 많습니다. 그곳이 어디이든, 준비된 충실한 선교사는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봉사하겠습니다.”

떠날 준비가 시작됩니다.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봉사할 수 있도록 부모님이 기꺼이 감수하는 희생에 감사드리십시오. 부모님의 노고는 여러분을 떠받치고, 그분들의 신앙은 여러분에게 용기를 주며, 그분들의 기도는 여러분을 지탱해 줍니다. 선교 사업은 가족의 일입니다. 비록 대륙과 대양으로 서로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하나입니다.

형제 여러분,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할 때 선교사로 봉사할 기회가 공식적인 부름 수행 기간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군에 있는 형제 여러분, 그 시간도 유익할 수 있으며, 또 그레야만



합니다. 군복을 입은 우리 젊은이들은 신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생활하며, 다른 사람에게 주님의 신성한 말씀을 가르침으로써 해마다 많은 영혼을 하나님의 왕국으로 데려오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정규 교육 과정을 받으면서도 선교사가 될 수 있는 특권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후기 성도로서 보이는 모범은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판단을 받고, 종종 모방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자신의 나이와 처한 환경에 상관없이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도록 당부합니다.

이제 우리의 공식에서 세 번째 사항입니다.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다음과 같이 촉구한 사도 베드로의

권고에 순종하십시오.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sup>5</sup> 목소리를 높여 신회의 참된 본질에 대해 증거하십시오. 물문경에 대한 간증을 전하십시오. 구원의 계획에 담긴 영화롭고 아름다운 진리를 전하십시오.

50년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하던 시절, 토론토의 규모에 놀라워하던, 작은 시골 출신인 한 어린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는 키가 작았지만, 간증 면에서는 거인이었습니다.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캐나다 온타리오 오샤와에서 봉사하게 된 그는 동반자와 함께 엘머 폴라드 씨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눈을 못 뜰 정도로 몰아치는 눈보라를 맞으며



가가호호 방문하는 두 젊은이를 안쓰럽게 여긴 폴라드 씨가 선교사들을 집안으로 맞아들였습니다. 선교사들은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는 영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내 선교사들에게 가서 다시는 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현관을 나서는 장로들에게 폴라드 씨는 조롱하는 말투로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당신들은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실제로 믿는다라는 말을 내게 하지 못할 것이오.”

문은 팽 하고 닫혔습니다. 장로들은 길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시골 소년은 동반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장로님, 우리는 폴라드 씨에게 대답을 안 했어요. 그건 우리가 조셉 스미스가 참된 선지자임을 믿지 않는다고 말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돌아가서 우리의 간증을 전합시다.” 좀 더 경험이 많은 선교사는 처음에 머뭇거렸지만, 마침내 동반자와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방금 쫓겨났던 그 집으로 다가가니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폴라드 씨가 화를 내며 나왔습니다. 어색한 순간이 흐른 후, 주님의 영에서 비롯된 권능으로,

우리의 뜻내기 선교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폴라드 씨, 조셉 스미스가 하나님의 선지자임을 우리가 실제로는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죠. 저는 조셉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물몬경을 번역했고,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얼마 후, 이제 폴라드 형제가 된 폴라드 씨는 한 신권 모임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들은 그 말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압니다.’ 저는 다음 날 선교사들에게 전화를 걸어 다시 와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간증과 함께 전한 그 메시지는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 놓았습니다.” 형제 여러분,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십시오.**

우리의 마지막 공식은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사랑을 대체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공적인 선교사는 동반자와 선교부 지도자, 자신이 가르치는 소중한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교리와 성약 4편에서 주님은 성역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확립하셨습니다. 몇 구절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나서는 자들아, 너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흠 없이 설 수 있도록 삼가 너희 온 마음과 능력과 생각과 힘을 다하여 그를 섬기라. ……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전념하여 구하는 눈과 함께 신앙, 소망, 자애와 사랑이 그로 하여금 그 일을 행할 자격이 있게 하느니라.

신앙, 덕, 지식, 절제, 인내, 형제애, 경건, 자애, 겸손, 근면을 기억하라.”<sup>6</sup>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은 이렇게 자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는 신앙과 덕, 지식과 경건, 그리고 사랑을 키웠는가?”

국내나 외국에서 헌신을 다한다면 여러분이 구원하고자 힘쓰는 영혼은 바로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래 전에 제 소중한 친구인 크레이그 서드베리와 그의 모친인 펄 자매님은 크레이그가 호주 멜버른 선교부로 떠나기에 앞서 제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크레이그의 부친인 프레드 서드베리 씨가 오지 않은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두 분은 25년 전에 결혼했는데, 서드베리 씨는 아내와는 다르게 그녀의 교회를 사랑하지 않았으며, 교회 회원도 아니었습니다.

크레이그는 부모님에 대한 깊은 변치 않는 사랑과 어떻게든 아버지가 성령으로 감화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마음을 열기를 바란다는 소망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하면 그 소망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해 영감을 구했습니다. 영감이 떠올라 크레이그에게 이같이 말했습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세요. 성스러운 부름에 순종하십시오. 매주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가끔 아버지께 개인적인 편지를 보내 형제님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아버지의 아들이 된 것이 왜 감사한지 말씀드리십시오.” 크레이그는 고마워하며 어머니와 함께 사무실을 떠났습니다.

그 후로 거의 18개월 동안 보지 못했던 크레이그의 어머니는 어느 날 제 사무실로 찾아와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크레이그가 선교사로 떠난 지 벌써 2년이 다 되어 갑니다. 아들은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매주 편지를 보냈습니다. 최근에 남편 프레드는 처음으로 간증 모임에서 교회 회원이 되기로 했다고 발표하면서 저는 물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습니다. 남편은 크레이그가 선교 사업을 마칠 무렵에 저와 함께 크레이그를 만나러 호주로 가서, 크레이그가 전임 선교사로서 주는 마지막 침례를 받는 사람이 되겠다는 마음을 내비쳤습니다.”

머나먼 호주에서 자신의 아버지를 허리깊이의 물로 이끌어 오른손을 들어 직각으로 세우고 성스러운 침례 기도를 드린 크레이그 서드베리처럼 자랑스러웠던 선교사는

없었습니다. “프레드 서드베리 형제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위임을 받아, 나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침례를 주노라.”

사랑이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십시오.**

형제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 **경전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목적 있는 삶을 계획하며, 간증으로 진리를 가르치고,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기를** 바랍니다.

완전하신 영혼의 목자, 곧 인류를 구속하신 그 선교사께서는 우리에게 성스러운 확신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이 백성에게 회개를 외쳐 너희 온 생애 동안 수고하여 단 한 영혼이라도 내게로 데려오면,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그와 함께 누리게 될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

그리고 이제, 너희가 나의 아버지의 왕국에 내게로 데려온 한 영혼과 함께 누리는 너희의 기쁨이 클진대, 너희가 많은 영혼을 내게로 데려오면, 너희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느냐!”<sup>7</sup>

이러한 말씀을 주신 그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속주이며,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sup>8</sup>라고 하신 그분의 온화한 초대에 우리가 언제나 응하기를 간구합니다. 기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신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찬송가, 199장.
2. 마태복음 28:19~20.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330쪽.
4. 엘마서 17:2~3.
5. 베드로전서 3:15.
6. 교리와 성약 4:2, 5~6.
7. 교리와 성약 18:15~16.
8. 요한복음 21:22.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쓴다면  
복음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 깨달음으로 가는 문

제 사무실에는 제가 무척 소중히 여기는 그림이 있는데, 깨달음으로 가는 문이란 제목의 그림입니다. 그 그림은 제 친구인 덴마크 화가 요한 벤틴이 그린 것으로, 그는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초대 스테이크 회장을 지냈습니다.

그 그림에는 어두운 방이 하나 있는데, 그 방의 열린 문 사이로 빛이 새어 들어옵니다. 흥미로운 점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바로 문 앞만 비출 뿐, 방 전체를 밝혀 주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림에서 어둠과 빛은 세계 인생을 나타내는 하나의 은유로 다가옵니다. 때때로 어둠 속에 있는 것만 같은 기분이 드는 것은 필멸의 존재로서 살아가는 삶의 한 요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수도 있고, 자녀 중 하나가 길을 벗어나기도 하며, 병원에서 고통스러운 진단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취업이 어려워 의심이나 두려움에 휩싸이기도 하고, 외롭다거나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 속에서 길을 잃어버린 듯 느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빛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앞에 빛을 비추시어 어둠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 어둠으로 가득 찬 방

어둠으로 가득 찬 방에서 자라난 한 여성에 관해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편이상 제인으로 부르겠습니다.

제인은 세 살 때부터 반복적으로 매를 맞고, 하찮게 여겨지고, 학대를 당했습니다. 협박과 조롱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면 다음 날까지 살아 있거나 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땅히 제인을 보호해 주어야 할 사람들이 제인을 괴롭히거나 학대를 용인했습니다.

제인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 감정에 무감각해지는 법을 터득했습니다. 구출될 희망이 없었기에 공포라는 현실에 냉담해졌습니다. 주변에 빛은 한줄기도 없었기에 체념한 채 어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끊임없이 무자비한 악과 접촉하면서 생긴 무감각한 마음으로 제인은 언제든 죽을 수도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열여덟 살이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를 알게 되었습니다. 회복된 복음이 주는 기쁨과 희망이 마음속을 파고들었으며, 제인은 침례를 받으라는 권유를 받아들였습니다. 인생에 처음으로 빛이 깃들었고, 자기 앞에 놓인 밝은 길을 보았습니다. 제인은 자기를 둘러싼 어둠에서 벗어났으며, 학대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학교에 다니기로 했습니다. 마침내 제인은 어둠과 악이라는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고 느꼈으며, 구주의 감미로운 평화와 놀라운 치유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년이 지나 그 학대자가 세상을 떠난 뒤, 제인은 어린 시절에 겪었던 공포 때문에 다시 곤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깊은 슬픔과 분노가 치밀었고, 복음 안에서 찾았던 놀라운 빛이 파괴될 위험에 처했습니다. 제인은 어둠이 자신을 쪼먹도록 허용한다면 그 박해자가 최종 승리를 거두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은 심리 상담과 의학적 치료를 받았으며, 치유를 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어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받아들여,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제인도 이제 알듯이, 빛 역시 존재하며 제인은 그 빛에 머물겠다고 선택했습니다.

과거에 겪은 어두운 일 때문에 제인은 쉽사리 양심과 원한을 품고 난폭해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노여움과 상처 난 마음, 또는 냉소주의에 사로잡히기를 거부함으로써 어둠을 확산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지 않았으며, 대신 제인은 소망이란 끈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빛을 발하는 선택을 했으며, 자신의 삶을 남을 돕는 데 바쳤습니다. 이 결정으로 제인은 어두운 과거를 뒤로한 채 빛나는 미래를 향한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제인은 학교 선생님이 되었으며, 몇십 년이 지난 지금 그녀는 수백 명의





#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총관리 직원

## 제일 회장단



헨리 비 아이어링  
제1보좌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다이어터 에프 우흐토도르프  
제2보좌

## 십이사도 정원회



보이드 케이 팩커



엘 톰 페트리



라센 엠 올슨



맬린 에이치 옥스



리처드 지 스킵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쿠엔틴 웬 쿡



디터드 크리스토퍼슨



로널드 에이 라스밴드



앤드루 디 플레이튼



도널드 엠 훈스드릭



마크 엠 펠리셔



리처드 제이 메이너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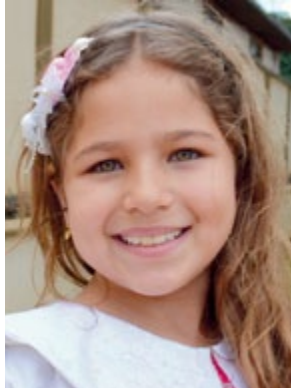


크레이그 시 크리스토퍼슨



월러세스 소이어스





제183차 연차 대회를 위해 모인 전 세계 후기 성도들 사진: 상단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라도르 과야킬; 남아프리카 프레토리아; 칠레 산티아고; 덴마크 코펜하겐; 미국 뉴욕 뉴욕시티; 브라질 브라질리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어린이에게 그들이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워 주고, 사랑으로 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약하고, 괴로움을 당하며, 용기를 잃은 사람들에게 지지치 않는 옹호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주위 사람 모두를 일으켜 세우고, 강화하며, 감동시킵니다.

제인은 어둠에서 멀리 벗어나고 더 밝은 희망의 빛을 향해 나아갈 때, 치유가 뒤따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인이 자신의 삶을 바꾸었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람의 삶을 영원토록 축복하게 된 것은 신앙과 소망, 사랑을 실질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 빛은 빛과 결합하며

어둠의 영향력이 점점 자신에게 파고든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걱정, 근심, 또는 의심으로 짓눌려 있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놀라우면서도 확실한 진리 한 가지를 여러분 모두에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실재합니다. 그 빛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에 생명을 줍니다.<sup>1</sup> 그 빛에는 가장 깊은 상처의 고통을 완화하는 힘이 있습니다. 영혼의 고독과 아픔을 치유하는 몰약이 될 수 있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빠져 있을 때에도 밝은 희망의 씨앗을 심어 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가장 깊은 슬픔의 골짜기까지도 비취 줄 수 있습니다. 그 빛은 우리 앞에 있는 길을 비취 주어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 약속된 새로운 새벽으로 인도합니다.

이 빛이 바로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을”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sup>2</sup>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어둠 속에 앉아서 누군가가 스위치를 켜 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에게서는 영적인 빛이 좀처럼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에 눈을 뜨려면 신앙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세속적인



눈으로는 영적인 빛을 분별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어둠에 비치는 빛이되, 어둠이 이를 깨닫지 못하느니라.”<sup>3</sup> 이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입니다].”<sup>4</sup>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란 희망을 찾을 수 있을까요?

### 첫째,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축복과 은사를 경험하기 위해 우리가 꼭 완전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면 기쁘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완전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하늘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우리 영혼을 적시기 시작하는 것은 우리가 빛을 향해 첫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부터입니다.

시작하기 좋은 최적의 장소는 여러분이 지금 있는 바로 그곳입니다.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거나 남보다 무척 뒤처졌다고 느껴지더라도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바로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은 그분의 빛에 대한 소망으로

깨어나고, 활력 있게 되며, 더 고귀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sup>5</sup> 어둠이 한꺼번에 사라지지는 않더라도, 밤이 언제나 새벽에 자리를 내어주듯 빛이 나타날 것입니다.

### 둘째,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십시오.

기도로 영혼을 고양하고, 자신이 느끼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 설명해 드리십시오. 약점을 인정하십시오. 마음속의 소망을 쏟아내고 감사를 표하십시오. 직면한 시련을 하나님께 알려 드리십시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힘과 도움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귀가 열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눈이 열려 그분의 빛을 볼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 셋째, 빛 안에서 걸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이 잘못을 범하리라는 것을 아십니다. 여러 차례 비틀거리리라는 것도 아십니다. 이를 슬퍼하시겠지만, 그렇더라도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희망이 산산조각이 나는 것을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여러분이 일어나서 원래 되기로 계획된,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길을 밝히고 우리가 가는 길에 놓인 걸림돌을 안전하게 통과할 방법을 보여 주시고자 그분의 아들을



이 지상에 보내셨습니다. 제자의 길을 가도록 가르쳐 주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그분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인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동안 그분의 빛 가운데 걷기 위해 마땅히 알아야 하고, 행해야 하며, 되어야 하는 것들을 알려 줍니다.

#### 빛은 어둠을 물리칩니다

네, 우리는 실수를 할 것입니다.

네, 비틀거리기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키우려 힘쓰고 이웃을 사랑하려고 애쓰다면 복음의 빛이 우리를 감싸고 들어 올려 줄 것입니다. 어둠은 빛 앞에서 존재하지 못하므로 분명히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그분도 우리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sup>6</sup> 그리고 날이 갈수록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자라나 “점점 더 밝아져 마침내는 대낮이 [될]”<sup>7</sup> 것입니다.

어둠 속을 걷고 있다고 느끼는 분들께 저는 인류의 구주께서 주신 이 특별한 약속에 의지하라는 권고를 전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sup>8</sup>

#### 아프리카에 비치는 빛

몇 년 전, 저는 아내 해리엇과 함께 이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는, 잊지 못할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성장하고 있고 후기 성도들이 기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 이 세상의 아름다운 곳 중 하나인 서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아프리카에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특히, 저는 가난을 목격하면서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도시에는 실업자가 넘쳤고 가족들은 일용할 양식과 안전을 찾아 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소중한 회원 중 많은 분이 그토록 처절한 가난 속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훌륭한 회원들이 서로 돕기 때문에 그들의 무거운 짐이 가벼워진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마침내 대도시 근처에 있는 집회소 한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곳에서 근심과 어둠으로 험겨워하는 사람들이 아닌, 빛을 발하고 기쁨에 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복음에서 느끼는 그들의 행복은 우리에게까지 번져서 우리 영혼을 고양시켰습니다. 우리에게 보여

준 그 사랑에 우리 마음이 겸손해졌습니다. 꾸밈없는 웃음이 우리에게까지 전염되었습니다.

그때 지상에서 이 사람들보다 더 행복한 이들이 있을까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비록 이 소중한 성도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에 둘러싸여 있기는 하지만,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모임이 시작되고, 저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곧 건물에 전기가 나가 버려서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제 눈에 회중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의 밝고 아름다운 웃음을 보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 이 훌륭한 분들과 함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당에 어둠이 계속되었고, 저는 아내 곁에 앉아 전기가 다시 들어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동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몇 사람이 회복에 관한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자 다른 사람도 따라 부르고, 이어서 더 많은 이들이 따라 불렀습니다. 곧이어 감미롭고 좌중을 압도하는 합창이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이 교회 회원들에게 찬송가 책은 필요치 않았습니다. 부르는 노래마다 가사를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과 성을 다하여 연이어 노래를 불렀고 제 영혼을 감동케 했습니다.

마침내 전기가 다시 들어와 실내를 빛으로 채웠을 때, 아내와 저는 서로 바라보며 둘 다 뺨이 눈물로 젖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 아름답고 훌륭한 성도들은 캄캄한 어둠 속에서도 교회 건물과 우리의 영혼을 빛으로 채워 주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결코 잊지 못할, 참으로 감명 깊은 순간이었습니다.

## 빛으로 나오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때때로 어둠에 맞닿아 있거나 심지어 온통 어둠에 휩싸인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때로는 주위를 감싼 어둠이 가혹하고, 실망스럽고, 두렵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슬픔에 직면하고, 쓰라린 외로움과 가지지 않는 두려움을 겪고 계실 분들을 생각하면 제 마음도 비탄에 잠깁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살아 있는 소망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신성한 깨달음에 이르는 참되고, 순결하며, 강력한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와 함께라면 어둠은 승리할 수 없음을 간증드립니다. 어둠이 그리스도의 빛을 이기고 승리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어둠은 결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주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연구와 기도로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의 교회, 즉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에 오셔서 그분과 그분의 복음에 관해 배우고, 활동적으로 참여하며, 서로 돕고, 기쁘게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면, 세상의 구주께서는 분명히 여러분 안에 깃들게 될 감미롭고 밝은 새벽으로 서서히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빛에 대한 소망을 향해 걸을 때, 여러분은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sup>9</sup>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동정심과 사랑, 선하심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8:11~13 참조.
2. 교리와 성약 84:45~46.
3. 교리와 성약 6:21.
4. 고린도전서 2:14.
5. 엘마서 34:31 참조.
6. 야고보서 4:8; 교리와 성약 88:63 참조.
7. 교리와 성약 50:24.
8. 요한복음 8:12.
9. 요한1서 1:5.



닐 엘 앤더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그것은 기적입니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필멸의 삶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동정녀 어머니, 새로 나타난 별,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눈을 뜬 맹인, 걷게 된 절름발이, 겻세마네와 무덤에 나타났던 천사들, 그리고 가장 위대한 기적이라 할 수 있는, 그분의 영광스러운 부활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열한 명의 사도에게 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때, 갈릴리 근처 산에 있던 그들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sup>1</sup>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sup>2</sup>

“모든 민족”, “온 천하”, “만민”이라고요? 그게 가능했을까요? 비록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안심시켰을지라도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과연 그런 기적이 정말로 일어날 수 있을까 하고 의아해했을 것입니다.<sup>3</sup>

신앙이 의심을 몰아내었고, 베드로는 소리 높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

나사렛 예수[를] ……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에 증인이로다”<sup>4</sup>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영이 크게 임했던 그날, 삼천 명의 영혼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믿는 자들의 신앙을 따라 표적과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지상에 회복된 183년 전, 주님은 소수의 제자들에게 다시 한 번 수 세기 전에 하셨던 말씀을 되풀이하셨습니다. “또 경고의 음성이 ……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sup>5</sup> “대저 진실로 그 소리는 …… 온 세상으로, 그리고 땅 끝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니”<sup>6</sup>

“모든 백성”, “온 세상”, “땅 끝까지”라고 말입니까? 그것이 가능했을까요?

구주께서 후기 성도들을 안심시키셨지만<sup>7</sup> 그들은 이 놀라운 사업의 영향력과 운명을 과연 꿰뚫어 볼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복음을 전파할 때 정말로 그러한 기적이 일어날 것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신앙이 의심을 몰아내었고, 수천 명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영국에서 윌포드 우드럽 장로는 한 공동체 전체가 자신이 도착하기만을 기다린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고, 우드럽 장로는 벤보우 농장에서 보낸 첫 달에 목사 45명과 수백 명의 신도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sup>8</sup>

지금 이 시대도 다르지 않습니다. 데이비드 에이 베드나 장로님과 저는 약 40년 전에 선교 사업을 했습니다.(이 붉은 의자에 앉은 귀환 선교사 중 저희가 가장 연장자는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때는 만 육천 명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제 몬슨 회장님께서 발표하셨듯이, 이제는 어느 때보다도 많은, 6만 5천 명 이상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때 스테이크는 562개였습니다. 지금은 3천 개 이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와드와 지부는 59개 나라에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전 세계에 있는 224개 국가와 영토 중 189곳에 회중이 있습니다. 니파이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는 수적으로 적습니다.<sup>9</sup> 하지만 동시에 여러분과 저는 다음과 같은 다니엘의 예언적인 말씀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손대지 아니한 돌이 …… 온 세계에 가득[해지고] 있습니다.”<sup>10</sup>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놀라운 기적의 시대입니다. 6개월 전에 몬슨 회장님께서 선교 사업에 나가길 원하는 젊은 남성과 여성에 대한 선교사 연령 변경을 발표하셨을 때, 그곳에는 부인할 수 없는 큰 영이 임했습니다. 젊은 남성과 여성들은 신앙으로 의심을 극복했으며, 전진해 나갔습니다. 연차 대회를 마친 후, 그 주 목요일에 저는 선교사 부름장을 제일회장단에 추천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18세인 형제와 19세인 자매들이 자신의 계획을 수정하여 의사에게서 검진을 받고, 감독님 및 스테이크 회장님과 접견을 하여 선교사 지원서를 제출한 것을 보고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단 5일만에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이제는 수천 명이 더 그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이것은 기적입니다.

우리는 자매님들의 역동적인 신앙과 전 세계에서 증가하는 선교사 수, 그리고 봉사할 준비가 된 부부들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며 감사함을 느낍니다. 새로운 선교부 58곳이 발표되었고, 차고 넘치는 프로보 선교사 훈련원을 지원하기 위해 놀랍게도 멕시코시에 새로운 선교사 훈련원이 세워졌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는 구주의 명을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sup>11</sup> “이 위대한 대의는 계속 뻗어나가 ……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축복할 것입니다. 세상의 …… 그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사업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sup>12</sup>

주님의 복음이 전 세계에 퍼짐에 따라 우리는 그분의 기적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영감을 주시어 더 많은 선교사가 봉사하게 됨에 따라 그분은 또한 선교사들을 받아들일 더 선하고 정직한 사람들의 생각을 깨우고 마음을 열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이미 그들을 알거나,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가족 중에도 있고 이웃에도 삽니다. 길에서 여러분을 스쳐 지나가거나 학교에서 여러분 옆자리에 앉거나 온라인에서 여러분과 소통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전개되는 기적 가운데에서 여러분도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투에 명찰을 단 전임

선교사가 아니라면, 지금이 바로 여러분의 마음에 명찰을 하나 새겨 넣을 시간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라.”<sup>13</sup> 그리고 귀환 선교사들은 옛날 명찰을 찾으십시오. 명찰을 달지는 마십시오. 하지만 잘 보이는 곳에 두십시오. 주님에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분의 손에서 도구로 쓰일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기적에 이바지할 것들이 있습니다.

모든 의로운 교회 회원은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생각합니다. 어떤 이들은 자연스럽게 복음을 나누는데, 우리는 그들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sup>14</sup> 복음을 나누는 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들도 있는데, 그들은 마음속으로 느끼는 죄책감을 없애고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복음을 나누려는 소망을 키우면 우리 모두 무릎을 꿇게 되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몬슨 회장님은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나 이 시대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지역 사람들[을]”<sup>15</sup> 위해 기도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우리가 단합하여 진지하게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한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중요한 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복음을 나눌 기회를 찾기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sup>16</sup>고 말했습니다.

혼동<sup>17</sup>과 혼란<sup>18</sup>이 난무하는 이 시대에 종교 모임에 참석하는 사람들의 수가 계속 줄고 있다는 것은 별로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삶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지만, 그들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지





금요일에 결혼하고 토요일에 나이 든 아이들과 침례받은 모잠비크의 이 부부들은 구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선택했다.

못합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에 마음을 열지만, 선지자 아모스가 묘사한 것처럼 “[그들은] ……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합니다.]”<sup>19</sup> 여러분은 그들의 질문에 답해 줄 수 있습니다. 매일 하는 대화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의 신앙을 키워 줄 수 있습니다.<sup>20</sup>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의 빛을 들어 그것으로 세상에 비취게 하라. 보라 나는 너희가 치켜 들 빛이니”<sup>21</sup>

제가 약속하건대, 누구에게 말을 건네야 할지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이름과 얼굴이 떠오를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해야 할지는 필요한 바로 그 순간에 주어질 것입니다.<sup>22</sup> 여러분에게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신앙의 의심을 몰아내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나도록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복음을 나누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선생이시여], 어디 계시오니이까”<sup>23</sup>라고 질문한 안드레의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은 그분이 어디에 사시는지를 대답해 주실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안드레에게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와서 보라”<sup>24</sup> 저는 구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와서 내가 사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보라. 와서 내가 누구인지 보라. 와서 영을 느끼라.” 그날 있었던 일에 대해 모든 것을 알지는 못하지만, 안드레가 그의 형제 시므온을 찾았을 때 이렇게 외쳤다는 것은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났다”<sup>25</sup>

우리는 대화를 나누면서 관심을 보이는 이들에게 구주의 모범을 따라 “와서 보라”고 권유할 수 있습니다. 권유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와서 보라”는 권유를 여러 차례 받은 후에야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압니다. 또, 한때 함께했지만 지금은 좀처럼 볼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하는데, 우리는 다시 한 번 그들에게 돌아와서 보라고 권유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선택과 적절한 시기를 존중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 스스로 택할지이다.”<sup>26</sup>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하여 그 사람과 나누는 우정이나 사랑에서 소원해질 필요는 없습니다. “와서 보라”고 권유할 때 받아들이든 그렇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이 이를 승인하심을 느낄 것이며, 그러한 느낌

덕분에 믿음을 나누려는 여러분의 신앙은 증대될 것입니다.

인터넷과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는 “와서 보라”고 권유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이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우리의 신앙을 나누는 일이 더욱더 우리 삶의 일부가 되게 합시다. LDS.org, Mormon.org, 페이스북, 트위터 등 이러한 모든 것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보스턴 지역의 젊은이들은 복음을 나누기 위해 몇 개의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sup>27</sup> 온라인에서 교회를 알게 되어 선교사 토론을 한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그 젊은이들은 직접 복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도 더 큰 신앙이 생겼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힘든 선교 사업이 아니라, 즐거운 선교사 활동이에요.”<sup>28</sup>

우리는 모두 이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와드의 동료 회원 및 선교사들과 함께 계획하고 기도하며 서로 돕습니다. 언제나 전임 선교사에 대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들을 신뢰하며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소개해 주십시오. 주님은 선교사들을 신뢰하고 그분을 찾는



이들을 가르치고 축복하도록 선교사들을 부르셨습니다.

모잠비크 마푸토 선교부의 파울로 크레틀리 회장님은 이런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모잠비크에서는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평생 같이 사는 것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결혼을 하려면 아프리카 전통에 따라 아주 비싼 지참금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대부분의 남녀가 감당할 수 없는 큰 비용이기 때문입니다.”<sup>29</sup>

회원들과 선교사들은 어떻게 그들을 도울지 숙고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 기도로 받은 응답은 순결의 법, 결혼, 영원한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남녀들이 회개하고 법적으로 결혼하도록 돕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에만 얻게 되는 행복에 대해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모잠비크의 두 도시에서 온 부부들의 사진입니다. 그들은 금요일에 결혼을 하고, 자녀 중 큰 아이들과 함께 토요일에 침례를 받았습니다.<sup>30</sup> 친구들과 가족들은 “와서 보라”는 초대를 받았고 실제로 수백 명이 “와서 보[았습니다.]”

침례 후에 한 자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상의 전통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기 선택했습니다.”<sup>31</sup>

모잠비크에 살지 않는 분들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여러분의 문화권 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이 일은 성스러운 사업입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인도받을 것입니다. 그분은 문을 열어 주시고,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며, 여러분이 난관을 극복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경고의 음성이 …… 나의 제자들의 입으로 모든 백성에게 미치리라. …… 아무도 그들을 막지 못하리니”<sup>32</sup>

“주의 음성[이] 땅 끝까지 미[쳐], 듣고자 하는 자는 모두 듣게”<sup>33</sup> 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그것은 기적입니다. 참으로 기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합니다. 아멘. ■

#### 주

1. 마태복음 28:19.
2. 마가복음 16:15.
3. 마태복음 28:20; 마가복음 16:17~18 참조.
4. 사도행전 2:14, 22~23, 32.
5. 교리와 성약 1:4.
6. 교리와 성약 58:64.
7. 교리와 성약 1:5 참조.
8.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윌포드 우드럽(2004), 89~92쪽 참조.
9. 니파이전서 14:12 참조.
10. 다니엘 2:34~35.
11.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09년 5월호, 5쪽.
12. 토마스 에스 몬슨, “다시 모이게 되어”,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2년 5월호, 4쪽.
13. 고린도후서 3:3.
14. Clayton M. Christensen, *The Power of Everyday Missionaries: The What and How of Sharing the Gospel* (2013) 참조.
15. 토마스 에스 몬슨, “대회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09년 11월호, 6쪽.
16. 베드로전서 3:15.

17. 그들은 오랜 세월 고수해 온 진리들이 새로 정의되거나 무시되는 것을 보게 된다. 교리와 성약 1:16 참조; 또한 교리와 성약 132:8 참조.
18. 교리와 성약 45:26; 88:91 참조.
19. 아모스 8:12.
20.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장로교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침례교, 감리교, 기타 다른 종파에는 진리가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선하고 참된 원리를 모아 그것들을 소중하게 간직해야 합니다.”(*History of the Church*, 5:517) “우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것들을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에게 와서 더 얻으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면 그들은 서로를 이해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인류에게 부여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온 마음으로 소망하는 바입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155쪽)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상의 다른 모든 교회가 지니고 있는 진리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선행에 대해서도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선교 사업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선교 사업의 정수입니다.”(“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 고든 비 힝클리 회장의 통찰력과 권고의 말씀”, *성도의 빛*, 1999년 4월호, 19쪽) “우리는 친절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선을 보여 주십시오. 우리는 돌아다니며 다른 교회를 무너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방법으로 전파하고 가르칩니다. 종교가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보여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보탬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것이 본질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위대한 선교 사업 프로그램의 정수이며 이를 통해 열매를 맺게 됩니다.”(“Messages of Inspiration from President Hinckley,” *Church News*, Nov. 7, 1998; ldschurchnews.com 참조)
21. 제3니파이 18:24.
22. 교리와 성약 84:85; 100:6 참조.
23. 요한복음 1:38.
24. 요한복음 1:39.
25. 요한복음 1:41.
26. 교리와 성약 37:4.
27. 예: youngandmormon.com 참조.
28. 2013년 3월 22일, 잭슨 하이트와의 전화 통화.
29. 파울로 브이 크레틀리 회장이 2013년 3월 6일에 보낸 개인 이메일.
30. 파울로 브이 크레틀리 회장이 제공한 사진. 첫 번째 그룹은 마푸토에서 왔다. 그들은 2012년 11월 30일에 결혼했고, 2012년 12월 1일에 침례를 받았다. 두 번째 그룹은 베이라에서 왔다. 그들은 2013년 3월 1일에 결혼했고, 2013년 3월 2일에 침례를 받았다.
31. 파울로 브이 크레틀리 회장이 2013년 3월 6일에 보낸 개인 이메일.
32. 교리와 성약 1:4~5.
33. 교리와 성약 1:11.



로즈메리 엠 위크  
본부 초등학교 회장

# 우리가 하는 말

우리의 말과 그 말을 전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며  
아이들의 신앙을 강화[할] ..... 수 있습니다.

**최** 근에 한 젊은 아버지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던 자신의 2학년 담임 선생님의 부고를 접했습니다. 고인을 추억하며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그때의 느낌과 경험에는 ‘위안’이란 느낌이 공통으로 스며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건 철자와 문법, 수학이었을지 모르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그분께 어린이로서 지내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수업 시간에 가끔 철자가 틀려도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은 ‘다시 써 보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언가를 잊지르거나 찢거나 더럽혀도 괜찮았습니다. 선생님은 ‘고치면 돼. 치우면 돼.’ 하고 말씀하실 뿐이었습니다. 시도해 보고, 뺏어 보고, 꿈꾸고, 별것 아닌 일에서 어린이들만이 느끼는 재미를 즐겨도 다 괜찮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이 끼칠 수 있는 가장 큰 영향력 중 하나는 바로 아이에게 미치는 영향력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신념과 자존감은 어린 시절의 생활에서부터 형성됩니다. 지금 제 목소리를 듣는 모든 분은 자신의 말을 통해 아이들에게 자신감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키워 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힐라맨서 5장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 이제 나의 아들들아, 하나님의 아들 곧 그리스도이신 우리 구속주의 반석 위에

너희가 너희의 기초를 세워야 함을 기억하고 기억하라.”<sup>1</sup>

이것은 힐라맨이 아들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을 기억하였던지라, ..... 그들이 온 .....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 ..... 나아갔나니”<sup>2</sup>

힐라맨의 아들들은 박해받고 투옥되었지만 그들이 들은 말은 결코 그들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보호되고 불기둥에 둘러싸였습니다. 그때 그들을 가둔 사람들에게 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희는 회개하고, ..... 나의 종들을 더 이상 멸하려 하지 말라 .....

..... 그것은 우레의 소리도 아니요, 크게

떠드는 소란한 음성도 아니요, 도리어 보라, 그것은 마치 속삭임과도 같은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으며, 참으로 영혼에까지 꿰뚫었으며”<sup>3</sup>

우리는 하늘에서 오는 그런 음성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크지도, 꾸짖지도, 모욕적이지도 않은 음성이었습니다. 오히려 희망을 주는 동시에 확실한 방향을 제시하는, 심히 부드럽고 조용한 음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말과 그 말을 전하는 방식은 아이들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며 아이들의 신앙을 강화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는 길에 머물게 해 줄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들을 준비를 하고 이 지상에 옵니다.

아이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한 사건이 어느 직물 매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손님들로 한창 붐비는 와중에 매장에서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어머니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 어머니는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카너”라는 그 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매장을 황급히 돌아다녔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어머니의 목소리는 더 커지고 초조해졌습니다. 곧 매장 안전 요원에게 신고를 하고 매장 내 모든 사람이 아이를 찾아다녔습니다. 아무런 성과 없이 몇





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카너의 어머니는 당연히 더 애가 타서 아이의 이름을 다급히 소리치며 불렀습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한 손님 가운데 한 명은 어쩌면 카너가 자기 이름을 소리쳐 부르는 엄마 목소리에 겁먹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찾던 다른 여성에게 이를 말했고, 그들은 재빨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들은 함께 원단 진열대 사이를 지나다니며 조용히 이렇게 되풀이해서 말했습니다. “카너, 내 목소리가 들리면 ‘저 여기 있어요.’ 하고 말해 보렴.” 그들이 이 말을 되풀이하며 천천히 매장 뒤쪽으로 갔을 때 “저 여기 있어요.” 하는 희미하고도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카너는 원단 진열대 밑 원단 더미 사이에 숨어 있었습니다. 카너가 대답할 수 있도록 용기를 준 것은 바로 심히 부드러운 음성이었습니다.

###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알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아이 마음에 와 닿는 말을 하려면 아이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를 알기 위해 기도한다면, 우리의 말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영향을 미칠 힘이 생길 것입니다. 성신의 인도를 구할 때 우리의 노력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 마음에 넣어 줄 생각을 말하라. ……

이는 너희가 말할 바가 바로 그 시각에, 참으로 바로 그 순간에 너희에게 주어질 것임이니라.”<sup>4</sup>

### 모든 것을 꺼 두고 사랑으로 들으십시오

안타깝게도 많은 아이가 주의를 분산시키는 이 세상의 것들 때문에 자신의 관점을 정립할 수 있는 격려의 말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건강한 자녀, 가족, 지역 사회를 위한 UCLA 센터 원장이자 의사인 닐 해편 박사는 “일부 부모는 자녀에게 최선을 다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상 자녀를 방치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는 18개월된 아기와 그 부모를 하나의 예로 들었습니다.

“아들은 행복해 보였고 활동적이며 함께 참여하기도 했다. 분명 부모와 함께 피자를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좋아했다. …… 저녁 식사 후 엄마는 할 일이 있어 아빠에게 아이를 맡겼다.”

아빠가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읽기 시작하자 아이는 피자 조각을 던지며 아빠의 관심을 끌려 했다. 그러자 아빠는 관심을 돌려 다시 아이와 놀아 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그는 아내가 돌아올 때까지 아이와 함께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보았다.

이 두 사례에서 해편 [박사]는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가 약해질 때 아이의 불만족이 점차 커져 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sup>5</sup>

우리가 아이에게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기도할 때, 어쩌면 그 응답은 더 자주 전자 기기를 꺼 놓으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주의가 분산되면 아이들과 함께 교류하고 대화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는 사라지고 맙니다. 매일 전자 기기를 끄고 서로 다시 교류하는 시간을 보내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모든 기기를 끄십시오. 그러면 처음에는 집안이 조용해지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온전히 관심을 쏟을 때 대화가 시작되며, 서로의 말을 더 잘 경청하게 될 것입니다.

### 아이를 설득하기 위해 아이에게 글을 쓰십시오

우리는 또한 아이들에게 글을 적어 보냄으로써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자손(들)을 …… 설득하여,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부지런히 수고하여 기록함이니”<sup>6</sup>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1960년대 북베트남 상공에서 격퇴되었던 공군, 제이 헤스의 일화를 나누셨습니다. “2년 동안 그의 가족은 그의 생사 여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노이에서 그를 체포한 사람이 마침내 그에게 집으로 편지를 보내도록 허락했으나 메시지는 25개 이내의 영문 단어로 제한했습니다.” 몬슨 회장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상황, 즉 2년 동안 가족을 보지 못했고 그들을 다시 보게 될지 어떨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한다면 여러분과 저는 가족들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가족들이 자신임을 알아볼 수 있는 무언가를 남기기 위해, 또 그들에게 귀중한 조언을 해 주고 싶어서 헤스 형제는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사항은 중요함: 성전

결혼, 선교 사업, 대학교, 전진해 나아가고, 목표를 세우고, 역사를 기록하고, 일 년에 두 번은 가족 사진을 찍을 것.”<sup>7</sup>

25개 단어 이하로만 기록해야 한다면 여러분은 자녀에게 뭐라고 쓰겠습니까?

2학년 담임 선생님이 대한 추억을 기록했다는, 앞서 언급한 그 젊은 아버지는 현재 예쁜 딸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은 신성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 아이가 자라면 어떤 미래를 맞게 될까요? 그 아버지는 딸의 가슴 속 깊이 자리 잡을 어떤 말을 하게 될까요? 어떤 말이 딸을 격려하고 고양시키며 올바른 길에 머무는 데 도움이 될까요? 아버지가 “넌 하나님의 자녀란다.”라는 말을 해 준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딸은 아버지가 종종 “네 전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셨다는 것을 언젠가 기억하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sup>8</sup> 하셨을 때 그 말씀이야말로 그분께서 그분의 아들과 우리 모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는 말과 글에서 드러나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 잠시 멈추어 귀를 기울이면 대부분의 아이들은 크고 기이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힐라맨서 5:12.
2. 힐라맨서 5:14; 강조체 추가.
3. 힐라맨서 5:29~30.
4. 교리와 성약 100:5~6.
5. Lois M. Collins, “Baby’s Development Potentially Harmed by Parents Texting,” *Deseret News*, June 4, 2012, [deseretnews.com/article/print/865556895/Babys-development-potentially-harmed-by-parents-texting.html](http://deseretnews.com/article/print/865556895/Babys-development-potentially-harmed-by-parents-texting.html).
6. 니파이후서 25:23.
7. 토마스 에스 몬슨, “인생 여정에서 기쁨을 찾음”, *리아호나*, 2008년 11월호, 86쪽.
8. 마태복음 3:17.



**엘 휘트니 클레이튼 장로**  
칠십인 회장단

# 결혼: 보고 배우십시오

주님의 약속은 행복하고 거룩한 결혼 관계를 발전시키는 생활 방식을 따르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몇**년 전, 어느 저녁에 저희 부부는 아들네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아 갔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늘 그렇듯 여기저기서 시끄러운 소리가 요란했고, 그렇기에 더욱 재미있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후에 네 살 난 손녀 안나와 저는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만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그 아이는 의자에서 일어나 제 눈을 뻔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제가 자신을 보고 있음을 확인한 손녀는 선생님처럼 “보고 배우세요!” 하고 말하더니, 저를 위해 춤을 추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안나가 말한 “보고 배우세요.”는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지혜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본 다음에, 자신이 보고 느낀 것을 생각함으로써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 정신에 따라, 저는 훌륭하고 충실한 결혼 생활을 보고 배우면서 관찰한 몇 가지 원리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원리는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의 토대가 되며 하늘의 원리에도 맞습니다. 여러분도 보고 배우시길 바랍니다.

첫째, 저는 정말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자신들의 관계를 극히 값진 진주, 즉 무한한 가치를 지닌 보물로 여기는 것을 보아 왔습니다. 두 사람은 모두 부모를 떠나 함께 영원까지 변창해 나갈 결혼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늘에서 정해 준 길을 따라간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다른 어떠한 유형의 관계도 그만큼 큰 기쁨 또는 좋은 것을 가져다주거나 개인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가장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자신의 결혼 생활을 매우 소중하게 여깁니다.

다음은 신앙입니다. 영원한 결혼 생활에서 이룩하는 성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과 그분의 가르침에 대한 순종을 토대로 확립됩니다.<sup>1</sup> 제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결혼 생활을 소중하게 만든 부부들은 신앙을 실천합니다. 매주 성찬식과 다른 모임에 참석하고, 가정의 밤을 하고, 함께 또는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정직하게 십일조를 바칩니다. 순중하며 함께 선한 삶을 추구합니다. 계명을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음식만을 골라 담는 뷔페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혼 생활을 강화하는 모든 미덕의 토대입니다. 신앙을 강화하면 결혼 생활도 강화됩니다. 계명을 지킬 때 신앙이 커지며, 결혼 생활 또한 화합과 기쁨으로 채워집니다. 따라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영원한 결혼 생활을 굳건하게 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 행복하고 영원한



결혼 생활의 토대입니다.

셋째는 회개입니다.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회개의 은사와 큰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회개는 모든 훌륭한 결혼 관계에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정기적으로 자기 평가를 정직하게 하여 회개하고 발전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즉각 따르는 배우자들은 결혼 생활에 치유의 향유를 바른 것과 같은 경험을 합니다. 회개는 화합과 평안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겸손은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겸손은 이기심을 버리는 것이며,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거나 도덕적으로 자신이 더 낫다는 자세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겸손은 유순하게 답하고, 변명이 아니라 이해하기 위해 친절하게 듣는 것입니다.<sup>2</sup> 겸손한 사람은 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신앙과 노력,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이 있다면 자신의 마음에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sup>3</sup> 마음에 큰 변화를 경험하면 다른 사람, 특히 배우자를 온유하게 대하게 됩니다.<sup>4</sup> 겸손은 남편과 아내가 모두 서로를 축복하고, 돕고, 복돋아서 매사를 결정할 때 상대방을 우선으로 배려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회개와 겸손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합니다.

넷째는 존중입니다. 제가 관찰한 바로는, 훌륭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 남편과 아내는 서로를 동등한 협력자로 대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남편이 아내 위에 군림하거나 아내를 열등한 존재로 대하는 관행이 성행한 시대 혹은 지역도 있었으나, 그런 관행은 하늘의 율법에 어긋나며, 올바른 행동 원리와 행동 방식으로 대체되어야 합니다.

훌륭한 결혼 생활을 하는 남편과 아내는

서로 의사결정 전 과정에 참여하고, 완전히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내고, 결정권을 행사하여 전적인 합의로 결정을 내립니다.<sup>5</sup> 이들은 가정에, 그리고 분담해 맡은 책임을 잘 해내도록 서로 돕는 것에 우선으로 집중합니다.<sup>6</sup> 그러한 사람들의 결혼 생활은 타협이 아니라 협력에 기반을 둡니다. 가족이 함께하는 저녁 식사 시간 및 가족 시간은 하루의 중심이 되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대상입니다. 가족으로서 의무를 다하기 위해 전자기기를 끄고 개인적인 오락을 삼가합니다. 가능하다면 매일 밤 자녀와 함께 책을 읽고 어린 자녀를 침대에 눕히는 일을 함께 합니다. 함께 잠자리에 듭니다. 책임과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남편과 아내는 가장 중요한 일, 곧 우리 가정에서 하는 일을 나란히 함께 합니다.

존중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는 투명함이 있습니다. 이것은 행복한 결혼 생활의 열쇠입니다. 상호 존중과 투명함을 기반으로 한 결혼 생활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재정에 관한 결정을 함께하고, 모든 정보를 공유합니다.

충실함은 존중의 한 형태입니다. 성공적인 결혼 생활을 하는 부부들은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충실”하다고 선지자들께서 가르치십니다.<sup>7</sup> 그러한 부부는 모든 면에서 소셜미디어를 합당하게 사용합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도 비밀이 없으며, 자신의 소셜네트워크 비밀번호를 자유롭게 공유합니다. 배우자의 성스러운 신뢰를 무너뜨릴 수도 있는 방식으로 다른 누군가의 온라인 프로필을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인터넷상로나 실제로나 부적절하게 보이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행하거나 말하지 않습니다. 보고 배우십시오. 훌륭한 결혼 생활은 완전히 서로 존중하고, 충실하며, 모든 것에 투명합니다.

다섯째는 사랑입니다. 제가 관찰한, 참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에서는 가장 행복한

계명, 즉 “사랑 안에서 함께 생활”<sup>8</sup>이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모습이 환하게 빛납니다. 주님은 남편들에게 “너는 네 온 마음을 다하여 네 아내를 사랑하여 그와 결합하고 다른 아무와도 결합하지 말지니라”<sup>9</sup>라고 명하셨습니다. 교회 지침서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결합이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에게 전적으로 헌신하고 충실하다는 의미이다. 결혼한 부부는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서로와 하나님에게 온전히 충실하면서 성약을 지켜 하나님과 서로에게 결합하게 된다. …… [남편과 아내 모두는] 독신 시절의 생활을 뒤로 하고 결혼 생활을 삶에서 최우선 순위로 삼는다. 부부는 하나님과 배우자를 상대로 맺은 성약 지키는 일을 ……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하며, 다른 사람이나 관심사가 더 높은 우선순위가 되게 해서는 안 된다.”<sup>10</sup> 보고 배우십시오, 성공적인 부부는 완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결혼 생활이 원하는 만큼 행복하지 않은 분도 계실 것이고, 결혼하지 못했거나 이혼한 분, 한 부모인 분, 또는 여러 이유로 결혼할 상황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온갖 어려운 문제와 비통한 마음이 가득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상황에 있음에도 “[여러분의] 능력 안에 놓여 있는 모든 일을 기쁘게 행하[며]”<sup>11</sup> 끈기 있게 건디는 분들에게 하늘 축복이 풍성하게 임하기를 빕니다. 합당한 배우자가 되고자 노력하고 준비하는 것을 비롯하여 영원한 결혼을 이루겠다는 이상을 추구하십시오.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신뢰하며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십시오. 결혼에 관해 약속된 모든 축복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것이 됩니다.<sup>12</sup>

물론경에서 가장 감미로운 성구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저들은 시집가고, 장가들며, 주께서 저들에게 맺으신 수많은 약속대로 복을 받았더라.”<sup>13</sup> 주님의 약속은



행복하고 거룩한 결혼 관계를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충실하게 생활할 때 응당 따르게 되는 매우 기쁜 축복입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인 저의 멋진 아내 캐시에게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며, 고결한 결혼 생활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계획을 통해 결혼 생활이 영원하고 훌륭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 잠언 15:1 참조.
3. 앨버서 5:11~12, 26~31 참조.
4. 모로나이서 7:43~48; 8:25~26.
5. 교리와 성약 107:27~31 참조.
6.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7. 토마스 에스 몬슨, “신권 권능”,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1년 5월호, 66쪽; 고든 비 힝클리, “인생의 책임”, *Ensign*, Feb. 1999, 4; *리아호나*, 1999년 5월호, 3쪽.
8. 교리와 성약 42:45.
9. 교리와 성약 42:22.
10. *교회 지침서 제2권: 교회 관리*(2010), 1.3.1.
11. 교리와 성약 123:17.
12. 지침서 제2권, 1.3.3 참조.
13. 제4니파이 1:11.



엘 톰 페리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선택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로 받았지만, 자유와 영원한 행복은 결국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지**난 성탄절에 여러 추억이 어린 특별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조카딸이 주었습니다. 결혼하여 신혼집으로 이사 나오면서 가족과 함께 살던 옛집에 남겨둔 물건 중 하나였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작은 갈색 책이 바로 그 선물입니다. 이 책은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입대 한 후기 성도 군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책을 허버 제이 그랜트 회장님과 그분의 보좌였던 제이 르우벤 클라크 이세 및 데이비드 오 맥케이 회장님에게 받은 선물로 여겼습니다.

이 책 앞 면에 이들 하나님의 선지자 세 분은 이렇게 쓰셨습니다. “군 복무의 특성상 발생할 여러 전쟁 상황 때문에 우리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러분과 개인적인 접촉을 계속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차선책으로 현대의 계시 중 일부와 복음 원리에 관한 설명이 담긴 이 책을 여러분의 손에 쥐어주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이 책을 통해 신앙과 소망을 새롭게 하고 영의 위안과 위로 및 평안을 얻게 될 것입니다.”<sup>1</sup>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전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전쟁은 무기를 들고 싸우는 전쟁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생각과 말,

그리고 행위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은 죄와 싸우는 전쟁입니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도 계명에 대해 상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속주의가 점점 사회적 규범이 되어가고 있으며, 수많은 세속주의적 신조와 관행이 주님께서 자녀들의 유익을 위해 친히 제정하신 것들과 직접적으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 작은 갈색 책에는 제일회장단의 서한 바로 뒤에 현역 군인에게 전하는,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라는 제목의 머리말이 있습니다. 이 머리말은 “복무 중인 모든 군인의 복리를 위한” 군법과 하늘의 율법 사이에 유사점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머리말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우주에도 율법, 곧 보편적이고 영원한 율법이 있으며, 그에 따른 축복과 만고불변의 형벌이 있습니다.”

이 머리말의 마지막 글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개를 들고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돌아오길 바라다면 …… 진정한 남자가 되어 풍성한 삶을 살기를 바라다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십시오.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이 수호하고자 피흘리기를 마다하지 않는

고귀한 자유에, 다른 자유들이 의존하는 또 다른 자유인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입니다.”<sup>2</sup>

당시에 제게 “율법에의 순종이 자유”라는 이 문구가 그토록 마음에 와 닿았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지금 우리 모두의 마음에 와 닿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이는 아마도 전세의 역사에 관한 계시된 지식이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 아버지께 두 가지 계획이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는 사탄의 것이며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직접 선택하신 아들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계획을 채택하셨습니다. 사탄의 계획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은 한 영혼도 잃지 않을 것이라면서, 그 제안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계획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인 인간의 선택의지를 파괴해야 하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손실이 전제가 되었습니다.(모세서 4:1~3 참조) 해롤드 비 리 회장님은 이 은사에 관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생명 그 자체 다음으로, 선택의지는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입니다.]”<sup>3</sup> 따라서 사탄이 인간의 선택의지를 묵살할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선택의지는 천국 전쟁을 일으킨 쟁점이 되었으며, 천국 전쟁에서의 승리는 곧 인간의 선택의지를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사탄이 거기서 물러선 것은 아닙니다. 그의 후속 계획, 즉 아담과 이브의 시대부터 실행해온 계획은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를 꺾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지라는 은사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사탄이 그런 일을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이지만 가장 큰 이유는 복수심에서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또한 사람들이 자기처럼 비참해지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성공하기 위해 매우 날뛰고 있다는 점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에서 사탄의 역할은 “모든 것에 반대되는 것”(니파이후서 2:11)을 만들어내고 우리의 선택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리는 선택은 우리의 선택의지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에 대해 순종을 선택하든 불순종을 선택하든, 이는 실제로 “자유와 영생”, “속박과 죽음” 간의 선택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교리는 니파이후서 두 번째 장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한즉 육체로 말할진대 사람은 자유로우며, 사람에게 마땅한 것은 모두 그들에게 주어졌느니라. 또 그들은 자유로이 만인의 크신 증보자를 통하여 자유와 영생을 택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악마의 사로잡음과 능력에 따라 사로잡힘과 죽음을 택할 수도 있나니, 이는 그가 만인을 자기처럼 비참하게 되게 하려 함이라.”(니파이후서 2:27)

여러 측면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언제나 전쟁 속에 있어 왔습니다. 제일회장단이 세계 작은 갈색 책을 보냈을 때, 저는 그분들이 제2차 세계 대전보다도 훨씬 더

큰 전쟁을 더 염려하셨던 거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분들은 이 책이 더 큰 전쟁, 곧 죄와의 전쟁에서 사탄과 그의 군대로부터 보호하는 신앙의 방패가 되고, 또 제가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살도록 상기시켜주는 역할을 하기를 바라셨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평가하고 이전 세대와 비교해 보는 한 가지 방법은 가장 오래된 표준 중 하나로 알려진 십계명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상당수의 문명 국가,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에 뿌리를 둔 나라에서 십계명은 선과 악 사이를 구분 짓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용인된 잣대였습니다.

제가 보기에 십계명 중 네 가지는 지금도 변함없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문화적으로 살인, 도둑질, 거짓말을 경멸하고 비난하며, 부모에 대한 책임이 여전히 자녀에게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사회가 확장되면서 일상적으로 나머지 여섯 가지 계명을 묵살합니다.

- 세속적인 것을 우선시하는 풍조를 징후로 본다면, 우리는 분명 참된 하나님 앞에 “다른 신들”을 두고 있습니다.
- 우리는 유명인사라는 우상, 생활 방식이라는 우상, 부라는 우상, 그리고

때로는 말 그대로 새겨진 형상이나 물체로 우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탄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할 때를 비롯하여 온갖 불경스런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 우리는 안식일을 사실상 예배를 제외한 다른 모든 일, 즉 가장 큰 경기, 가장 중요한 오락, 대규모 쇼핑 등에 써버립니다.
- 우리는 혼외 성관계를 오락이나 기분 전환쯤으로 여깁니다.
- 그리고 탐욕은 너무나 보편적인 생활 방식이 되어버렸습니다.(출애굽기 20:3~17 참조)

모든 경륜의 시대에 선지자들은 더욱 중대한 두 가지 계명, 즉 살인과 간음을 범하는 것에 관해 끊임없이 경고해 왔습니다. 이 중대한 두 계명에는 한 가지 공통분모가 있는데, 생명은 본시 하나님의 권한이며 필멸의 삶의 성전인 육신은 하나님이 정하신 테두리 안에서 창조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그것입니다. 생명을 창조하고 거두는 문제에 관한 하나님의 율법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는 행위는 주체넘고 심각한 죄의 단적인 예입니다.



결혼의 신성함을 폄하하는 이런 태도는 주로 가정에 영향을 미칩니다. 가정의 힘은 놀랄 정도로 약화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 전반에 널리 해를 끼칩니다. 저는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를 압니다. 배우자에 대한 헌신과 신의를 포기하면 그것은 사회를 결속시키는 접착제를 제거하는 것이 됩니다.

계명에 대해 생각할 때 유익한 방법은 지혜롭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찬 권고가 바로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표는 우리의 영원한 행복에 있으므로, 계명은 우리가 그분께 돌아가도록 그분이 주신 길잡이이자 우리가 영원히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가정과 가족은 영원한 행복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할까요? 이 작은 갈색 책 141쪽에는 “참으로 천국은 우리의 가정이 영원 속으로 투영된 것일 뿐이다”<sup>4</sup>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정과 가족에 관한 교리는 최근에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을 통해 매우 명료하고 힘 있게 강조되었습니다. 이 선언문에는 가족의 영원한 속성이 표명되어 있으며 성전 예배와의 관련성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선언문은 가족의 영원한

행복이 근거를 두고 있는 율법, 즉 “출산의 신성한 능력은 남편과 아내로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만 사용되어야 한다”<sup>5</sup>고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도덕적 절대 원칙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들에게 밝히셨습니다. 죄는 언제나 죄일 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극적으로 변하지만 하나님과 그분의 계명, 그리고 약속된 축복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변경할 수 없는 것이고, 또 변하지도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선택의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사로서 받았지만, 자유와 영원한 행복은 결국 그분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오게 됩니다. 엘마가 탈선한 아들 코리엔톤에게 “간악함은 결코 행복이 아니었느니라”(엘마서 41:10)라고 권고한 대로입니다.

충만한 복음이 회복된 이 시대에 주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오는 약속된 축복을 다시금 밝혀 주셨습니다.

교리와 성약 130편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하늘에서 변경될 수 없게 선포된 율법이 있어 모든 축복은 이에 근거를 두나니—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어떠한 축복을 얻을 때에는 그것이 근거를 두고 있는 그 율법을 순종하였으므로 얻게 되는 것이니라.”(교리와 성약 130:20~21)

경전에 나오는 교리 가운데 변치 않는 주님의 계명이나 그 계명이 개인과 가족, 그리고 사회의 행복 및 안녕과 맺는 관련성보다 더 강하게 표현된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덕적 절대 원칙이 있을 뿐입니다. 주님의 계명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축복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사회의 도덕적 표준이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복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스테이크와 와드, 가족, 회원 개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계명만 골라서 지키려 해서 안 되며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불변하시는 분임을 완전히 믿고 그분의 약속을 철저히 신뢰하며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저는 우리가 늘 언덕 위의 빛이 되고, 결코 변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계명을 지키는 본보기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전쟁 시기에 후기 성도 군인들이 이 작은 책에서 도덕적으로 굳건할 수 있는 힘을 얻었듯이, 우리도 이 후기의 전쟁 가운데서 온 땅과 특히, 주님의 축복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등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First Presidency, in *Principles of the Gospel*(1943), i.
2. *Principles of the Gospel*, v, vii, viii.
3.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해롤드 비 리*(2000), 4쪽.
4. Stephen L Richards, in *Principles of the Gospel*, 141.
5.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순종은 축복을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아침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얼마나 기쁘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의 신앙과 기도가 함께하길 간구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은 평안과 행복에 이르는 방법뿐만 아니라 이 필멸의 삶과 그들의 위치, 목적에 대해 알고 이해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 또한 모두 그러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모든 인류는 그러한 지식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지식과 깨달음은 영원한 진리 안에 담겨 있습니다. 교리와 성약 1편 39절에는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보라, 또 바라보라, 무릇 주는 하나님이요, 영은 증거하니, 그 증거는 참되며, 참된 것은 영원무궁토록 존재하느니라.”

한 시인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천지 다 무너지고 또한 멀해도  
진리만이 모든 것 이기고  
영원히 영원히 빛나리!<sup>1</sup>

어떤 이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그런 진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으며 어떻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1833년

5월, 오하이오 커틀랜드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진리는 사물의 현재와 과거와 미래에 대한 지식이니, ……

진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말미암느니라. ……

그리고 어느 사람도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는 충만함을 받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만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sup>2</sup>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만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

복음의 충만함이 회복되어 빛이 주어진 이 시기에 우리는 진리를 찾고자 미지의 바다를 향해하거나 표지판 없는 도로를 달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진로를 구상해 놓으셨고 순종이라는 확실한 지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순종을 배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의 보호자들은 안전을 지켜 주는 지침과 규칙을 세워 줍니다. 그러한 규칙에 온전히 순종한다면 우리의 삶은 더 수월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통해서야 비로소 순종하는 것이 지혜로운 길임을 배우게 됩니다.

어린 시절, 7월 초부터 9월 초까지 매해 여름이면 우리 가족은 유타 프로보 캐년의 비비안 파크에 있는 별장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대니 라슨이란 한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대니의 가족도 비비안 파크에 별장이 있었습니다. 매일 대니와 저는 어릴 적 낙원과 같던 그곳을 돌아다니며 시내와 강에서 낚시도 하고, 돌과 다른 귀중한 것들을 수집하고, 길을 걷고 산을 오르며 그저 매일 매 순간을 즐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대니와 저는 그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과 저녁에 캠프파이어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근처 들판에서 한쪽을 잘 정리해 모두가 모일 만한 자리를 마련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6월의 들판은 마르고 깔끄러운 풀로 뒤덮여 있어서 캠프파이어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넓은 원형 공간을 만들려고 키가 큰 풀들을 뽑기 시작했습니다. 힘을 다해 잡아당기고 뽑았지만, 우리 손에는 뾰뚱한 잡초 몇 줌만 겨우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온종일이 걸릴 것이 분명했고, 이미 힘도 빠지고 열정도 식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덟 살 아이인 제 수준에서 완벽한 해결책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니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잡초에 불을 지르면 돼. 그래서 불로 태워 동그란 원을 만드는 거야!” 대니도 곧바로 동의했으며, 저는 성냥을 구하러 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덟 살이면 성냥을 사용해도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확실히 말씀드리는데, 대니와 저는 어른들이 지켜보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냥을 사용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둘 다 불의 위험성에 대해 거듭 경고를 받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족들이 성냥을 어디에 두는지를 알았고, 우리는 단지 캠프파이어 장소를 마련할 목적으로 성냥이 필요할 뿐이었습니다.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별장으로 달려가서는 보는 사람이 없는 길 확인하고서 성냥 몇 개를 집어서 재빨리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방책이 내 주머니에 들어 있다는 생각에 들뜬 마음으로 대니에게 다시 달려갔습니다. 불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만 태운 뒤에 마술처럼 꺼질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저는 돌에 성냥을 그어 바삭 마른 6월의 풀밭에 불을 붙였고, 풀은 기름을 흠뻑 먹은 듯 불타올랐습니다. 처음에 대니와 저는 잡초가 사라지는 것을 보며 무척 기뻐했지만, 곧 불이 저절로 꺼지지는 않는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 저희는 겁에 질려 당황해 했습니다. 불길은 맹렬한 기세로 풀밭을 태우며 산으로 향했고, 그 길에서 있던 소나무들과 모든 것이 위태롭게 되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달려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윽고 비비안 파크에 있던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분주히 오가며 젖은 마대로 두드리면서 불길을 잡으려 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마지막 불씨가 잡혔습니다. 오래된 소나무들도, 불길이 닿을 뻔했던 집들도 무사했습니다.

대니와 저는 그날 어렵지만 중요한 교훈 몇 가지를 배웠는데, 그중 가장 크게 깨달은 것은 순종의 중요성이었습니다.

우리의 물리적 안전을 보장해 주는 규칙과 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우리가 위협천만한 이 필멸의 삶을

성공적으로 헤쳐 나가 결국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적 안전을 도모하는 지침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수 세기 전, 동물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전통에 열중하는 세대들에게 사무엘은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sup>3</sup>

이 경륜의 시대에 주님은 조셉 스미스에게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진심과 기꺼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시며] 기꺼이 하고자 하며 순종하는 자는 이 마지막 날에 시온의 땅의 좋은 것을 먹으리라”<sup>4</sup>

고대와 현대의 모든 선지자는 순종이 우리의 구원에 필수라는 점을 알았습니다. 니파이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내가 가서 주께서 명하신 일들을 행하겠나이다.”<sup>5</sup> 다른 이들의 신앙과 순종이 흔들릴 때에도 니파이는 결단코 한 번도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그 결과 여러 세대가 축복을 받았습니다.

순종과 관련하여 영혼을 일깨우는 일화로,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사랑하는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고자 모리아 땅으로 데리고 갈 때, 아브라함은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지정된 장소를 발길을 향해 갈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분명 이삭을 결박해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들어 살해하려 했을 텐데, 그때 아브라함의 몸과 마음은 괴로움으로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을 믿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절대적인 신뢰로 아브라함은 주님의 명에 응했습니다. 그때 이런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sup>6</sup>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언이며, 또 아브라함에게는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시련과 시험을 받았으며, 주님은 그의 충실함과 순종에 대한 상으로 이러한 영광스러운 약속을 주셨습니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sup>7</sup>

그렇게 극적이고도 매우 고통스러운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에게도 순종은 요구됩니다.

조셉 에프 스미스 회장님은 1873년 10월에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순종은 하늘의 첫 번째 율법입니다.”<sup>8</sup>

고든 비 힝클리 회장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후기 성도의 행복, 후기 성도의 평화, 후기 성도의 발전, 후기 성도의 번영, 후기 성도의 구원과 승영은 하나님[의] …… 권고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데 달려 있다는 점을 간중드립니다.”<sup>9</sup>

순종은 선지자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어느 시대에서나 선지자들은 항상 순종으로 힘과 지식을 받았습시다. 우리 역시 그러한 힘과 지식의 근원을 향유할 자격이 있음을 깨닫는 것은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만 한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 그러한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 해 동안 저는 특별히 충실하고 순종심 깊은 수많은 분들을 보아 왔으며, 그분들은 제게 축복과 영감이 되었습니다. 그러한 사람 중 두 분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윌터 크라우스는 충실한 회원으로, 제2차 세계 대전 후, 동독에서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당시 자유가 억압된 지역에 살면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크라우스 형제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분은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이 맡은 각각의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다른 한 분은 헝가리 출신인 요한 덴도르퍼 형제님입니다. 그분은 독일에서 개종했는데, 17세였던 1911년에 그곳에서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후 얼마 안 있어 헝가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그분은 고향 데브레첸에서 사실상 포로가 되셨습니다. 헝가리 국민 역시 자유를 박탈당했습니다.

윌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텐도르퍼 형제님을 알지 못했지만, 그분의 가정 복음 교사로 지명받아 정기적으로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가정 복음 교사 동반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 텐도르퍼 형제님을

방문하라는 임무를 받았습니다. 이번 주에 같이 찾아뵙고 복음 메시지를 전할 만한 시간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텐도르퍼 형제님은 헝가리에 사십니다.”

깜짝 놀란 동반자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언제 가실 건데요?”

“내일이요.” 크라우스 형제님이 대답했습니다.

“언제 집으로 돌아올 거죠?” 동반자가 물었습니다.

크라우스 형제님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만약에 돌아온다면 한 일주일 후가 되겠지요.”

그렇게 두 명의 가정 복음 교사는 텐도르퍼 형제님을 방문하기 위해 집을 나섰으며, 기차와 버스를 타고서 독일 북동 지역에서 헝가리 데브레첸까지 갔습니다. 여정은 상당히 멀었습니다. 텐도르퍼 형제님에게는 전쟁 전부터 가정 복음 교사가 없었습니다. 주님의 두 종을 본 텐도르퍼 형제님은 그들의 방문에 대한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덴도르퍼 형제님은 처음에 악수를 거절한 채 침실로 들어가서는 몇 년 동안 모아온 십일조 상자를 작은 보관함에서 꺼내오셨습니다. 형제님은 십일조를 가정 복음 교사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저는 주님께 십일조에 대한 의무를 다했습니다. 이제 저는 주님의 종들과 악수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해 동안 교회를 접하지 못했던 그 충실한 형제님이 십일조를 내기 위해 얼마 안 되는 수입에서 순종적으로, 그리고 꾸준히 10퍼센트를 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크라우스 형제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동을 받았다고 나중에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일조를 언제 낼지, 또는 낼 수는 있을지도 모른 채 돈을 모아왔던 것입니다.

윌터 크라우스 형제님은 9년 전에 94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충실하게, 순종적으로 봉사해 오셨으며, 저를 비롯해 그분을 아는 모든 이에게 영감을 주셨습니다. 임무를 수행하도록 요청을 받을 때면 절대 의문을 품지도, 불평하지도, 핑계를 대지도 않으셨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삶에서 가장 큰 시험은 순종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을 시험하여 주 그들의 하나님이 명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들이 다 행하는지를 보리라.”<sup>10</sup>

구주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이는 내 손에서 축복을 받고자 하는 자는 모두 그 축복을 위하여 정해진 율법과 그 조건을 창세 이전부터 제정된 대로 마땅히 지켜야 함이니라.”<sup>11</sup>

순종과 관련하여 구주보다도 더 위대한 모범은 없습니다. 바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sup>12</sup>

구주께서는 완벽한 삶을 사시고 성스러운 사명을 이행하심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절대 오만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교만으로 부풀지 않으셨습니다. 절대 불충실하지 않으셨습니다. 언제나 겸손하셨습니다. 언제나 진실하셨습니다. 언제나 순종하셨습니다.

속임수의 대가인 악마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에도, 40일 주야를 금식하여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약해져 있을 때에도, 악마가 예수님에게 가장 매력적이며 매혹적인 제안을 했을 때에도, 그분은 자신이 옳다고 아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으심으로써 순종에 대한 신성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sup>13</sup>

겻세마네에서 고통을 당하실 때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며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는]”<sup>14</sup> 상황에서도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순종하는 아들의 모범을 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15</sup>

구주께서 초기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셨듯이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나를 따라라”<sup>16</sup> 우리는 기꺼이 순종합니까?

우리가 구하는 지식과 영원하는 해답들, 복잡하고 급변하는 세상의 도전에 맞서기 위해 오늘날 우리가 바라는 힘은 주님의 명에 기꺼이 순종할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주님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진리와 빛을 받나니, 드디어는 진리로 영화롭게 되며, 모든 것을 알게 되느니라.”<sup>17</sup>

우리가 순종하는 이에게 약속된 풍성한 보상을 축복받을 수 있기를, 겸손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자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말해 보아라 무엇이 진리냐?”, 찬송가, 155장.
2. 교리와 성약 93:24, 26~28.
3. 사무엘상 15:22.
4. 교리와 성약 64:34.
5. 니파이전서 3:7.
6. 창세기 22:12.
7. 창세기 22:18.
8. Joseph F. Smith, “Discourse,” *Deseret News*, Nov. 12, 1873, 644.
9. 고든 비 힝클리,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성도의 빛*, 1792년 11월호, 13쪽.
10. 아브라함서 3:25.
11. 교리와 성약 132:5.
12. 히브리서 5:8~9.
13. 마태복음 4:1~11 참조.
14. 누가복음 22:44.
15. 누가복음 22:42.
16. 요한복음 21:22.
17. 교리와 성약 93:28.



제프리 알 홀랜드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내가 믿나이다”

정직하게 여러분의 의심과 염려를 인정하되 먼저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지닌 작은 신앙에 불을 지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 수께서 하루는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한 무리의 사람들이 제자들과 격하게 논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구주께서 논쟁하는 까닭을 물으시자 병을 앓는 한 아이의 아버지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와서 아들을 축복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들 앞에서 여전히 이를 잡고 거품을 물며 버둥거리는 아이를 보며, 그 아버지는 예수님께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필사적인 목소리로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하더라”<sup>1</sup>

자신도 인정했듯이, 처음에 이 사람은 그다지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긴박하고 단호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마는 처음에는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말했습니다.

“설혹 너희가 믿기를 바라는 것 이상은

할 수 없을지라도, 이 바람이 너희 속에서 역사하게 하기를, 곧 너희가 믿[을] …… 수 있기까지 그리하라.”<sup>2</sup> 다른 희망이라고는 없는 상황에서, 그는 자신의 신앙을 내세웠으며 구주께 이렇게 간청했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 주옵소서”<sup>3</sup>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이 구절에 “우리”라는 복수 대명사가 등장한 데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애원하옵니다. 고난은 끝이 없고, 저희는 지쳤습니다. 제 아들은 물에 빠지기도 하고 불에 던져지기도 합니다. 아들이 계속 위험에 처하기에

저희는 한시도 편히 쉬지 못합니다. 이제 당신이 아니시오면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도와주시겠나이까? 조금의 축복, 작은 희망의 불빛, 또는 일생을 매일 같이 짐을 지고 살아온 이 아이의 어머니가 그 짐을 조금이라도 덜 수만 있다면, 그 무엇이라도 우리는 감사하겠나이다.”

구주께서는 이 아버지가 말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을 “믿는 자에게는”이란 말로 되돌려 주셨습니다.<sup>4</sup>

경전에는 “곧[바로]”라고 나옵니다. 그 아버지는 천천히 여유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의적이거나 냉소적으로가 아니라 “곧[바로]” 부모로서 겪는 고통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 주소서” 그 아버지가 품은 새롭고, 그러나 여전히 부족한 신앙에 응하여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 주셨습니다. 마가가 기록했듯이 말 그대로 죽은 것 같이 된 아이를 일으키셨습니다.<sup>5</sup>

저는 경전에 나오는 이 감동적인 기록을 생각하면서 직접적으로 교회에 있는 어린 사람들, 즉 연소자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 연소자란 나이가 어리거나 교회 회원이 된 회원 경력에서 연소하거나 신앙에서 연소한 분들을 의미합니다. 이렇게든 저렇게든, 우리 모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기사에서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점은,





신앙의 시련을 맞았을 때 그 아버지는 먼저 자신의 힘을 단언한 후에 한계를 인정했다는 점입니다. 그가 처음 했던 “내가 믿나이다”라는 선언은 확정적이었으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더 큰 신앙을 소망하시는 모든 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 사람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이나 의심, 고난의 시기가 오면, 먼저 여러분에게 이미 있는 신앙을 붙드십시오. 그 신앙이 비록 작고 부족하더라도 말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성장해 나가는 과정인 이 필멸의 시간에서, 그 아이가 겪은 고통이나 그 부모에게 닥친 고초, 절망에 버금가는 영적인 시련은 우리 모두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오고 시련이 닥칠 때,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즉시 주어지지 않을 때,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예수님께서서는 이 과정을 설명하셨습니다.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sup>6</sup> 여러분의 신앙이 얼마나 큰가, 또는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진리에 대해 나타내 보이는 고결하고 성실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점은 첫 번째 사항을 약간 변경한 것입니다. 문제가 생기고 의심이 들 때, 신앙을 탐구해 나가는 여정을 자신의 신앙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말하면서 “불신”부터 시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은 마치 칠면조 요리를 할 때 부리를

통해 속을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없는 신앙을 있는 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의심이 있음을 정직하게 선언하는 것이 신앙이 있음을 선언하는 것보다 더 높은 도덕적 용기의 표현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이 경전 속 일화가 주는 분명한 메시지를 기억합니다. 여러분이 느끼는 의문을 인정하되 이를 필요 이상으로 확대하지는 마십시오. 삶에는 이런저런 의문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가족들이 치유받기 원한다면, 신앙이 기적을 이루어 할 때 의심이 그 길을 가로막지 않게 하십시오.

더구나 여러분에게는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신앙이 있습니다. 물론경에서 이야기하듯이 여러분이 받은 “증거가 [크기]”<sup>7</sup>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sup>8</sup>이라고 말씀하셨으며,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할 때 거두게 되는 열매들은 도처에 있는 후기 성도들의 삶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사람들에게 말했듯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은 수백만 교회 회원들의 삶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기적들입니다.<sup>9</sup> 이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일은 신성한 사업이며, 이를 통해 오는 축복은 어디에서든지 나타납니다. 따라서 때때로

시험을 받아 이해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걱정하거나 위축되지 마십시오. 그런 과정은 지금, 또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것보다 아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 필멸의 세상에서 우리는 누구나 신앙으로 걸어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인간의 약함과 부족함을 볼 때 인내하십시오. 자신의 결점뿐만 아니라 자원봉사로 인도되는 이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봉사하는 다른 사람들의 약점과 부족함도 인내해 주십시오. 유일하게 온전하신 그분의 독생자를 제외하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 일해 오셨습니다. 물론 불완전한 인간들을 통해 일하시는 것이 많이 답답하시겠지만, 그분께서는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의 불완전함을 보게 될 때, 그런 한계점이 이 신성한 사업에 있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한 훌륭한 작가가 말했습니다. 신의 충만함이 인간에게 주어질 때, 그 충만함을 조금 흘리는 것은 신의 탓이 아니다. 그것은 그 충만함을 모두 담기에 인간이라는 그릇이 모자란 탓이다.<sup>10</sup> 그 그릇에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인내하고 친절하고 관대해집시다.

마지막 사항입니다. 의심이나 고난이 올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두려워 마십시오. 이 일화의 아버지가 그랬듯이 겸손하고 정직하게 바라다면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경전에는 그런 정직한 소망과 바람을 “마음의 뜻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서 위선이나 거짓을 행함이 없이” 추구하는 “진정한 의도”<sup>11</sup>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끈질기고 간절하게 탄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휘장 양면에서 도움을 줄 이들을 보내실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강화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저는 오늘 연소한 분들에게 말씀드린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지금 그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열네 살 소년에게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홀런드 형제님, 저는 아직 교회가 참됨을 안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소년을 힘껏 안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소년에게 믿는다는 것은 소중한 말이고, 심지어 소중한 행위이며, 믿기만 한다고 해서 절대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제 온 영혼을 다해 말했습니다. 저는 소년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sup>12</sup>고 말씀하셨으며, 그 말로 청년이었던 고든 비헝클리 형제가 선교 사업을 나가게 되었다고 말해 주었습니다.<sup>13</sup> 믿음은 언제나 확신에 이르기 위한 첫걸음이며, 우리 모두가 믿는 신앙을 정의해 주는 신앙개조에는 “우리는 …… 믿는다.”<sup>14</sup>라는 말이 힘차게

반복된다는 점을 말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정직하게 말해 준 것에 대해 그 소년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도 알려 주었습니다.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열네 살 소년이었을 때부터 거의 60년이 지난 지금, 이제 제가 알게 된 몇 가지를 선언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모든 면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관대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이심을 압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게 완전한 자녀이시며, 완전하지 못한 나머지 우리 모두를 죄에서 구하기 위해 아버지와 아들 두 분 모두의 뜻에 따라 사랑으로 목숨을 내어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그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을 알며, 그분이 그렇게 하셨기에 우리 모두 다시 살 것임을 압니다. 조셉 스미스가 자신이

완전히 맞을 인정했는지라도<sup>15</sup> 저는 그가 이 지상에 영원한 복음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의 손에 들린, 선택된 도구였음을 압니다. 또한 그는 그 과정에서, 특별히 몰몬경을 번역함으로써 제가 평생 읽고 듣고 알아 온 그 어떤 선지자들보다 제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신성을, 영원한 진리를, 신권 권능을 가르쳐 주셨음을 압니다. 저는 사도로 성임된 50년째 해를 향해

헌신적으로 또한 열정적으로 걸어가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오늘날 그 선지자의 외투를 이어받으신 분임을 압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그 선지자의 외투가 다시금 그분에게 둘러진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로 지지하신 그 밖의 열네 사람이 몬슨 회장을 그들의 손으로, 마음으로, 그리고 각자 사도로서 지니는 열쇠로 지지하고 있음을 압니다.

저는 베드로가 “더 확실한 예언”<sup>16</sup>이라 칭한 그 확신으로,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세계 한때는 작은 믿음의 씨앗이었던 것이 이제 생명나무로 자라났습니다. 따라서 만일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또는 앞으로 언제든지 시험받게 될 때, 제 신앙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사업이 하나님의 진리임을 압니다. 의심이나 악마가 우리를 이 복음의 길에서 뒤흔들도록 우리가 허락할 때에만 우리는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계속 나아가십시오. 정직하게 여러분의 의심과 염려를 인정하되 먼저 그리고 언제나 여러분이 지닌 작은 신앙에 불을 지피십시오.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마가복음 9:22~24; 또한 14~21절 참조.
2. 앨마서 32:27; 강조 추가.
3. 마가복음 9:22; 강조 추가.
4. 마가복음 9:22, 23; 강조 추가.
5. 마가복음 9:24~27 참조.
6. 마태복음 17:20.
7. 힐라멘서 5:50.
8. 마태복음 7:16.
9. 사도행전 4:16, 20 참조.
10. Adapted from Alfred Edersheim, *The Life and Times of Jesus the Messiah*, 2 vols. (1883), 2:108.
11. 니파이후서 31:13.
12. 마가복음 5:36.
13. Gordon B. Hinckley, Conference Report, Oct. 1969, 114 참조.
14. 신앙개조 1~13조 참조.
15.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조셉 스미스(2007)*, 522쪽 참조.
16. 베드로후서 1:19.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따르다 함은 우연히, 또는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며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오** 늘 아침에 태버내클 합창단이 부른, 우리가 애창하는 한 찬송가의 노랫말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날 따르라 주 말씀하니  
주 발자취 따라 가세  
하나님 사랑하시는  
독생자와 하나 되리.<sup>1</sup>

이 가사는 스코틀랜드인 개종자, 존 니콜슨 형제님이 구주께서 성역 초기에 제자들에게 하셨던 권유(마태복음 4:19 참조)에서 영감을 받아 지은 것입니다. 초기 시절의 여러 지도자처럼, 니콜슨 형제님도 정식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구주와 구원의 계획에 대한 사랑만큼은 대단한 분이셨습니다.<sup>2</sup>

이 대회에서 전해지는 모든 메시지는 구주의 발자취를 따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범과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이 가야 할 길을 명확하게 알려 줍니다.

다른 모든 기독교인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신약전서의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기록된 구주의 생애를 공부합니다. 저는 성경의 이 네 복음서에 있는 모범과 가르침을 살펴보면, 우리

각자와 다른 모든 기독교인에게, 이 회복된 교회에 대해,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서의 자격을 갖추 수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고 권유하고 싶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왕국에 들어가려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요한복음 3:5 참조) 그분은 침례를 받고 나서야 성역을 시작하셨으며(마가복음 1:9 참조) 그분과 제자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요한복음 3:22~26 참조)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합니다.

예수께서는 말씀을 듣는 이들에게 회개하도록 권유하시며 복음 전파를 시작했습니다.(마태복음 4:17 참조) 그분의 종들은 여전히 같은 메시지를 세상에 전합니다.

예수께서는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계명을 주셨으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요한복음 14:15, 또한 21, 23절 참조)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따르는 이들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분 표현대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누가복음 16:15) 것과, “사람의 전통을”(마가복음 7:8, 또한 13절 참조) 버려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요한복음 15:19)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선언했듯이 예수를 따르는 이들은 “그의 소유가 된 백성”(베드로전서 2:9)이 되어야 합니다.

후기 성도는 자신들이 “세상에 속하[거나]” “사람의 전통”에 얽매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알고 이해하지만, 그리스도를 따르는 다른 사람들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인간의 전통에서 완전히 초연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께서 가르치면서 말씀하신 사람들처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기]에”(요한복음 12:43) 세상의 방법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하는 예는 너무나 많고, 또 민감한 문제라서 여기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





그 범위에는 정치적 당위성이나 극단적인 의상과 용모와 같은 세속적 관행에서부터 가족의 영원한 본질 및 기능과 같은 기본적인 가치를 변경하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 가르침은 항상 행동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마태복음 7:24, 또한 누가복음 11:28 참조)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마태복음 24:46)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애창하는 다른 찬송가(한글 찬송가에는 나오지 않음-옮긴이)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님, 당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나이다  
당신께서 보이신 길 따르리 ……  
주님, 당신 사랑하는 법을 배우기 원하나이다  
주님, 당신을 따르겠나이다.<sup>3</sup>

예수께서 가르치셨듯이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가르치셨듯이 그들은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 함은 우연히, 또는 어쩌다 하는 행동이 아니라 한결같은 마음가짐이며 언제 어디서나 적용되는 생활 방식입니다. 구주께서는 성찬(다른 종파에서는 영성체라고 하기도 함) 의식을 제정하실 때 이 원리와 아울러 이를 기억하고 따르겠다는 각오를 어떻게 하면 강하게 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에게 그분을 기념하여 상징물을 취하라고 명하셨다는 것을 현대의 계시를 통해 압니다.(경전 안내서, 조셉 스미스 역 성경의 발췌문, 마태복음 26:22, 24~25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 회원들은 매주 예배에 참석하여 빵과 물을 취함으로써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겠다고 성약하며 그 명을 따릅니다.

예수께서는 “항상 기도”(누가복음 18:1)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으며, 십이사도를 부르시기 전에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셨듯이]”(누가복음 6:12) 모범으로 이를 보이셨습니다. 다른 기독교인들처럼 우리도 예배할 때 기도하고, 인도를 구하기 위해 기도합니다. 개인 기도를 자주 하고, 매일 가족이 모여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성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렇게 합니다.

구주께서는 그분의 교회 일을 도울 십이사도를 부르셔서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에 교회 일을 행할 열쇠와 권세를 주셨습니다.(마태복음 16:18~19; 마가복음 3:14~15, 6:7; 누가복음 6:13 참조)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된 교회로서 그 조직 면에서, 또한 사도에게 열쇠와 권세가 부여되었다는 점에서 그 본을 따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께서 그분을 따르라고 부르시자 즉시 응하는 대신에 가족에 대한 책무를 다하고자 시간을 끌려고 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누가복음 9:62)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후기 성도가 예수님이 가르치신 우선 사항을 실천합니다. 여기에는 자녀와 손자 손녀들의 곁을 떠나, 부름 받은 선교사 의무를 수행하며 훌륭한 모범을 보이는 수천 명의 장년 선교사를 포함하여 많은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으며,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한 몸이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가복음 10:6~8 참조) 이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결의는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유명한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양이 길을 잃어버리면 그 양을 찾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18:11~14; 누가복음 15:3~7 참조) 우리가 알고 있듯이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우리 이웃을 구조하는 것과 관련하여 길이 기억될 만한 모범을 보이고 가르침을 주시면서 그 지시를 상당히 강조하신 바 있습니다.<sup>4</sup>

우리는 잃어버린 사람을 구조하려고 힘쓰는 동안 사랑에 관해 구주께서 보여 주신 훌륭한 모범과 친절한 가르침을 따릅니다. 주님은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마태복음 22:39)고 가르치셨으며,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누가복음 6:27~28 참조) 또 지상 성역을 끝내실 무렵에 주신 위대한 가르침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요한복음 13:34~35)

서로 사랑하는 행위의 일부로, 예수께서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도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마태복음 18:21~35; 마가복음 11:25~26; 누가복음 6:37 참조) 이 어려운 계명으로 고민하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우리는 모두 엄청나게 심각한 악행을 당했음에도 애정 어린 용서로 감동적인 모범을 보인 후기 성도들을 압니다. 예를 들자면, 크리스 윌리엄스 형제님은 아내와 두 자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음주 운전자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에 의지하여 용서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있는 지 이틀밖에 되지 않아 여전히 비통에 잠겨 있는 가운데서도 당시 감독이었던 이 너그러운 분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제게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었습니다.”<sup>5</sup>

기독교인 대부분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자신이 가진 것을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과 나눕니다.(마태복음 25:31~46, 마가복음 14:7 참조) 구주의 이런 가르침을 따르는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와 그 회원들은 참으로 뛰어납니다. 회원들은 자선단체에 후하게 기부하고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에게 직접 봉사하며 다른 여러 재능을 나눕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 회원들은 매달 두 끼를 금식하고 최소한 이 식사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식 현금으로 바칩니다. 감독과 지부 회장은 이를 사용하여 궁핍한 회원들을 돕습니다. 배고픈

이들을 돕기 위해 금식하는 것은 자애로운 행위이며, 이를 순수한 의도로 행한다면 금식은 영적인 만찬이나 다름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범세계적으로 펼치는 인도주의 활동은 비교적 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관대한 회원들이 낸 기금을 사용하여 고통받는 성인과 어린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식품과 의복, 그리고 다른 생필품을 세계 곳곳에 보냅니다. 지난 10년간 이어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이런 인도주의적 기부는 종교, 인종, 국적에 관계없이 이루어졌습니다.

2011년 일본에 지진과 쓰나미가 발생하자 우리는 대규모 구호 활동을 통해 1,300만 달러에 달하는 현금과 구호물자를 제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교회가 후원하는 31,000명 이상의 자원 봉사자들이 60만 시간 이상을 봉사했습니다. 미국 동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샌디의 피해자들에게 제공된 인도주의 지원에는 여러 가지 대규모 물자를 비롯하여 약 28,000명의 교회 회원이 펼친 거의 300,000시간의 청소 봉사가 포함됩니다. 지난해 다른 많은 사례 중에는 아프리카 차드에서 난민들에게 136톤에 달하는 의류와 신발을 제공한 일도 있습니다. 지난 25년 동안 우리는 179개국에서 약 3,000만 명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sup>6</sup> 참으로 “물론”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들을 돕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마지막 가르침에서 구주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모든 나라와 족속에게 전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는 회복 초기부터 그 가르침을 따르려고 힘썼습니다. 회원이 고작 몇천 명밖에 안 되는 가난한 신생 교회로서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초기 지도자들은 대양을 넘어 동쪽과 서쪽으로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우리는 한 백성으로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쳐 왔습니다. 오늘날에는 독특한 선교사 제도 아래 60,000명이 넘는 전임 선교사를 비롯하여 수천 명의 비상근 선교사가 있으며, 이들은 전 세계 150개 이상의 국가와 영토에서 봉사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위대한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마태복음 5:48) 이 가르침의 목적과 우리 구주를 따르는 목적은 바로 구주께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요한복음 20:17)이라고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회복된 교회에서만 볼 수 있는 현대의 계시를 통해 온전함을 추구하라는 계명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자녀를 위해 만드신 구원의 계획 중 일부라는 것을 압니다. 그 계획에 따라 우리는 모두 하늘 부모님의 상속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로마서 8:16~17) 이 말씀은 신약 전서에서 보듯이 우리는 “영생의 …… 상속자”(디도서 3:7)이고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온다면 아버지께서 지니신 모든 것을 “상속으로”(요한계시록 21:7) 받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필멸의 인간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요한복음 14:6)라고 가르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크리스토펬 골든 이세 장로  
칠십인 정원회

따를 때에만 이런 궁극적인 운명을 영원히 성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그분을 따르고 더욱 그분처럼 되려고 힘씁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날 따르라” 3절과 6절에는 그 점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현세에서만 우리가  
주님을 따라야 하나  
더 거룩한 천국서도  
주님을 따라 가리라.

날 따르란 주님 말씀  
영원토록 순종하면  
보좌 왕국 권능 축복  
힘 영광 다 내 것일세.<sup>7</sup>

우리가 따르려는 가르침과 모범을 보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무거운 짐을 진 우리 모두에게 그분께 나아와서, 그분에게서 배우고, 그분을 따르며, 그리하여 영혼에 안식을 얻으라고 권유하십니다.(마태복음 4:19, 11:28 참조) 저는 그분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과, 그분의 회복된 교회가 지닌 신성한 사명과 권세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날 따르라”, 찬송가, 65장.
2. Karen Lynn Davidson, *Our Latter-day Hymns: The Stories and the Messages*(1988), 142-43, 419 참조.
3. “Lord, I Would Follow Thee”, *Hymns*, no. 220.
4. 예: Heidi S. Swinton, *To the Rescue: The Biography of Thomas S. Monson*(2010), 149-61, 토마스 에스 몬슨, “구조대에게”, *리아호나*, 2001년 7월호, 57~60쪽 참조.
5. Chris Williams, in Jessica Henrie, “Father Relies on Faith to Forgive Intoxicated Teen Driver,” *Deseret News*, Aug. 1, 2012, [deseretnews.com/article/865559847/Let-It-Go-Chris-Williams-shares-his-story-of-tragedy-and-forgiveness.html](http://deseretnews.com/article/865559847/Let-It-Go-Chris-Williams-shares-his-story-of-tragedy-and-forgiveness.html); 또한 Chris Williams, *Let It Go: A True Story of Tragedy and Forgiveness*(2012) 참조.
6. “Emergency Response: Church Assists Worldwide,” *Church News*, Mar. 9, 2013, 9; Welfare Services Emergency Response, “2012 Year in Review,” 8 참조.
7. 찬송가, 65장.

# 아버지와 아들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하는 권능의 근본 바탕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오후 이 감동적인 연차 대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어 기쁩니다. 지극히 이 성스러운 주제로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개신교도였던 저의 프랑스인 조상들과 천주교도였던 아일랜드 조상들을 비롯하여 지난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보여 준 헌신에 감사를 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경배한 까닭으로, 그들 중 많은 사람이 하나님과 신앙을 수호하고자 부와 명예, 심지어 생명까지도

희생해야 했습니다.<sup>1</sup>

후기 성도이자 기독교도인 우리 역시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강하고 깊은 신앙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헌신은 우리 각자와 우리 창조주 사이의 성스럽고 개인적인 일입니다.

영생을 추구한다는 것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이해하고 그분께로 돌아가서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입니다”<sup>2</sup>

구주께서 직접 하신 이 선언을 이해하면,  
여러 세기 동안 많은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의 본질에 대해 보편적으로 알고 있던  
개념이 거룩한 경전의 가르침과는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하는 권능의 근본 바탕임을 삼가  
말씀드립니다.<sup>3</sup>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 원리의 중요성은 1820년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첫번째 시현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광채와 영광을 지닌 두  
분이 내 위, 공중에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 중 한 분이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다른 한 분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그의 말을 들으라!-하셨다.”<sup>4</sup>

소년 조셉이 한 이 경험은 이후에 받은  
많은 시현 및 계시와 더불어 다음과 같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즉,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각기 별개의  
존재이시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문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계속해서 자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하나님은 늘  
우리 가까이 계시며, 우리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려 줍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비슷한 외양에 대한  
경전 기록이 비교적 드물긴 하지만, 첫번째  
시현에서 드러난 그 놀라운 사실은 거룩한  
경전에 기록된 다른 사건들과 딱 들어맞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신약전서에는 스테반이  
순교 당시에 남긴 마지막 간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sup>5</sup>

사도 요한은 밤모 섬에서 강력한 시현을  
통해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sup>6</sup>와 더불어  
“사람들을 피로 사[신]”<sup>7</sup>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몰몬경에 담긴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는 성경과 더불어 장엄한 간증을  
더해 줍니다. 몰몬경에는 구주께서 니파이  
백성을 방문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약 2,500명의 니파이 백성이  
있는 자리에서 음성으로써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라, 이는 내 기뻐하는  
자요, 그로 말미암아 내가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였노라 -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sup>8</sup>

그리스도께서는 사복음서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160회나 직접 언급하셨으며,  
몰몬경 기록에서는 3일간 니파이 백성을  
찾으신 짧은 방문에서도 122회나 하나님  
아버지를 언급하셨습니다.

한 예로,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sup>9</sup>

요한복음에서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sup>10</sup>라고 간증하셨습니다.

또 누가복음에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sup>11</sup>라고  
외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언급하실 때마다 지극히 경건하고 순종하는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제 이야기를 오해하시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위대하신  
여호와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약속된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무한한 속죄로, 그분은 우리의 구주요 세상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분에 대해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그리스도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sup>12</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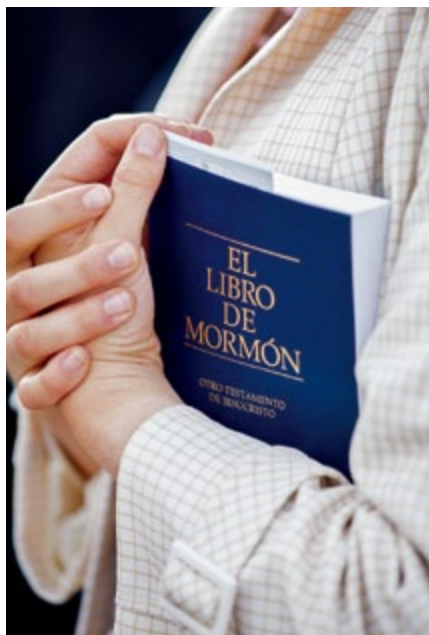
속죄를 이루시기 전날 밤, 구주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그 위대한 중재 기도를  
다음과 같이 드리셨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즉, 그분의  
사도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sup>13</sup>

아버지와 아들은 분명히 별개의  
존재이지만, 권능과 목적에서는 완전히  
하나가 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됨은  
그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헌신적으로 그분들의 계명을  
따르고 순종하는 모든 이가 똑같이 하나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사람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 수 있을까요? 구주께서는 “보혜사 곧 ……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리라]”<sup>14</sup>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물문경에서 니파이는 그리스도의 교리에 관해 말하며 성신이 “아버지와 아들을 증거”<sup>15</sup>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주님의 뜻에 따라 누구나 그 사람의 종교와는 관계없이 성신의 권능이나 영향력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성신을 온전한 분량으로, 또는 은사로 받으려면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sup>16</sup>으로 침례 의식과 안수례에 의한 성신의 은사<sup>17</sup>를 먼저 받아야만 합니다. 이런 의식과 다른 성스러운 의식은 거룩한 신권의 인도와 권능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관해 우리는 이런 가르침을 받습니다.

“이 대신권은 복음을 베풀며, 왕국의 비밀의 열쇠 곧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열쇠를 지니느니라.

그러므로 그것의 의식으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느니라.”<sup>18</sup>

참된 빛에 비추어 볼 때, 아버지와 아들에 관한 교리는 곧 영원한 가족에 관한 교리가 됩니다. 모든 인간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영의 자녀로서 하늘 부모님<sup>19</sup>과 함께 살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 가족에서 아버지의 장자였습니다.<sup>20</sup>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입니다.

에즈라 테프트 벤슨 회장님은 예언적 통찰력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휘장을 지나 저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잘 알았고, 그분의 얼굴이 얼마나 우리에게 익숙해져 있었는가를 알고 크게 놀라게 될 것입니다.”<sup>21</sup>

저는 성신과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만 알 수 있도록 마련된 것들은 인간의 언어로는 제대로 전달할 수 없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는 영원하신 아버지와 그분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재하시며, 우리 가까이 계시고, 선하신 분임을 엄숙히 증거하며, 간증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Kenneth Scott Latourette,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ume 1: Beginnings to 1500*, rev. ed.(1975) 및 *A History of Christianity, Volume 2: Reformation to the Present*, rev. ed.(1975) 참조; 또한 Diarmaid MacCulloch, *The Reformation*(2003) 참조.
2. 요한복음 17:3.
3. *Lectures on Faith*(1985), 38-44 참조.
4. 조셉 스미스-역사 1:17.
5. 사도행전 7:56.
6. 요한계시록 4:8.
7. 요한계시록 5:9.
8. 제3니파이 11:7.
9. 마태복음 7:21; 강조 추가.
10. 요한복음 5:19; 강조 추가.
11. 누가복음 23:46; 강조 추가.
12. 고린도전서 15:24. 구주와 그분의 사명에 대해 더 알아보려면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에 있는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참조한다.
13. 요한복음 17:20-22; 강조 추가.
14. 요한복음 14:26.
15. 니파이후서 31:18.
16. 제3니파이 9:20; 모로나이서 6:2.
17. 요한복음 3:5; 제3니파이 11:31-38 참조.
18. 교리와 성약 84:19-20.
19.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Ensign* 또는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참조.
20. 골로새서 1:15; 교리와 성약 93:21 참조.
21. 에즈라 테프트 벤슨, “예수 그리스도—우리의 은사와 유산,” *Speeches of the Year: 1974*(1975), 313; 또한 “Jesus Christ—Gifts and Expectations,” *Ensign*, Dec. 1988, 6; 성도의 빛, 1977년 4월호, 26쪽 참조.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칠십인

# 가정, 인생의 학교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많은 교훈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가정에서 배웁니다.

어떤 부모들은 가정에서 실수나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은 육아를 가르쳐 주는 학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느 곳보다도 가장 뛰어난 학교가 존재합니다. 그 학교는 바로 우리가 가정이라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기억의 날개를 타고 과거로 여행하면서 아내와 함께 경험했던 소중한 순간들을 회상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러한 기억을 나누는 동안 여러분도 자신의 행복하고 슬픈 경험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그러한 모든 경험에서 배움을 얻습니다.

## 1.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저는 선교 사업에서 귀환한 뒤 허리까지 길게 내려오는 검은 머리를 한 아름다운 젊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눈은 크고 아름다웠으며 보는 사람까지 전염되는 환한 웃음을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첫눈에 그녀에게 반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성전까지 가려면 약 6,400킬로미터를 여행해야 하는 당시 상황에서도 아내는 성전에서 결혼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우리의 일반 결혼식은 행복했지만, 끝이 정해진 결혼이었기에 슬프기도 했습니다. 주례 선생님은 이 같은 말로 성혼을

선언했습니다. “본인은 이제 죽음이 두 사람을 갈라놓을 때까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가 되었음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진 돈을 모두 털어 애리조나 메사 성전으로 가는 편도 비행기표를 끊었습니다.

성전 계단에 무릎을 꿇자, 권세를 부여받은 주님의 종이 제가 그토록 갈망했던, 우리를 현세와 영원토록 남편과 아내로 선언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한 친구를 따라 주일학교에 참석했는데, 친구는 모임 중에 일어나 우리를 반원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모임이 끝나자 한 형제님이 제게 다가와 악수를 청하며 제 손 안에 20달러 지폐를 쥐어 주셨습니다. 곧이어 또 다른 형제님이 오셨는데, 놀랍게도 그분 또한 제 손에 지폐를 쥐어 주셨습니다. 저는 건너편에 있는 아내를 보며 급히 외쳤습니다. “블랑키, 모든 사람과 악수하세요!”

저희는 곧 과테말라로 돌아오기에 충분한 돈을 모았습니다.

“해의 영광 안에는 세 하늘 곧 세 등급이 있느니라.

가장 높은 것을 얻기 위하여서는 사람이 신권의 이 반차[에] …… 들어가야 하느니라.”<sup>1</sup>

## 2. 다툼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아내의 좌우명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다툼을 하려면 두 사람이 필요하다. 나는 결코 그 한 사람이 되지 않겠다.”

주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자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자질로는 설득과 오래 참음, 온화함, 온유함, 거짓 없는 사랑을 들 수 있습니다.<sup>2</sup>

가정 내 신체적인 학대가 적게 일어나는 사회도 있는데, 그것은 기쁜 일입니다. 하지만 정서적 학대까지도 없앨 길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사람들은 그런 형태의 학대가 기억 속에 남고, 성품을 해치고, 마음에 증오심을 심으며, 자긍심을 떨어트리고, 마음을 두려움으로 채우는 것과 같은 피해를 입습니다.

해의 왕국의 결혼 의식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해의 왕국의 삶 또한 살아야 합니다.

## 3. 노래하는 어린이는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이 말 역시 아내가 자주 언급하는 것입니다.

구주께서는 성스러운 음악의 중요성을 아셨습니다. 경전에는 그분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지키신 후에 다음과 같이 했다고 나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가니라”<sup>3</sup>

또 그분은 선지자 조셉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영혼이 마음의 노래를 기뻐함이라, 그러하도다. 의인의 노래는 내게 기도가 되나니, 그들의 머리 위에 축복으로 응답하리라.”<sup>4</sup>

작은 꼬마가 부모에게 “난 하나님의 자녀”<sup>5</sup>를 배워 부르는 것을 들으면 얼마나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 4. 당신의 포옹이 필요합니다

“사랑해요”, “정말 고마워요”, “용서해 주세요”란 말은 영혼을 치유하는 향유와 같습니다. 그러한 말들은 눈물을 행복으로





바깥입니다. 짓눌린 영혼에 위안을 주며, 마음 속에 있는 부드러운 감성을 일깨워 줍니다. 소중한 물을 주지 않으면 식물이 말라 죽듯이 우리의 사랑도 말과 행위로 표현하지 않으면 시들어 없어지고 맙니다.

저는 보통 우편을 통해 연애 편지를 보내던 시절, 사랑하는 사람과 공중 전화로 통화하려고 동전을 모으고, 하얀 종이에 사랑의 시를 쓰고 그리던 시절을 기억합니다.

요즘은 그 모든 것이 마치 박물관의 전시물 이야기처럼만 들립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기술을 통해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과 감사를 담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얼마나 쉽습니까! 청소년들은 문자 메시지를 달고 삽니다. 그런데 가정을 이루고 난 후에도 그와 같은 아름다운 습성이 지속되는지가 궁금합니다. 최근에 아내에게서 받은 문자 메시지 중 하나를 읽어 드리겠습니다. “천국 같은 포옹, 햇살 같은 입맞춤, 달 같이 은은한 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를 받으면 마치 천국에 있는 듯이 느껴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는 사랑을 나타내는 것에서 완전한 모범이 되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아들을 소개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sup>6</sup>

### 5. 저는 물몬경과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아내가 매일 물몬경을 읽는 것을 볼 때면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구주의 사명을 증거하는 성구를 읽는 그 얼굴에 기쁨이 스미는 것을 보기만 해도 아내의 간증이 느껴집니다.

구주의 말씀은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너희가 [경전]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경전]을 연구하거나 이 [경전]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sup>7</sup>

이 구절에 고무되어 저는 최근에 글자를 배운 손녀 라쿠엘에게 말했습니다.

“물몬경을 읽는 목표를 세우면 어떻겠니?”

손녀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 그건 정말 힘든 일이에요. 물몬경은 너무 두꺼워요.”

그래서 저는 손녀에게 한 쪽을 읽어 달라고 한 후 초시계를 꺼내 시간을 췌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한 쪽 읽는 데 3분밖에 안 걸렸단다. 스페인어 물몬경은 642쪽이니, 1,926분이면 다 읽을 수 있겠구나.”

손녀가 이 숫자에 더 움츠러들까 봐 그 숫자를 60분으로 나눠 32시간이면 다 읽을 수 있다고도 말해 주었습니다. 하루 만나절도 안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자 손녀는 말했습니다. “그건 정말 쉽네요, 할아버지.”

마침내 라쿠엘과 그 오빠 에스테반, 그리고 또 다른 손자 손녀들이 이보다는 더 많은 시간을 들여 물몬경을 모두 읽었습니다. 물몬경은 기도와 함께 깊이 생각하며 읽어야 하는 책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우리도 경전에서 기쁨을 찾는 것을 배우며 시편 저자처럼 이렇게 외치게 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sup>8</sup>

### 6. 경전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귀환 선교사로서 부지런히 경전을 탐구하고 있었기에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연애 시절에 블랑키와 저는 경전을 함께 공부했습니다. 저는 여러 가지 기록해 둔 것과 참조 성구를 활용하면서 제 복음 지식을 그녀에게 알려 주려 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야 저는 아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배웠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가르치려 들었는지 몰라도, 아내는 제게 어떻게 복음대로 생활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구주께서는 산상수훈을 마치시면서 이런 현명한 권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sup>9</sup>

경전에 나오는 해의 왕국의 원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고통받는 사람을 위로합니다. 우울한 사람에게 기쁨을,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괴로움을 겪는 사람에게 화평을, 진리를 찾는 사람에게 분명한 길잡이를 전해 줍니다.

요약:

1.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성전입니다.
2. 다툼을 하려면 두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결코 그 둘 중 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다.
3. 노래하는 어린이는 행복한 어린이입니다.
4. 당신의 포용이 필요합니다.
5. 저는 물몬경과 저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6. 경전을 아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경전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비롯한 많은 교훈을 우리는 이 지상에서 천국과 같은 곳이 될 수 있는 가정에서 배웁니다.<sup>10</sup> 우리가 이생의 분명한 방향과 영생의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교리와 성약 131:1~2.
2. 교리와 성약 121:41 참조.
3. 마가복음 14:26.
4. 교리와 성약 25:12.
5. “난 하나님의 자녀”, 찬송가, 187장.
6. 마태복음 3:17, 또한 마가복음 1:11, 제3니파이 11:7 참조.
7. 요한복음 5:39.
8. 시편 119:103.
9. 마태복음 7:24.
10. 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데이비드 오 맥케이(2003), 43, 150쪽 참조.



에릭 더블유 코우피쉬케 장로  
칠십인

# 주님께 받아들여짐

주님께 받아들여지고자 노력하는 중에 주님의 인정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린 시절에 저는 종종 아버지를 따라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러 다녔습니다. 집에서 몇 킬로미터 정도 떨어진 곳에 작은 채소밭이 있었는데, 밭에는 철마다 해 주어야 하는 일이 참 많았습니다. 정자를 손질하고, 옹타리를 세우거나 손봐야 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일하러 가는 날이면 꼭 엄청나게 춥거나 눈비가 세차게 퍼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그 일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아버지는 제게 인쇄하고 받아들이며 일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제게 나사못을 조여 보라고 하시며 “조심해, 너무 팍 조이면 망가져 버리니까.” 하고 주의를 주셨습니다. 저는 잘할 수 있다는 걸 자신 있게 보여 드리고 싶어서, 힘껏 나사못을 조였습니다. 당연히 못은 망가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농담 한마디로 웃어넘기셨고 우리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을 “망쳐도” 아버지는 항상 사랑을 보이며 저를 믿어 주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하고, 사랑으로 저를 격려하며 받아들여 주시는 그분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아들여지고 싶은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선한 사람들이 우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 줄 때

우리는 마음에 힘을 얻습니다. 자존감과 자신감이 커집니다. 올바른 곳에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종종 다른 곳에서 그것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의 복리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눈을 돌리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좇아 거짓된 친구들과 가까워지고 의심스러운 일에 연루되기도 합니다. 특정 상표의 옷을 입어 소속감이나 지위를 얻고 인정받기를 추구할지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축망받는 직책이나 중요한 책임을 앞장서서 맡으며 인정받으려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직책이나 지위로 나타내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생각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곳에서, 또는 올바르게 않은 근거로 인정받으려 하다 보면 위험한 길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길은 우리를 멀리 다른 곳으로, 심지어는 파멸로 이끕니다. 우리는 소중히 여겨지는 느낌과 자신감 대신, 버림받았다는 생각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말 것입니다.

엘마는 아들 힐라맨에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언제까지나 받아들여 주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들은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분들은 지위나 직책 때문에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신분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사람이 되고자 하는가를 보십니다. 그분들에게 인정받고자 노력하고 또 그것을 얻게 될 때 우리는 늘 고양되고 용기가 생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그 방법을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알려 주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 가운데에 자기의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고 자기의 심령이 통회하는 줄 알며 희생-참으로, 나 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 자신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자-그들 모두는 내게 받아들여지느니라.”<sup>2</sup>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간단한 세 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며 상하여 있고,
2.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는 줄 알며,
3. 주님께서 명하신 희생으로 우리의 성약을 기꺼이 지키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마음이 정직하며 상해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진지한 자기 성찰을 할 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마음은 우리 감정의 중심입니다. 마음을 성찰할 때 우리는 자기 자신을 평가하게 됩니다. 주변 어느 누구도 알아채지 못하지만, 우리는 확실히 압니다. 우리는 자기 마음속 동기와 소망을 압니다. 진지하고 정직하게 자기 성찰을 하면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기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상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상한 마음은 부드럽고 열려 있으며 받아들입니다. 저는 구주께서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sup>3</sup>라고 말씀하신 것을 들을 때 그분이 제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소리가



들립니다. 제가 그분께 문을 열면, 영의 권고를 더 잘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좀 더 잘 받아들일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정직하고 상한 마음이 되도록 진지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깊이 명상한다면 성신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한 위안을 얻고, 변화와 행동을 권면하는 온화한 음성을 들을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옥스포드 사전에서는 통회라는 단어를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거나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sup>4</sup>으로 정의합니다. 심령이 통회하는 상태가 되면 죄와 결점들을 인정합니다. “의에 관한 …… 모든 것”<sup>5</sup>을 기꺼이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며 회개에 이르게 됩니다. 통회하는 심령은 기꺼이 “성령의 이끄심을 따릅니다.”<sup>6</sup>

통회하는 심령은 기꺼이 행하고자 하는 마음과 결심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기꺼이 회개하며, 기꺼이 배우고 변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sup>7</sup>라고 간구하게 됩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희생, “참으로, 나 주가 명하게 될 모든 희생으로”<sup>8</sup> 우리의 성약을 지키고자 하는 의식적인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희생이라는 말을, 행하기에 너무 크고 어려운 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때는 맞는 말이지만 대부분 희생이란, 참된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희생으로 성약을 지키는 한 가지 방법은 매주 합당하게 성찬을 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찬 의식을 취하기 위해 의식적으로 준비합니다. 또한 주님과 맺은 성스러운 약속을 새롭게 하고 더욱 굳건히 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느끼고, 우리의 노력이 인정받았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우리 죄가 사하여졌다는 확신을 얻습니다. 이 의식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꺼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며 항상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키면, 그분의 영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성신의 지속적인 동반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어졌음을 말해 주는 궁극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단순히 교회 부름을 받아들이고 그 부름에 충실히 봉사하는 것, 그리고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의 권유에 따라 소외된 이들과 영적인 구조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도 희생으로 성약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동네나 지역 사회에서 소리 없이 봉사하거나 조상의 이름을 찾아 성전 사업을 행하는 희생으로 성약을 지킵니다. 우리는 매일 삶을 살아가면서 의를 추구하고 마음을 열고 영의 속삭임을 들으려고 노력하는 희생으로 성약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 성약을 지킨다는 것은 인생의 험난한 폭풍 속에서 그저 굳건하고 충실하게 견뎌 내는 것일 때도 있습니다.

주님께서서는 그분께 받아들여지는 방법을 설명하신 후에 아름다운 비유를 들어 우리 각 개인과 가족이 그분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할 때 어떤 유익을 얻는지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나 주가 그들로 맑은 시냇가, 좋은 땅에 심겨져 많은 귀한 열매를 생산하는 심히 열매가 풍성한 나무같이 결실을 맺게 하려 함이니라.”<sup>9</sup>

개인적으로 주님의 영에 귀 기울이고 그분께 받아들여짐을 느낄 때,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축복이 찾아오며 많은 의로움의 결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sup>10</sup>라는 말을 듣는 무리 중 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 받아들여지기를 추구하고 그런 인정을 받게 되면, 그분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축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한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더 강한 확신이 생깁니다. 비로소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삶과 가정에서 그분의 친절하신 자비가 명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주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하시어 그분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시도록 온 마음을 다해 권합니다. 주님께서 보여 주신 간단한 방법을 따를 때 지위나 신분, 또는 인간적인 약점에 관계없이 자신이 주님께 받아들여졌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들여주셨음을 느끼면 더 열심히

할 마음이 생기고 신앙이 커지며 인생의 모든 일에 잘 대처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성공과 번영<sup>11</sup>, 평화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sup>12</sup> 우리는 주님께 다음과 같은 말씀을 듣는 무리에 속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어린아이들아, 이는 너희가 나의 것임이요, 내가 세상을 이기었으며, 너희는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있음이니라.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은 바 되지 아니하리라.”<sup>13</sup>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엘마서 37:47.
2. 교리와 성약 97:8.
3. 요한계시록 3:20.
4. Oxford Dictionaries Online, “contribute,” oxforddictionaries.com.
5. 엘마서 21:23.
6. 모사이야서 3:19.
7. 누가복음 22:42.
8. 교리와 성약 97:8.
9. 교리와 성약 97:9.
10. 마태복음 25:21.
11. 모사이야서 2:22 참조.
12. 모사이야서 2:41 참조.
13. 교리와 성약 50:41~42.



브루스 디 포터 장로  
철심인

# 아름다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소망과  
기운을 잃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 수님과 제자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있는 한 다락방으로 목요일 저녁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 만찬이 언젠가 최후의 만찬이라 불리게 될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더라면 그들은 울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켈세마네와 골고다의 시련이 곧 시작되리라는 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세계 역사상 가장 어두운 시간이 임박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요한복음 16:33)

오늘날 우리는 주님께서 예녹에게 “사약함과 보복의 날”(모세서 7:60)이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던 격동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환난과 역경의 시기가 닥쳐오겠지만, 그럼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들의 재림을 준비하시어 지상에 그분의 교회와 왕국을 회복하신 마지막 경륜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드 케이 팩커 회장님은 자신의 손자 손녀들과, 그들이 살고 있는 더욱 험난해진 세상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생애 동안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건들 중에는 그들의 용기와 신앙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도움과 인도를 구한다면, 역경을 극복할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팩커 장로님은 또한 이렇게 덧붙이셨습니다. “문명의 존립 자체가 달려 있는 도덕적 가치가 더욱 빠른 속도로 하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습니다.”(“두려워 말라”, *리아호나*, 2004년 5월호, 77, 78쪽)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시기 때문에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소망과 기운을 잃고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주신 예수님의 권고 말씀 중 가장

먼저 기록된 두 마디는 “무서워하지 말라”(누가복음 5:10)입니다. 주님께서 성역을 베푸시는 동안 여러 차례 그 권고를 주셨습니다. 우리 시대의 성도들에게도 구주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며, 두려워 말라. 이는 나 주가 너희와 함께 하며, 너희 곁에 서 있을 것임이니”(교리와 성약 68:6)

주님께서 교회와 백성들 곁에 서 계실 것이며, 이 세상에 오실 때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기 때문에 시온과 스테이크에는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시온의 땅에 그리고 그 스테이크들에 집합하는 것이, 진노가 온 땅에, 섞인 것이 없이 쏟아져 내릴 때 폭풍우를 피하고 진노를 피할 방어진이 되며 피난처가 되게 하라.”(교리와 성약 115:6)

교회는 회원들을 위한 안전의 방벽으로서 있습니다. 비록 세태가 때로 매우 심각한 상태에 빠지기도 할 테지만, 충실한 후기 성도들은 시온의 스테이크에서 평안을 찾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손대지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굴러 나아가 결국에는 온 땅을 가득 채우는 듯할 것이며(다니엘 2:31~45; 교리와 성약 65:2 참조) 어떠한 인간도 그 앞을 가로막을 힘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업을 주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퉁잇돌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선지자 니파이는 시련을 통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어린 양의 권능이 “성약의 백성 위에” 내려움을 보았으며 그들이 “큰 영광 중에 의와 하나님의 권능으로 무장”(니파이전서 14:14)하게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개인으로서, 가족으로서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진실되게 남아 있고 영을 인도자로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요새로 삼아 무장할 수 있습니다. 시련이 올 수도 있고 우리에게, 또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겸손히, 조용히 신뢰할 때 그분은 우리가 어떤 시련을 겪든지 인도와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깊은 내면에 평화가 느껴질 것입니다.

회복 초창기에 교회 회원들은 격심한 시련을 겪었습니다. 브리검 영 회장님은 그 시기에 대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방에서 당장이라도 살인과 파괴의 악행을 저지르겠다고 위협하는 폭도들에 둘러싸였을 때, 저의 영은, 마치 지금 제가 즐거워하고 있듯이, 그저 기쁘기만 했었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전망이 아무리 흐리고 암울하게 보일지라도 복음 안에서 그 결과가 진리의 대의에 유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제가 알지 못한 적은 없었습니다.”(교회 회장들의 가르침: 브리검 영[1997], 357쪽)

선교사 시절 제 동반자였던 폴은 언제나 유쾌한 친구였습니다. 아버지가 된 지 몇 년 안 되었을 때 폴은 다발성 경화증을 앓았습니다. 그런 시련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쁨과 훌륭한 유머감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계속 봉사했습니다. 한 번은 휠체어를 타고 제 사무실에 들어오며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전동 휠체어를 탄 삶이 바야흐로 시작되었다네!” 세상을 떠나기 몇 년 전에 수백 명의 응원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올림픽 성화 봉송을 했던 폴의 모습을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활활 타오르던 그 불꽃처럼 폴의 신앙은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절대 시들지 않았습니다.

저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 다닐 때 여러 청년들과 한집에서 살았습니다. 그때 같이 살았던 브루스는 제가 알아온 사람들 가운데 가장 낙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어떤 상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었으며, 곁에 있으면 항상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의 유쾌함은 구주와 복음에 대한 변치 않는 믿음으로부터 흘러나왔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또 다른 친구인 톰이 대학 교정을 가로질러 걷고 있었습니다. 아침 7시밖에 안 되어 교정은 텅 비고 어두웠습니다.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함박눈이 펄펄 내리고 있었습니다. 톰은 ‘정말 지독한 날씨가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계속 걸어가는데, 어두운 눈보라 속에서 누군가의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휘몰아치는 눈발을 헤치며 늘 낙천적인 친구인 브루스가 나타났습니다. 브루스는 팔을 하늘로 뻗은 채 브로드웨이 뮤지컬 *오클라호마*에 나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오, 아름다운 아침! 오, 아름다운 날! 내 마음 가득 아름다운 느낌, 오늘 하루 모든 일 잘되리.”(Richard Rodgers and Oscar Hammerstein II, “Oh, What a

Beautiful Morning” [1943])

그 후로 그 짙은 눈보라 속에서 들려온 맑은 목소리는 세계 신앙과 희망의 참된 정수를 의미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두워져 가는 세상에서도 우리 후기 성도는 하늘의 힘이 하나님의 교회와 그 백성과 함께한다는 것을 알기에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아침, 복천년의 새벽이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며, 그때가 되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동쪽에서 나타나시고 지상을 다시 다스리실 것임을 알기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아름다웠던 두 아침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1820년 어느 아름답고 화창한 봄날, 뉴욕 팔마이라에서 조셉 스미스라는 소년이 숲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로 간구했습니다. 그 기도에도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께서 나타나셨고, 이 지상에는 때가 찬 경륜의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또한 거의 2,000년 전의 어느 아름다운 아침에 예루살렘 성 밖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그 부활절 아침에 태양은 더욱더 환한 빛을 비쳤을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몇몇 여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주님의 몸에 향유를 붓기 위해 동산 무덤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들을 만난 두 천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누가복음 24:5~6)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셨음을 간증드립니다. 영원하신 아버지의 자비로운 계획과 그분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잠자리에서 일어나 신앙으로 하늘을 보며 “오, 아름다운 아침”이라고 외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 구속

그리스도를 따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를 구하게 됩니다.

**식** 민지 시절, 미국에는 노동력 수요가 많았습니다. 18세기와 19세기 초에 영국과 독일, 다른 유럽 국가에서는 미국으로 이민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으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들 대다수가 여행경비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일단 무임으로 배를 타고 가 도착하면 일정 기간 뱃삯을 갚기 위해 무급으로 일한다는 조건으로 노동 계약을 맺는 일이 흔했습니다. 그밖에 다른 사람들은 이미 미국에 가 있는 가족들이 그들의 도착에 맞추어 뱃삯을 낼 것이라는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혹 가족이 돈을 내 주지 못하면 이 신참 이민자들은 무급으로 일하여 비용을 갚아야 했습니다. 이런 무급 노동을 하는 이민자들은 빛을 갚는 사람이라는 뜻인 “redemptioner[리뎀서너]”로 불렸습니다. 그들은 노동을 해서 뱃삯을 갚고 자유를 사야 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sup>1</sup>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가장 중요한 이름의 하나는 Redeemer[리디머], 즉 구속주입니다. 앞에서 짧게 설명한, 빛 갚아야 하는 이민자들에서도 알 수 있듯이 redeem[리딤], 즉 상환이라는 단어는 채무나 빛을 갚는 것을 뜻합니다. redeem[리딤]은 또한 구속으로 번역될 수 있는데 몸값을 대신 치러서 그 사람을 구하거나 자유롭게 놓아 주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하고 나서 그것을 바로잡거나 그 대가를 치렀다면, 우리는 그가 자신을 구속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각각의 의미는 “희생을 치름으로써 죄인을 죄와 형벌로부터 구함”<sup>2</sup>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사전상의 의미 외에도, 그분이 성취하신 위대한 대속의 다른 측면을 보여 줍니다.

구주의 구속에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담의 범법과 그 결과로 일어난 인간의 타락에 대해 속죄하는데, 이는 타락의 직접적인 결과라고 할 수

있는 육체적 죽음과 영적인 죽음의 극복을 통해서입니다. 육체적 죽음이 무엇인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영적인 죽음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린도전서 15:22)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육체적, 영적 죽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이러한 구속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sup>3</sup>

구주께서 치르신 속죄의 두 번째 측면은 타락의 간접적인 결과라 할 수 있는, 아담의 범법과는 구별되는, 우리 자신의 죄로부터의 구속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우리는 죄, 즉 신성하게 제정된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 만연한, 이 필멸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우리 모두에 대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장성하기 시작할 때에 죄가 그들 마음에 잉태되어 쓴 것을 맛보게 되나니, 그리하여 그들이 선을 소중히 여길 줄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리고 그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도록





허락되나니, 그런즉 그들은 스스로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자라.”(모세서 6:55~56)

우리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죄에서 구속되는 데에는 조건이 따릅니다. 즉, 죄를 고백하고 죄를 버리며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생활하는 것, 달리 말하면 회개라는 조건이 따릅니다.(교리와 성약 58:43 참조) 주님은 이렇게 명하십니다. “그런즉, 모든 사람은 어디에 있든지 반드시 회개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하면 그들은 결단코 하나님의 왕국을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음을 네 자녀에게 가르치라. 이는 부정한 것이 그 곳에 거할 수 없음이니, 곧 그의 면전에 거할 수 없음이니라.”(모세서 6:57)

구주께서 겐세마네에서 겪으신 고난과 십자가 위의 고통은 공의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를 충족시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합니다. 주님은 회개하는 이에게 자비를 보이시고 그를 용서하십니다. 속죄는 또한 우리가 아무 잘못 없이 겪는 고통을 치유하고 보상하여, 공의가 우리에게 진 빚을 갚아 줍니다. “이는 보라, 그가 만인의 고통, 참으로 아담의 가족에 속한 남자와 여자, 그리고 어린아이들 모두, 곧 모든 살아 있는 피조물의 고통을 겪으심이라.”(니파이후서 9:21; 또한 엘마서 7:11~12 참조)<sup>4</sup>

그리스도를 따를수록 우리는 그분의 구속 사업에 참여하고 그것을 발전시키기를

구하게 됩니다. 이생에서 가족을 비롯해 타인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봉사는 그들을 신앙과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에게로 데려가서 주님의 구속, 즉 현세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앞으로 올 세상에서 불멸과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선교사들이 하는 일을 통해 가장 아름답게 나타납니다. 주님의 공인된 사자로서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회개, 침례, 성신의 은사라는, 비할 수 없는 축복을 전하여 영적인 재탄생과 구속의 길을 열어 줍니다.

우리는 또한 주님께서 무덤 저편에 있는 이들을 구속하시는 일을 도울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충실한 장로들은 필멸의 생을 떠날 때, 죽은 자의 영들의 큰 세계에서 어둠 속에 있고 죄의 속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회개와 하나님의 독생자의 희생을 통한 구속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들의 수고를 계속하더라.”(교리와 성약 138:57)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는 대리의식을 통해 죄에 속박된 죽은 자들도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sup>5</sup>

구속의 가장 중요한 측면은 회개와 용서에 관한 것이지만, 아주 중요한 현세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하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사도행전 10:38 참조) 그분은 아프고 쇠약한 사람들을 고치시고, 굶주린 무리를 먹이시고,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태복음 20:28) 그러므로 우리도 성신의 영향 아래 두루 다니며 주님께서 보이신 그 구속의 모형을 본받아 선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구속 사업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을 돕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약한 사람과 친구가 되고, 사람들의 고통을 경감시키고, 잘못을 바로잡고, 진리를 수호하며, 자라나는 세대를 강화하고, 가정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상에서 우리가 하는 구속 사업의 상당 부분은 다른 사람들이 성장하도록, 그리고 의로운 소망과 바람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허구이긴 하지만, 빅토르 위고의 소설레미제라블에 나오는 한 본보기는 늘 저에게 감동과 영감을 줍니다. 소설 서두에서 비앵브뤼 주교는 오갈 곳 없는 장발장에게 음식과 하룻밤 잠자리를 줍니다. 장발장은 누이의 굶주린 자녀들을 먹이려고 빵 한 덩이를 훔친 죄로 19년을 감옥에서 지내다 출소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굳어져 적의에 찬 장발장은 비앵브뤼 주교의 은 식기를 훔치는 것으로 그의 친절에 보답합니다. 나중에 그를 의심하는 경관들에게 잡히자 장발장은 은 식기를 선물로 받았다고 주장합니다. 경관들이 그를 주교관으로 끌고 가자 비앵브뤼 주교는 그의 말이 맞다고 확인해 주고,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촛대도 주지 않았소. 이것들도 은으로 만든 것이고 200프랑은 받을 것이요. 왜 접시만 가져가고 이것들은 가져가지 않았소?”

“주교는 그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요. 이 은 식기를 정직한 사람이 되는 데 쓰겠다고 나에게 약속한 것 말이요.”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는 장발장은





어리둥절한 모습으로 서 있었다. 주교는  
..... 엄숙하게 말을 이었다.

“장발장, 나의 형제여, 이제 그대는 악이 아니라 선에 속한 사람이오. 내가 당신을 위해 당신의 영혼을 사겠소. 사악한 생각과 저주로부터 당신의 영혼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소!”

정말로 장발장은 새로운 사람, 정직한 사람이 되어 많은 이에게 도움을 줍니다. 평생 그는 자기 영혼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구속되었음을 상기시켜 주는 그 두 자루의 쫓대를 간직합니다.<sup>6</sup>

어떤 형태의 현세적인 구속은 함께하는 노력을 통해 옵니다. 이것이 구주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의 하나입니다. 스테이크, 와드, 지부에서 정원화와 보조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는 복음 안에서 서로 가르치고 격려할 뿐 아니라 삶의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해 인력과 자원을 동원할 수 있습니다. 혼자 일하는 사람들 또는 임시변통으로 일하는 집단은 더 큰 규모의 어려움 앞에서는 그에 대처할 방법을 찾을 엄두도 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는 동료 성도들과 우리 손이 닿는 한 최대한 많은 세상 사람들을 어려움에서 구속하기 위해 조직된 성도들의 공동체입니다.

지난해 우리의 인도주의적 노력으로 36개국에서 89만 명이 깨끗한 물을 얻었고, 57개국에서 7만 명이 월채어를 갖게 되었으며, 25개국에서 7만 5천 명이 시력을 얻었고, 52개국에 사는 자연재해 피해자들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어린이 약 800만 명에게 예방접종을 시행했으며 터키, 레바논, 요르단에 있는 시리아 난민 수용소에 생필품을 전달했습니다. 동시에 2012년, 교회 내에 도움이 필요한 회원들도 수백만 달러에 이르는 금식 현금과 기타 복지 원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관대한 도움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 모든 것에는 물론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베푼 친절과 도움은 포함되지 않았는데, 그렇게 음식과 옷, 돈, 보살핌, 또 수많은 다른 형태로 위안과 동정을 표현하는 일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구속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어머니가 도움이 필요한 한 여성을 구속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래전에 저희가 어려울 때 어머니는 죽을 고비를 넘기는 큰 수술을 받으셨고 거의 1년 동안을 주로 침대에서 지내야 하셨습니다. 그 기간에 친지들과 와드 회원들이 어머니와 우리 가족을 도와주셨습니다. 이에 더하여 와드 상호부조회 회장님이셨던 에이브러햄 자매님은 일자리가 절실히 필요한, 와드의 한 자매님을 고용하도록 저의 부모님께 제안하셨습니다. 그 자매님은 사라로, 그분의 딸은 에니라고 임의로 부르겠습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도 어제 일처럼 또렷하게 떠오른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에이브러햄 자매님이 사라를 문 앞으로 데려오셨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렇게 볼품없는 행색을 한 사람은 처음 보았기 때문이었다. 비쩍 마르고 너저분한데다 머리카락은 마구 헝클어져 있고, 어깨는 축 처진 채 고개를 숙이고 바닥을 보고 있었다. 자기 몸보다 네 치수는 더 큰 것 같은 낯은 실내복



차림이었다. 고개를 들려고 하지도 않고 목소리는 너무 작아서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세 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가 숨어 있었다. 이 사람이 대체 무얼 할 수 있단 말이지? 그들이 방을 나가자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도움이 필요했는데 문제만 더 늘어난 셈이었다. 에이브러햄 자매님은 사라와 함께 좀 더 머물며 급제 집을 치우고 훌륭한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에이브러햄 자매님은 나에게 며칠을 함께 지내 보라고 말씀하셨다. 이 젊은 자매는 참 힘든 일을 겪었고 도움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사라가 왔을 때, 나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침대 옆으로 오라고 불렀다. 사라는 자기가 무엇을 하면 좋겠냐고 물었다. 나는 할 일을 말해 주고 나서 이렇게 말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에게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고 책을 읽어 주세요. 아이들이 집보다 더 중요하니까요.' 사라는 음식도 잘하고 청소도 잘했다. 세탁도 깔끔하게 했고 아이들에게도 잘해 주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나는 사라가 겪은 일을 알게 되었다. [귀가 약간 먹어서 학교 공부를 잘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그만두었다. 결혼을 일찍 했는데, 남편은 알코올 중독이었다. 애니가 태어난 것은 사라의 삶에 기쁨이 되었다. 그런데 어느 겨울밤, 취해서 집에 돌아온 남편이 잠옷 바람인 사라와 애니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는 고속도로에 내려놓고 가 버렸다. 그 후론 남편을 만나지 못했다고 한다. 그 추위에 맨발로 사라는 애니를 데리고 몇 킬로미터를 걸어서 친정어머니

집으로 갔다.] 사라의 어머니는 사라에게 집에 머무는 대가로 온갖 집안일과 음식을 하게 했고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생들을 보살피게 했다고 한다.

우리는 사라를 이비인후과에 데려갔고 보청기를 사 줬다. …… 성인을 위한 학교에도 데려갔다. 거기서 사라는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았다. 그리고 야간학교에 다니며 대학까지 졸업하고 특수학교 교사가 되었다. 작은 집도 장만했다. 애니는 성전에서 결혼했고 두 아이를 두었다. 나중에 귀 수술을 받고 결국 잘 들을 수 있게도 되었다. 여러 해가 지나고 은퇴한 다음엔 선교사로 봉사했다. …… 사라는 자주 우리에게 고맙다는 말을 했고, 나에게 참 많이 배웠다고 했다. 특히 내가 아이들이 집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했던 걸 기억했다. 사라는 나에게 배운 대로 자기도 애니에게 그렇게 했다고 했다. …… 사라는 정말 특별한 여성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우리는 고통과 짐으로부터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는 가장 위대한 구속의 봉사는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일일 겁니다. 구주께서 우리를 사망과 죄로부터 구속하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남은 것은 사회 정의뿐이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현세에서 도움과 중재를 받을 수 있지만, 완벽한 공의와 무한한 자비를 하늘에서 끌어내릴 수는 없습니다. 궁극적인 구속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습니다. 저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이 구속주임을 간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제10판(1993), "redemptor."
2. Webster's New World College Dictionary, 제3판(1988), "redeem."
3. "하나님의 아들이 원죄를 속죄하였고, 이로써 부모의 죄가 자녀의 머리에 응답될 수 없으니, 이는

그들이 창세로부터 온전함이라"(모세서 6:54)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모든 사람이 무덤을 이기고 불멸 상태로 부활한다. 또한 모든 사람이 심판 받기 위해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오게 됨으로써 영적인 죽음을 극복한다. 예수께서는 "내가 사람들에게 [십자가 위에] 들렸던 것같이 사람들이 아버지께 들림을 받아, 내 앞에 서서, …… 그 행위에 대하여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제3니파이 27:14)라고 말씀하셨다. 죄로부터 깨끗해진 이들은 하늘 왕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머물게 되지만, 회개하지 않고 깨끗하지 못한 이들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없으며 심판 후에 그 면전을 떠나야 하며, 따라서 다시 영적인 사망을 겪어야 한다. 이것은 때로 둘째 사망 또는 두 번째로 영적인 사망을 겪는 것으로 언급된다.(히라맨서 14:15-18 참조)

4. 우리의 죄에 관하여 경전에서는 구속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부 사람들에게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악인은 사랑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앨마서 11:41)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자는 공의의 요구의 온 율법에 드러나게 되나니, 그러므로 회개에 이르는 신앙을 가진 자에게만 크고도 영원한 구속의 계획이 이루어지느니라."(앨마서 34:16) 구속의 속죄를 거절하는 사람은 공의에 대한 자신의 빛을 스스로 갹아야 한다. 예수께서는 "이는 보라, 만일 그들이 회개하면, 고난을 겪지 않게 하려고 나 하나님은 모두를 위하여 이러한 일을 겪었음이니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진대, 그들은 나처럼 고난을 겪어야만 하나니"(교리와 성약 19:16-17)라고 말씀하셨다. 구속받지 못한 사람이 죄로 겪는 고난의 다른 이름은 지옥이다. 이것은 악마에게 속하는 것을 뜻하며, 경전상의 비유에 따르면 사슬에 묶이는 것 또는 불과 유황 못이라고 설명되어 있다. 리하이는 아들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속을 택하라고 간곡히 당부하며 "육체의 뜻과 그 안에 있는 악을 좇아 영원한 죽음을 택하지 않기 바라노니, 그러한 것은 악마의 영에게 너희를 사로잡아 지옥으로 끌어내릴 능력을 주어, 그로 자기의 왕국에서 너희를 다스리게 하느니라."(니파이후서 2:29)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덕분에 지옥은 끝이 있으며, 지옥을 거처야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부활 때[에] …… 악마로부터 구속 받[게]"(교리와 성약 76:85) 된다. 비교적 수가 적은 "멸망의 자식들"은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 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교리와 성약 76:32, 37-38)라고 기록되어 있다.
5.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크게 기뻐하며 "죽은 자들은 세상이 있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그 옥에서 구속할 수 있도록 제정하신 임마누엘 왕에게 영원한 찬양의 노래를 부를지이다. 이는 옥에 갇힌 자들이 놓여날 것임이니라."(교리와 성약 128:22)라고 기록했다.
6. Victor Hugo, *Les Misérables*(1992), 91-92쪽 참조.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 다시 만날 때까지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사** 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치른 대회는 참으로 훌륭했습니다. 참으로 영감에 찬 메시지를 들었다는 제 말에 모두 동의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간증을 굳게 했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이를 동안 들은 내용을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다음 달 *엔사인*과 *리아호나* 잡지에 실리면 더욱더 연구하시도록 당부합니다.

말씀을 전하신 분들과 더불어 기도를 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표합니다. 음악은 우리를 고양하고 영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우리는 훌륭한 태버나클 합창단을 사랑하며 음악을 제공해 주신 다른 모든 분께도 감사를 전합니다.

우리는 어제 해임된 본부 청녀 회장단과 임원들에게도 함께 감사를 전합니다. 그분들은 훌륭하게 봉사하셨으며, 온전히 헌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회에서 새 직책에 부름 받은 형제 자매님들을 손을 들어 지지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업에서 함께 봉사하기를 고대한다는 점을 그분들이 모두 알아 주셨으면 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우리 회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에서 훌륭한 국민이 되고, 지역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며, 우리 회원들뿐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께도 손을 뻗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과 표준에 동조하지 않는 이들에게 너그러우며, 사랑과 친절을





보이시기 바랍니다. 구주께서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랑과 친절이라는 메시지를 갖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늘 그분의 모범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가 주위 사람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지 잘 알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 중, 특히 젊은이 중에는 애석하게도 마약, 부도덕, 외설물 등에 빠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를 잃은 분들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이 함께하고 관심을 보여 주었으면 하고 갈망하는 외로운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늘 그분들께 도움의 손길과 애정 어린 마음을 보일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세계 역사상 어려운 도전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훌륭한 기회와 기뻐할 이유가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물론 살면서 실망과 번민, 비극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런 확신을 심어 주었습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sup>1</sup>

형제 자매 여러분, 저는 이 후기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를 통해 회복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얼마나 감사드리는지 모릅니다. 복음은 우리 행복의 열쇠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축복하실 수 있도록 겸손하고 자주 기도하며, 신앙을 지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며,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들으신다는 제 개인적인 증언과 간증을 전합니다. 우리 구주이자 구속주이신 그분의 아들은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리라]”<sup>2</sup>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약속에서 유익을 얻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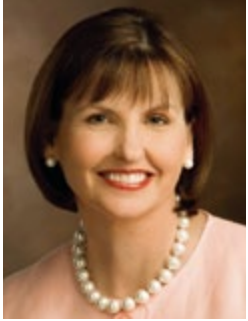
이제 이 대화를 마치며 여러분 각자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화평과 화목, 친절과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복음에 대한 간증을 키우셔서, 그것이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보호막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6개월 후에 다시 만날 때까지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분께서 약속하신 평강이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저와 모든 총관리 역원에 대한 여러분의 기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님, 곧 우리의 구주요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시편 30:5.
2. 요한계시록 3:20.



앤 엠 딘  
본부 청녀회장단 제2보좌

# 여러분의 거룩한 곳

[여러분의 거룩한 곳이] 지리적인 장소이든 특정한 순간이든, 모두 성스럽고 힘을 북돋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20 13년 상호 향상 모임 주제는 교리와 성약 87편에 나옵니다. 교리와 성약 세 편에서 찾아볼 수 있는 이 지시는 분명 중요한 권고입니다. 이 말씀은 불안한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보호와 힘, 평안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마라.”<sup>1</sup> 이것은 영감받은 지침입니다.

이 주제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곳을 “거룩한 곳”이라 부르시는지 궁금해집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거룩한 곳에는 우리의 성전, 예배당, 가정, 시온의 스테이크가 포함되며 ..... 이들[은] ‘방어진[과] 피난처’가 된다.”<sup>2</sup>고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우리 각자가 이러한 장소 외에도 더 많은 곳을 찾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곳이란 단어를 보면 자연스럽게 물리적 환경이나 지리적 위치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따르면, “구분이 되는 독특한 상태, 위치, 또는 마음 상태”<sup>3</sup>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것은 거룩한 곳이 시간상으로 어느 순간이 될 수도 있음을 뜻합니다. 성신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순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는 순간, 또는 우리가 기도에 응답받는 순간과 같은 시간 말입니다. 나아가 저는 여러분이 옳은 것을 위해, 특히 다른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할 때 용기를 내는 것도 거룩한 곳을 만드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조셉 스미스는 짧지만 위대했던 삶을 통해 “거룩한 곳에 [섰고] 움직이지 않았습다. 어린 십대 시절에 조셉은 자신이 사는 고장에 일었던 종교적 동요에 혼란을 느꼈고 어느 교회가 참된지 알고 싶었습니다. 조셉이 집 근처 숲에 들어가 무릎을 꿇고 처음으로 소리 내어 기도했을 때, 그 숲은 조셉에게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오늘날 후기 성도들은 그곳을 성스러운



숲이라 부릅니다.

전 세계의 청년들도 청년 야영에 참여함으로써 자연 속의 거룩한 곳에서 보았습니다. 청년 지도자 한 분에게서 저는 어느 청년의 경험을 들었습니다. 저활동이던 이 소녀는 숲 속에서 영적인 경험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 회의적이었습니다. 첫날이 지났을 때 그 청년은 지도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영이 즐겁기는 한데 영에 관한 얘기는 좀 그만 하면 안 될까요? 저는 야영을 하고, 자연을 즐기고,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재미있게 놀려고 여기에 왔거든요.” 그러나 대회 막바지에 열린 간증 모임에서 이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지금 느끼는 이 느낌을, 이 영을 늘 간직할 수 있을까요?” 이 청년은 거룩한 곳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또 다른 거룩한 곳은 그의 침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흔히 그렇듯 조셉도 형제자매들과 방을 같이 썼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셉이 강한 신앙과 겸손으로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그의 방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조셉은 “저녁에 자려고 침실에 들어간 후 나는 나의 모든 허물과 어리석음을 사해 주실 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힘을 다해 기도하며 간구하였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셉이 거룩한 숲에서 시현을 본 이후의 3년은 쉬운 기간이 아니었습니다. 열일곱 살인 조셉은 끝없는 조롱과 비웃음, 괴롭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조셉의 기도가 응답되어 방 안에 모로나이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조셉은 그날 밤 모로나이 천사와 함께하면서 배움을 얻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조셉의 방과 그날 밤은 거룩한 곳이 되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물론 메시지를 보면서 저는 거룩한 곳이 된 또 다른 방을 보았습니다. 이 비디오에 나온 엘살바도르의 청년, 잉그리드 텔가도는 성전에 대한 느낌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뒤로하고, 성스러운 의식을 받고, 이생에서 그런 의식을 받지 못한 분들을 도울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 좋습니다.” 그녀가 이야기하는 동안 영상에는 잉그리드가 경전을 읽는 모습이 비쳤는데, 주변에 물론 광고, 인용문, 개인 발전 기록부, 가족사진, 성전 사진이 보였으며, 물론 잉그리드가 좋아하는 봉제 인형들도 있었습니다.<sup>5</sup> 아마 잉그리드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떠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을 자기도 모르게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저는 잉그리드가 자기가 만든 거룩한 곳에서 얼마나 많이 경전을 읽고, 영을 느끼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는지 궁금합니다.

조셉 스미스의 생애에서 의외로 거룩한 장소가 된 또 다른 곳은 리버티 감옥입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조셉의 삶에서 이 잔인하고 불법적이고 정당하지 못한 감금 기간은 가장 큰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이어서 홀런드 장로님은 그곳에서 고난을 당하면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가 받은 성스러운 계시 때문에 리버티 감옥이 이후로 “감옥 성전”으로 불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sup>6</sup>

청년 여러분 중에 리버티 감옥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굴욕감을 느끼거나 사랑이 담긴 친절을 느낄 수 없거나 비웃음과 괴롭힘을 당하거나

심지어 몸을 다치는 경험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청년 여러분에게 홀런드 장로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참담한 경험을 하는 와중에 주님과 함께하는 성스럽고, 계시에 찬, 궁극적인 가르침을 받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부당함을 참아내며, 생애 최대의 곤경과 반대를 겪는 동안에 말입니다.”<sup>7</sup> 다르게 표현하자면,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거룩한 곳”을 만들고 그 안에 설 수 있습니다. 살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더라도 말입니다.

청년 성인인 크리스틴은 자신의 고통스러웠던 경험을 저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녀에게 리버티 감옥은 바로 고등학교였습니다. 다행스럽게도 밴드부 교실이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크리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방으로 들어설 때면 안전한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곳에는 품위를 떨어뜨리거나 깎아내리는 말도, 욕설도 없었거든요. 대신 우리는 용기와 사랑을 주는 말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친절해지는 연습을 했어요. 그곳은 행복한 곳이었지요. 우리가 연주하고 연습하는 동안 밴드부 교실은 영으로 가득했습니다. 가장 큰 요인은 밴드를 지휘하는 선생님이셨지요. 그분은 훌륭한 기독교인이셨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고등학교는 연단하는 곳이었습니다. 힘들었지만, 회복력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피난처이자 거룩한 곳이 되어 준 밴드부 교실에 대해 언제까지나 감사할 것입니다.”<sup>8</sup>

오늘 저녁, 여러분의 거룩한 곳에 대해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는 수백 명의 청년들에게 그들의 거룩한 곳을 이야기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리적인 장소이든 특정한 순간이든, 모두 성스럽고 힘을 북돋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들은 진지한 답변 중에서 아홉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 첫 번째: “제가 병원에서 갓 태어난 남동생을 안고 있을 때였습니다.”
- 두 번째: “제 축복문을 읽을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아시고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 세 번째: “제 열두 살 생일에 와드 청년들이 우리 집 문을 하트 모양 종이로 꾸며 주었어요.<sup>9</sup> 사랑받고, 환영받는 느낌이었고 행복했습니다.”
- 네 번째: “어느 날 경전을 읽는데, 한 구절이 ‘눈에 확 들어왔어요.’ 제가 드린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죠.”
- 다섯 번째: “어떤 파티에 갔는데 사람들이 술을 마시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행동들을 하고 있었어요. 영은 저에게 몸을 돌려 집에 가라고 말했고,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 때문에 친구 관계에 문제가 생겼어요. 하지만 그 순간으로 저는 제가 복음대로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 여섯 번째: “성찬식 시간에 속죄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화가 나 있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하기로 선택한 것은 속죄를 제 생활에 적용하는 긍정적인 행동이었어요.”
- 일곱 번째: “엄마와 함께 ‘새로운 시작’에 참석한 후 엄마가 제 볼에 입을 맞추고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제 기억에 엄마가 그렇게 해 주신 건 처음이었죠.”
- 여덟 번째: “감독님이 주신 확신을 통해 저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sup>10</sup>라는 경전의 약속이 참됨을 알았어요. 저는 희망을 느꼈고 회개 과정을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 마지막: “어느 저녁에 용기를 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 복음과 몰몬경에 대한 제 느낌을 이야기했어요. 나중에 그 친구의 침례식에 참석했고, 이제 우리는 함께 교회에 다녀요.”

이제 저의 기록한 곳 중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과거에 저는 압도되고, 두렵고, 완전히 혼자라고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릅니다. 제발, 제발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곧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분이 제게 다가와서 팔을 제 어깨에 두르시고는 진지하고도 용기를 주는 말을 건네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평안을 느꼈습니다. 인정받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스펜서 더블유 김블 회장님의 말씀이 기억났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필요 사항을 충족시켜 주십니다.”<sup>11</sup> 그 순간과 그 장소는 제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이야기하고 싶은 거룩한 곳이 이 밖에도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알고 기억하는 거룩한 곳들을 일지에 기록해 보기 바랍니다. 수천 명의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서 서 있다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압니다. 이 불안한 시기에 여러분은 그런 곳에서 보호와 힘, 평안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영광스러운 방식으로 진리와 의를 위해 서 있기에 여러분의 간증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교회의 고귀한 청소년인 여러분은 저의 영웅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느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참되다는 것을 여러분께 간증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않을 때]” 여러분을 높이 들어 올리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는 진실하고 용기를 주는 우리의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을 사랑하고 지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 주

1. 교리와 성약 87:8; 또한 교리와 성약 45:32; 101:22 참조.
2. Ezra Taft Benson, “Prepare Yourself for the Great Day of the Lord,” *New Era*, May 1982, 50; 또한 교리와 성약 115:6 참조.
3. Merriam-Webster Online, “place,” merriam-webster.com/dictionary/place.
4. 조셉 스미스-역사 1:29.
5. “Practice, Celebration, Dedication: Temple Blessings in El Salvador,” [lds.org/youth/video](http://lds.org/youth/video) 참조.
6. Jeffrey R. Holland, “Lessons from Liberty Jail,” *Ensign*, Sept. 2009, 26, 28.
7. Jeffrey R. Holland, “Lessons from Liberty Jail,” 28.
8. 저자와의 개인적인 대화.
9. 때로 미국에서 “heart attack”으로 불린다.
10. 이사야 1:18.
11. 스펜서 더블유 김블, “풍성한 삶”, 성도의 벗, 1979년 6월호, 2쪽.



엘살바도르 산살바도르



메리 앤 쿡  
본부 청녀 회장단 제1보좌

# 한 소녀를 구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구하는 일입니다

정결한 삶은 조상과 현재의 가족, 그리고 장차 이루게 될 가족에게 축복이 될 것입니다.

**교**회의 충실한 청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게 되어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성약을 존중하는 길로 들어선 것을 볼 때면, 정결한 삶은 조상과 현재의 가족, 그리고 장차 이루게 될 가족에게 축복이 될 거라는 느낌이 듭니다. 고든 비 핑클리 회장은 “한 소녀를 구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구하는 것입니다.”<sup>1</sup>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약의 길은 침례를 받고 성신의 은사를 받은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길은 매주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하는 거룩한 곳인 성찬 모임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성전 성약을 맺을 준비를 할 때입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행해지는 신성한 의식과 성약은 [우리를]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며 [우리] 가족을 영원히 하나로 결속시켜 [줍니다.]”<sup>2</sup>

조상을 위해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이 지상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는 반드시 조상이 있습니다. 조상과 이어지고 싶은 것은 인간이 보편적으로 바라는 소망입니다.”<sup>3</sup>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참여하여

구원 의식을 행함으로써 조상들의 삶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신과 가족을 위해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가족이 어떠한 상황에 있던 여러분의 의로운 모범은 커다란 기쁨의 원천이 될 것입니다. 의로운 선택을 해 나간다면 가족을 영원히 함께 결속시키는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킬 자격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미래에 이루게 될 가족을 위해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성전에서 거룩한 신권으로 남편에게 인봉됨으로써 영원한 가족을 시작하겠다고 결심하십시오. 자녀들에게 성약을 맺고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본보기가 되고, 자녀들의 삶을 여러분의 정결한 모범과 흔들리지 않는 간증으로 촘촘히 짜나간다면, 자녀들은 진리로 축복받을 것입니다.

최근 열린 국제 청소년 미술 경연 대회에서 이러한 영원한 원리들이 표현된 것을 보았습니다. 메건 워너 테일러는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열 처녀의 비유<sup>4</sup>를 현대적인 시각으로 다룬 디지털 사진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메건과 만나 열 번째 처녀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메건은 그녀를 성스러운 성전 성약을 맺고 지킬 준비가 된, 정결과 신앙을 갖춘 청녀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모든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그 열 번째 처녀도 꾸준히 의롭게 생활하여 등에 한 방울씩 기름을 채워 나가며 준비했습니다. 아름답게 땅아 내린 머리에 주목했습니다. 메건은 그 땅은 머리가 수많은 세대에게 미칠 이 청녀의 정결한 삶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가닥은 조상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두 번째 가닥은 현재 가족에 미치는 그녀의 의로운 영향력, 그리고 세 번째 가닥은 다음 세대들의 삶과 연결된, 그녀의 준비된 삶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영적으로 준비하여 많은 세대에 영향을 미칠 의로운 삶을 살아온 또 다른 청녀를 만났습니다.

9월의 어느 아름다운 오후, 남편과 함께 성전 의식에 참여하고자 성전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청년인 크리스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러시아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최근에 귀환한 크리스를 만나게 되어 정말 기뻐했습니다.

의식이 시작되려는 찰나, 한 사랑스러운 젊은 여성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환한 웃음을 짓는 모습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녀에 대해 알고 싶어서 작은 목소리로 제 소개를 했습니다. 케이트라고 속삭이는 그녀의 이름을 듣고서 저는 그녀의 성이 예전에 우리 가족이 미시간에 살 때 친하게 지낸 한 가족과 성이 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그 가족의 장성한 딸이었고, 5주 전에 독일에서 선교 사업을 마치고 막 귀환한 것이었습니다.

의식을 받으면서 ‘케이트를 크리스에게 소개해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해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란 생각을 하며 이 느낌을 접어두었습니다.





미국 애리조나 켄크리크

의식을 마치고 나갈 채비를 하는데, 크리스가 작별 인사를 하려고 다가왔고, 저는 그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케이트를 이끌어 세우고, 그 둘에게 이렇게 속삭여 주었습니다. “둘 다 정말 훌륭한 젊은이들이야. 서로에 대해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 저는 제가 받은 느낌에 따라 행했다는 데 만족하며 성전을 떠났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과 케이트의 가족이 겪은 시련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습니다. 그 후 케이트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그날 성전에서 보았던 그 기쁨에 찬 얼굴의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맺은 성약의 길에 머물려고 항상 거룩한 곳을 찾으며 노력해 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가정의 밤을 하고, 기도하며, 경전 공부를 하는 가정에서 성장한 그녀에게 가정은 거룩한 곳이었습니다. 케이트는 어릴 때 성전에 관해 배웠으며, “나 성전 보고 싶어”라는 노래는 가정의 밤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였습니다. 어린 시절에 케이트는 주말 저녁이면 영화를 보러 가거나 외식을 하는

대신 성전에 가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며 거룩한 곳을 찾는 모범을 보고 자랐습니다.

케이트는 아버지를 몹시 사랑했으며, 아버지는 케이트가 침례로 첫 번째 성약을 맺도록 돕고자 신권 권세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아버지는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신을 받게 해 주었습니다. 케이트는 “성신을 받게 되어 정말 신 났었죠. 제가 영생으로 가는 길에 머물도록 성신이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거든요.”라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계속해서 아주 많은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열네 살에 고등학생이 되면서는 복음을 배우는 또 다른 거룩한 곳인 세미나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세미나리 교사가 시련에 관해 이야기하며, 우리는 모두 시련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케이트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시련을 겪고 싶지 않아. 이런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아.’

그로부터 불과 몇 주 뒤, 부활절 일요일 아침에 케이트의 아버지는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케이트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죠. 마라톤 선수셨거든요. 어머니는 너무도 아파하는 아버지를 보고 불안에 떨며 병원으로 데리고 가셨어요. 36시간 내에 중증 뇌졸중을 일으켜 몸 대부분이 마비되었어요. 눈만 깜박일 뿐 다른 부분은 전혀 움직일 수가 없었죠. 아버지를 보면서 ‘맏소사, 정말로 일어나다니. 세미나리 선생님 말씀이 맞았어. 내가 시련을 겪고 있구나.’ 하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 뒤에 케이트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케이트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누구든 자기 인생의 영웅을 잃고 싶지는 않잖아요. 이 일을 성장의 디딤돌이나 걸림돌로 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저라는 것을 알았어요. 당시 저는 겨우 열네 살이었는데, 이 일로 삶 전체를 망가뜨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주님께 가까이 다가가려고 노력했죠. 경전을 많이 읽었고, 엘마서 40장을 읽으며 부활이 실재하고,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 다시 아버지와 함께 살 수 있다는 확신을 얻었어요. 기도도 많이 하고, 가능한 한 일지도 자주 썼어요. 생동하는 간증을 간직하고자 적었어요. 매주 교회와 청년 모임에도 참석했고, 좋은 친구들과 지내려고 노력했죠. 저를 보살피는 친척들과, 특히 가족의 중심이신 어머니와 가깝게 지냈어요. 할아버지와 신권을 지닌 다른 형제님들에게서 신권 축복도 받았지요.”

슬기로운 처녀들처럼 한결같이 이러한 선택을 해 나감에 따라 케이트의 등에 기름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와 다시 함께하고 싶다는 소망이 동기가 되었습니다. 케이트는 자신이 내리는 선택을 아버지도 아신다고 믿었기에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와 영원한 관계가 지속되기를 바랐고, 성약의 길에 머문다면 자신의 삶이 아버지의 삶과 더불어 단단히 짜여 결합할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련은 그것으로 멈추지 않았습니다. 케이트가 스물한 살이 되어 선교사 지원서를 썼을 때,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케이트는 일생에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집에 남아 어머니를 도울 것인가, 아니면 선교 사업을 나갈 것인가? 케이트의 어머니는 암을 이겨 낼 것이라는 신권 축복을 약속받았습니다.

이 축복으로 확신을 얻은 케이트는 신앙으로 나아갔고, 선교사로 봉사하겠다는 계획을 이행했습니다.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둠 속으로 발을 내딛는 것만 같았죠. 하지만 선교 사업 동안 결국 빛이 찾아왔어요. 어머니에게 약속된 축복이 실현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으니까요. 기쁨이 넘쳐나 주님을 위한 봉사를 지체할 수가 없었죠. 어려운 일이 닥치면, 발전을 멈추고 전진하려는 소망도 사그라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우선순위에 두면, 역경은 아름다운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분의 손길과 기적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케이트는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께서 하신 다음 말씀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한 가장 의미 있는 기회는 가장 어려운 시간에 찾게 될 것입니다.”<sup>5</sup>

케이트는 구원의 계획을 이해했기에 이러한 신앙을 지닐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전세의 삶이 있었으며, 이 지상은 시험의 시간이고, 우리가 다시 살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축복을 받아 암을 이겨 낼 것이라는 신앙이 있었지만, 아버지 때의 경험을 통해 어머니가 돌아가신다 해도 괜찮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케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단순히 아버지의 죽음을 극복해 낸 게 아니에요. 그

경험은 영원히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되었고,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해도 그것 역시 똑같은 경험이 되었을 거예요. 어머니의 죽음은 제 삶에 더 커다란 간증을 더했을 것입니다.”<sup>6</sup>

저와 성전에서 만났던 날에도 케이트는 거룩한 곳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성전 예배에서 맺는 영원한 관계를 단단히 엮으려는 소망을 품고서 정기적으로 성전에 참석하셨던 부모님을 본보기로 삼고 따랐던 것입니다.

케이트를 크리스에게 소개해 준 날 저녁, 그 둘 사이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일요일, 종교 교육원 영적 모임이라는 또 다른 거룩한 곳을 찾은 케이트는 수백 명의 청년 독신 성인들 사이에서 크리스를 보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로를 좀 더 알게 되었습니다. 몇 주 뒤에 크리스는 케이트에게 함께 연차 대회를 보러 가자고 했습니다. 그들은 교제하면서 계속해서 영이 임하는 곳을 찾았고, 결국 서로 처음 만났던 거룩한 곳인 성전에서 인봉되었습니다. 크리스와 케이트는 이제 어린 세 이들의 삶을 구원의 계획에 대한 간증으로 엮어 나가고, 성약의 길에 대한 본을 보이며, 부모의 성스러운 책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 소녀를 구하는 것은 여러 세대를 구하는 것입니다.”<sup>7</sup> 진리의 길에 머물며,



일레인 에스 돌튼  
본부 청녀 회장

꾸준히 자신의 등에 기름을 채우고, 거룩한 곳에 서겠다는 열네 살 소녀 케이트의 결심은 여러 세대를 구했으며, 또 구하게 될 것입니다. 조상을 찾고 성전에서 봉사함으로써 그녀의 마음은 조상들의 마음과 짜이고 결합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가족 역사 사업과 성전 사업에 참여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로 짜이고, 조상들에게 영생의 기회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가정에서 복음에 따라 생활한다면, 등에 기름을 채우고,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힘을 불어넣으며, 장차 이루어 될 가정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축복을 전해 주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로버트 디 헤일즈 장로님 말씀처럼 “우리가 부모님에게서 받은 모범이 훌륭하지 않다면 그 순환의 고리를 끊[고] ……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전통을 가르치는 것은 우리의 책임입니다.”<sup>8</sup>

지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여러분의 등을 채우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의 강한 간증과 모범이 과거, 현재, 미래의 수많은 세대의 삶과 짜여서 하나로 결합하게 하겠다는 결심을 하십시오. 여러분의 정결한 삶이 여러 세대와 여러분의 영생까지 구할 것임을 간증드립니다. 그것만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 현세는 물론, 영생을 통해 참된 기쁨을 누리게 할 유일한 길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 ■

주

1. 고든 비 힝클리, “굳건하고 흔들림 없이 섬”, 전 세계 지도자 훈련 모임, 2004년 1월 10일, 20쪽. 또한 Gordon B. Hinckley, “Our Responsibility to Our Young Women,” *Ensign*, Sept. 1988, 10 참조.
2. “가족 세상에 전하는 선언문”, *리아호나*, 2010년 11월호, 129쪽.
3. 러셀 엠 넬슨, “사랑으로 연결된 세대”, *리아호나*, 2010년 5월호, 92쪽.
4. 마태복음 25:1~13 참조.
5. “나 성전 보고 싶어”, *어린이 노래책*, 99쪽 참조.
6. 토마스 에스 몬슨, “자신의 골리앗에 맞섬”, *리아호나*, 1987년 5월호, 6쪽.
7. 저자와의 개인적인 면담, 2013년.
8. 로버트 디 헤일즈, “자녀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하겠습니까?”, *리아호나*, 1994년 1월호, 10쪽.

#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 증인이 되며 세상을 향해 표준이 되[십시오.] 거룩한 곳에 서[십시오.]

오늘 저녁 저는 선지자, 선견자, 계시자와 하나님의 고귀한 딸들이 함께하는 가운데 이 거룩한 곳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지상에서 청녀로서 산다는 것은 멋진 일입니다. 여러분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택하신 딸들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여러분 개개인을 사랑하시며, 저도 그렇습니다.

제 사무실 책상 위에는 청동으로 복제한 소녀상이 있는데, 이름이 크리스티나입니다. 실제 소녀의 크기만 한 이 청동 조각의 원작은 덴마크 코펜하겐의 부두에 있습니다. 그곳의 크리스티나는 시운을 향해 바다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교회에 들어와

고향을 떠나는 그녀의 결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동상을 향해 몰아치는 강한 맞바람처럼 말입니다. 그녀는 굳게 서서 어렵지만 자신이 옳다고 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의 후손들은 그녀를 기념하기 위해 그 부두에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날 그녀의 결정이 여러 세대에 걸쳐 영원토록 중요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이 크리스티나의 동상은 여러분 각자를 상징합니다. 크리스티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많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상황에 있고, 날마다 여러 가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여러분의 미래뿐 아니라 여러 세대의 운명을 결정할 어려운 선택도 있습니다. 여러분도 반대와 역경, 친구들의 압력, 도덕적 타락과 같은 강풍에 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흔들리지 않고 서서 우리 사회의 그런 격한 폭풍우에 맞서 복음대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크리스티나와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옳은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고귀한 하나님의 딸들입니다.

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거룩한 곳에 서서 움직이지 말라.”는 말씀보다 더 중요한 권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굳건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sup>2</sup> “진리와 의를 수호하[고]”<sup>3</sup> 증인이 되며<sup>4</sup> 세상을 향해 표준이 되어라. 거룩한 곳에 서라. 그러므로 여러분 각자에게 전하는 저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첫째, 의를 선택하는 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 후기에 하찮은 결정들은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선택의지, 곧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 중 하나입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제가 전세에서

선택하고 지켜 낸 행복의 계획 일부입니다. 성신에 귀를 기울이고 그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생활을 하십시오. 그러면 성신은 여러분이 옳은 결정을 하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실, 성신은 “[여러분이] 무엇을 행하여야 할지 모든 것을”<sup>5</sup> 일러 주실 것입니다.

몇 주 전, 정말 오랜만에 제가 다녔던 고등학교에 가게 되었습니다. 학교 강당에서 열리는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머릿속에 옛 학창 시절에 대한 기억이

물밀 듯이 밀려왔습니다. 안정감이 없고, 자신에 대한 확신도 없으며,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친구들 틈에 끼는 것이 몹시도 중요했던 청년 시절의 기분이 고스란히 되살아났습니다. 강당으로 들어서자 또다시 추억이 몰려왔습니다. 구석구석까지 낯익은 강당이었습니다. 딱 하나 변한 것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저는 연단에 설 기회가 있었습니다. 오래전 학창 시절에 학생회 임원으로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청중 가운데 옛날 반 친구들도 보였습니다. 그중 몇 명과는 데이트도 했었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학생회 사회를 보는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 되어”<sup>6</sup> 모교 강당에서 간증을 전하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청년 여러분,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과 맺는 관계가 40년이 흐른 후에도 부끄럽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래들이 주는 압박 때문에,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또는 인기를 위해 표준을 낮추지 마십시오. 청남들에게 미치는 여러분의 영향력은 그들이 신권 권능을 지니고 성전 성약을 맺고 선교 사업을 하기에 합당해지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40년이 흐른 후에 여러분의 고등학교 강당에 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다가와 영예로운 선교 사업이라는 신권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또, 그 청남들의 아내 중 하나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보내, 오래전 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이 자기 남편과 미래의 가족에게 끼친 좋은 영향에 감사한다는 말을 전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는 선택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영원한 중요성을 지닙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둘째, 고결하고 성적으로 순결하겠다는 여러분의 열망과 결의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정결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의 개인적인 순결은 가장 위대한





힘의 원천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은 지상에 올 때 소중한 선물인 육신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정신을 담은 그릇이며, 여러분의 선택의지를 행사하는 수단이 되는 거룩한 선물입니다. 사탄은 이 선물을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는 공격 대부분을 여러분의 몸에 집중시킵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자신의 몸을 경시하고, 잘못 사용하고, 학대하기를 바랍니다. 천박함, 외설물, 부도덕, 문신과 피어싱, 마약, 그리고 모든 종류의 중독은 소중한 선물인 여러분의 몸을 사로잡고 여러분이 선택의지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게 하려는 온갖 노력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sup>7</sup>

여러분의 몸은 성전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영원한 영을 담을 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원한 가족의 일원으로서 지상에 오게 될 다른 이들의 영도 담을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델린 에이치 옥스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필멸의 생명을 창조하는 힘은 고귀한 능력입니다.”<sup>8</sup> 여러분에게는 고귀한 역할이 맡겨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신뢰하십니다! 여러분은 다음 세대의 어머니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순결하고 합당하게 유지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하고 귀한”<sup>9</sup> 정결과 순결을 지키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서 택하신 딸인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분의 현명한 권고는 “유덕한 길을 걸으라!”<sup>10</sup>는 것입니다.

정결은 성전으로 가는 황금 열쇠입니다. 따라서 셋째,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합당해지는 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매주 성찬을 들면서 침례 성약을 새롭게 할 때, 여러분은 정결하고 행복한 길에 안전하게 머물 것입니다. 침례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과 복장, 행동을 보일 것입니다. 이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성신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룩한 곳에 서며, 성신과 함께할 수 없는 환경, 음악, 매체, 또는 모임은 근처에도 가지 마십시오.<sup>11</sup> 자신의 성약을 지킬 때 여러분은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합당해지고, 준비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주의 속죄를 받아들이는 데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속죄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것입니다. 속죄는 가능하게 하고 구속해 주는 힘입니다. 거룩한 곳에 서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낀다면, 하루라도 빨리 그 짐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필멸의 삶에서 우리는 모두 잘못을 합니다. 구주께서

여러분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혹 잘못을 범하더라도 변화하고 회개할 수 있게 하셨음을 확실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여러분이 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바라지 않습니다.<sup>12</sup> 그는 여러분에게 다 끝났다고 설득하려 할 것입니다. 그것은 거짓입니다. 여러분은 돌아올 수 있습니다. 회개할 수 있습니다. 구주의 무한한 속죄 덕분에 여러분은 순수하고 거룩하게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랑 이야기가 거룩한 곳에 서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지?” 하고 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모든 면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리브가라는 소녀의 이야기입니다.<sup>13</sup>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은 종에게 자기 아들 이삭의 아내가 될 합당한 처녀를 찾으라고 명했습니다. 성약 안에서 결혼할 수 있을 만큼 정결하고 순결하며 합당한 여성 말입니다. 그리하여 아브라함은 종을 하란이라는 곳으로 보내어 멀고도 위험한 여행을 하게 합니다. 그가 가야 했던 이유는 분명합니다. 거룩한 남성에게는 곁에 있어 줄 거룩한 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나훔의 성에 다다른 종은 낙타들에게 물을 먹이고자 우물가에서 발길을 멈추었으며,



브라질 브라질리아

기도를 드렸습니다. 딱 알맞은 처녀를 만나게 해 주시고 자신과 자신의 낙타 열 마리에게 물을 주는 것으로 그 처녀를 알아보겠노라고 간구했습니다. 저도 낙타를 타 봐서 아는데, 낙타는 물을 엄청나게 많이 마십니다!

창세기에는 리브가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길어왔을 뿐 아니라 “급히”<sup>14</sup> 그 일을 해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좋은 리브가에게 팔찌와 보석을 걸어 주고 그녀 아버지의 집에 자신이 머물 방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보석도 분명 도움이 되었겠지요! 경전에는 “소녀가 달려가서 이 일을 어머니 집에 알렸더니”<sup>15</sup>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는 달리기를 아주 잘했던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신이 왜 멀리서 그곳까지 왔는지를 말했고, 리브가는 이삭의 아내가 되는 데 동의했습니다. 좋은 다음날 리브가를 데리고 떠나기를 원했지만, 그녀의 가족은 딸에게 최소한 열흘은 더 머물다 가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들은 리브가에게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고 물었는데, 그녀는 그저 “가겠나이다”<sup>16</sup> 하고 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선지자께서 청남 청년들에게 더 어린

나이에 선교 사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발표했을 때 “내가 가서 행하겠나이다”<sup>17</sup>라고 결연하게 응답한 수천 명의 대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 사랑 이야기의 교훈과 결말입니다. 리브가는 준비되어 있었고,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며 이삭의 성약의 아내가 되기에 합당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기다리며 채비를 갖추 필요가 없었습니다. 가족을 떠나기 전에 그녀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sup>18</sup>라는 그 축복의 말씀에 저는 감동을 느낍니다. 하지만 이 사랑 이야기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리브가가 이삭을 처음 보고 이삭이 리브가를 처음 보았을 때입니다.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제 생각에 들은 첫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덕은 덕을 사랑하며, 빛은 빛과 결합하[기]”<sup>19</sup> 때문입니다. 이삭이 리브가 일행을 만나러 나갔을 때 리브가는 “낙타에서 내[렸고]”<sup>20</sup> “이삭[은] …… [그녀를] 사랑하였[습니다.]”<sup>21</sup> 저는 이 부분에서 안도의 숨을 쉽니다!

리브가와 크리스티나가 거룩한 곳에 서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바람이 모질게 불고,

우물에서 길어올리는 물은 무거웠으며, 정든 집과 이전의 생활을 떠나는 일은 분명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옳은 결정을 했습니다. 그들은 성신의 인도를 받았고, 정결했으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키기 위해 자신을 준비했습니다. 구주께서는 리브가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당시에 리브가가 그 일이 일어날 것을 알았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의 현재 선택이 중요할까요? 그렇습니다!

청녀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과 순결, 합당한 생활에 여러 세대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앞에는 위대한 운명이 놓여 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차례입니다. 저는 진심으로 한 명의 정결한 청녀가 영의 인도를 받을 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구주께서 살아 계심을 간증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함께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분]의 천사들은 [여러분]을 둘러 있어 [여러분]을 받쳐 [줄 것입니다.]”<sup>22</sup>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주

1. 교리와 성약 87:8.
2. 모사이야서 5:15 참조.
3. 청녀 개인 발전 기록부(소책자, 2009), 청녀 모토, 2쪽.
4. 모사이야서 18:9 참조.
5. 니파이후서 32:5.
6. 모사이야서 18:9 참조.
7. 고린도전서 3:16.
8. 델린 에이치 옥스, “위대한 행복의 계획”, 성도의 빛, 1994년 1월호, 74쪽.
9. 모로나이서 9:9.
10. 교리와 성약 25:2.
11.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8~29쪽.
12.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소책자, 2011), 28~29쪽 참조.
13. 창세기 24장 참조.
14. 창세기 24:20.
15. 창세기 24:28.
16. 창세기 24:58.
17. 니파이전서 3:7 참조.
18. 창세기 24:60.
19. 교리와 성약 88:40.
20. 창세기 24:64.
21. 창세기 24:67.
22. 교리와 성약 84:88



디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제일회장단 제2보좌

# 본향으로 가는 멋진 여행

여러분의 여정에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지도를 기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여러분은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저녁, 사랑하는 선지자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과 함께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회장님, 우리는 언제나 회장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음악과 말씀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기념하는 성스러운 부활절에 어울리는, 영감에 찬 음악과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와 훌륭한 지도자들, 그리고 소중한 청년인 여러분과 이곳에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여러분은 빛나는 영을 지니고 주위에 웃음을 퍼뜨립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마음에 두고 계시며, 하늘에서 여러분을 사랑스럽게 내려다보고 계십니다.

저는 과거 동독의 츠비카우에서 자랐습니다. 제가 열한 살쯤 되었을 때, 아버지께서 정치적 반대자로 의심을 받아 감시가 심해지자 부모님은 서독으로 탈출하는 것 외에는 안전한 길이 없다고 느끼셨습니다. 우리는 모든 소유물을 버려둔 채, 각기 다른 시각에 다른 경로를 통해 서독으로 가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버님은 가장 큰 위험에 처해 계셨기에

베를린을 통과하는, 가장 짧은 경로를 택하셨습니다. 형들은 북쪽으로 갔다가 헤어져서 각자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상당수의 여러분과 같은 또래였던 누나는 청년 교사였던 헬가 파스만 자매님과 다른 몇몇 사람과 함께 짧은 시간 동안 서독을 통과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들은 승무원에게 돈을 주어 기차 문 하나를 잠그지 말라는 부탁을 해 두고, 기차가 서독 국경을 지나자 달리는 기차에서 자유를 찾아 뛰어내렸습니다. 저는 누나의 그 용기에 감탄을 금치 못합니다.

저는 막내였는데, 어머니는 저와 함께 국경을 이루는 산을 걸어서 넘어가기로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치 산행이나 소풍을 준비하듯 점심을 꾸리시던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는 가능한 한 멀리 기차로 간 다음, 여러 시간을 걸어서 서독 국경 부근에 이르렀습니다. 국경의 감시는 삼엄했지만, 우리에게는 지도가 있었고 국경을 안전하게 넘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알았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초조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혹 미행당하지 않을까 하여 주변을 유심히 살피셨습니다.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어머니의 다리와 무릎은 점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긴 언덕을 오르는 동안 저는 어머니의 무거운 가방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음식과 중요한 서류와 가족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분명 국경을 넘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어머니가 마침내 안전하다고 느끼셨을 때, 우리는 앉아서 싸 온 점심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중 처음으로 어머니가 마음을 놓으신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국경 표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갈 길이 아직도 멀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국경 반대편인 동독에 있었습니다!



브라질 소브라우



국경 수비대가 언제 나타날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어놓은 음식을 정신없이 다시 꾸리셨고, 우리는 부리나케 산비탈을 올라갔습니다. 이번에는 국경을 넘은 것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감히 멈출 엄두도 못 냈습니다.

가족들은 각자 매우 다른 경로를 택했고 가는 길에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 결국은 모두 안전하게 서독에 도착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가족은 재회했습니다. 얼마나 기쁜 날이었는지 모릅니다!

## 여행담

방금 들려 드린 인생 경험은 세계 매우 소중한 여행담입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 저는 그런 “여행”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산맥이나 정치적 경계선을 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련을 극복하거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여행담과 같습니다. 저는 인생이 각각의 “여행담”이 모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모든 문화권에는 다양한 여행담이 존재한다는 것을 여러분도 분명히 잘 아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은 오즈의 마법사에 나오는 도로시와 강아지 토토의 여행을 잘 아실 것입니다. 도로시와 토토는 회오리바람에 휩쓸려서 오즈라는 나라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도로시는 독특한 노란 벽돌 길을 발견하는데, 그 길은 결국 집으로 돌아가는 여정을 뜻했습니다.

찰스 디킨스의 소설에서 에버니저

스크루지는 장소와 장소가 아닌, 시간과 시간 사이를 여행합니다. 그는 바로 자기 마음속에서 일어난 이 여행을 통해 자신이 왜 지금과 같은 사람이 되었는지와, 또 이기적이고 감사하지 않는 삶을 지속한다면 어떤 결과가 올지를 깨닫습니다.<sup>1</sup>

중국 고전 소설 중에 서유기라는 위대한 작품이 있습니다. 16세기에 쓰인 이 소설은 수도승의 모험담과 순례 여행을 아름답게 묘사하는데, 그 승려는 네 명의 친절한 등장인물의 도움으로 영적 깨달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벌보 배긴스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 작고 겸손한 호빗은 집에 머물며 자기가 만든 국을 먹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하는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문 두드리는 소리가 난 이후로 그는 미지의 세계에서 나는 소리를 따르며 세상에 발을 내딛고, 마법사와 난쟁이 무리와 함께 위험하고도 아주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sup>2</sup>

## 우리 모두의 이야기

우리가 그러한 여행담을 좋아하는 것은 그 여행자들에게서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들의 성공과 실패는 우리 인생에서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몇 분 전에 본 비디오에서 아름다운 여정에 대해 들었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 모두 잘 알아야 하는 여행담, 즉 우리 모두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한 여행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 이야기는 아주 오래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지구가 궤도를 돌기

시작하기 전에, 늘 제자리를 지키는 태양이 차가운 우주에 그 불타는 팔을 펼치기도 전에, 또 크고 작은 생명체들이 우리의 행성을 채우기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될 무렵에 여러분은 멀리 떨어진 아름다운 곳에 살았습니다.

우리는 전세의 삶에 대해 많은 것을 세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몇 가지는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누구이며, 또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될 수 있는가에 대해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 첫째 지체 상태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보고 그분의 목소리를 들었으므로 그분이 계시다는 것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습니다. 그때 여러분은 그분을 믿는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전한 전세의 집에 머무르는 것이 자신의 운명이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 영원한 곳을 사랑한 만큼이나 여러분은 여행을 시작하길 원했고, 또 그럴 필요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품을 떠나 땅각의 휘장을 지나서, 필멸의 육신을 받아 더욱 하나님 아버지처럼 성장하고, 그분 면전으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되는 것들을 배우고 경험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성스러운 곳에서 여러분은 여러분이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나는 과연 하늘 본향으로 무사히 돌아올 것인가?’ 하는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깊이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이 통제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것이며, 필멸의 삶은 고달프고, 때로는 질병, 비통함, 사고, 불화와 같은 예상치 못한 굴곡으로 가득할 것이었습니다.

전세에 대한 기억을 잃어, 한때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살았음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은 필멸의 삶에서 겪는 모든 소음과 혼란 속에서 그분의 음성을 여전히 인식하고 있습니까?





덴마크 코펜하겐

여러분이 시작할 여행은 너무나 길고, 불확실하고, 위험천만해 보였습니다.

쉽지 않을 여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모든 힘을 다해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영원한 여정의 출발점에 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흥분과 희망, 그리고 한편으로는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며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공정하시며, 그분의 선이 승리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은 위대한 천국 회의에 참여했으며, 여러분이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육체적 사망에서 구원받도록 여러분의 구주께서 길을 마련해 주시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결국 구주의 성스러운 이름을 찬양하는 하늘의 합창단과 함께 소리를 높여 기뻐할 것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깊은숨을 들이쉬고 ..... 위대한 발걸음을 한 발짝 내디뎠습니다. ....

그리고 이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멋진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 여러분의 지도

이제 여러분은 이곳 지상에 있으므로,

여러분의 여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문해 보는 것이 지혜로운 일일 것입니다. 옳은 길에서 있습니까? 원래 되어야 할 사람, 또 되고자 했던 사람이 되어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데 도움이 될 선택을 하고 있습니까?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본향인 그분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부모와 충실한 교회 지도자, 지형과 위험을 표시한 지도를 주셨습니다. 그 지도는 여러분이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곳을 알려주고 본향으로 돌아갈 경로를 계획하는 데 유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지도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 성스러운 경전에서
- 선지자와 사도들의 말씀에서
- 그리고 성신을 통해 받는 개인적인 계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지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기쁜 소식이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걷는 즐거운 길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증보자요 스승께서 주신 계명과 모범입니다. 주님은 길을 아십니다. 그분이 바로 길이시기

때문입니다.<sup>3</sup>

물론 지도가 있어도 그것을 연구하지 않고, 인생을 향해해 나가는 데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적용하는 것을 높은 우선순위로 삼도록 권고합니다. 성신께 마음을 열고, 평생에 걸친 여러분의 여정을 인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의 지도에는 용기와 교훈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성공적인 귀환에 도움이 되는 그 메시지 중에서 세 가지를 나누고 싶습니다.

### 첫 번째 메시지: “두려워 말라. 이는 내가 주와 너희와 함께 [함이라]”<sup>4</sup>

여러분은 혼자 여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여러분의 말에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을 때에도 그분은 들으십니다. 여러분이 의 안에서 기뻐할 때, 그분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이 곤경에 처할 때, 그분도 여러분과 함께 슬퍼하십니다.

여러분에 대한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은 여러분이 부자이거나 아름답거나 건강하거나 똑똑한 것과는 무관합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세상이 보는 것과는 다르게 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이 정말로

누구인지를 보십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sup>5</sup> 그리고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sup>6</sup>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그러면 그분을 찾을 것입니다.<sup>7</sup>

제가 약속하건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제 잠시 주위 사람들을 돌아보십시오. 일부는 여러분의 지도자, 친구, 가족일 것입니다. 다른 이들은 전에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주변에 보이는 사람이 이 모임에 있든 다른 어느 곳에 있든, 또는 어느 시대에 살았든, 모두 전세에서는 용감했습니다. 옆에 앉은 바로 그 소박하고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 영의 세계에서 여러분이 사랑하고 존경했던 위대한 인물 중 하나였을지 모릅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신념, 체형이나 모습이 어떻든, 여러분이 보는 모든 사람은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청년에게도 여러분과 똑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며,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그 청년도 사랑하는 하나님의 면전을 떠나 이 지상에 와서 생활하고, 언젠가 그분께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러나 가끔 여러분이 그러듯이 그 청년도 외톨이라고 느낄지 모릅니다. 때로 자신이 여행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 그녀가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 주십시오. 우리는 서로 돕기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인생이 어려울 수 있고, 또 어떤 때는 소통이 힘들 만큼 마음을 닫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노에 차 있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자애로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점을 기억하십시오. 그들이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과거 어느 시점에는 그들도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갈망했습니다.

누군가를 개종하게 하는 일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신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과제는 믿는 것을 나누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든 이에게 친구가 되되, 절대 표준을 양보하지는 마십시오. 자신의 확신과 신앙에 충실하십시오. 당당하게 서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딸이며,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 두 번째 메시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sup>8</sup>

우리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때 어떤 언어를 사용했는지 궁금하게 여긴 적이 없습니까? 제 느낌으로는 분명 독일어였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전세에서 우리가 영의 아버지로부터 감정적, 신체적, 영적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보편적인 언어를 배웠다는 것을 압니다.

그 언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입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흉내뿐인 사랑이 아닙니다. 판에 박힌 사랑도 아닙니다. 유행가나 영화에서 찬미하는 그런 종류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성품에 진정한 변화를 가져옵니다. 증오를 꿰뚫고 시기심을 없앱니다. 분노를 치유하고, 쓰라림을 가라앉히며, 기적을 불러옵니다.

여러분은 영으로서 하나님 면전에 있는 동안 이 사랑의 언어로 “첫 교훈”<sup>9</sup>을 받았으며, 이곳 지상에서는 그 언어를 연습하여 유창하게 사용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이 무엇에서부터 나오는지 살펴봄으로써 자신이 이 사랑의 언어를 배우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내게 어떤 이득이 될까 하는 데에 생각이 주로 집중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동기는 이기적이고 알팍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호주 시드니



그러나 생각과 행동이 주로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섬기는 데 집중되어 있을 때, 즉 주변 사람을 축복하고 사람들을 들어 올리고자 진정으로 바랄 때, 비로소 그리스도의 순수한 사랑의 힘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작용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이 배우고자 하는 언어입니다.

이 언어에 유창하게 되고 타인을 대할 때 이 언어를 사용한다면, 그들은 다시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여정에서 옳은 길을 찾아야겠다는,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감정을 일깨우는 무언가가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할 것입니다. 결국, 사랑의 언어는 그들의 모국어이기 때문입니다.

이 깊고 지속적인 영향력은 영혼에 와 닿는 언어입니다. 이해의 언어, 봉사의 언어, 남을 들어 올리고 기쁨과 위안을 주는 언어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웁시다.

### 세 번째 메시지: “담대하라”<sup>10</sup>

우리는 이 여정에서 자신의 현재 위치를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열두 살이라면 열네 살이고 싶어할지 모릅니다. 열네 살에는 열여덟 살이고 싶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열여덟 살이 되면 가끔 열두 살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면 좋겠다고 바랄 수도 있습니다.

불평할 일은 언제나 있기 마련입니다. 제대로 되지 않는 듯한 일 말입니다. 슬프고, 외롭고, 오해받거나 환영받지 못한다는 기분을 느끼며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여행은 여러분이 소망했던 것이 아니며,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보내실 때 그런 여행을 바라신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당당하고 기쁘게 나아가기 바랍니다. 물론 길이 울퉁불퉁할 때도 있고 돌아가야 할 때도 있으며 위험이 도사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장애물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여행길에서 걸음을 땀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마련해 두신 행복을 찾아보십시오. 행복은 목적지이기도 하지만, 길 자체이기도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평화를,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을 받으리라”<sup>11</sup>는 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하시는 것은 바로 그 이유에서입니다.

여러분의 여정에서 사랑의 아버지께서 마련하신 지도를 기쁘게 사용할 때, 그것은 여러분을 거룩한 곳으로 이끌어줄 것이며

여러분은 최상의 잠재력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되고 싶었던 하나님의 딸로 성장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교회의 청년 여러분, 친애하는 젊은 친구 여러분, 주님의 사도로서 저는 본향으로 가는 이 여정에서 여러분이 길을 찾고, 또 동료 여행자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람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성약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원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충실하기를 기도하며, 여러분이 그렇게 할 때 여행의 끝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뵙게 될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안아 주실 것이며, 여러분은 마침내 본향에 무사히 돌아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

### 주

1. 찰스 디킨스, *크리스마스 캐럴* 참조.
2. 제이 알 알 톨킨, *호빗* 참조.
3. 요한복음 14:6 참조.
4. 교리와 성약 68:6; 또한 이사야 41:10; 요한복음 14:18 참조.
5. 사무엘상 16:7 참조.
6. 베드로전서 5:6~7 참조.
7. 예레미야 29:13 참조.
8. 요한복음 15:12; 또한 요한복음 13:34; 모로나이서 7:45~48 참조.
9. 교리와 성약 138:56.
10. 교리와 성약 78:18; 또한 요한복음 16:33; 제3니파이 1:13 참조.
11. 교리와 성약 59:23.

# 대회 말씀을 삶에 적용합시다

다음 활동과 질문을 활용하여 가족 토론을 시작하거나 개인적으로 깊이 생각하여 연차 대회에서 전한 가르침을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아** 래에 나와 있는 쪽수는 각 말씀이 수록된 첫 쪽을 나타냅니다.

### 어린이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순종의 중요성과 불순종이 언제나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습니다.(89쪽)



여러분이 가족 규칙에 순종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규칙에 순종했던 때를 생각해 보세요. 순종했을 때 어떤 느낌이 들었나요?

-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님은 작은 씨를 심어 토마토로 가꾼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18쪽) 이 이야기를 가족과 함께 읽거나 바꾸어 말해 보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 가르치는 하나님 아버지처럼 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해 한 가지 일을 하겠다는 목표를 세울 수 있습니다.
- 칠십인인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님은 어떻게 가족을 강하게 만들 수 있는 지 이야기하셨습니다.(102쪽) 장로님은 가족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말에는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용서해 주세요.” 등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본부 초등학교 회장인 로즈메리 엠 워숄 자매님은 “네 전부를 사랑한다”라고 말하도록 제안하셨습니다.(81쪽) 이런 말을 가족에게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십시오. 그 말로 인해 가족이 행복해 집니까? 어떤 느낌이 들니까?

### 청소년

-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님은 전임

선교사뿐만 아니라 교회 회원으로서 선교 사업을 준비하기 위한 네 가지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66쪽) ‘현재 더 나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염두에 두고 그분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 십이사도 정원회의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님은 의심과 질문이 생기는 것은 괜찮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또한 그분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것들을 굳게 붙들고 더 많은 지식이 주어질 때까지 굳건하게 견디십시오. …… 여러분에게 있는 신앙에 진실하라는 것입니다.(93쪽) 일지에다 여러분의 믿음, 간증, 예전에 했던 영적인 경험들을 써 보십시오. 여러분이 품고 있었던 질문을 써보면 경전을 읽고 또 이번 호를 읽으면서 그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 많은 연사들이 순종과 그것이 주는 축복에 대해 말씀했습니다. 예를 들어



몬슨 회장님은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할 때 우리는 진리를 알게 되며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가장 중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됩니다.”(89쪽) 이번호를 살펴보면서 순종해서 받은 많은 축복을 강조해 놓거나 적어보십시오. 이러한 축복을 발견할 때 계속 의롭게 살 수 있게 됩니다.

- 몇 명의 연사는 봉사 활동에서만이 아니라 언제든지 봉사할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매일 성역을 베푸십시오.”라고 데이비드 엘 벡 형제님은 가르쳤습니다. “기회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벡 형제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는 청소년들의 모범을 읽을 수 있습니다.(55쪽)

**성인**

- 많은 연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간증했습니다. 22, 70, 96, 99, 109쪽의 말씀에서 그분의 신성한 성품, 임무,



성역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 5월호의 청소년 교과과정 주제는 선지자와 계시입니다. 교회에서 청소년들을 가르치거나 청소년인 자녀가 있다면 그들과 함께 교과과정 내용과 다음 질문에 대해 토론해 보십시오. 살아 있는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번 호를 공부하며 귀를 기울일 때 예언과 경교가 어떻게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도와줄 수 있는지

찾아보십시오.

- 몇 명의 연사가 가족을 강화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십이사도 정원회의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님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주님이 가정의 중심이 되시면, 화평과 평온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29쪽) 스코트 장로님의 말씀과 6, 81, 83, 102쪽의 말씀을 공부하면서 구주를 여러분의 가정의 중심에 두기 위한 방법을 찾아보십시오. ■



**경전으로 자녀들을 가르치십시오**

**연**차 대회에서 여러 번 인용되었거나 참조로 쓰인 다음 구절들을 공부하십시오.

사무엘상 16:7\*  
 마태복음 7:24; 28:19  
 요한복음 13:34~35; 14:6; 16:33  
 모사이야서 3:19\*; 18:8~9  
 힐라맨서 5:12\*  
 제3니파이 11:7

모로나이서 9:9  
 교리와 성약 42:22; 59:23; 64:34; 84:88;  
 87:8; 115:6

조셉 스미스—역사 1:17\*  
 \*세미나리 성구 익히기 구절

##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 색인

다음은 연차 대회에서 소개된 일화를 선별한 목록입니다. 이 내용은 개인 학습과 가정의 밤, 그리고 그 밖에 복음을 가르치는 여러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숫자는 각 말씀이 실린 첫 페이지를 나타냅니다.

연사	일화
닐 엘 앤더슨 장로	(77) 전통대신 구주를 따르기로 한 모잠비크의 부부들
엠 러셀 벨라드 장로	(18) 시든 토마토 모종을 다시 살린 7살짜리 손녀딸
데이비드 엘 벅	(55) 따돌림을 당한 청년과 친구가 되어준 아론 신권 소유자들 자신의 지부의 모든 청남을 활동화시키도록 돕는 인도 방갈로에 사는 집사
태드 알 콜리스터 장로	(52) 17살 된 조지 에프 리차즈는 어머니를 축복하면서 신권 권능에 대해 배웠다.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	(109) 디 토드 크리스토퍼슨 장로의 어머니는 도움이 필요한 한 젊은 여성이 자신의 잠재력을 실현하도록 도와주었다.
메리 앤 쿡	(118) 한 청년이 신앙을 행사함으로써 아버지의 죽음과 어머니의 암 투병을 곳곳이 이겨냈다.
쿠엔틴 엘 쿡 장로	(32) 한 힌두교 여성은 피지 수바 성전의 일반 공개에서 평화를 느꼈다.
딘 엠 데이비스 감독	(9)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 프리에타에서 발생한 지진은 딘 엠 데이비스의 마음과 머릿속에 우리의 삶을 굳건한 기반 위에 세워야 하는 중요성에 대해 다시금 확인해 주었다.
앤 엠 딘	(115) 저활동 청년이 청년 야영을 하는 동안 성신을 느꼈다.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	(62) 한 고아 소년이 130,000명이 사는 도시에서 첫 번째 교회 회원이 되었다. 미국 뉴멕시코와 뉴잉글랜드에서 봉사하는 동안 헨리 비 아이어링 회장은 자신의 왕국을 건설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목격했다.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	(102) 미국 애리조나에 사는 교회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엔리케 알 팔라벨라 장로와 그의 아내는 성전 결혼 후 과테말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다.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93) “믿기만 한” 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가 없었던 열네 살 소년의 이야기를 한 제프리 알 홀런드 장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	(66) 캐나다에 사는 한 남성은 두 전임 선교사가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 대한 강한 간증을 나누자 교회를 찾아서 들어오게 되었다. 매주 편지를 쓸 때 사랑을 나타냈던 한 전임 선교사는 아버지를 교회로 인도했다. (89) 여덟 살 된 토마스 에스 몬슨은 들판을 불로 태우고 난 후에 순종에 대해 배웠다. 헝가리에 사는 한 충실한 교회 회원은 수년간 십일조를 모았다가 자신의 가정 복음 교사에게 주었다.
리차드 지 스코트 장로	(29) 한 전임 선교사는 미래에 선교부 회장 가족을 닮은 가정을 이루고 싶었다.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	(70) 서아프리카 성도들은 집회소가 정전이 되자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복음은 한 청년이 학대 받으며 컸던 어린 시절의 암울한 기억들을 극복하게 도와주었다. (125) 디이터 에프 우흐트도르프 회장은 어린 시절에 그의 가족과 동독에서 탈출했다.

##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

**넷**째 주 일요일 멜기세덱 신권 및 상호부조회 공과 시간에는 '우리 시대를 위한 가르침'을 공부한다. 각 공과로 최근 연차 대회 말씀 중 하나 또는 그 이상을 사용하여 준비할 수 있다. (아래 표 참조) 스테이크 회장 또는 지방부 회장은 어느 말씀을 사용할 것인지 직접 선택하거나,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이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지도자들은 멜기세덱 신권 형제들과 상호부조회 자매들에게 같은 일요일에 같은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넷째 주 일요일 공과에 참석하는 사람들에게 최근 연차 대회 특집호를 공부하고 공과 시간에 가져오도록 권유한다.

### 말씀을 활용한 공과 준비 제언

말씀(들)을 공부하고 가르칠 때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기도한다. 다른 자료를 사용하여 공과를 준비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으나 대회 말씀은 승인된 교과 과정이다. 여러분의 책임은 사람들이 교회의 최근 연차 대회에서 가르침 받은 대로 복음을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도록 돕는 것이다.

말씀(들)을 공부하면서 반원들의 필요에 맞는 원리와 교리를 찾는다. 또한 그러한 진리를 가르치는 데 도움이 될 이야기, 참조 성구, 문구들을 말씀(들)에서 찾아본다.

원리와 교리를 가르칠 방법에 관해 개요를 작성한다. 개요에는 다음과 같이 반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질문들을 포함시켜야 한다.

- 말씀(들)에서 원리와 교리를 찾아보게 하는 질문
- 그 의미를 생각해 보게 하는 질문
- 깨달음, 생각, 경험, 간증을 나누게 하는 질문
- 이런 원리와 교리를 생활에 적용하게 하는 질문 ■

### 공과를 가르칠 달

2013년 4월~ 2013년 10월

2013년 10월~2014년 4월

### 넷째 주 일요일 공과 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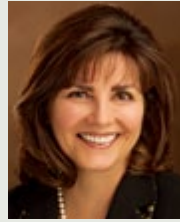
2013년 4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들

2013년 10월 연차 대회\*에서 하신 말씀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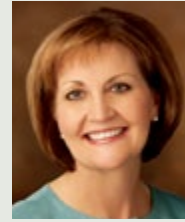
\* 4월과 10월 넷째 주 일요일 공과는 예전의 대회 혹은 가장 최근의 대회에서 말씀(들)을 선정할 수 있다. 말씀은 예서 여러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 본부 보조 조직 회장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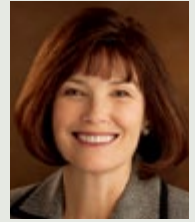
### 상호부조회



캐롤 엠 스티븐스  
제1보좌



린다 케이 버튼  
회장



린다 에스 리브즈  
제2보좌

### 청녀



캐럴 에프 맥콩키  
제1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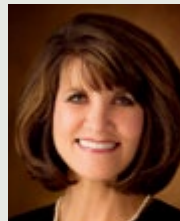


보니 엘 오스카스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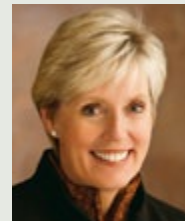


넬 에프 매리엇  
제2보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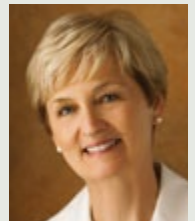
### 초등학교



진 에이 스티븐스  
제1보좌



로즈메리 엠 위کم  
회장



체럴 에이 에스플린  
제2보좌

### 청남



래리 엠 기슨  
제1보좌



데이비드 엘 벡  
회장

### 주일학교



데이비드 엠 맥콩키  
제1보좌



러셀 티 오스쿠토프  
회장



매튜 오 리차드슨  
제2보좌

## 제183차 연차 대회에서 새로운 본부 청년 회장단이 지지되다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2013년 4월 7일, 제183차 연차 대회 폐회 모임에서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주님의 영을 느끼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았으며, 이 신성한 사업에 대한 간증을 굳게 했습니다. …… 이를 동안 들은 내용을 오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4월 6일과 7일에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연차 대회의 5개 모임에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텔레비전, 위성, 라디오, 인터넷 방송을 통해 대회를 시청하거나 청취했다. 회원들은 LDS.org에서 95개 언어로 대회 생방송, 온라인 녹화 방송, 오디오, 말씀 원고에 접속할 수 있었다.

몬슨 회장은 연례 대회를 시작하면서 미국 유타 주 시더시티와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성전이 건립된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따라서 발표되었거나 건축 중에 있는 성전은 모두 29개이다. 현재 운영 중인 성전은 141개이다.

토요일 오후 모임에서는 몇몇 교회 지도자들이 바뀌었다. 본부 청년 회장단 전원이 해임되었으며, 월터 에프 곤잘레스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에서 해임되었다. 지역 칠십인 51명도 해임되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올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칠십인 회장단으로 지지되었다.

새로 지지받은 본부 청년 회장단으로는

보니 리 그린 오스카슨이 회장으로, 캐럴 폴리 맥콩기가 제1보좌로, 닐 푸트 매리엇이 제2보좌로 부름 받았다.

또한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새로운 회원으로 짐바브웨의 에드워드 듀브 장로, 미국 텍사스 주 슈거랜드의 에스 기포드 닐슨 장로, 멕시코 케레타로 주 발렌수엘라의 아들포 발렌주엘라 장로가 지지되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에도 다섯 명의 회원이 새로 지지되었다.

본부 청년 전임 회장인 일레인 에스 돌튼은 4월에 해임되기까지 11년 동안 본부 청년 회장단에서 보좌와 회장으로 봉사했다.

지지와 해임에 관한 전체 명단은 26쪽을 참조한다.



새로 부름 받은 지도자의 약력은 139쪽에서부터 실려 있다. ■

### 도움에 참여하세요

**도**마스 에스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회원들에게 일반 선교사 기금에 헌금하도록 권유했다. 2013년 4월 4일을 기준으로 봉사 중인 전임 선교사는 65,634명이며, 이외에도 부름장을 받은 선교사는 2만 명이 넘는다.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몬슨 회장은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이 선교사 인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다수의 선교사가 그다지 형편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할 수 있는 만큼 교회의 일반 선교사 기금에 후하게 헌금해 주시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원들은 십일조 및 기타 헌금 명세서에서 일반 선교사 기금 난에 헌금하려는 금액을 적어 넣음으로써 헌금할 수 있다. 회원들은 또한 온라인 Idsphilanthropies.org를 통해서도 헌금할 수 있다.



## 교회는 장년 부부 선교사의 원숙함과 경험을 필요로 하다

**선** 교사로 나가는 연령을 낮춘 결과, 젊은 선교사의 수가 늘어남에 따라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부에서 장년 부부 선교사의 수요도 크게 증가되었다. 최근에 58개의 선교부가 신설되어 성공적인 선교 사업에 매우 중요한 지도력 경험과 기타 지원을 해줄 장년 부부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하다.

2013년 4월 대회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선교사의 수가 급증했다고 말씀하며 선교 임지에서 기꺼이 주님께 봉사하려는 이들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다.(4, 66쪽 참조) 십이사도 정원회의 러셀 엠 넬슨 장로는 특히 장년 부부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격려하며 이렇게 말씀했다. “장년이 되신

부부들은 선교사로 나갈 날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봉사에 가장 크게 감사드릴 것입니다.”(45쪽 참조)

2012년 10월 연차 대회의 개회 모임에서 몬슨 회장은 이렇게 말씀했다. “우리는 계속해서 [장년] 부부 선교사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은퇴가 예정되어 있고, 여건이 되며, 건강이 괜찮다면,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십시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 함께 봉사할 때 두 사람은 더 큰 기쁨을 누릴 것입니다.”(“대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리아호나*, 2012년 11월호, 5쪽)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 해 동안 장년 부부들에게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격려해왔다.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드 장로는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 “도처에 있는 선교부에서는 더 많은 부부 선교사를 필요로 합니다. 그들은 원숙함과 경험을 겸비했기에 가장 훌륭한 선교사들 속에 포함됩니다. 그들은 각자가 지닌 특별한 기술을 통해 현지 지도자들을 효과적으로 훈련하고, 회원들을 강화하고 재활동화하며, 비회원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옵니다.”(“Missionary Couples—Trading Something Good for Something Better,” *Ensign*, June 1988, 9, 11)

선교사로 봉사하고자 하는 합당한 부부는 감독 또는 지부 회장에게 봉사하려는 소망을 알리라는 권고를 받는다. 봉사 기간은 6개월에서 23개월까지 다양하다.

장년 선교 사업에 관하여 질문이 있는 이들은 1-800-453-3860, 내선 2-6741(또는 1-801-240-6741)로 전화하거나 SeniorMissionaryServices@ldschurch.org로 이메일을 보내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다. ■

**장년 부부는 원숙함과 경험을 통해 현지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회원들을 강화하며, 비회원을 그리스도에게로 데려온다.**





## 새 온라인 도구로 가족 사진과 추억을 보존하고 공유하다

**F**amilySearch.org의 방문자들은 2013년 4월을 기준으로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알아차릴 것이다.

밝은 색상의 참신하고 마음을 끄는 사진들과 새로운 기능들이 조사를 넘어서서 다양한 경험거리를 제공한다. 여전히 계보학자와 조사자들이 이 사이트를 주로 사용하겠지만, 새로운 기능들은 더 폭넓은 방문자들의 주의를 끌게 될 것이다.

새로운 기능들은 가족 역사 조사를 넘어서서 가족 역사를 처음 하는 젊은이들을 비롯하여 나이 든 사람에 이르기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음을 잡아 끈다. 이제 방문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온라인에 자신의 가계도를 만들고 가족 사진과 이야기를 보존하고 공유할 수 있으며, 이용 수수료는 모두 무료이다.

가족 사진과 이야기는 조상들에게 삶을 불어넣는다. 연월일 이면에 있는 실제 사람들이 근면의 가치, 삶의 도전에 대처하는 법, 선택이 우리 삶에 미치는 영향, 등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줄 수 있다.

가족 역사를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더욱 쉬워짐에 따라 우리의 과거와 연결되고 미래를 위한 유산을 만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 FamilySearch.org의 새로운 기능

#### FamilySearch 패밀리 트리.

FamilySearch.org에서는 처음으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여 공통 가계도를 완전히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먼저 자신에 관한 정보를 추가한 후에 과거

세대로 확장해가면 된다.

#### 패밀리 트리 요점:

- FamilySearch.org에서 “패밀리 트리” 탭 아래에서 가계도를 찾는다.
- 패밀리 트리에는 이용자들이 제공한 9억 개 이상의 이름이 사전 입력되어 있다.
- 무료 이용이 가능하다.
- 여기에서 개인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가족 역사를 완전하게 만들고, 관리하고, 공유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가족 역사에 관해 어떤 것을 이미 찾아냈는지 알 수 있다.
- 사용자는 사진과 이야기를 쉽게 첨부하고 출처에 링크할 수 있다.
- 사용자는 미래 세대를 위해 그들의 공통 가계도를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
- 사용자는 “클릭하여 끌기” 기능으로 가계도를 쉽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다.
- 이용자들은 그들의 패밀리 트리에서 빠진 부분을 채우기 위해 FamilySearch.org 상에 있는 수십 억 개의 기록에 접속할 수 있게 된다.

**사진.** 사용자는 소중한 여기는 조상들의 사진을 보존하고, FamilySearch 패밀리 트리에 있는 그들의 약력에 첨부하며,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미 20만 개의 사진이 제공되어 보존 및 공유되고 있다.

**이야기.** 사용자는 FamilySearch 패밀리 트리에서 특정한 조상에 대해 좋아하는



이야기를 적을 수 있다. 가족들은 이 기능을 사용하여 그들의 가족 이야기를 수집하고, 공유하며, 영구히 보존할 수 있다.

**상호 작용하는 부채꼴 가계도.** 2012년에 FamilySearch에서는 개인이 다채로운 부채꼴 가계도에서 자신과 조상을 볼 수 있는 기능을 시험해 보았다. 이제 이 기능은 개선되었으며 FamilySearch.org에서 이용 가능하다.

**패밀리 트리 마법사.** 자신의 가계도를 만드는 일이 생소한 사람들에게는 이 도구가 유용할 것이다. 유쾌한 인터뷰 방식인 이 도구는 살아 있는 조상과 죽은 조상에 대해 질문한 후, 그들을 가계도로 연결시켜 가족 역사를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

**실시간 도움.** 가족 역사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FamilySearch는 하루 24시간 언제든지 전화와 인터넷 채팅으로 무료 제품 도움과 개인적인 조사 지원을 제공하는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티를 개시하였다.

**언어.** 모든 새로운 기능과 서비스는 10개 언어로 이용 가능하다. 모든 기능들에 대한 사용법을 설명하는 무료 비디오와 기타 온라인 자료도 이용 가능하다. 더 자세한 정보는 도움 버튼만 클릭하면 나온다. ■

## 가족 역사 핵심 변경 사항

**알 스코트 로이드**  
교회 소식

**치** 십인의 브래들리 디 포스터 장로는 3월 23일, 미국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열린 2013년 가족 역사 및 기술 대회에서 미래에는 수많은 가족 역사 센터가 가정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다.

가족 역사부 집행 보조 책임자인 포스터 장로는 조만간 지상의 인구가 90억이 될 것이며, 주님은 “그 모든 가족을 함께 묶고 연결할” 수 있는 기술을 준비하셨다고 말씀했다.

그는 가족 역사의 중요성과 더불어, 단순히 이름과 연월일을 찾는 계보 연구뿐 아니라 조상의 이야기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세상의 어떤 묘지이든 그 묘석에는 이름과 출생

및 사망 일자가 기입되어 있다고 그는 말했다. “출생일과 사망일 사이에 있는 대시 기호는 너무 작아서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모든 역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런 날짜들을 알아내려고 관심을 집중하지만 그 기호에 담긴 의미를 알아낼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우리 선조들에게 향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가족 역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공유하고 협력할 때 우리는 함께 뭉쳐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그러므로 계보는 우리의 가계도를 변경시키고, 가족 역사는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

#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가 106세의 일기로 생을 마치다

사라 제인 위버  
교회 소식

**19** 47년부터 1979년까지 교회 축복사로 봉사한 엘드레드 지 스미스 장로가 2013년 4월 4일에 자택에서 별세했다. 그의 나이는 106세였다.

유타에서 최고령 남성으로 여겨진 스미스 장로는 전임 총관리 역원들 중 가장 오랜 수명을 누렸다.

교회 회장인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스미스 장로의 생일인 지난 2013년 1월 9일에 그를 방문했다. “엘드레드 스미스는 좋은 친구입니다.”라고 몬슨 회장은 말했다. “우리는 함께 수 킬로미터를 여행했습니다. 저는 그를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엘드레드 지 스미스는 1947년 4월 10일에 당시 교회 회장인 조지 앨버트 스미스로부터 교회 본부 축복사로 부름 받았으며, 그 직책을 지닌 마지막 사람이 되었다. 1979년에 그에게 명예 지위가 주어졌다. 이 직분은 1833년에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부친인 조셉 스미스 일세가 이 부름을 받으면서 시작되었다. 스미스 장로는 조셉의 형인 하이럼의 현손이다.

스미스 장로는 교회 축복사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오른쪽)은 1947년부터 1979년까지 교회 본부 축복사로 봉사한 엘드레드 지 스미스의 106회 생일을 맞이하여 2013년 1월 9일에 그를 방문했다. 스미스 장로는 4월 4일에 자택에서 별세했다.

봉사하는 동안 축복사가 없는 세계 여러 지역으로 가서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다. 그는 1966년에 당시 사도였던 몬슨 장로와 함께 호주와 사모아로 가서 그 지역 회원들에게 축복사의 축복을 주었다. 감리 축복사가 사모아를 방문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다. 오늘날 대부분 스테이크에는 스테이크 지역 내에 거주하는 축복사가 있다.

몬슨 회장과 십이사도 정원회의 엠 러셀 벨라는 장로는 스미스 장로의 장례식에서 말씀했다. 몬슨 회장은 제일회장단이 보내는 조의문을 낭독한 후 “현세에서 좋은 친구 한 사람을 잃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하이럼 스미스의 또 다른 현손인 벨라드 장로는 그들의 가족 역사를 존속시킨 스미스 장로의 공헌에 대해

이야기했다. “우리는 그를 교회 축복사이자 우리 확대 가족의 원로로 기립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또한 스미스 장로가 자신의 가장 큰 업적으로 여기는 것이 그의 가족이라고 말했다.

엘드레드 스미스는 1932년에 진 오드리 네스와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다섯 자녀를 두었다. 1977년 6월에 진이 사망한 후, 그는 호텐스 차일드와 결혼했다. 당시 그녀는 본부 청년 회장단에서 보좌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2012년 5월에 작고했다.

스미스 장로의 유족에는 두 아들과 두 딸(다른 딸은 사망함), 22명의 손자 손녀(다른 두 명은 사망함), 63명의 증손자, 22명의 현손이 있다. ■

케리 아반트가 이 기사를 기고했다.



##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

칠십인 회장단

20 13년 1월부터 칠십인 회장단에서 봉사하기 시작한 울리세스 소아레스 장로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교회가 급속히 성장하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소아레스 장로는 1958년에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태어났다. 부모인 아파레스도 소아레스와 메르세데스 소아레스는 그가 다섯 살 때 교회에 들어왔다. 그들이 참석한 모임 장소는 제과점 위층에 있는 방이었다. 소아레스 장로는 자신이 여덟 살이었던 1966년에 상파울루에서 남미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어 마음이 설레었던 것을 기억한다. 브라질에서 교회는 급속히 성장하여 1990년에는 스테이크가 50개로 늘어났으며, 2000년에는 200개를 넘어섰다.

소아레스 장로는 폰티피시아 가톨릭 대학교에서 회계 및 경제학 학사 학위를 받고 국립대학원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교회 직책을 제의받을 당시에는 타이어 관련 다국적 회사에서 근무했다. 재무부에서 일하도록 고용된 그는 곧바로 상파울루 교회 지역 사무실의 실무 책임자가 되었으며, 10년 동안 지역 회장단을 지원했다. 그는 또한 브라질 상파울루 코티아 스테이크의 초대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포르투갈 포르토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으며 2005년 4월에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았다. 그는 브라질과 아프리카 남동 지역 회장단에서 봉사했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충실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에나 교회가 설립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시각은 제가 더 효과적으로 봉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소아레스 장로와 그의 부인인 로사나 페르난데스 모르가도는 1982년 10월에 브라질 상파울루 성전에서 결혼했다. 두 사람 사이에 세 명의 자녀가 있다.

소아레스 장로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했다. 그는 또한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단 보좌, 고등 평의원, 스테이크 집행 서기, 지역 복지 대표로 봉사했다. ■



## 에드워드 듀브 장로

칠십인

에드워드 듀브 장로는 1981년에 그가 일하던 집의 주인에게서 복음을 소개받았다. 그 고용주는 그에게 물몬경을 주었다. 1983년이 되어서야 물몬경을 펼쳐 읽게 된 그는 모로나이의 방문을 받았다는 조셉 스미스의 간증에 큰 감화를 받아 짐바브웨 크웨이크웨이에 있는 집회소의 금식 간증 모임에 참석하라는 초대에 응했다.

처음에는 그곳에 참석한 사람들 대다수가 사회적 지위 면에서 자신과는 주종 관계임을 알고서 마음이 불편했다.

그는 그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이 물몬경에 대한 간증을 나누자 제가 그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물몬경에 대한 저의 느낌도 나눌 수 있었죠.”

그는 나중에 선교사 토론을 받아들여 침례를 받고, 결국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에서 봉사했다.

그 시기에 그는 당시 16세인 나우메 케레시아 살라자니의 가족을 가르쳤다. 선교 사업을 마친 후에도 계속 아는 사이로 지낸 두 사람은 1989년 12월 9일에 크웨이크웨이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1992년 5월에 남아프리카 요하네스버그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딸 셋과 아들 하나가 있다.

1962년 5월에 짐바브웨 키루만주 촌락에서 클레멘트 듀브와 로즈메리 듀브 사이에 태어난 듀브 장로는 1992년에 짐바브웨 디이 대학에서 교육학 수료증을 받고 교회 교육 기구에서 일하며 짐바브웨, 잠비아, 말라위에 세미나리와 종교 교육원을 설립했다. 그는 자신에게서 졸업 증서를 받은 수많은 학생들이 교회가 성장하는 그들 나라에서 교회 지도자로 봉사하는 모습을 보는 축복을 받았다.

그는 장로 정원회 회장, 지부 회장, 지방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선교부 회장단 보좌, 그리고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짐바브웨 하라레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했다.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는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에스 기포드 닐슨 장로

칠십인

**스**탠리 기포드 닐슨 장로는 운동경기에 열성적이지만 스포츠가 자신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다. 그는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며 복음은 현재와 영원한 세상에서 행복을 누리는 토대라고 믿는다.

1954년 10월에 해리 닐슨과 로이스 닐슨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유타 주 프로보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줄곧 그곳에서 생활했다. 그의 부모는 그에게 복음 중심의 가치관을 가르쳤으며, 그것은 그의 삶에 지침이 되었다.

큰 부상을 입고서 대학 미식축구 선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그는 그런 상처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앗아가지는 못했음을 깨달았다고 말했다.

상처가 아문 후에 미국 미식축구 리그에서 쿼터백으로 활약했지만 3년 후에 그의 선수 생활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는 공개적으로 조롱을 당했다. 자기 반성을 하며 자신이 진실로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할 때가 된 것이었다. 이제 텍사스 주 슈거랜드에 사는 닐슨 장로는 “어떤 경우에도 구주께서는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배웠어요.”라고 말했다.

그가 자신의 삶에서 따르려고 애쓰는 성구가 있다면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4~16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팔을 벌리고 계십니다.”라고 닐슨 장로는 말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방법은 복음대로 생활하는 것이죠.”

그는 대학 시절에 웬디 울슨을 만났다. 두 사람은 1975년 4월 23일에 유타 프로보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통신 분야의 학위를 받았다. 교회에서 온전히 봉사하도록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휴스턴 오일러스의 쿼터백과 KHOU 텔레비전의 스포츠 담당자로 일했다.

여섯 자녀를 둔 닐슨 장로는 세미나리 교사, 청남 회장, 장로 정원회 회장, 감독, 스테이크 회장으로 봉사했다. 그는 칠십인 제일 정원회로 부름 받을 당시에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



## 아눌포 발렌주엘라 장로

칠십인

**아**눌포 발렌주엘라 장로는 멕시코 치와와의 물몬 거류지에서 성장했으며, 교회 소유의 후아레스 학교를 졸업했다. 그는 어린 시절을 그곳에서 보내면서 복음에 헌신적이고 주님께 봉사하는 충실한 남성들과 여성들로부터 훌륭한 가르침을 얻게 되었다.

라틴 아메리카에 있는 교회의 그 유명한 장소에서 배운 교훈은 그가 칠십인 제일 정원회의 회원이라는 임무를 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적으로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이 부름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1959년 5월에 길베르토 발렌주엘라와 로사 발렌주엘라 사이에서 태어난 아눌포는 어린 나이에 교회 봉사에 마음이 끌렸다. 그는 19세에 멕시코 베라크루스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아들였다. 그림 같은 그 멕시코 지역에서 그는 매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한 만족감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나아오도록 권유하는 기쁨을 실감했다.

그는 선교 사업을 마친 직후에 자신에게서 침례를 받은 후 멕시코시티로 이사온 한 가족을 방문했다. 그 가족의 이웃에 사는 필라 포라스는 교회의 충실한 개종자였다. 아눌포와 필라는 친구가 되었고, 이내 데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1982년 당시에는 그 나라에 성전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4월 6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은 세 자녀를 키웠으며, 교회에서 계속 봉사하는 가운데 멕시코에 성전이 하나씩 건축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멕시코에 12개의 성전이 있고 하나는 건축 중인데, 결코 상상도 못한 일입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발렌주엘라 장로는 감독,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선교부 회장단 보좌,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면서 무수히 많은 멕시코 회원들이 주님의 대업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기꺼이 바치려 하는 놀라운 신앙심을 나타내는 것을 목격했다.

멕시코시티 대학교에서 회계 및 경영학을 공부한 발렌주엘라 장로는 여러 국제 기업에서 다양한 관리직에 종사했다. ■



## 티모시 제이 다익스 장로

칠십인

**티** 모시 존 다익스 장로가 인생에서 즐겁게 수행하는 역할 중 하나는 “증인이 되어”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그들이 그리스도께로 나아오도록 돕는 것이다. 선교사로 봉사하는 것이든, 가족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든, 직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든 그는 행복하게 그 역할과 책임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하도록 돕는다.

그는 1951년에 미국 유타 주 머리에서 밀로 프레드릭 다익스와 메리 캐서린 다익스 사이에서 일곱 자녀 중 둘째로 태어났다. 그가 어린 집사였을 때 그의 가족은 네바다 주 엘코로 이사했으며, 그곳에서 그는 방과 후에 부친의 약국에서 일하며 시간을 보냈다. 아버지 옆에서 일하는 동안 부친은 그에게 근면의 중요성을 가르쳤으며, 그 가르침은 그가 1970년부터 1972년까지 독일 남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때 유용하게 쓰였다.

“선교 사업을 하기에 힘든 지역이었지만 저에게는 아주 훌륭한 선교 사업이었습니다.”라고 그는 말했다. “저는 근면과 순종, 포기하지 않는 것의 가치를 알게 되었어요.”

그런 노동 윤리는 그가 선교 사업을 마치고 학업과 직업, 교회 임무를 수행할 때도 계속 이어졌다. 다익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를 다니면서 미래의 아내가 될 질 더들리를 만났다. 두 사람은 1974년 4월 26일에 유타 맨타이 성전에서 결혼했다. 그들 사이에 자녀는 세 명이다.

다익스 장로는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대학 과정 학사 학위를 받은 후 워싱턴 의과대학에서 의학 학위를 받았다. 그는 네바다 주 리노에서 이비인후과를 개업하여 의사로 일했다.

다익스 장로는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을 당시에 청남 조직에서 집사 정원회 고문으로 봉사하고 있었다. 그는 지역 칠십인, 오리건 포틀랜드 선교부 회장, 스테이크 회장, 스테이크 회장단 보좌, 고등평의원, 성전 의식 봉사자, 주일학교 회장, 와드 서기를 포함하여 다른 여러 부름에서 봉사했다. ■



## 랜디 디 핑크 장로

칠십인

**칠** 십인 제이 정원회의 랜디 데니스 핑크 장로는 “주님과 그분의 선하심을 믿으라”는 중요한 원리를 늘 기억하며 생활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 3학년 시절, 그의 아내는 둘째 아이를 임신했으며 그는 법학 전문 학술지의 부편집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장로 정원회 회장으로 봉사하라는 부름이 왔다. “그 힘든 시기에 저는 부름을 받아들였고 하나님 아버지께 효과적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저의 약한 부분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부름을 수행하고, 학업을 잘 마치고, 취업을 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을 받았습시다. 저는 그 일을 겪으면서 진심으로 그분을 섬기고자 애쓰는 사람에게 축복을 부어주시는 주님의 선하심에 대해 큰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1952년에 시 데니스 핑크와 레베카 핑크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 유타 주 맨타이, 위스콘신 주 매디슨, 유타 주 스미스필드에서 성장했다. 그는 부친이 교회에서 충실하게 봉사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신권 의무를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배웠다.

인도네시아에서 선교사로 봉사한 그는 1976년 5월 29일에 유타 로건 성전에서 안드레아 클라이드와 결혼했다. 그들은 여섯 자녀를 두었다. 핑크 장로는 유타 주립대학교에서 역사학 학위를 그리고 유타 대학교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2010년에 인도 방갈로르 선교부 회장으로 부름 받아 온전히 교회 봉사를 시작하기 전에 콜로라도 주 덴버에서 큰 규모의 법률사무소를 공동으로 경영했다.

“우리는 인도로 가면서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정식으로 추천하여 권세를 부여하고 네 형제 십이사도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파송하는 자는 너희가 그들을 보내는 어느 나라에든지 나의 왕국의 문을 여는 권능을 가지리니’(교리와 성약 112:21)” 핑크 장로는 장로 정원회 회장, 청남 회장, 감독, 스테이크 회장,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케빈 에스 해밀턴 장로

칠십인

**케**빈 스코트 해밀턴 장로는 자신을 “개종과 구조의 소산”으로 묘사한다.

그가 1955년 3월에 미국 워싱턴 주 웨나치에서 태어나자 그의 모친 케이는 인생의 의미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그녀는 후기 성도 친구인 리차드 프랫과 이야기했고, 그는 그녀에게 선교사들을 소개해 주었다.

그녀의 남편인 노먼 러셀 해밀턴은 자신이 십대 초반 때부터 이미 교회 회원이었지만 활동이 저조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아내가 교회에 가입하자 그는 다시 교회 활동을 하게 되었다.

“부도님은 아주 대단한 회원이었어요. 지금 우리가 지닌 신앙은 부모님이 심어주셨기 때문이죠.” 하고 해밀턴 장로는 말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인생이 바뀐 것은 프랑스와 스위스로 선교 사업을 나갔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제 안에서 결코 사그라지지 않는 불타는 소망이 있었어요.”라고 그는 말했다.

그는 1978년 7월 27일에 로스앤젤레스 성전에서 자신과 생각이 비슷한 클로디아 케이스와 결혼했다. 그들은 캘리포니아에서 여섯 자녀를 키우면서 가정 방문자 센터와 같은 곳으로 만들었다.

“사람들은 우리가 가정에서 무언의 설교를 한다고 말해요. 집 사방에 작은 인용 말씀들이 있거든요.” 하고 해밀턴 자매가 말했다. 그들은 집 입구에 물문경, 청소년들의 힘을 위하여 소책자, 기타 교회 서적들을 구비해두고서 방문객들이 그것들을 가져갈 때마다 정기적으로 다시 채워 놓는다.

해밀턴 장로는 봉사하겠다는 결심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 스테이크 회장, 그리고 2003년에서 2006년까지 네덜란드 벨기에 브뤼셀 선교부 회장으로 봉사할 기회를 갖게 되었다.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기 전에 그는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에 있는 64개의 스테이크로 구성된, 남 캘리포니아 교회 홍보 평의회 책임자 직을 맡고 있었다.

그는 경영학으로 브리검 영 대학교에서 학사 학위를, 그리고 워싱턴 대학교에서는 석사 학위를 받았으며, 대부분 통신 업계에서 종사하며 수 차례 최고경영자로 지냈다. ■



##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

칠십인

**에**이드리언 오초아 장로는 멕시코에서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하는 동안 치와와 시에서 스테이크 회장 및 다른 이들과 협의를 하며 며칠을 보낸 후, 집으로 향하는 비행기에 탑승했다. 하지만 좌석을 찾아 앉은 후, 치와와에서 자신의 임무가 끝나지 않았다는 강력한 영의 속삭임을 받았다.

승무원들은 이륙을 위해 마지막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비행기에서 내려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라고 오초아 장로는 말했다. 그래서 그는 비행기에서 내렸다. 연이은 접견을 통해 중요한 정보가 나오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까다로운 문제가 해결되고 한 가족이 영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그러나 치와와에서 오초아 장로의 일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는 영에 이끌려 수년간 본 적이 없는 사촌의 초라한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그는 소원해진 사촌이 교회에 나가지 않는 상태이고 그녀의 가족은 몹시 궁핍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알게 되었다. “저는 그들의 해결책이 교회와 그리스도께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촌에게 교회로 돌아오라고 간청했죠.”라고 그는 말했다.

사촌은 다시 활동 회원으로 돌아왔고, 소중한 가족 관계도 회복되었다. 한 사람이 영의 속삭임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주님은 치와와에서 여러 명의 삶을 구조하실 수 있었다.

모든 사람은 삶을 바꾸는 그런 영적 속삭임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오초아 장로는 간증했다. 그는 광고업에 종사하면서 다양한 교회 부름으로 봉사했다. 그는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온두라스 산페드로술라 선교부를 감리했으며, 2009년부터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부름 받을 때까지는 본부 청남 회장단 제2보좌로 봉사했다.

1954년 3월에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에서 에두아르도 오초아와 콘수엘로 오초아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캘리포니아와 멕시코 두 곳에서 성장했다. 청년 시절에 그는 멕시코에서 특별 홍보 선교사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다. 그와 부인 낸시 빌랄레알은 멕시코시티 성전에서 인봉되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섯 명의 자녀가 있다. ■





## 테렌스 엠 빈슨 장로

칠십인

**칠**십인 제이 정원회로 갓 부름을 받은 테렌스 엠 빈슨 장로는 1970년 초반에 호주 시드니에서 케이 앤 카든을 만나기 전에는 물론이란 말을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다. 두 사람은 종교에 관해 이야기했으며, 결국 합의에 이르렀다. 그들은 매주 일요일에 테렌스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인 작은 지부 양쪽에 다녀보기로 한 것이다. 한쪽은 크고 아름다운 건물에서 모임을 했고, 다른 한쪽은 세를 낸 작은 공간에서 몇 안 되는 후기 성도가 모여 있었다.

하지만 한동안 “그 당황스러운 비교”를 한 후에 테렌스는 선교사 토론을 받기 시작했다. 그에게는 질문이 많았다. 그런데,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하는 동안 그는 말로 표현된 것만큼이나 또렷한 메시지를 느꼈다. “저는 발전하기 위해 교회에 가입할 필요가 있었어요. 제 질문에 대한 답을 모두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라고 그는 말했다.

그 다음 주에 그는 침례를 받았다.

테렌스 마이클 빈슨은 1951년 3월에 호주 시드니에서 존 로렌스 빈슨과 메이 테레즈 에이 빈슨 사이에서 태어났다. 소방관으로 일했던 그의 부친은 일곱 자녀를 교육시키기 위해 희생했다.

빈슨 장로는 시드니 대학교에서 수학 및 통계학 학사 학위를 그리고 시드니 사범 대학에서 교사 자격증을 받았다. 그는 또한 디킨 대학교에서 재무설계학 수료증을, 그리고 맥쿼리 대학교에서 금융공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그는 유명한 수학 교사, 강사, 재무 상담사였으며 재무 설계 및 투자 회사를 지도했다.

그는 자신에게 복음을 소개해준 케이 앤과 1974년 5월 2일에 시드니에서 결혼했으며, 두 사람은 1975년 8월 23일에 뉴질랜드 해밀턴 성전에서 결혼하여 여섯 자녀를 두었다. 빈슨 장로는 침례를 받고 3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감독 부름을 받았다. 그는 몇몇 스테이크 회장단에서, 그리고 지역 대표와 지역 칠십인으로 봉사했다. ■



## 보니 엘 오스카슨

본부 청녀 회장

**보**니 리 그린 오스카슨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스웨덴 스톡홀름 성전의 메이트론으로 봉사하면서 스웨덴, 노르웨이, 라트비아의 후기 성도들이 주님의 집에서 예배하기 위해 헌신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그녀는 자신이 “매우 겸손하고 대단히 헌신적인” 이 회원들에게서 배우는 교훈이 교회 본부 청녀 회장 임무에 초점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

“이제 수많은 청녀들이 더 어린 나이에 선교사로 봉사하고 성전에 참석하기를 선택하고 있으므로, 제가 성전에서 일한 경험이 그들을 준비시키는 방법을 아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보니 리 그린은 1950년 10월에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테오 제임스 그린과 진 에스 그린 사이에서 태어났다. 그녀의 부모는 자녀들이 유타 지역 밖에서 교회 경험을 해보기를 원했기 때문에 보니가 아홉 살 때 그녀의 가족은 미국 오클라호마 주로 이사갔다. 그 가족은 또한 콜로라도 주와 테네시 주에서도 시간을 보낸 후 미주리 주로 이사하였으며, 그곳에서 보니는 성전 부지인 미주리 주 파웨스트에서 폴 켄트 오스카슨을 만났다. 두 사람의 조상은 모두 파웨스트 지역에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성전 부지는 매우 의미 있는 곳이었다.

그들은 브리검 영 대학교에 입학한 후, 1969년 12월 19일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하여 일곱 자녀를 낳았다.

1965년부터 1968년까지 스웨덴 선교부에서 전임 선교사로 봉사한 남편이 스웨덴 예테보리 선교부를 감리하도록 부름 받았을 때 오스카슨 자매는 스물다섯 살에 불과했다.

미국으로 돌아온 오스카슨 부부는 미주리, 뉴저지, 매사추세츠, 텍사스 주에서 살았으며, 오스카슨 형제는 한 백화점의 지역 부사장으로 일했다. 오스카슨 자매는 자신의 부모처럼 교회 회원이 적은 지역에서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얻는 큰 기쁨을 알게 되었다.

오스카슨 자매는 세 차례 청녀 회장, 9년간 새벽반 세미나리 교사, 그리고 복음 교리반 교사로 봉사했다. ■



## 캐럴 에프 맥콩키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

**캐**럴 폴리 맥콩키는 어린 시절부터 “성전을 동경”했다. 성전에 대한 그 초점은 평생 그녀의 행동을 좌우했다.

1952년 4월에 미국 워싱턴 주 스포캔에서 윌리엄스 폴리와 조앤 더블유 폴리 사이에서 태어난 맥콩키 자매가 걸음마를 배우던 시기에 선교사들이 텔라웨어 주 월밍턴에 있는 부모님 집의 문을 두드리 자신의 가족에게 복음을 소개했다. 그녀의 부모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 가르침을 빠르게 받아들여 생활 방식을 바꾸었다.

그녀는 어린 시절에 가족과 함께 기차를 타고 국토를 가로질러 유타 맨타이 성전으로 가서 가족 인봉을 받았다.

“정말로 유쾌한 경험이었어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훗날 차림을 한 것과 그것이 우리 가족에게 무얼 의미했는지가 떠올라요. 정말 훌륭한 경험이었고, 제가 아주 어리긴 했지만 그날 받은 느낌과 하얀 빛깔, 아름다움이 기억납니다. 저는 그 경험을 하면서 처음으로 성전을 제 삶에서 늘 간직하겠다고 소망하게 되었죠.”

성전은 그녀가 역경을 겪는 시기에 그리고 자신의 가족을 이루는 동안에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그녀는 애리조나 주립대학교에 다니면서 남편인 오스카 윌터 맥콩키 삼세를 만났다. 맥콩키 자매는 영어교육 학사 학위를 받았다. 두 사람은 1973년 12월 22일에 애리조나 메사 성전에서 결혼하여 일곱 자녀를 두었다.

맥콩키 자매는 본부 청년 회장단 제1보좌로 부름 받을 시기에 본부 청년 위원회에서 봉사하고 있었다. 그녀는 교사, 워드 청년 회장, 워드 상호부조회 보좌, 초동회 회장단 등의 부름으로 교회 봉사를 해왔다. 그리고 남편이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캘리포니아 산호세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남편과 함께 봉사했다. ■



## 넬 에프 매리엇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

**넬** 푸트 매리엇은 교회에 가입하기 전인 어린 소녀 시절부터 하나님께서 계시며 그분은 자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배웠다.

“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의 본보기였어요.”라고 본부 청년 회장단 제2보좌로 부름 받은 그녀가 말했다. “아버지는 타인에 대한 사랑과 수용력이 무한한 분이었죠. 제가 지상의 아버지에게 대해 품은 사랑과 신뢰가 하나님 아버지에게 대한 사랑과 신뢰로 옮겨가는 것은 순전하고도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어요.”

그녀는 1947년 10월에 미국 루이지애나 주 알렉산드리아에서 조지 푸트와 앤토니아 푸트 사이에서 유일한 딸로 태어났으며, 남동생만 여섯 명이 있다. 텍사스 주 델러스에 있는 남부 감리교 대학교에서 영문학과 중등교육 학위를 받고 졸업한 그녀는 매사추세츠 주 캠브리지로 이사갔으며, 그곳에 있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비서로 일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데이비드 캐넌 매리엇을 만났으며, 그는 그녀에게 “너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라고 말했다. 그는 곧 선교사들을 데리고 와서 그녀와 그녀의 룸메이트들을 가르치게 했다.

그녀는 선교사들의 토론을 들은 것에 대해 “그 가르침은 제가 복음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것 중 빠진 부분을 채워 주었어요.”라고 말했다. 그녀가 1970년 5월에 침례를 받은 후에도 데이비드와는 친구 관계로 남아 있었다. 일 년이 지난 후 그들은 데이트를 시작했고 1971년 6월에 솔트레이크 성전에서 결혼했다.

남편이 사업체를 경영하는 동안 그녀는 가정에서 지내며 남편의 도움을 받아 열한 명의 자녀를 키웠다. 그들은 다수의 교회 부름으로 봉사했다. 그녀는 남편이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상파울루 인테트라고스 선교부를 감리하는 동안 그와 함께 봉사했으며, 이외에도 솔트레이크 성전 의식 봉사자, 스테이크 및 워드 상호부조회 회장, 워드 청년 회장, 복음 교리반 교사, 식품 비축 전문가로 봉사했다.

새로운 임무를 받은 매리엇 자매는 자신이 젊은 시절에 얻은 간증을 나누기를 소망한다. 그녀는 청년들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을 가장 깊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랑으로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기를 소망한다. ■



© Brady Fairbanks, 복서금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브래디 페어뱅크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 된 사람을 보신지라 ……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

대답하되 ……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요한복음 9:1, 6~7, 25)



“우리는 세계 역사상 어려운 도전이 많은 시대를 살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훌륭한 기회와 기쁨할 이유가 있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라고 제183차 교회 연차 대회 마지막 모임에서 토마스 에스 몬슨 회장은 말씀했다. 물론 살면서 실망과 번민, 비극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처해 있더라도 헤쳐 나가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후기성도교회